

발간등록번호	11-1383000-000150-01
연구보고	2011-16

2011년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동향분석

— 2010년 신상정보등록대상자를 중심으로 —



2011. 8



여성가족부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2011년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동향분석

— 2010년 신상정보등록대상자를 중심으로 —



여성가족부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발간등록번호	11-1383000-000150-01
연구번호	2011-16

2011년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동향분석

– 2010년 신상정보등록대상자를 중심으로 –

2011. 8

연구기관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책임자 : 김지선(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자 : 홍영오(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본 보고서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여성가족부의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수행한 연구의 결과입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여성가족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혀둡니다.

차례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5
1. 연구목적 및 의의	15
2. 분석방법 및 내용	16
가. 분석대상 및 방법	16
나. 보고서의 구성	20
제2장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특성	22
1. 2010년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의 개요	22
2.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특성	25
가. 사회인구학적 특성	25
나. 범죄경력	32
3. 피해 아동·청소년의 특성	36
가. 사회인구학적 특성	36
나. 범죄자와의 관계	40
4.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범행특성	42
가.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의 범행특성	42
나. 아동·청소년대상 성매매알선/강요범죄의 범행특성	62
5.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처분 결과	66
가. 처분죄명 및 경합범 처리	66
나. 선고형의 종류와 형량	68
다.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77

제3장 13세미만 아동대상 성폭력범죄의 특성 79

1. 13세미만 아동대상 성폭력 범죄자의 특성	79
가. 사회인구학적 특성	79
나. 범죄경력	84
2. 피해 아동의 특성	87
가. 사회인구학적 특성	87
나. 범죄자와의 관계	88
3. 13세미만 아동대상 성폭력범죄의 범행특성	90
가. 범행의 다중성 및 지속성	90
나. 범행발생장소 및 시간	92
다. 범행당시 범죄자 및 피해자의 상태	96
라. 범행방법	98
4. 13세미만 아동대상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처분 결과	106
가. 처분죄명 및 경합범 처리	106
나. 선고형의 종류와 형량	108
다.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116

제4장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범죄의 특성 117

1.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 범죄자의 특성	117
가. 사회인구학적 특성	117
나. 범죄경력	122
2. 피해 아동·청소년의 특성	125
가. 사회인구학적 특성	125
나. 범죄자와의 관계	127
3.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범죄의 범행특성	129
가. 범행의 다중성 및 지속성	129

나. 범행발생장소 및 시간	130
다. 범행당시 범죄자 및 피해자의 상태	135
라. 범행방법	136
4. 친족관계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처분 결과	145
가. 처분죄명 및 경합범 처리	145
나. 선고형의 종류와 형량	147
다.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154
제5장 미성년범죄자에 의한 성폭력범죄의 특성	155
1. 미성년범죄자의 특성	155
가. 사회인구학적 특성	155
나. 범죄경력	159
2. 피해 아동·청소년의 특성	162
가. 사회인구학적 특성	162
나. 범죄자와의 관계	164
3. 미성년범죄자에 의한 성폭력범죄의 범행특성	166
가. 범행의 다중성 및 지속성	166
나. 범행발생장소 및 시간	167
다. 범행당시 범죄자 및 피해자의 상태	172
라. 범행방법	174
4. 미성년범죄자에 대한 처분 결과	183
가. 처분죄명 및 경합범 처리	183
나. 선고형의 종류와 형량	185
다.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192

제6장 요약 및 결론	193
1. 주요결과의 요약	193
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특성	193
나. 13세미만 아동대상 성폭력범죄의 특성	201
다.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범죄의 특성	205
라. 미성년범죄자에 의한 성폭력범죄의 특성	208
2. 시사점 및 정책제언	211
가. 아동대상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치료프로그램의 강화	211
나.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관리	211
다.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점검 강화	213
라. 아동 생활주변에 대한 인적·물리적 감시체계의 강화	213
마. 지적장애 아동·청소년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216
바. 성폭력범죄자 연구를 위한 연구지원강화	216

표 차례

<표 1-1> 분석항목	18
<표 2-1> 범죄유형별 신상정보등록대상자 분포	22
<표 2-2> 범죄유형별 피해자의 연령구분(아동/청소년구분)	23
<표 2-3> 범죄유형별 친족관계여부	24
<표 2-4> 범죄유형별 범죄자의 연령구분(미성년/성인)	24
<표 2-5> 범죄유형별 범죄자의 성	25
<표 2-6> 범죄유형별 범죄자의 국적	26
<표 2-7> 범죄유형별 범죄자의 연령	27
<표 2-8> 범죄유형별 범죄자의 평균 연령	27
<표 2-9> 범죄유형별 범죄자의 직업	28
<표 2-10> 범죄유형별 청소년 보호직종여부	29
<표 2-11> 범죄유형별 범죄자의 거주 지역	30
<표 2-12> 범죄유형별 범죄자 지적장애여부	31
<표 2-13> 범죄유형별 범죄자 정신과 감정 및 치료여부	31
<표 2-14> 범죄유형별 범행시 형사처분 집행 중이었던지의 여부	32
<표 2-15> 범죄유형별 범죄경력유무 및 유형	34
<표 2-16> 범죄유형별 동종범죄경력 횟수	35
<표 2-17> 범죄유형별 동종범죄경력의 구체적인 죄명	36
<표 2-18> 범죄유형별 피해 아동·청소년의 성별	37
<표 2-19> 범죄유형별 피해 아동·청소년의 연령	37
<표 2-20> 범죄유형별 피해 아동·청소년의 평균연령	38
<표 2-21> 피해자의 성별 평균 연령	38
<표 2-22> 범죄유형별 피해 아동·청소년의 장애여부	39
<표 2-23> 범죄유형별 피해 아동·청소년의 피해당시 가출여부	39
<표 2-24> 범죄유형별 피해자와 범죄자의 관계	41

<표 2-25> 범죄유형별 피해 아동·청소년의 수	43
<표 2-26> 범죄유형별 다수피해자의 동일사건 피해자 여부	43
<표 2-27> 범죄유형별 다수피해자의 연령구성	44
<표 2-28> 범죄유형별 범행의 지속성	45
<표 2-29> 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별 범행지속여부	45
<표 2-30> 범죄유형별 범행지역	46
<표 2-31> 범죄유형별 범행지역과 범죄자거주지역의 동일 여부	47
<표 2-32> 범죄유형별 범행장소1(옥내·외 구분)	47
<표 2-33> 범죄유형별 범행발생장소	48
<표 2-34> 범죄유형별 범행발생계절	50
<표 2-35> 범죄유형별 범행발생시간	51
<표 2-36> 범죄유형별 범행당시 범죄자의 음주상태	52
<표 2-37> 범죄유형별 범행당시 범죄자의 약물복용여부	52
<표 2-38> 범죄유형별 피해당시 피해자 음주여부	53
<표 2-39> 범죄유형별 공범여부, 공범자수, 가담정도	54
<표 2-40> 범죄유형별 범죄자의 주거침입여부	55
<표 2-41> 범죄유형별 범행당시 흉기사용여부 및 종류와 사전준비 여부	56
<표 2-42> 범죄유형별 피해자를 범행 장소로 데려간 방법	57
<표 2-43> 범죄유형별 강제 및 강압방법	58
<표 2-44> 강제추행의 유형	59
<표 2-45> 강간유형 및 기수여부	60
<표 2-46> 범죄유형별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의 내용	60
<표 2-47> 범죄유형별 극도의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61
<표 2-48> 범죄유형별 성폭력범죄의 피해결과	62
<표 2-49> 성매매알선/강요범죄의 범행발생지역	63
<표 2-50> 범죄유형별 성매매 업소 유형	64
<표 2-51> 범죄유형별 성매매 발생장소	64
<표 2-52> 성매매강요의 구체적인 내용 및 다른 범죄의 발생여부	65
<표 2-53> 성매매알선범죄의 구체적인 내용	66
<표 2-54> 처분죄명	67

<표 2-55> 범죄유형별 경합범 처리여부	68
<표 2-56> 범죄유형별 1심 선고형의 종류	69
<표 2-57> 범죄유형별 1심 유기징역의 형량	71
<표 2-58> 범죄유형별 1심 유기징역 및 집행유예 평균 형량	71
<표 2-59> 범죄유형별 1심 전자발찌 부착명령 여부	72
<표 2-60> 전자발찌 부착명령여부별 1심 선고형의 종류	73
<표 2-61> 범죄유형별 평균 전자발찌 부착기간	73
<표 2-62> 범죄유형별 항소여부 및 그 결과	74
<표 2-63> 범죄유형별 상고여부	75
<표 2-64> 범죄유형별 최종심 선고형의 종류	76
<표 2-65> 범죄유형별 최종심 유기징역형 평균형량	77
<표 2-66> 범죄유형별 신상공개여부	78
<표 3-1> 피해자연령별 범죄자 성	79
<표 3-2> 피해자연령별 범죄자의 국적	80
<표 3-3> 피해자연령별 범죄자의 연령	80
<표 3-4> 피해자연령별 범죄자의 직업	81
<표 3-5> 피해자연령별 청소년 보호직종여부	82
<표 3-6> 피해자연령별 범죄자의 거주 지역	82
<표 3-7> 피해자연령별 지적장애여부	83
<표 3-8> 피해자연령별 범죄자 정신과 감정 및 치료여부	83
<표 3-9> 피해자연령별 범행시 형사처분 집행 중이었던지의 여부	84
<표 3-10> 피해자연령별 범죄경력유무 및 유형	85
<표 3-11> 피해자연령별 동종범죄경력 횟수	85
<표 3-12> 피해자연령별 이종범죄경력 횟수	86
<표 3-13> 피해자연령별 범죄자의 역할	86
<표 3-14> 피해자연령별 피해 아동·청소년의 성별	87
<표 3-15> 피해자연령별 피해 아동·청소년의 연령	87
<표 3-16> 피해자연령별 피해 아동·청소년의 장애여부	88
<표 3-17> 피해자연령별 피해 아동·청소년의 피해당시 가출여부	88
<표 3-18> 피해자연령별 피해자와 범죄자 관계	89

<표 3-19> 피해자연령별 피해 아동·청소년의 수	91
<표 3-20> 피해자연령별 범행의 지속성	91
<표 3-21> 피해자연령별 범행지역	92
<표 3-22> 피해자연령별 범행장소1(옥내·외 구분)	93
<표 3-23> 피해자연령별 범행발생장소	94
<표 3-24> 피해자연령별 범행지역과 범죄자거주지역의 동일 여부	95
<표 3-25> 피해자연령별 범행발생계절	95
<표 3-26> 피해자연령별 범행발생시간	96
<표 3-27> 피해자연령별 범행당시 범죄자의 음주상태	97
<표 3-28> 피해자연령별 범행당시 범죄자의 약물복용여부	97
<표 3-29> 피해자연령별 피해당시 피해자 음주여부	98
<표 3-30> 피해자연령별 공범여부, 공범자수, 가담정도	98
<표 3-31> 피해자연령별 범죄자의 주거침입여부	99
<표 3-32> 피해자연령별 범행당시 흉기사용여부 및 종류와 사전준비 여부	100
<표 3-33> 피해자연령별 피해자를 범행 장소로 데려간 방법	101
<표 3-34> 피해자연령별 강제 및 강압방법	102
<표 3-35> 피해자연령별 강제추행의 유형	102
<표 3-36> 피해자연령별 강간유형 및 기수여부	103
<표 3-37> 피해자연령별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의 내용	104
<표 3-38> 피해자연령별 극도의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105
<표 3-39> 피해자연령별 성폭력범죄의 피해결과	105
<표 3-40> 피해자연령별 처분죄명	106
<표 3-41> 피해자연령별 경합범 처리여부	108
<표 3-42> 피해자연령별 1심 선고형의 종류	109
<표 3-43> 피해자연령별 1심 유기징역의 형량	110
<표 3-44> 피해자연령별 1심 집행유예의 형량	110
<표 3-45> 피해자연령별 1심 유기징역 및 집행유예 평균형량	111
<표 3-46> 피해자연령별 1심 전자발찌 부착명령 여부	111
<표 3-47> 피해자연령별 전자발찌 부착기간	112
<표 3-48> 피해자연령별 전자발찌 부착명령여부별 1심 선고형의 종류	112

<표 3-49> 피해자연령별 평균 전자발찌 부착기간	113
<표 3-50> 피해자연령별 항소여부 및 그 결과	113
<표 3-51> 피해자연령별 상고여부	114
<표 3-52> 피해자연령별 최종심 선고형의 종류	115
<표 3-53> 피해자연령 및 범죄유형별 최종심 유기징역형 평균형량	116
<표 3-54> 피해자연령별 신상공개여부	116
<표 4-1> 피해자와 범죄자관계별 범죄자의 성	117
<표 4-2> 피해자와 범죄자관계별 범죄자의 국적	118
<표 4-3> 피해자와 범죄자관계별 범죄자의 연령	118
<표 4-4> 피해자와 범죄자관계별 범죄자의 평균 연령	119
<표 4-5> 피해자와 범죄자관계별 범죄자의 직업	119
<표 4-6> 피해자와 범죄자관계별 청소년 보호직종여부	120
<표 4-7> 피해자와 범죄자관계별 범죄자 거주 지역	120
<표 4-8> 피해자와 범죄자관계별 범죄자 지적장애여부	121
<표 4-9> 피해자와 범죄자관계별 범죄자 정신과 감정 및 치료여부	122
<표 4-10> 피해자와 범죄자관계별 범행시 형사처분 집행 중이었던지의 여부	122
<표 4-11> 피해자와 범죄자관계별 범죄경력유무 및 유형	123
<표 4-12> 피해자와 범죄자관계별 동종범죄경력 횟수	124
<표 4-13> 피해자와 범죄자 관계별 이종범죄경력 횟수	124
<표 4-14> 피해자와 범죄자관계별 범죄자의 역할	125
<표 4-15> 피해자와 범죄자관계별 피해 아동·청소년의 성별	125
<표 4-16> 피해자와 범죄자관계별 피해 아동·청소년의 연령	126
<표 4-17> 피해자와 범죄자관계별 피해 아동·청소년의 평균 연령	126
<표 4-18> 피해자와 범죄자관계별 피해 아동·청소년의 장애여부	127
<표 4-19> 피해자와 범죄자관계별 피해 아동·청소년의 피해당시 가출여부	127
<표 4-20> 피해자와 범죄자관계별 피해자와 범죄자의 관계	128
<표 4-21> 피해자와 범죄자관계별 피해 아동·청소년의 수	129
<표 4-22> 피해자와 범죄자관계별 범행의 지속성	130
<표 4-23> 피해자와 범죄자관계별 범행지역	130
<표 4-24> 피해자와 범죄자관계별 범행장소1(옥내·외 구분)	131

<표 4-25> 피해자와 범죄자관계별 범행발생장소	132
<표 4-26> 피해자와 범죄자관계별 범행발생계절	134
<표 4-27> 피해자와 범죄자관계별 범행발생시간	134
<표 4-28> 피해자와 범죄자관계별 범행당시 범죄자의 음주상태	135
<표 4-29> 피해자와 범죄자관계별 범행당시 범죄자의 약물복용여부	136
<표 4-30> 피해자와 범죄자관계별 피해당시 피해자 음주여부	136
<표 4-31> 피해자와 범죄자관계별 공범여부, 공범자수, 가담정도	137
<표 4-32> 피해자와 범죄자관계별 범죄자의 주거침입여부	138
<표 4-33> 피해자와 범죄자관계별 범행당시 흉기사용여부 및 종류와 사전준비 여부	139
<표 4-34> 피해자와 범죄자관계별 피해자를 범행 장소로 데려간 방법	139
<표 4-35> 피해자와 범죄자관계별 강제 및 강압방법	140
<표 4-36> 피해자와 범죄자관계별 강제추행의 유형	141
<표 4-37> 피해자와 범죄자관계별 강간유형 및 기수여부	142
<표 4-38>> 피해자와 범죄자관계별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의 내용	143
<표 4-39> 피해자와 범죄자관계별 극도의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144
<표 4-40> 피해자와 범죄자관계별 성폭력범죄의 피해결과	144
<표 4-41> 피해자와 범죄자관계별 처분죄명	145
<표 4-42> 피해자와 범죄자관계별 경합범 처리여부	146
<표 4-43> 피해자와 범죄자관계별 1심 선고형의 종류	147
<표 4-44> 피해자와 범죄자관계별 1심 유기징역의 형량	148
<표 4-45> 피해자와 범죄자관계별 1심 집행유예의 형량	149
<표 4-46> 피해자와 범죄자관계별 1심 유기징역 및 집행유예 형량	150
<표 4-47> 피해자와 범죄자관계별 1심 전자발찌 부착명령 여부	150
<표 4-48> 피해자와 범죄자관계별 전자발찌 부착명령여부별 1심 선고형의 종류	151
<표 4-49> 피해자와 범죄자관계별 평균 전자발찌 부착기간	151
<표 4-50> 피해자와 범죄자관계별 항소여부 및 그 결과	152
<표 4-51> 피해자와 범죄자의관계별 상고여부	152
<표 4-52> 피해자와 범죄자관계별 최종심 선고형의 종류	153

<표 4-53> 피해자와 범죄자관계별 최종심 유기징역형 평균형량	154
<표 4-54> 피해자와 범죄자관계별 신상공개여부	154
<표 5-1> 범죄자연령별 범죄자의 성	155
<표 5-2> 범죄자연령별 범죄자의 국적	156
<표 5-3> 범죄자연령별 범죄자의 직업	156
<표 5-4> 범죄자연령별 청소년 보호직종여부	157
<표 5-5> 범죄자연령별 범죄자 거주 지역	157
<표 5-6> 범죄자연령별 범죄자 지적장애여부	158
<표 5-7> 범죄자연령별 범죄자 정신과 감정 및 치료여부	159
<표 5-8> 범죄자연령별 범행시 형사처분 집행 중이었던지의 여부	159
<표 5-9> 범죄자연령별 범죄경력유무 및 유형	160
<표 5-10> 범죄자연령별 동종범죄경력 횟수	161
<표 5-11> 범죄자연령별 이종범죄경력 횟수	161
<표 5-12> 범죄자연령별 범죄자의 역할	162
<표 5-13> 범죄자연령별 피해 아동·청소년의 성별	162
<표 5-14> 범죄자연령별 피해 아동·청소년의 연령	163
<표 5-15> 범죄자연령별 피해 아동·청소년의 평균연령	163
<표 5-16> 범죄자연령별 피해 아동·청소년의 장애여부	164
<표 5-17> 범죄자연령별 피해 아동·청소년의 피해당시 가출여부	164
<표 5-18> 범죄자연령별 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	165
<표 5-19> 범죄자연령별 피해 아동·청소년의 수	166
<표 5-20> 범죄자연령별 범행의 지속성	167
<표 5-21> 범죄자연령별 범행지역	167
<표 5-22> 범죄자연령별 범행장소1(옥내·외 구분)	168
<표 5-23> 범죄자연령별 범행발생장소	169
<표 5-24> 범죄자연령별 범행지역과 범죄자거주지역의 동일 여부	171
<표 5-25> 범죄자연령별 범행발생계절	171
<표 5-26> 범죄자연령별 범행발생시간	172
<표 5-27> 범죄자연령별 범행당시 범죄자의 음주상태	173
<표 5-28> 범죄자연령별 범행당시 범죄자의 약물복용여부	173

<표 5-29> 범죄자연령별 피해당시 피해자 음주여부	174
<표 5-30> 범죄자연령별 공범여부, 공범자수, 가담정도	174
<표 5-31> 범죄자연령별 범죄자의 주거침입여부	175
<표 5-32> 범죄자연령별 범행당시 흉기사용여부 및 종류와 사전준비 여부	176
<표 5-33> 범죄자연령별 피해자를 범행 장소로 데려간 방법	177
<표 5-34> 범죄자연령별 강제 및 강압방법	178
<표 5-35> 범죄자연령별 강제추행의 유형	179
<표 5-36> 범죄자연령별 강간유형 및 기수여부	180
<표 5-37> 범죄자연령별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의 내용	181
<표 5-38> 범죄자연령별 극도의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181
<표 5-39> 범죄자연령별 성폭력범죄의 피해결과	182
<표 5-40> 범죄자연령별 처분죄명	183
<표 5-41> 범죄자연령별 경합범 처리여부	185
<표 5-42> 범죄자연령별 1심 선고형의 종류	185
<표 5-43> 범죄자연령별 1심 유기징역의 형량	187
<표 5-44> 범죄자연령별 1심 집행유예의 형량	187
<표 5-45> 범죄자연령별 1심 유기징역 및 집행유예 평균 형량	188
<표 5-46> 범죄자연령별 1심 전자발찌 부착명령 여부	188
<표 5-47> 범죄자연령별 전자발찌 부착명령여부별 1심 선고형의 종류	189
<표 5-48> 범죄자연령별 평균 전자발찌 부착기간	189
<표 5-49> 범죄자연령별 항소여부 및 그 결과	190
<표 5-50> 범죄자연령별 상고여부	191
<표 5-51> 범죄자연령별 최종심 선고형의 종류	191
<표 5-52> 범죄자연령별 최종심 유기징역형 평균형량	192
<표 5-53> 범죄자연령별 신상공개여부	192

국문요약

1. 연구목적 및 대상

본 연구의 목적은 2010년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신상정보등록대상자(아동·청소년 대상 강간, 강제추행, 매매행위, 강요행위, 알선영업행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범죄자 전원과 아동·청소년대상 성매수 범죄자 중 동죄로 2회 이상 유죄 판결을 받거나 대상 청소년이 13세미만인 범죄자)가 된 범죄자 1,005명에 대한 판결문을 분석함으로써 이 기간 동안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실태에 관한 실증적이고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다.

2. 분석내용

구체적인 분석항목은 아래의 표와 같다.

대분류		소분류	기존 조사	본 조사
범죄자 관련 사항	사회인구학적 특성	성	○	○
		국적	○	○
		연령	○	○
		직업	○	○
		청소년 보호직종 여부	○	○
		거주지역	○	○
		정신장애여부		○
		정신과 감정 및 치료여부		○
	범죄경력	범행시 형사처분 집행 중이었던지의 여부		○
		범죄경력유무 및 유형	○	○
		동종범죄경력 횟수	○	○
		동종범죄경력의 구체적인 죄명	○	○
	처분결과	처분죄명	○	○
		경합여부	○	○

<표 계속>

2 2011년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동향분석 - 신상정보등록대상자를 중심으로 -

대분류		소분류	기존 조사	본 조사
		1심, 2심, 3심 선고형의 종류	○	○
		1심, 2심, 3심 징역형량	○	○
		1심, 2심, 3심 집행유예형량		○
		1심, 2심, 3심 벌금액수		○
		1심, 2심, 3심 전자발찌 부착명령여부 및 기간		○
		항소 및 상고여부	○	○
		신상공개여부		○
피해자 관련 사항	사회인구학적 특성	성	○	○
		연령/평균연령	○	○
		장애여부	○	○
		피해당시 가출여부	○	○
	관계	범죄자와의 관계	○	○
범행 관련 사항	범행의 다중성 및 지속성	피해 아동·청소년의 수		○
		동일사건 피해자여부		○
		다수 피해자의 경우 피해자 연령별 유형		○
		동일피해 아동·청소년 범행회수 및 기간	○	○
	범행발생장소 및 시간	범행지역	○	○
		범행지역과 가해자 거주지역의 동일여부		○
		범행발생장소	○	○
		범행발생계절	○	○
		범행발생시간	○	○
	범행시 가해자와 피해자의 상태 (강간/강제추행)	범행시 가해자의 음주여부	○	○
		범행시 가해자의 약물복용여부		○
		피해당시 피해자의 음주여부	○	○
	공범관계 (강간/강제추행)	공범여부	○	○
		공범자 수	○	○
		공범시 가해자의 가담정도	○	○
	범행방법 (강간/강제추행)	가해자의 주거침입여부		○
		주거침입방법		○
		흥기사용여부 및 종류		○
		흥기의 사전준비 여부		○
		피해자를 범행장소로 데려간 방법	○	○
		강제 및 강압방법	○	○

<표 계속>

대분류	소분류	기존 조사	본 조사
	강제추행의 유형	◎	◎
	강간유형 및 기수여부		◎
	가학적, 변태적 침해행위의 내용		◎
	극도의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의 내용		◎
	피해결과 (강간/강제추행)	◎	◎
	성매매알선 /강요의 범행내용	◎	◎
	성매매 영업형태/성매매 발생장소	◎	◎
	성매매 강요내용		◎
	성매매 강요시 다른 범죄의 발생여부 및 내용		◎
	성매매 알선범죄의 구체적인 내용		◎

3. 2010년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의 개요

2010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로 신상정보등록대상이 된 범죄자는 1,005명이며, 피해 아동·청소년은 범죄자보다 다소 더 많은 1,316명이다. 범죄자 수보다 피해 아동·청소년의 수가 더 많은 것은 범죄자가 2명 이상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힌 사건이 전체 범죄의 34.7%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범죄자를 기준으로 범죄유형별 분포를 보면, 강제추행이 51.3%(516건)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이 강간 43.7%(439건), 성매매알선 3.2%(32건), 성매매 강요 1.2%(12건), 성매수 0.6%(6건)의 순이었다. 성매수 범죄자는 6명에 불과하여 통계 분석을 실시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하에서는 성매수 범죄자 6명을 제외한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 강제추행, 강요행위, 알선영업행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범죄자 999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분석하였다.

한편, 전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중 아동(13세미만)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39.0%(391건)였으며, 친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17.2%(169건)였고, 미성년자에 의한 성범죄는 11.7%(118건)였다.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와 미성년자에 의한 성범죄의 비율은 2009년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다.

4.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특성

가. 사회인구학적 특성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99.1%(990명)가 남성이었고, 평균연령은 37.44세였다. 범죄유형별로는 강제추행범죄자의 평균연령이 43.59세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강간범죄자 31.16세였으며, 성매매알선/강요범죄자는 28.23세로 평균연령이 가장 낮았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6.3%가 청소년보호직종 종사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강제추행범죄자 중 청소년보호직종 종사자는 54명(10.5%)으로 강간범죄(6명, 1.4%)에 비해 약 9배 정도 더 높아 보다 실효성있는 취업제한제도의 시행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4.2%(40명)가 지적장애자이고, 6.1%(58명)가 과거에 병원에서 정신감정을 받거나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적장애자 및 정신과 병력자의 비율은 강간범죄보다는 강제추행범죄에서,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보다는 아동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나. 범죄경력

강간범죄자의 6.2%, 강제추행범죄자의 3.3%, 성매매알선/강요범죄자의 4.5%가 본건 이전에 저지른 범죄로 형사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집행하는 중에 본건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간의 경우 다른 범죄유형에 비해 형사처분 집행 중(보호관찰이나 집행유예 중)에 본 범죄를 저지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이들 범죄자에 대한 보다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전체 성범죄자의 25.5%가 1회 이상의 범죄경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08년의 44.1%, 2009년의 46.1%에 비해 약 20% 포인트 정도 감소한 수치이다. 1회 이상의 범죄경력이 있는 범죄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범죄는 강간범죄였고(28.2%), 그 다음이 강제추행범죄(25.4%)였다.

전체 범죄자의 13.1%가 과거에 성범죄경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경력이 있는 사람 중 65.6%가 1회의 동종범죄경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3회 이상의 동종범죄경력을 갖고 있는 범죄자가 13.7%로 이는 2009년에 비해 약 2배 정도 증가하였다.

동종범죄경력이 있는 경우 그 피해대상이 아동·청소년(42.7%)인 경우보다는 성인(57.29%)인 경우가 더 많았다. 그러나 범죄유형별로 살펴보면, 강제추행(48.6%)의 경우에는 강간(35.4%)에 비해 과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경력자 수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강간에 비해 강제추행은 죄질이나 피해 결과면에서 덜 심각한 범죄로 분류되지만, 범죄자의 성향면에서는 상습성이 훨씬 더 높고, 고착형 혹은 소아기호증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는 점을 보여준다.

5.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처분 결과

강간범죄자의 71.3%, 강제추행범죄자의 45.7%, 성매매알선/강요범죄자의 31.8%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평균 징역형량은 강간 64.47개월, 강제추행 32.32개월, 성매매알선/강요 29.71개월로, 강간의 평균형량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은 강제추행, 성매매알선/강요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평균형량이 가장 높은 강간의 경우에는 표준편차가 커 강간범죄자간 형량이 큰 차이를 보인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강간범죄자의 19.4%, 강제추행범죄자의 15.3%가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자보다는 13세미만 아동대상 성폭력범죄자가, 비친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자보다는 친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자가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딸이나 의붓딸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게 전자발찌 부착을 선고하는 것이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는 재고가 필요하다.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범죄자 중 87.2%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나 전자발찌 부착이 형기 만료(징역형이나 치료감호) 후 고위험범죄자에 대한 지역사회내 감시감독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체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68.3%가 항소하였고, 특히 강간범죄의 항소비율이 81.5%로 가장 높았다. 항소사건 중 38.8%만이 2심으로 진행되었다. 2심으로 간 사건 중 25.2%가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신상정보등록대상이 된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의 53.6%가 공개명령(열람명령포함)을 받아 정보통신망을 통해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개명령자의 비율은 강제추행이 65.3%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강간(45.3%)이었고, 성매매알선/강요의 경우 공개명령을 받은 범죄자는 한명도 없었다.

6. 피해 아동·청소년의 특성

여자 아동·청소년이 95.96%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피해자의 평균연령은 13.02세였다. 범죄유형별로 평균연령을 살펴보면, 강간 피해자 14.57세, 강제추행 피해자 11.51세, 성매매알선/강요 피해자가 15.82세로 강제추행 피해자의 평균연령이 가장 낮고, 성매매알선/강요 피해자의 평균연령이 가장 높았다. 남자 피해 아동·청소년의 평균연령은 11.53세, 여자 피해 아동·청소년의 평균연령은 13.03세로 남자 피해 아동·청소년의 평균연령이 더 낮았다. 강제추행의 경우 다른 범죄유형에 비해 범죄자의 연령은 가장 높고, 피해자의 연령은 가장 낮아 범죄자와 피해자간 연령차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피해 아동·청소년의 4.0%(52명)가 장애인이었으며, 장애가 있는 경우는 대부분 지적장애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제추행에 비해 강간 피해 아동·청소년의 장애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강간 피해자(50.1%)가 강제추행 피해자(40.4%)보다 면식범에게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및 친족관계가 전체의 20.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친부와 의부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는 강간의 경우 가정 내에서 발생하여 범행이 은폐되어 장기간 지속되는 특성을 갖는 친족관계에 의한 범죄비율이 강제추행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기 때문이다. 한편, 피해자가 아동인 경우 청소년에 비해 낯선 사람에게 피해를 당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7.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의 범행 특성

가. 범행의 다중성 및 지속성

강제추행의 경우 강간에 비해 2명 이상의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피해를 입힌 비율이 더 높고, 다수의 피해자 모두가 13세미만 아동으로 구성된 비율도 62.5%로 강간범죄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범죄경력에서와 마찬가지로 강제추행범죄자는 아동에 대한 특별한 성적 기호가 있음을 다시 한 번 보여준다.

한편, 강간의 경우에는 동일한 피해자에 대해 범행을 1회 이상 저지른 경우가 27.6%였고, 6개월 이상 지속되는 비율이 14.9%였다. 성폭력범죄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전혀

모르는 관계의 83.5%가 범행이 1회로 끝났으나, 가해자와 피해자가 아는 관계의 45.5%, 가족 및 친척관계인 경우에는 80.0%가 범행이 1회 이상 지속된 것으로 나타나, 면식범이고 친밀도가 높아질수록 범행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피해자가 아동인 경우 청소년에 비해 1회 이상 범행이 지속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나. 범행발생장소 및 시간

전체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의 47.3%가 범행발생지역과 가해자가 거주하는 지역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 가해자가 피해대상 자신의 거주지역 주변에서 선택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2011년부터 시행되는 주민고지제도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강간의 경우 81.2%가 옥내에서 발생한 반면에,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56.1%만이 옥내에서 발생하였다. 구체적인 장소를 보면, 강간은 집(가해자의 집, 피해자의 집, 공동거주지 등)에서 발생하는 비율이 54.3%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공공기관 및 상업지역(25.9%), 야외·거리·산야·대중교통시설(6.0%) 등의 순이었다. 강제추행은 강간과 마찬가지로 집에서 발생하는 비율이 가장 높기는 하였으나 그 수치는 상대적으로 낮아 33.8%였으며, 그 다음이 야외·거리·산야·대중교통시설 등(17.2%), 공공기관 및 상업지역(14.2%), 주택가 및 이면도로(10.6%), 자동차안(6.0%) 등의 순이었다.

강간의 59.7%가 자정부터 아침 8시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강제추행의 56.5%가 오후 3시에서 밤 11시 사이에 발생하였다.

다. 범행방법

주거침입, 피해자가 수면상태이거나 만취상태, 피해자와 가해자가 공동거주에서 사는 경우 등 범행을 위해서 피해자를 은밀한 장소로 데려갈 필요가 없는 경우가 전체의 약 60%정도를 차지하였다. 나머지 40%에서 피해 아동·청소년을 범행 장소로 데려간 방법을 살펴보면, 폭력이나 완력 등과 같은 물리력을 이용해서 범행 장소로 데려가기 보다는 사칭 및 위장, 금품, 놀이 등으로 통해서 범행 장소로 유인한 경우가 훨씬 더 많았다.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의 13.7%에서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가 발생하였고, 구강성교 강요가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침해행위였으며, 그 다음이 항문강간, 피해자결박, 음부이물질 삽입 등의 순이었다. 강간보다는 강제추행의 경우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가 발생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강제추행범죄자가 신체적인 발달이 제대로 되지 않은 아동을 범행대상으로 선택하는 경향이 있어 성기삽입을 대체하는 유형의 가학적, 변태적 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고, 남자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의 경우 현행법상 강제추행범죄로 처벌되기 때문이다.

극도의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는 이보다 작은 5.6%의 사건에서 발생하였고, 범행과정을 촬영한 경우가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였다.

8. 청소년대상 성매매알선/강요범죄의 범행 특성

영업형태로는 단란주점(25.0%)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이 티켓다방(22.6%), 인터넷알선(21.4%), 보도방(13.1%)의 순이었다. 2009년의 자료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알선이 38.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나 2010년 자료에서는 그 비율이 약 15%정도 낮아졌고, 다시 티켓다방의 비율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실제적인 발생실태를 반영한다기보다는 이 기간 동안 형사사법기관의 단속이 티켓다방에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성매매강요범죄로 처분 받은 경우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하거나 위계나 선불금, 그 밖의 채무를 이용하여 곤경에 빠뜨려 청소년을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는 경우는 5건에 불과하였고, 대부분은 영업으로 청소년을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경우(70.6%, 12건)였다. 성매매알선범죄의 경우에도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 권유 또는 강요한 경우(73.9%, 51건)가 대부분이었다.

9. 미성년자에 의한 성폭력범죄의 특성

미성년범죄자에 의한 성폭력범죄는 비행청소년들이나 가출청소년들이 또래의 여자 청소년들과 어울려 술을 마신 후 숙박업소, 가해청소년의 집이나 친구의 집에서 한명

혹은 여러 명의 여자청소년에 대해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전형적이며, 이러한 범죄 유형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미성년범죄자의 경우 현재 성인범죄자에게 활용하고 있는 신상공개제도와 전자발찌 부착 등의 사후관리체계로부터 제외되어 있어 이들 성범죄자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10. 시사점 및 정책제언

가. 아동대상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치료프로그램의 강화

2010년 자료분석결과 전체 성폭력범죄자 중 범죄경력자의 비율과 동종범죄경력자의 비율은 2009년에 비해 감소하였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3회 이상의 동종범죄경력자의 비율이 증가하였고, 이러한 경향은 13세미만 아동대상 성폭력범죄자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아동대상 성폭력범죄자는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자에 비해 3회 이상의 동종범죄경력자의 비율이 더 높고, 이전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력자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13세미만 아동대상 성범죄자가 아동에 대한 성적 지향이 다른 유형의 범죄자보다 더 높으며, 소아성기호증의 증세를 보이는 범죄자가 다른 범죄유형에 비해 많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경향은 본 건에서 13세미만 아동대상 성폭력범죄자가 10명 중 4명 정도는 2명 이상의 아동·청소년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사실에서도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가 의미하는 것은 아동에 대한 성적인 지향이 분명한 성폭력범죄자에게 교도소 구금형이나 보호관찰 등의 일상적이고 전형적인 처분을 통해서 이들의 재범 가능성을 통제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들은 처벌보다는 아동지향적인 일탈적인 성적 관심을 효과적으로 중재하는 다양한 치료를 필요로 하는 대상이라 할 수 있다. 현재와 같은 처벌이나 사후통제위주의 성폭력범죄자 재범억제정책에서 벗어나 대상자의 욕구와 특성에 적합한 다양한 치료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나. 주민고지제도의 철저한 시행

가출청소년이 피해를 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피해 아동·청소년들은 집

을 중심으로 하여 그들의 생활반경 내에서 범죄피해를 당하게 된다. 즉, 범죄피해지역과 일상생활공간이 거의 일치한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 범행지역과 범죄자의 거주지역과의 동일성 여부를 분석한 결과, 성폭력범죄 10건 중 5건은 범죄자가 거주하는 동과 범죄가 발생하는 동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자들이 자신들이 거주하는 지역(동)내에서 피해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2010년 4월 15일 법개정으로 2011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주민고지제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지역주민들에게 같은 동네에 성폭력범죄자가 살고 있다는 점을 알려줌으로써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성폭력범죄자의 잦은 이사 등으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관리상의 복잡한 업무로 인해 제때에 고지가 안 되는 경우 자칫 제도의 효과를 낮출 수 있으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다. 취업제한제도의 철저한 시행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자 중 청소년보호직종 종사자의 비율이 6.3%로 2009년에 비해 2.5% 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제추행이나 13세미만 아동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청소년보호직종 종사자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는 청소년보호직종 종사자 중 4명은 이미 동종범죄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06년부터 시행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자의 취업제한제도는 청소년관련기관이 직원채용 시 성범죄자에 대한 조회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운영상의 허점이 많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 시설이 학교 학원이나 아동복지시설뿐만 아니라 관리사무소, 개인과의 교습자로까지 확대된 상황에서 자율적으로 기관장으로 하여금 직원채용 시 성범죄자에 대한 조회를 하도록 요구하는 것보다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대상으로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성범죄 범죄경력자 취업사실 확인을 정례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라.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점검 강화

청소년 성매수의 수단으로 인터넷이 활용되고 있다는 점은 공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인터넷을 통한 성인 남성과 여자 아동·청소년과의 만남은 단지 청소년의 자발성을 기초로 하는 성매수 범죄에 그치지 않고, 강간범죄 혹은 성매매강요범죄로 나아가기도 한다. 본 보고서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아동·청소년대상 강간범죄의 17.2%가 인터넷을 통한 즉석만남을 통해 범행당시 처음 만난 사람에 의해서, 그리고 5.0%가 인터넷 채팅을 통해 한 두 번 만난 사람에 의해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매매알선 및 강요범죄의 경우에도 13.2%가 즉석만남을 통해 범행당시 처음 만난 사람에 의해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불건전만남 유도, 성매매 알선 등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화상채팅 및 애인대행 사이트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아동·청소년대상 강간범죄의 21.2%가 숙박업소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주로 가출한 남녀 청소년들이 어울려 음주를 한 후 숙박업소 등에서 한명이나 다수의 여자청소년을 집단강간하는 성폭력사건의 상당수가 숙박업소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끼리 숙박업소에 들어가는 경우에도 별 제재 없이 숙박이 가능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남녀 청소년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특수강간죄의 경우 기본적으로 이들 청소년의 학교부적응의 문제와 같은 요인이나 가출청소년에 대한 적절한 대책의 부재와 같은 좀 더 구조적인 요인이 자리 잡고 있으나 단기적으로는 숙박업소에서 미성년자여부를 확인하는 출입자에 대한 신분증 확인 제도를 더욱 강력히 집행하고, 이를 어겼을 경우 벌금 혹은 강력한 법적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도 상당한 예방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 아동지킴이 집 운영 내실화

13세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범죄유형은 강제추행이며, 범죄가 주로 일어나는 시간은 초등학교 중 아동들이 가장 많이 활동하는 오후 3시에서 8시 사이이다(전체의 약 54%). 또한 13세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의 발생장소를 보면, 아동들이 주로 활동하는 생활공간인 아파트 내 계단, 엘리베이터나 놀이터, 골목이나 대로, 혹은 학교 및 학교주변, 공원, 운동장 등에서 많이 발생한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아동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장소를 중심으로 인적, 물리적 감시체계를 작동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인적인 감시체계의 측면을 살펴보면, 초등학교령기의 자녀에 대해 보호자가 계속 동행하여 보호 감시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기존에 이미 제도화되어 있는 “아동지킴이집”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통해 운영을 현실화·효율화시켜 지역사회내 인적 감시능력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 “아동지킴이집”을 지정한 후 지구대의 정기적인 방문과 관리를 통해 활동이 제대로 되지 않는 곳은 등록을 취소하고, 새로운 곳을 등록해야 하며, 지킴이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체계적인 교육사업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현재 학교 교문을 중심으로 등록되어 있는 “아동지킴이 집”을 아동대상 성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동네주변, 학원가주변, 골목, 상가 등으로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

바. 아동 생활주변 환경에 CPTED 원리의 적용

아동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장소 중심의 예방책으로서 주택단지 및 학교주변에 자연감시, 접근통제, 영역성 강화, 환경정비 및 유지 등과 같은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Crime Prevention Thorough Environment Design)’의 기본원리를 적용하여 설계하고 운영함으로써 본 연구결과에서 드러난 범죄발생이 많은 장소가 아동에 대한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곳이 될수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CPTED란 적정한 환경설계와 기존 환경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 범죄와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줄임으로써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하는 범죄예방전략 중의 하나이다. 기존의 범죄예방전략과는 달리 CPTED는 범죄발생가능성이 많은 공간적·지역적 특성을 가진 장소에 대한 적절한 개선과 관리를 통해 범죄예방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CPTED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범죄를 야기하는 공간적, 환경적 요인들이 어떻게 그리고 어떤 조건하에서 상호작용하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아동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을 위해 CPTED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고전환 및 연구방법의 전환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이전의 아동대상 성폭력범죄에 관련된 대책들은 범죄자 특성과 범행동기를 분석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범죄자의 치료나 사후관리대책을 마련하는데 집중되어 있었다. 그러나 범죄의 발생은 잠재적인 범죄자의 존재뿐만 아니라 범죄의 목표물이 되는 피해자 그리고 감시의 부족과 같은 세 가지 요인이 특정 시간과 공간에서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다.

따라서 범죄자에 대한 연구와 이를 토대로 한 대책제시뿐 아니라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가 발생했던 공간들에 대한 현장연구를 통해 그러한 범죄발생에 취약한 공간(공동주택 건축물의 구조, 도로, 공원, 엘리베이터, 공중화장실, 놀이터, 학원 및 학교)의 미시적 특성들을 찾아내고, 이러한 생활공간들에 대한 안전기준과 표준을 개발하고, 새로운 건축물이나 도로 설계시 이를 반영하거나 기존의 건축물이나 도로에 대한 추가적인 설치나 관리방식에 관한 공간중심적 범죄예방전략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예로는 학교라는 공간에 CPTED의 기본원리를 적용하여 안전성을 평가하고, 취약한 부분에 대한 대처전략을 마련하는 것이다.

사. 지적장애 아동·청소년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최근 피해 아동·청소년 중 지적장애자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신체장애가 있는 경우보다는 지적 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이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특히, 강간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지적 장애자의 경우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자는 보호자의 보호감독없이 혼자 행동하는 경우가 많으나 적절한 상황인지능력이 없어 성폭력범죄의 목표가 되는 경우가 신체장애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 지적 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는 성폭력이 발생하는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주위에 알리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아 숨겨진 범죄가 많고, 장기간 지속되며, 임신 등을 통해 너무 늦게 주위에 알려져 피해결과가 심각해지는 경우가 많다.

특히, 지적장애를 가진 아동·청소년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피해대상이 되기 쉬운 특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인 및 연구자 그리고 정책입안자의 관심대상으로부터 벗어나 있었던 것이 현실이다. 앞으로 이들 피해자에게 관심을 갖고, 지적장애를 가진 아동·청소년이 성폭력에 노출되지 않도록 이들뿐만 아니라 보호자에 대한 성폭력예방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크다.

아. 성폭력범죄자 연구를 위한 연구지원강화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치우프로그램의 성패를 가로 짓는 중요한 열쇠는 재범위험성에 대한 평가라고 할 수 있다. 재범위험성의 평가를 위해서는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인구통계학적인 특성뿐 아니라 심리적 및 사회적 특성, 그리고 성폭력 범죄유형별 범죄

14 2011년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동향분석 - 신상정보등록대상자를 중심으로 -

적 특성 등 다면적인 분석을 요구한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기초연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관련 자료에 대한 연구자들의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한 분석연구는 제1차 신상공개대상자로부터 시작해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2008년부터는 범죄경력조회표가 제공되지 않아 판결문만으로 범죄경력을 가늠할 수밖에 없어 범죄경력의 구체적인 내용, 범죄경력 횟수, 처분결과, 초범시 연령 등 중요정보를 얻을 수 없었다. 이러한 현실에서는 정확한 재범위험성 평가를 위한 다면적인 기초분석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경찰청 등 관련부처들의 협의를 통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들의 특성을 분석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연구자들에게 풍부하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제1장 서론

1. 연구목적 및 의의

우리 사회에서 발생되고 있는 다양한 범죄 가운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국민들의 막대한 분노와 불안을 동시에 불러일으키는 범죄이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유괴, 납치에서 성범죄, 살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지만, 특히 성범죄는 아직 도덕적, 성적 가치관이 형성되기 이전인 아동·청소년 피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이나 친구, 이웃 등 주변 사람들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막대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정부에서는 2000년부터 「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하였다. 이 법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 아동·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절차를 마련하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의 하나로 정부는 술한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이후 아동·청소년대상 강제추행 및 성매수범죄자 중 저위험군을 대상으로 하는 재범방지교육의 실시,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취업제한제도의 도입, 신상공개제도를 보완 개선한 ‘신상정보 등록·열람제도’의 도입에 이어 신상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공개명령제도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펼치고 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이러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들은 2003년 이후 지속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실태분석결과를 기초자료로 하여 도출된 것들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대책이 갖는 문제점을 점검하고 그 대책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 및 성매수 범죄의 특성과 원인, 여러 가지 보호조치를 필요로 하는 청소년 피해자의 특성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실태분석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문제가 되는 사회적 현상에 대한 대책의 수립은 정확하고 체계적인 실태파악에 기초해야한다는 원론적인 측면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실태조사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2003년 이후 매년 실시되었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추세와 동향분석 작업의 일환으로 수행되었다. 이 연구의 목적은 2010년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된 범죄자의 판결문을 분석함으로써 이 기간 동안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실태에 관한 실증적이고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는데 있다.

이러한 분석 작업을 통해서 첫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처우 및 재범방지대책을 모색하고, 다른 한편으로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우리 사회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한 종합적 대처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둘째, 일반국민들에게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현황 및 심각성과 이러한 범죄의 예방의 중요성을 인식시킬 뿐 아니라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제도적 장치와 사회적 안전망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확보하여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적 차원의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2. 분석방법 및 내용

가. 분석대상 및 방법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본 보고서의 분석대상은 “2010년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된 범죄자”이다. 여기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란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제작 배포 등(음란물 단순 소지는 제외), 아동·청소년 매매행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알선 영업행위 등, 2)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 강도강간 등, 특수강간 등,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장애인에 대한 간음 등, 13세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강간 등 상해치상죄, 강간 등 살인치사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3) 아동·청소년에 대한 「형법」상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강간 등 상해치상, 강간 등 살인치사,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

한 간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및 추행, 강도강간죄, 4) 아동·청소년에 대한 「아동복지법」상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와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리고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공개명령¹⁾이 확정된 자이며, 다만, 청소년대상 성매수죄에 대해서는 동죄로 2회 이상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이거나 대상청소년이 13세미만인 경우에 한한다.

따라서 본 보고서의 분석대상은 2010년에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 강제추행, 매매 행위, 강요행위, 알선영업행위²⁾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범죄자 전원과 아동·청소년대상 성매수 범죄자 중 동죄로 2회 이상 유죄 판결을 받거나 대상 청소년이 13세미만인 범죄자이다.

자료취합결과 아동·청소년대상 성매수 범죄자로 2회 이상 유죄 판결을 받거나 대상 청소년이 13세미만이어서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된 성매수 범죄자는 6명에 불과하였다. 이에 따라 주된 자료분석은 이들 성매수 범죄자 6명을 제외하고 2010년에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 강제추행, 강요행위, 알선영업행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범죄자 999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의 특성 및 범죄사건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 이들 대상자들에 대한 법원의 “판결문”을 분석하였다.

판결문을 분석하기 위해서 기록조사표를 작성하였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확정하였다. 먼저 그간 청소년보호위원회(이후 청소년위원회, 보건복지가족부, 여성가족부)에서 발간된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보고서를 검토하여 기록조사표에 들어갈 기본적인 항목들을 추출하였다. 다음으로 연구자들 간의 토론 및 자문을 통

1) 2010년 1월 1일부터는 기존의 열람명령제도가 공개제도로 바뀌게 되었다. 법원은 1)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이 법에 따른 신상공개 결정 또는 열람명령·공개명령을 선고받고 다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3) 13세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13세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5)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읍·면·동까지로 한다),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사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요지와 같은 정보를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변화되었다. 한편, 공개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자로서 실명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2) 이는 앞서 제시한 신상정보등록대상 성범죄를 법률명이 아니라 행위형태별로 크게 강간, 강제추행, 성매수, 매매행위, 강요행위, 알선영업행위로 구분한 것이다.

해, 기존의 보고서에서 간과되었던 항목들을 추가하여 조사표에 포함시켰다. 2010년 새롭게 추가된 조사항목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표 1-1>과 같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추출된 조사표의 항목은 크게 1) 범죄자의 특성, 2) 범죄자에 대한 처리결과, 3) 피해청소년의 특성, 4) 범죄발생의 양상 및 피해의 결과 등이다. 조사표는 청소년대상 성범죄유형을 크게 강간³⁾ 및 강제추행, 성매매알선 및 강요의 2가지 범죄유형에 따라 구분한 후 각 범죄특성에 맞게 구성하였다. 한편, 2 가지 범죄유형 각각에 대해 범죄자용과 피해자 및 범죄발생특성용의 조사표를 구분하여 만들었다. 따라서 기록조사표는 모두 4가지 종류로 만들어졌다.

<표 1-1> 분석항목

대분류		소분류	기존 조사	본 조사
범죄자 관련 사항	사회인구학적 특성	성	○	○
		국적	○	○
		연령	○	○
		직업	○	○
		청소년 보호직종 여부	○	○
		거주지역	○	○
		정신장애여부		○
		정신과 감정 및 치료여부		○
	범죄경력	범행시 형사처분 집행 중이었던지의 여부		○
		범죄경력유무 및 유형	○	○
		동종범죄경력 횟수	○	○
		동종범죄경력의 구체적인 죄명	○	○
	처분결과	처분죄명	○	○
		경합여부	○	○
		1심, 2심, 3심 선고형의 종류	○	○
		1심, 2심, 3심 징역형량	○	○
		1심, 2심, 3심 집행유예형량		○
		1심, 2심, 3심 벌금액수		○
		1심, 2심, 3심 전자발찌 부착명령여부 및 기간		○
		향소 및 상고여부	○	○
		신상공개여부		○

<표 계속>

3) 강간 미수는 강간범죄에 포함시켰다

대분류		소분류	기존 조사	본 조사
피해자 관련 사항	사회인구학적 특성	성	○	○
		연령/평균연령	○	○
		장애여부	○	○
		피해당시 가출여부	○	○
	관계	범죄자와의 관계	○	○
범행 관련 사항	범행의 다중성 및 지속성	피해 아동·청소년의 수		○
		동일사건 피해자여부		○
		다수 피해자의 경우 피해자 연령별 유형		○
		동일피해 아동·청소년 범행회수 및 기간	○	○
	범행발생장소 및 시간	범행지역	○	○
		범행지역과 가해자 거주지역의 동일여부		○
		범행발생장소	○	○
		범행발생계절	○	○
		범행발생시간	○	○
	범행시 가해자와 피해자의 상태 (강간/강제추행)	범행시 가해자의 음주여부	○	○
		범행시 가해자의 약물복용여부		○
		피해당시 피해자의 음주여부	○	○
	공범관계 (강간/강제추행)	공범여부	○	○
		공범자 수	○	○
		공범시 가해자의 가담정도	○	○
	범행방법 (강간/강제추행)	가해자의 주거침입여부		○
		주거침입방법		○
		흉기사용여부 및 종류		○
		흉기의 사전준비 여부		○
		피해자를 범행장소로 데려간 방법	○	○
		강제 및 강압방법	○	○
		강제추행의 유형	○	○
		강간유형 및 기수여부		○
		가학적, 변태적 침해행위의 내용		○
		극도의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의 내용		○
	피해결과 (강간/강제추행)	피해결과	○	○
	성매매알선 /강요의 범행내용	성매매 영업형태/성매매 발생장소	○	○
		성매매 강요내용		○
		성매매 강요시 다른 범죄의 발생여부 및 내용		○
		성매매 알선범죄의 구체적인 내용		○

한 명의 성범죄자가 여러 명의 피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를 고려하기 위해서 한명의 범죄자에게 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의 수만큼 피해자의 인적 특성과 범행 및 피해관련사항을 기록할 수 있도록 조사표를 작성하였다.

기록조사표를 작성한 조사원들은 동국대학교와 경기대학교 대학원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이를 동안 조사에 관한 사전교육 및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조사에 투입하였으며, 기록조사완료 후 2명의 조사감독원과 조사원간에 기록한 조사표를 상호검증하여 기록과 그 내용이 상이하게 기입된 문항이나 누락된 문항을 검토한 후 입력하였다.

나. 보고서의 구성

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장에서는 먼저 999건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전체를 대상으로 범죄유형별 범죄자 및 피해자 수, 피해자연령별, 피해자와 범죄자의 관계별, 범죄자의 연령별 분포 등 전체적인 자료의 특성을 개략적으로 살펴본 후, 성매수 범죄를 제외한 999건에 대해 강간, 강제추행, 성매매알선/강요범죄별로 1)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특성, 2) 피해 아동·청소년의 특성, 3) 범행 및 피해관련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범행 및 피해관련 특성은 다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강간 및 강제추행)와 아동·청소년대상 성매매강요 및 알선영업행위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제3장에서 제5장까지는 성매매강요 및 알선영업행위를 제외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강간 및 강제추행)만을 대상으로 하여 13세미만 아동대상 성폭력범죄,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범죄, 미성년자에 의한 성폭력범죄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제3장에서는 전체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피해자 연령을 기준으로 13세미만 아동과 13세이상 청소년으로 구분한 뒤 1) 13세미만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자의 특성, 2) 피해아동의 특성 3) 13세미만 성폭력범죄의 범행 및 피해관련 특성, 4) 13세미만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처분결과를 살펴보고, 이를 13세이상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와 비교하고자 한다.

제4장에서는 전체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 범죄 중 피해자와 범죄자가 친족관계⁴⁾

4) 친족이란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을 말하며,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4항, 5항).

에 있는 경우를 추출하여 1)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범죄자 특성, 2)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의 특성, 3)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 범죄의 범행 및 피해관련 특성, 4)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처분결과를 살펴보고, 이를 친족관계이외의 성폭력범죄와 비교하고자 한다.

제5장에서는 전체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중 범죄자의 연령이 19세미만인 미성년 범죄자만을 추출하여, 1) 미성년 성폭력 범죄자의 특성, 2) 피해 아동·청소년의 특성, 3) 미성년 성폭력범죄의 범행 및 피해특성, 4) 미성년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처분결과를 살펴보고, 이를 19세이상의 성인 성폭력범죄자와 비교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본 보고서의 결과를 요약하고,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처리와 관련하여 분석결과에 나타난 시사점과 정책대안을 위한 고려사항에 관해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제2장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특성

1. 2010년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의 개요

2010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로 신상정보등록대상이 된 범죄자는 1,005명이며, 피해 아동·청소년은 범죄자보다 다소 더 많은 1,316명이다. 이와 같이 범죄자의 수보다 피해자의 수가 더 많은 것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경우 범죄자 1인이 여러 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2010년의 경우 피해자가 1명이상인 사건이 전체의 34.7%를 차지하고 있다.

범죄자당 다수의 아동·청소년 피해자가 있기 때문이다. 범죄자 한 명당 평균 피해자 수는 강간 1.2명, 강제추행 1.4명, 성매매강요 1.6명, 성매매알선 2.0명, 성매수 1.2명으로, 성매매알선이 한 사건당 평균 피해자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 성매매업소에 다수의 청소년이 고용되어 있어 한 업소가 적발될 경우에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표 2-1〉 범죄유형별 신상정보등록대상자 분포

(단위: 건(%))

죄 명	범죄자 기준	피해자 기준
강 간	439(43.7)	528(40.1)
강제추행	516(51.3)	697(53.0)
성매매강요	12(1.2)	19(1.4)
성매매알선	32(3.2)	65(4.9)
성매수	6(0.6)	7(0.5)
계	1,005(100.0)	1,316(100.0)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는 성범죄유형, 피해자의 연령, 범죄자의 연령, 피해자와 범죄자의 관계 등에 따라 구분해 볼 수 있다. 먼저 2010년 신상정보등록대상이 된 범죄를 강간, 강제추행, 성매매강요, 성매매알선, 성매수 등의 5가지 범죄유형에 따라 살펴보기로 하자(<표 2-1> 참조). 먼저 범죄자를 기준으로 하면 강제추행이 51.3%(516건)

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이 강간 43.7%(439건), 성매매알선 3.2%(32건), 성매매강요 1.2%(12건), 성매수 0.6%(6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를 기준으로 한 경우 강제추행이 53.0%(697건)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이 강간 40.1%(528건), 성매매알선 4.9%(65건), 성매매강요 1.4%(19건), 성매수 0.5%(7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피해자의 연령을 13세를 기준으로 하여 아동과 청소년대상 성범죄로 구분하여 보면⁵⁾, 피해자의 연령에 대한 정보가 없는 케이스를 제외한 총 1,003건 중 39.0%에 해당하는 391건이 아동(13세미만)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였으며, 61.0%가 청소년(13세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범죄유형별로 살펴보면, 강간범죄의 경우 아동대상이 19.4%인 반면에 청소년대상이 80.6%로 청소년대상 강간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에 비해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아동대상이 59%로 과반수이상을 차지하였고, 청소년대상은 41.0%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매매강요와 알선범죄는 모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였으나, 성매수범죄는 총 6건 중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2건으로 33.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강제추행의 경우 다른 범죄유형에 비해 13세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상대적으로 많음을 알 수 있다.

〈표 2-2〉 범죄유형별 피해자의 연령구분(아동/청소년구분)

(단위: 건(%))

피해자 연령 구분	범죄유형					계
	강간	강제추행	성매매 강요	성매매 알선	성매수	
아 동	85(19.4)	304(59.0)	0(0.0)	0(0.0)	2(33.3)	391(39.0)
청소년	353(80.6)	211(41.0)	12(100.0)	32(100.0)	4(66.7)	612(61.0)
계	438(100.0)	515(100.0)	12(100.0)	32(100.0)	6(100.0)	1,003(100.0)

5) 범죄자 한명당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 범죄자의 특성을 피해자의 연령별로 분석할 때는 가장 나이 어린 피해자를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24 2011년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동향분석 - 신상정보등록대상자를 중심으로 -

피해자와 범죄자가 친족관계인지의 여부에 따라 친족대상 성범죄와 비친족대상 성범죄로 나누어 살펴보면, 전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중 17.2%가 친족관계⁶⁾에 의한 범죄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강간범죄는 다른 범죄유형에 비해 친족관계에서 발생하는 비율이 22.6%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강제추행범죄는 14.1%만이 친족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3〉 범죄유형별 친족관계여부

(단위: 건(%))

친족 관계 여부	범죄유형					계
	강간	강제추행	성매매 강요	성매매 알선	성매수	
친 족	97(22.6)	72(14.1)	0(0.0)	0(0.0)	0(0.0)	169(17.2)
비친족	333(77.4)	438(85.9)	9(100.0)	30(100.0)	6(100.0)	816(82.8)
계	430(100.0)	510(100.0)	9(100.0)	30(100.0)	6(100.0)	985(100.0)

마지막으로 범죄자 연령을 기준으로 미성년자(19세미만)⁷⁾와 성인(19세이상)으로 나누어 성범죄의 분포를 살펴보면, 미성년자에 의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가 11.7%, 성인에 의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가 88.3%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4〉 범죄유형별 범죄자의 연령구분(미성년/성인)

(단위: 건(%))

미성년 여부	범죄유형					계
	강간	강제추행	성매매 강요	성매매 알선	성매수	
미성년	100(22.8)	13(2.5)	3(25.0)	2(6.2)	0(0.0)	118(11.7)
성 인	339(77.2)	503(97.5)	9(75.0)	30(93.8)	6(100.0)	887(88.3)
계	439(100.0)	516(100.0)	12(100.0)	32(100.0)	6(100.0)	1,005(100.0)

7) 2008년 6월부터 새로운 소년법이 적용되면서 소년범죄자의 연령이 19세에서 18세로 변화되었다.

범죄유형별로 살펴보면, 미성년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범죄는 강간으로 전체 강간 범죄의 22.8%가 미성년자에 의해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비율이 2.5%로 매우 낮았다.

2.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특성⁸⁾

가. 사회인구학적 특성

1) 성별

2010년 신상정보등록대상이 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들의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의 99.1%(990명)가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범죄자는 9건(0.9%)에 불과하며, 이 중에 2건은 강제추행범죄자이며, 나머지 7건은 성매매알선/강요범죄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5〉 범죄유형별 범죄자의 성

(단위: 명(%))

범죄자 성 별	범죄유형			계
	강간	강제추행	성매매알선 /강요	
남 자	439(100.0)	514(99.6)	37(84.1)	990(99.1)
여 자	0(0.0)	2(0.4)	7(15.9)	9(0.9)
계	439(100.0)	516(100.0)	44(100.0)	999(100.0)

8) 이하에서는 범죄유형을 강간, 강제추행, 성매매알선/강요범죄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성매수범죄는 전체 1,005건 중 6건에 불과하여 통계분석이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총 999건에 대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해서만 분석하기로 하겠다. 또한 성매매알선/강요범죄는 범죄의 내용 및 성격이 유사하여 하나로 통합하였다.

2) 국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들의 국적을 살펴보면, 전체의 99.4%(993명)가 내국인이며, 외국인은 모두 6명, 0.6%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이 저지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유형은 강간 1건과 강제추행 5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6〉 범죄유형별 범죄자의 국적

(단위: 명(%))

범죄자 국적	범죄유형			계
	강간	강제추행	성매매알선/강요	
내국인	438(99.8)	510(99.0)	44(100.0)	993(99.4)
외국인	1(0.2)	5(1.0)	0(0.0)	6(0.6)
계	439(100.0)	515(100.0)	44(100.0)	999(100.0)

3) 연령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10대에서 70대 이상에 이르기까지 모든 연령대에 걸쳐 분포되어 있으나, 주된 연령층은 20대, 30대, 40대로 세 연령대는 각각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연령대는 40대로 23.4%(234명)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이 20대 21.4%(214명), 30대 20.2%(202명)의 순이었다. 주목할 만 한 점은 10대 이하의 미성년 범죄자의 비율이 13.9%나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범죄유형별로 살펴보면, 강간은 20대의 비율이 26.7%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10대(25.7%) 순으로 20대 이하의 비율이 전체의 과반수이상(52.4%)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비해 강제추행은 40대의 비율이 25.8%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30대(22.1%), 50대(20.9%)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60대 이상의 비율이 13%나 되어 다른 범죄유형에 비해 고연령층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대다수의 범죄가 2,30대에 의해서 저질러지고 있는 일반적인 범죄발생현상과는 매우 다른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편, 성매매알선/강요의 경우 20대(20명, 45.5%)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이 10대(9명, 20.5%) 순으로 나타났다. 2010년의 경우 다른 해에 비해 성매매알선/강요범죄자 중 10대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2-7〉 범죄유형별 범죄자의 연령

(단위: 명(%))

범죄자 연령	범죄유형			계
	강간	강제추행	성매매알선/강요	
10대	113(25.7)	17(3.3)	9(20.5)	139(13.9)
20대	117(26.7)	77(14.9)	20(45.5)	214(21.4)
30대	81(18.5)	114(22.1)	7(15.9)	202(20.2)
40대	94(21.4)	133(25.8)	7(15.9)	234(23.4)
50대	27(6.1)	108(20.9)	1(2.3)	136(13.6)
60대	7(1.6)	49(9.5)	0(0.0)	56(5.6)
70대이상	0(0.0)	18(3.5)	0(0.0)	18(1.8)
계	439(100.0)	516(100.0)	44(100.0)	999(100.0)

다음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평균연령을 살펴보면 37.4세였다. 범죄유형별로 평균연령을 살펴보면, 강제추행범죄자의 평균연령이 43.6세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강간범죄자 31.2세, 성매매알선/강요범죄자 28.2세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매매알선/강요범죄자는 2009년에 비해 연령분포면에서 10대의 비율이 증가한 것과 더불어 평균연령도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강간범죄자의 연령범위를 살펴보면, 가장 나이 어린 범죄자가 14세, 가장 나이가 많은 범죄자가 67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제추행범죄자의 경우에는 강간범죄자와 마찬가지로 가장 나이 어린 범죄자가 14세였으나, 최고령은 81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8〉 범죄유형별 범죄자의 평균 연령

범죄유형	평균	최대값	최소값	사례수	표준편차
강 간	31.16세	67세	14세	440	12.441
강제추행	43.59세	81세	14세	515	13.757
성매매알선/강요	28.23세	51세	16세	44	9.601
계	37.44세	81세	14세	999	14.498

4) 직업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직업별 분포를 살펴보면, 다른 년도와 유사하게 무직자의 비율이 29.4%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단순노무직(18.0%), 서비스직(11.0%)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범죄유형별 직업분포를 보면, 모든 범죄유형에서 무직자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강간범죄자는 무직자 이외에 학생과 단순노무직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강제추행범죄자는 무직자 이외에 단순노무직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또한, 관리직과 사무직의 비율이 24.3%나 되어 다른 범죄유형에 비해 관리직과 사무직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9〉 범죄유형별 범죄자의 직업

(단위: 명(%))

직업	범죄유형			계
	강간	강제추행	성매매알선 /강요	
관 리 자	29(6.6)	76(14.8)	3(6.8)	108(10.8)
사 무 직	36(8.2)	49(9.5)	1(2.3)	86(8.6)
서비스직	53(12.0)	41(8.0)	16(36.4)	110(11.0)
농축산업	8(1.8)	17(3.3)	0(0.0)	25(2.5)
기능조작직	37(8.4)	48(9.3)	2(4.5)	87(8.7)
단순노무직	65(14.8)	112(21.7)	3(6.8)	180(18.0)
직업군인	3(0.7)	0(0.0)	0(0.0)	3(0.3)
전업주부	0(0.0)	0(0.0)	1(2.3)	1(0.1)
학 생	65(14.8)	19(3.7)	2(4.5)	86(8.6)
무 직	135(30.8)	143(27.7)	16(36.4)	294(29.4)
기 타	8(1.8)	11(2.1)	0(0.0)	19(1.9)
계	439(100.0)	516(100.0)	44(100.0)	999(100.0)

범죄자 직업을 청소년보호직종여부(교사, 학원강사, 목회자, 통학버스기사 등)에 따라 분류한 결과(<표 2-10> 참조), 전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6.3%가 청소년보호직종 종사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009년의 3.8%에 비해 약 2.5% 포인트 증가한 수치이다.

범죄유형별로 보면, 강간은 6명(1.4%)만이 청소년보호직종 종사자인 반면에, 강제추행은 청소년보호직종 종사자가 54명(10.5%)로 강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강제추행범죄자 중 청소년보호직종 종사자의 비율은 2009년에 비해 약 2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0〉 범죄유형별 청소년 보호직종여부

(단위: 명(%))

청소년보호직종여부	범죄유형		계
	강간	강제추행	
그 령 다	6(1.4)	54(10.5)	60(6.3)
아 니 다	434(98.6)	462(89.5)	895(93.7)
계	439(100.0)	516(100.0)	955(100.0)

5) 거주지역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거주지역을 살펴보면, 성범죄자 10명 중 약 4명 정도는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유형별로 살펴보면, 강간과 강제추행범죄자는 전체범죄자와 마찬가지로 경기도와 서울지역 거주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성매매알선/강요범죄자는 서울지역이 31.8%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경기도, 광주광역시, 경상남도가 각각 13.6%였다. 부산광역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제주특별자치도 거주자는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1〉 범죄유형별 범죄자의 거주 지역

(단위: 명(%))

범죄자 거주지역	범죄유형			계
	강간	강제추행	성매매알선 /강요	
서울특별시	63(14.3)	68(13.2)	14(31.8)	145(14.5)
부산광역시	29(6.6)	37(7.2)	0(0.0)	66(6.6)
대구광역시	24(5.5)	23(4.5)	2(4.5)	49(4.9)
인천광역시	24(5.5)	29(5.6)	1(2.3)	54(5.4)
광주광역시	14(3.2)	28(5.4)	6(13.6)	48(4.8)
대전광역시	12(2.7)	18(3.5)	1(2.3)	31(3.1)
울산광역시	18(4.1)	15(2.9)	1(2.3)	34(3.4)
경 기 도	97(22.1)	118(22.9)	6(13.6)	221(22.1)
강 원 도	12(2.7)	13(2.5)	1(2.3)	26(2.6)
충청북도	17(3.9)	14(2.7)	0(0.0)	31(3.1)
충청남도	26(5.9)	22(4.3)	0(0.0)	48(4.8)
전라북도	24(5.5)	35(6.8)	0(0.0)	59(5.9)
전라남도	31(7.0)	27(5.2)	3(6.8)	61(6.1)
경상북도	17(3.9)	21(4.1)	3(6.8)	41(4.1)
경상남도	26(5.9)	33(6.4)	6(13.6)	65(6.5)
제주특별자치도	5(1.1)	15(2.9)	0(0.0)	20(2.0)
계	439(100.0)	516(100.0)	44(100.0)	999(100.0)

6) 지적장애여부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자 중 지적 기능과 적응행동의 어려움이 함께 존재하여 교육적 성취와 일상생활에서 제한이 따르는 발달장애인 지적장애⁹⁾가 있는 사람이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표 2-12> 참조), 총 955명 중 4.2%에 해당되는 40명이 지적장

9) 지적장애란 정신박약 또는 정신지체를 말하는데, 2007년 10월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으로 지적장애라는 명칭으로 바뀌었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도 정신지체라는 용어대신 지적장애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애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적장애자의 비율은 강간보다는 강제추행범죄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표 2-12〉 범죄유형별 범죄자 지적장애여부

(단위: 명(%))

범죄자 지적장애여부	범죄유형		계
	강간	강제추행	
그 령 다	11(2.5)	29(5.6)	40(4.2)
아 니 다	428(97.5)	487(94.4)	915(95.8)
계	439(100.0)	516(100.0)	955(100.0)

7) 정신과 병력여부

마지막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자의 과거 정신감정 및 정신치료여부를 살펴본 결과(<표 2-13> 참조), 955명 중 58명(6.1%)이 과거에 병원에서 정신감정을 받거나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에서 살펴본 지적장애와 마찬가지로 강간에 비해 강제추행이 정신감정 및 정신과 치료경험이 있는 범죄자의 비율이 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표 2-13〉 범죄유형별 범죄자 정신과 감정 및 치료여부

(단위: 명(%))

범죄자 정신과 감정 및 치료여부	범죄유형		계
	강간	강제추행	
있 음	18(4.1)	40(7.8)	58(6.1)
없 음	421(95.9)	476(92.2)	897(93.9)
계	439(100.0)	516(100.0)	955(100.0)

나. 범죄경력

1) 범행당시 형사처분 집행 중이었던지의 여부

범행당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가 그 이전의 범죄로 인해 처분을 받고 있는 중이었던지의 여부를 살펴본 결과, 강간범죄자의 6.1%, 강제추행범죄자의 3.3%, 성매매알선/강요범죄자의 4.5%가 본 건 이전에 저지른 범죄로 형사처분 집행 중에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강간의 경우 다른 범죄유형에 비해 형사처분 집행 중에 본 범죄를 저지른 비율이 다른 범죄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보호관찰이나 집행유예 중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강제추행과 성매매알선/강요범죄도 마찬가지여서 보호관찰이나 집행유예 중 범죄자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표 2-14〉 범죄유형별 범행시 형사처분 집행 중이었던지의 여부

(단위: 명(%))

범행시 형사처분 집행 중이었던지의 여부	범죄유형			계
	강간	강제추행	성매매알선 /강요	
해당사항 없음	412(93.8)	499(96.7)	42(95.5)	953(95.4)
보호관찰/집행유예 중	24(5.5)	16(3.1)	2(4.5)	42(4.2)
가 석 방 중	1(0.2)	0(0.0)	0(0.0)	1(0.1)
보석/형집행정지 중	1(0.2)	0(0.0)	0(0.0)	1(0.1)
기 타	1(0.2)	1(0.2)	0(0.0)	2(0.2)
계	439(100.0)	516(100.0)	44(100.0)	999(100.0)

2) 범죄경력 유무 및 유형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범죄경력을 동종범죄와 이종범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동종범죄란 「성폭력범죄자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성폭력범죄¹⁰⁾와 아동·

10)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1. 「형법」 제2편 제22장 성폭속에

청소년성보호법에 규정된 성범죄를 말한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규정된 성범죄¹¹⁾는 성폭력범죄 이외에 성매수 및 성매매알선/강요범죄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피해대상의 측면에서 아동·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도 포함하고 있다.

<표 2-15>를 보면, 2010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중 25.5%가 1회 이상의 범죄경력¹²⁾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008년의 44.1%, 2009년의 46.1%에 비해 약 20% 포인트 정도 감소한 수치이다. 범죄유형별로 살펴보면, 1회 이상의 범죄경력¹³⁾이 있는 범죄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범죄는 강간이었고(28.2%), 그 다음이 강제추행(25.4%)이었다. 특이하게 2010년의 경우 성매매알선/강요범죄자 중 1회 이상의 범죄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회 이상의 범죄경력을 갖고 있는 경우 동종범죄경력인지 이종범죄경력인지를 살펴본 결과에 따르면, 전체 범죄자의 13.1%가 성범죄경력(동종범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0%가 이종범죄경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종범죄경력자비율은 강간 13.9%, 강제추행 13.5%로 두 범죄유형 간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009년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에 대한 자료분석 결과와는 매우 다르다. 2009년에 비해 범죄경력자의 비율이 많이 감소하였고, 특히 성매매알선/강요의 경우 범죄경력자가 한명도 없었다. 또한, 동종범죄경력자의 비율도 감소하였고, 범죄유형간 차이가 거의 없었다. 그러나 2009년과 마찬가지로 2010년에도 “범죄경력조회표”에 근거하여 범죄경력을 분석한 것이 아니라 판결문에 근거하여 판결문에 기재된 정

관한 죄 중 제242조(음행매개), 제243조(음화반포등), 제244조(음화제조등) 및 제245조(공연음란)의 죄 2. 「형법」 제2편 제31장 약취와 유인의 죄 중 추행 또는 간음을 목적으로 하거나 추업(醜業)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영리등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등), 제292조(약취, 유인, 매매된 자의 수수 또는 은닉. 다만, 제288조의 약취, 유인이나 매매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죄로 한정한다), 제293조(상습범. 다만, 제288조의 약취, 유인이나 매매된 사람 또는 제289조의 이송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및 제294조(미수범. 다만, 제288조의 미수범 및 제292조의 미수범 중 제288조의 약취, 유인이나 매매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미수범과 제293조의 상습범의 미수범 중 제288조의 약취, 유인이나 매매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상습범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3. 「형법」 제2편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4. 「형법」 제339조(강도강간)의 죄 5. 이 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부터 제14조(미수범)까지의 죄. 또한 위의 각 호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이다.

- 11)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는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제8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제9조(아동·청소년매매행위), 제10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제11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등), 제12조(알선영업행위등)에 해당하는 죄,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4조의 죄, 아동·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297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및 제339조의 죄, 아동·청소년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29조 제2호 및 제6호의 죄를 말한다.

34 2011년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동향분석 - 신상정보등록대상자를 중심으로 -

보에 한정하여 범죄경력 분석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들이 현실을 반영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표 2-15〉 범죄유형별 범죄경력유무 및 유형

(단위: 명(%))

범죄경력 유무 및 유형	범죄유형			계
	강간	강제추행	성매매알선 /강요	
범죄경력 없음	315(71.8)	385(74.6)	44(100.0)	744(74.5)
동종 범죄경력	55(12.5)	60(11.6)	0(0.0)	115(11.5)
이종 범죄경력	63(14.4)	61(11.8)	0(0.0)	124(12.4)
동종+이종범죄경력	6(1.4)	10(1.9)	0(0.0)	16(1.6)
계	439(100.0)	516(100.0)	44(100.0)	999(100.0)

3) 동종범죄경력 회수 및 내용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자 중 동종범죄경력자를 대상으로 범죄경력회수를 살펴본 결과, 1회의 동종범죄경력을 갖고 있는 범죄자가 65.6%, 2회 20.6%, 3회 이상 13.7%로 나타났다. 2009년에 비해 동종범죄경력자의 비율은 줄어들었지만, 3회 이상의 동종범죄경력자 비율은 증가하였다.

범죄유형별로 보면, 강간은 1회의 동종범죄경력을 갖고 있는 범죄자가 67.2%, 2회 21.3%, 3회인 경우 11.5%로 나타났다. 강제추행은 1회의 동종범죄경력을 갖고 있는 범죄자가 64.3%로 가장 많았고, 2회 20.0%, 3회 이상 15.7%로 나타났다.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자 중 동종범죄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 10명 중 약 7명 정도는 1회의 범죄경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2009년에 비해 3회 이상 동종범죄경력자의 비율이 증가하였고, 특히 강간범죄의 경우에는 2009년에 비해 3회 이상 동종범죄경력자 비율이 약 2배 정도 증가하였다.

〈표 2-16〉 범죄유형별 동종범죄경력 횟수

(단위: 명(%))

동종범죄경력 횟수	범죄유형		계
	강간	강제추행	
1회	41(67.2)	45(64.3)	86(65.6)
2회	13(21.3)	14(20.0)	27(20.6)
3회 이상	7(11.5)	11(15.7)	18(13.7)
계	61(100.0)	70(100.0)	131(100.0)

동종범죄경력자들의 구체적인 범죄내용을 살펴본 결과는 <표 2-17>과 같다.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자들이 본 범행이전에 저지른 범죄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범죄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강간범죄(62명)였으며, 그 다음은 아동·청소년대상 강간(44명)과 아동·청소년 및 성인대상 강제추행(각 32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경력(79명)보다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경력(106명)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범죄유형별로 살펴보면,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으로 신상정보등록대상이 된 범죄자의 경우 이전에 성인을 대상으로 한 강간범죄경력을 갖고 있는 비율이 47.6%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아동·청소년대상 강간(23.2%) 순으로 나타났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으로 신상정보등록대상이 된 범죄자의 경우에는 아동·청소년대상 강간, 아동·청소년대상 강제추행, 성인대상 강제추행이 각각 24.3%를 차지하였다.

강간범죄자의 경우 과거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경력자 수(53건)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경력자 수(29건)보다 더 많은 반면에, 강제추행범죄자의 경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경력자 수(50건)와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경력자 수(53건)가 거의 비슷하였다. 즉,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강간에 비해 과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경력자 수가 더 많았다. 이는 강제추행범죄자가 강간범죄자에 비해 상습적인 혹은 소아성기호증에 의한 범죄경력자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음을 보여준다.

〈표 2-17〉 범죄유형별 동종범죄경력의 구체적인 죄명

(단위: 명(%))

동종범죄경력의 구체적인 죄명		범죄유형		계
		강간	강제추행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	19(23.2)	25(24.3)	44
	강제추행	7(8.5)	25(24.3)	32
	성매수	3(3.7)	0(0.0)	3
성인 대상	강간	39(47.6)	23(22.3)	62
	강제추행	7(8.5)	25(24.3)	32
	기타 성범죄	7(8.5)	5(4.9)	12
계		82(100.0)	103(100.0)	185

* 복수응답결과임

** 퍼센트 및 합계는 응답을 기준으로 함

3. 피해 아동·청소년의 특성

가. 사회인구학적 특성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분석에서는 범죄자에 의해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 중 판결문에 인적 정보 및 범행관련 정보가 있는 경우를 모두 포함시켰다. 이를 통해 최종 집계된 피해 아동·청소년은 1,309명이다. 이후의 분석에선 1,309명은 피해자의 수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사건을 가리키는 수로도 사용될 것이다.

본 보고서의 분석대상인 판결문에는 피해자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기 때문에 피해 아동·청소년의 특성은 성, 연령, 장애여부 및 유형, 피해당시 가출상태여부에 대해서만 분석하였다.

먼저 피해 아동·청소년의 성별을 살펴보면, 여자 아동·청소년이 96%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남자 아동·청소년은 52명(4.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유형별로 남자청소년의 비율을 살펴보면, 강간과 성매매알선/강요는 남자청소년이 1명도 없었으며, 강제추행은 7.5%로 남자 피해 아동·청소년 모두가 강제추행의 피해자임을 알 수 있다.

〈표 2-18〉 범죄유형별 피해 아동·청소년의 성별

(단위: 명(%))

피해자 성별	범죄유형			계
	강간	강제추행	성매매알선 /강요	
남 자	0(0.0)	52(7.5)	0(0.0)	52(4.0)
여 자	528(100.0)	645(92.5)	84(100.0)	1,257(96.0)
계	528(100.0)	697(100.0)	84(100.0)	1,309(100.0)

피해 아동·청소년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전체의 47.5%가 13세미만 아동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피해 아동·청소년의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6세이하 5.7%(75명), 초등학교 학령기에 해당되는 7세이상~12세이하 41.8%(546명), 중학교 학령기에 해당되는 13세이상~15세이하 22.7%(296명), 16세이상이 29.8%(389명)로 7세이상~12세이하 집단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유형별로 살펴보면, 강간의 경우에는 6세이하 1.1%(6명), 7세이상~12세이하 27.1%(143명), 13세이상~15세이하 29.7%(157명), 16세이상이 42.0%(222명)로 16세이상 집단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보다 어린 연령층인 7세이상~12세이하의 비율이 57.8%(402명)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강제추행범죄 피해 아동·청소년 10명 중 약 7명 정도는 13세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매매알선/강요의 경우에는 16세이상의 비율이 57.3%(47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9〉 범죄유형별 피해 아동·청소년의 연령

(단위: 명(%))

피해자 연령	범죄유형			계
	강간	강제추행	성매매알선 /강요	
6세이하	6(1.1)	69(9.9)	0(0.0)	75(5.7)
7~12세	143(27.1)	402(57.8)	1(1.2)	546(41.8)
13~15세	157(29.7)	105(15.1)	34(41.5)	296(22.7)
16세이상	222(42.0)	120(17.2)	47(57.3)	389(29.8)
계	528(100.0)	695(100.0)	82(100.0)	1,306(100.0)

범죄유형별 피해 아동·청소년의 평균연령을 살펴보면, 전체 피해자가 13.02세, 강간 피해자가 14.57세, 강제추행 피해자가 11.51세, 성매매알선/강요 피해자가 15.82세로 강제추행 피해자의 연령이 가장 낮고, 성매매알선/강요 피해자의 연령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과 비교해 볼 때, 전체피해자의 평균연령이 12.7세에서 13.0세로 다소 높아졌으나 2008년의 14.5세에 비해서는 낮아 피해자의 저연령화가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강간범죄 피해자의 경우 가장 어린 피해자의 연령은 4세였으며,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강간범죄보다 더 낮은 2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0〉 범죄유형별 피해 아동·청소년의 평균연령

범죄유형	평균	사례수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강 간	14.57세	529	2.554	4세	18세
강 제 추 행	11.51세	695	3.686	2세	19세
성매매알선/강요	15.82세	82	1.135	13세	18세
전체 성범죄	13.02세	1306	3.552	2세	19세

피해자의 성별로 평균연령을 비교해보면(<표 2-21> 참조), 남자 피해 아동·청소년의 평균연령은 11.53세이며, 최소 연령은 4세, 최대 연령은 18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 피해 아동·청소년의 평균연령은 13.09세이며, 최소 연령은 2세, 최대 연령은 19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 피해 아동·청소년에 비해 남자 피해 아동·청소년의 평균연령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1〉 피해자의 성별 평균 연령

피해자 성별	평균	사례수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남 자	11.53세	53	3.297	4세	18세
여 자	13.09세	1260	3.543	2세	19세
계	13.03세	1313	3.545	2세	19세

피해 아동·청소년의 장애여부 및 유형을 살펴보면, 전체 피해 아동·청소년의 4.0%, 52명만이 장애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 보면, 신체장애자는

3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49명은 지적장애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유형별로 보면, 장애자의 비율이 강간의 경우에는 5.7%,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3.0%로 강간 피해 아동·청소년의 장애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범죄유형에 관계없이 피해 아동·청소년이 장애인인 경우에는 신체장애자보다는 지적장애자일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2〉 범죄유형별 피해 아동·청소년의 장애여부

(단위: 명(%))

피해자 장애여부	범죄유형			계
	강간	강제추행	성매매알선 /강요	
장애없음	498(94.3)	676(97.0)	83(98.8)	1,257(96.0)
신체장애	2(0.4)	1(0.1)	0(0.0)	3(0.2)
지적장애	28(5.3)	20(2.9)	1(1.2)	49(3.7)
계	528(100.0)	697(100.0)	84(100.0)	1,309(100.0)

마지막으로 피해 당시 아동·청소년이 가출상태였는지를 살펴본 결과에 따르면, 전체 피해 아동·청소년의 7.2%에 해당되는 94명이 가출상태에서 성범죄 피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당시 가출상태였던 아동·청소년이 가장 많은 범죄유형은 성매매알선/강요(22명, 26.2%)로 나타났다. 그 다음은 강간범죄였는데, 강간 피해 아동·청소년 10명 중 1명(54명, 10.2%)은 가출상태에서 피해를 당했음을 알 수 있다.

〈표 2-23〉 범죄유형별 피해 아동·청소년의 피해당시 가출여부

(단위: 명(%))

피해자의 가출여부	범죄유형			계
	강간	강제추행	성매매알선 /강요	
가 출	54(10.2)	18(2.6)	22(26.2)	94(7.2)
가출하지 않은 상태	474(89.8)	679(97.4)	62(73.8)	1,215(92.8)
계	528(100.0)	697(100.0)	84(100.0)	1,309(100.0)

나. 범죄자와의 관계

피해 아동·청소년과 범죄자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전혀 모르는 사람이 53.2%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그 다음은 아는 사람 31.7%, 가족 및 친척이 15.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유형별로 피해 아동·청소년과 범죄자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강간범죄의 경우에는 전체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전혀 모르는 사람의 비율이 49.9%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그 다음이 아는 사람(29.2%), 가족 및 친척(20.9%)의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 아동·청소년과 범죄자의 관계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강간범죄에서 낯선 사람이 30.4%로 가장 많았고, 즉석 만남을 통해 범행당일에 처음 만난 사람 17.2%, 친부 8.3%, 안면만 있는 사람 8.1%, 이웃이나 평소 잘 알고 지내는 사람 6.4%,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되어 몇 번 만난 사람 5.0%등의 순이었다.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전혀 모르는 사람의 비율이 59.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선생님 6.1%, 안면만 있는 사람 6.0%, 이웃이나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 5.3%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성매매알선/강요는 고용주인 경우가 76.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즉석만남을 통해 범행당일 처음 만난 사람도 13.2%를 차지하고 있었다.

강간의 경우 면식범에게 범죄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면식범 중 친부나 의부,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되어 몇 번 만난 적이 있는 사람에게서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혀 모르는 사람 중 인터넷 등을 통한 즉석만남이 이루어져 범행당일 처음 만난 사람의 비율도 17.2%로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에 비해 강제추행은 전혀 모르는 낯선 사람에게 범죄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강간범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았고, 면식범 중에서는 선생님, 안면만 있는 사람, 이웃이나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4〉 범죄유형별 피해자와 범죄자의 관계

(단위: 명(%))

피해자와 범죄자의 관계	범죄유형			계
	강간	강제추행	성매매알선 /강요	
전혀 모르는 사람	258(49.9)	409(59.6)	13(17.1)	680(53.2)
낯선 사람	157(30.4)	387(56.4)	0(0.0)	544(42.5)
여성접객원인 피해자를 가해 자가 상업적인 목적으로 부른 경우	0(0.0)	1(0.1)	0(0.0)	1(0.1)
즉석만남 등을 통해 알게 된 사람	89(17.2)	14(2.0)	10(13.2)	113(8.8)
택시기사	8(1.5)	3(0.4)	0(0.0)	11(0.9)
배달원·수리원·방문판매원등	2(0.4)	0(0.0)	0(0.0)	2(0.2)
숙박업소·목욕탕·음식점·주점·노래방·비디오방 주인 혹은 종업원	2(0.4)	4(0.6)	3(3.9)	9(0.7)
아는 사람	151(29.2)	191(27.8)	63(82.9)	405(31.7)
친구	3(0.6)	1(0.1)	0(0.0)	4(0.3)
애인·남자친구	8(1.5)	0(0.0)	0(0.0)	8(0.6)
학교 선·후배	9(1.7)	0(0.0)	0(0.0)	9(0.7)
선생님	6(1.2)	42(6.1)	0(0.0)	48(3.8)
이웃·잘 알고 지내는 사람	33(6.4)	36(5.3)	3(3.9)	72(5.6)
성직자	0(0.0)	4(0.6)	0(0.0)	4(0.3)
직장상사·고용주	3(0.6)	3(0.4)	58(76.3)	64(5.0)
직장 동료·아르바이트 동료	1(0.2)	1(0.1)	0(0.0)	2(0.2)
업무관계인	1(0.2)	3(0.4)	0(0.0)	4(0.3)
친구의 부모	6(1.2)	11(1.6)	0(0.0)	17(1.3)
부모의 친구	8(1.5)	11(1.6)	0(0.0)	19(1.5)
아파트관리인 등	0(0.0)	8(1.2)	0(0.0)	8(0.6)
안면만 있는 사람	42(8.1)	41(6.0)	2(2.6)	85(6.6)
병원·수용시설직원·관리사·사회복지사	1(0.2)	8(1.2)	0(0.0)	9(0.7)
인터넷채팅을 통해 알게 된 사람	26(5.0)	5(0.7)	0(0.0)	31(2.4)
아는 사람 기타	4(0.8)	17(2.5)	0(0.0)	21(1.6)

<표 계속>

피해자와 범죄자의 관계	범죄유형			계
	강간	강제추행	성매매알선 /강요	
가족 및 친척	108(20.9)	86(12.5)	0(0.0)	194(15.2)
친부	43(8.3)	28(4.1)	0(0.0)	71(5.6)
의부	33(6.4)	30(4.4)	0(0.0)	63(4.9)
모의 동거인	12(2.3)	12(1.7)	0(0.0)	24(1.9)
형제·자매	2(0.4)	2(0.3)	0(0.0)	4(0.3)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16(3.1)	12(1.7)	0(0.0)	28(2.2)
5촌 이상의 혈족 및 인척	1(0.2)	2(0.3)	0(0.0)	3(0.2)
가족 및 친족 기타	1(0.2)	0(0.0)	0(0.0)	1(0.1)
계	517(100.0)	686(100.0)	76(100.0)	1,279(100.0)

4.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범행특성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범행특성은 강간과 강제추행과 같은 성폭력범죄인지 아니면 성매매강요나 성매매알선범죄 등인지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아래에서는 각각을 구분하여 범행특성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가.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의 범행특성

1) 범행의 다중성 및 지속성

범행의 다중성이란 범죄자가 여러 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피해를 입힌 경우를 말하며, 범행의 지속성이란 범죄자가 동일한 피해자에게 비슷한 범행을 여러 번 반복적으로 저지른 경우를 말한다.

먼저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의 범행의 다중성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한명인 경우에는 65.3%, 1명 이상인 경우에는 34.7%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가 한명이상인 경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명인 경우가 전체의 16.5%, 3명인 경우가 6.6%였으며, 4명 이상인 경우도 11.6%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의 범행의 다중성은 범죄유형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간의 경우에는 전체의 27.5%만이 피해자가 2명이상이었으나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전체의 40.2%가 피해자가 2명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4명 이상인 경우가 13.1%로 강간범죄의 9.6%에 비해 더 많았다.

〈표 2-25〉 범죄유형별 피해 아동·청소년의 수

(단위: 명(%))

피해 아동·청소년 수	범죄유형		계
	강간	강제추행	
1명	383(72.5)	417(59.8)	800(65.3)
2명	74(14.0)	128(18.4)	202(16.5)
3명	20(3.8)	61(8.7)	81(6.6)
4명 이상	51(9.7)	91(13.1)	142(11.6)
계	528(100.0)	697(100.0)	1,225(100.0)

피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하나의 사건에서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혔는지 아니면, 시간을 달리하여 연쇄적으로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혔는지를 살펴 보았다. 그 결과를 보면, 피해자가 2명 이상인 사건의 59.7%가 각각 다른 사건의 피해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간범죄의 경우 58.2%가 각각 다른 사건의 피해자였고, 강제추행범죄는 이보다 약간 높은 60.6%가 각각 다른 사건의 피해자였다.

요약해보면, 강간에 비해 강제추행범죄는 범죄자가 여러 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행하는 다중성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중피해자 10명 6명은 각각 다른 사건의 피해자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6〉 범죄유형별 다수피해자의 동일사건 피해자 여부

(단위: 명(%))

동일사건 피해자 여부	범죄유형		계
	강간	강제추행	
동일사건 피해자	23(41.8)	37(39.4)	60(40.3)
각각 다른사건 피해자	32(58.2)	57(60.6)	89(59.7)
계	55(100.0)	94(100.0)	149(100.0)

한편, 2명 이상의 다수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다수피해자의 연령구성을 살펴본 결과(<표 2-27> 참조), 피해자가 2명 이상인 경우의 45.9%는 아동피해자로만 구성되어 있었고, 32.7%가 청소년피해자로만 구성되어 있었으며, 21.4%가 아동과 청소년피해자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유형별로 보면, 강간은 피해자가 모두 청소년로만 구성된 경우가 66.9%로 가장 많은 반면에, 강제추행은 피해자가 모두 아동으로만 구성된 경우가 62.5%로 가장 많았다. 이는 특정 범죄유형의 범죄자가 특정 연령층의 피해자를 더 선호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표 2-27〉 범죄유형별 다수피해자의 연령구성

(단위: 건(%))

다수피해자의 연령구성	범죄유형		계
	강간	강제추행	
모두 아동피해자	20(13.8)	175(62.5)	195(45.9)
모두 청소년피해자	97(66.9)	42(15.0)	139(32.7)
아동 + 청소년피해자	28(19.3)	63(22.5)	91(21.4)
계	145(100.0)	280(100.0)	425(100.0)

다음은 범죄자가 동일한 피해자에게 시간의 간격을 두고 1회 이상 지속적으로 피해를 가했는가의 여부(범행의 지속성)와 그 지속기간을 살펴보기로 하자. 그 결과를 살펴보면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 범죄 10건 중 약 3건 정도가 범행이 1회이상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지속기간을 살펴보면, 1개월 미만이 9.1%(111건), 1개월 이상~5개월 미만이 6.3%(77건), 6개월 이상~1년 미만이 4.4%(54건), 1년 이상이 7.3%(9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범죄유형별로 살펴보면, 강간의 경우 약 70%가 1회성에 그쳤고, 반복적인 경우 1개월 이하가 7.0%, 1~5개월이 5.7%, 6~12개월이 5.1%였다. 그러나 1년 이상 지속된 경우도 9.8%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1회성이 73.3%로 강간범죄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그러나 6~12개월이 3.9%, 1년 이상 범행이 지속된 경우는 5.5%로 강간범죄에 비해 6개월 이상 지속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표 2-28〉 범죄유형별 범행의 지속성

(단위: 명(%))

동일피해 아동·청소년 범행횟수 및 기간	범죄유형		계
	강간	강제추행	
1회에 그침	383(72.4)	510(73.3)	893(72.9)
1개월 이하	37(7.0)	74(10.6)	111(9.1)
1~5개월	30(5.7)	47(6.8)	77(6.3)
6개월~1년 미만	27(5.1)	27(3.9)	54(4.4)
1년 이상	52(9.8)	38(5.5)	90(7.3)
계	529(100.0)	696(100.0)	1,225(100.0)

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에 따라 범행의 지속여부가 달라지는가를 살펴본 결과는 <표 2-29>와 같다. 범죄자와 피해자가 전혀 모르는 관계의 83.5%가 범행이 1회로 끝났다. 반면에 범죄자와 피해자가 아는 관계의 54.5%가 범행이 1회 이상 지속되었으며, 가족 및 친척관계인 경우에는 80.0%가 범행이 1회 이상 지속된 것으로 나타나, 면식범이고 친밀도가 높아질수록 범행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9〉 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별 범행지속여부

(단위: 건(%))

범행지속여부	범죄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계
	전혀 모르는 사람	아는 사람	가족 및 친척	
일 회	76(83.5)	20(45.5)	4(20.0)	100(64.5)
지 속	15(16.5)	24(54.5)	16(80.0)	55(35.5)
계	91(100.0)	44(100.0)	20(100.0)	155(100.0)

2) 범행발생장소 및 시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가 발생한 지역을 살펴보면, 아래의 <표 2-30>과 같다. 가장 발생빈도가 높은 지역은 경기도로 전체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의 22.9%

가 경기도 지역에서 발생하였다. 그 다음은 서울특별시(13.6%), 부산광역시(7.4%), 충청남도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10건 중 약 4건 정도는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수도권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범행발생지역은 범죄유형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강간과 강제추행 모두 경기도와 서울특별시에서 발생하는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표 2-30〉 범죄유형별 범행지역

(단위: 건(%))

범행지역	범죄유형		계
	강간	강제추행	
서울특별시	67(12.7)	99(14.2)	166(13.6)
부산광역시	46(8.7)	45(6.5)	91(7.4)
대구광역시	29(5.5)	27(3.9)	56(4.6)
인천광역시	35(6.6)	34(4.9)	69(5.6)
광주광역시	14(2.7)	40(5.8)	54(4.4)
대전광역시	16(3.0)	24(3.5)	40(3.3)
울산광역시	23(4.4)	21(3.0)	44(3.6)
경 기 도	108(20.5)	172(24.7)	280(22.9)
강 원 도	12(2.3)	23(3.3)	35(2.9)
충청북도	17(3.2)	19(2.7)	36(2.9)
충청남도	37(7.0)	44(6.3)	81(6.6)
전라북도	26(4.9)	38(5.5)	64(5.2)
전라남도	42(7.9)	28(4.0)	70(5.7)
경상북도	20(3.8)	28(4.0)	48(3.9)
경상남도	30(5.7)	40(5.8)	70(5.7)
제주특별자치도	6(1.1)	13(1.9)	19(1.6)
계	528(100.0)	695(100.0)	1,223(100.0)

한편, 범죄자의 피해자 선택경향을 살펴보기 위해서 범행이 발생한 지역과 범죄자가 거주한 지역이 동일지역(동단위까지 일치한 경우)이었는지의 여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보면, 전체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의 47.3%가 범행발생지역과 범죄

자가 거주하는 지역이 동일한 지역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범죄유형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를 통해 아동·청소년 성폭력범죄 약 10건 중 5건은 범죄자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피해자를 선택한다는 점을 보여주며, 이러한 결과는 신상정보등록을 통한 성폭력 범죄자의 체계적인 관리와 이러한 등록정보를 범죄자가 살고 있는 동네주민들에게 고지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표 2-31〉 범죄유형별 범행지역과 범죄자거주지역의 동일 여부

(단위: 건(%))

범행지역과 범죄자거주지역의 동일 여부	범죄유형		계
	강간	강제추행	
그 령 다	251(47.5)	328(47.1)	579(47.3)
아 니 다	277(52.5)	369(52.9)	646(52.7)
계	528(100.0)	696(100.0)	1,225(100.0)

다음은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가 발생한 장소를 크게 옥내와 옥외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66.9%가 옥내에서 발생하였고, 33.1%만이 옥외에서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성폭력범죄 발생장소는 범죄유형별로 두드러진 차이를 보여, 강간의 경우 81.2%가 옥내에서 발생한 반면에,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56.1%만이 옥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32〉 범죄유형별 범행장소1(옥내·외 구분)

(단위: 건(%))

범행장소	범죄유형		계
	강간	강제추행	
옥 내	429(81.2)	391(56.1)	820(66.9)
옥 외	99(18.8)	306(43.9)	405(33.1)
계	528(100.0)	697(100.0)	1,225(100.0)

구체적으로 범죄가 발생한 장소를 집, 범죄자가 근무하는 직장, 공공기관 및 상업지역, 학교, 학원 및 보육시설, 주택가 및 이면도로, 주차장, 야외·거리·산야·대중교통시설 등, 화장실, 자동차안, 기타 등으로 11개 범주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는 <표 2-33>과 같다.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의 42.6%가 집에서 발생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이 공공기관 및 상업지역(18.9%), 야외·거리·산야·대중교통시설 등(11.1%), 주택가 및 이면도로(6.6%), 자동차안(5.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범죄유형별로 살펴보면, 강간범죄는 집에서 발생하는 비율이 54.1%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공공기관 및 상업지역(25.5%), 야외·거리·산야·대중교통시설(5.5%) 등의 순이었다. 이에 비해 강제추행은 강간과 마찬가지로 집에서 발생하는 비율이 가장 높기는 하였으나 그 수치는 상대적으로 낮아 33.5%였으며, 그 다음이 야외·거리·산야·대중교통시설 등(15.3%), 공공기관 및 상업지역(14.3%), 주택가 및 이면도로(9.1%), 자동차안(6.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좀 더 상세하게 범행장소를 살펴보면, 강간은 숙박업소, 목욕탕, 찜질방에서 발생하는 비율(21.2%)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이 범죄자의 집(17.3%), 피해자와 범죄자의 공동주거지(15.9%), 피해자의 집(13.9%), 다른 사람의 집(7.0%) 등으로 주로 집이나 숙박업소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집(12.1%)에서 발생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이 피해자와 범죄자의 공동주거지(11.0%), 도로(10.1%), 범죄자의 집(9.1%), 숙박업소, 목욕탕, 찜질방(6.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강간은 강제추행에 비해, 피해자 및 범죄자 집, 피해자와 범죄자 공동주거지, 숙박업소에서 발생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강제추행은 강간에 비해, 주택가 및 이면도로, 공동주택내부 계단 및 승강기, 도로 등 옥에서 발생할 가능성과 학원 및 보육시설 등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2-33> 범죄유형별 범행발생장소

(단위: 건(%))

범행장소	범죄유형		계
	강간	강제추행	
집	285(54.1)	235(33.5)	520(42.6)
피해자의 집	73(13.9)	84(12.1)	157(12.9)
범죄자의 집	91(17.3)	63(9.1)	154(12.6)
다른사람의 집	37(7.0)	9(1.3)	46(3.8)

<표 계속>

범행장소	범죄유형		계
	강간	강제추행	
피해자와 범죄자의 공동주거지	84(15.9)	76(11.0)	160(13.1)
폐가	0(0.0)	3(0.4)	3(0.2)
주택가 및 이면도로	18(3.5)	63(9.1)	81(6.6)
주택가 주변 및 이면도로	8(1.6)	31(4.5)	39(3.2)
공동주택, 내부계단, 승강기등	10(1.9)	32(4.6)	42(3.4)
기타	0(0.0)	0(0.0)	0(0.0)
학교	9(1.8)	37(5.3)	46(3.8)
건물내	1(0.2)	6(0.8)	7(0.6)
운동장	3(0.6)	20(2.9)	23(1.9)
학교뒷산, 학교담장주변 등 기타	5(1.0)	11(1.6)	16(1.3)
범죄자가 근무하는 직장	6(1.1)	26(3.7)	32(2.6)
주차장	3(0.6)	8(1.1)	11(0.9)
공공기관 및 상업지역	134(25.5)	97(14.3)	231(18.9)
공공기관 건물 내	2(0.4)	9(1.3)	11(0.9)
백화점, 시장가게 등 상업건물	3(0.6)	10(1.4)	13(1.1)
유흥업소	6(1.1)	17(2.5)	23(1.9)
숙박업소, 목욕탕, 찜질방 등	112(21.2)	45(6.5)	157(12.9)
공장이나 창고, 공사장	3(0.6)	1(0.1)	4(0.3)
공공기관 및 상업시설 기타	8(1.6)	15(2.2)	23(1.8)
야외, 거리, 산야, 대중교통시설 등	29(5.5)	107(15.3)	152(11.1)
유원지, 공원, 산야, 공터, 체육시설, 운동장	19(3.6)	20(2.9)	39(3.2)
도로상에서	9(1.7)	70(10.1)	79(6.5)
버스, 기차, 지하철, 택시, 항공기, 선박 등 교통시설 내부	0(0.0)	11(1.6)	11(0.9)
대중교통 정거장역 또는 대합실	1(0.2)	5(0.7)	6(0.5)
(공중)화장실	7(1.3)	23(3.3)	30(1.8)
유원지, 공원, 체육시설의 화장실	3(0.6)	7(1.0)	10(0.2)
대중교통시설 화장실	1(0.2)	2(0.3)	3(0.2)
공중화장실 기타	3(0.6)	14(2.0)	17(1.4)
자동차 안	22(4.2)	42(6.1)	64(5.2)
범죄자의 차	20(3.8)	34(4.9)	54(4.4)
제3자의 차	2(0.4)	2(0.3)	4(0.3)
학원차	0(0.0)	4(0.6)	4(0.3)
자동차안 기타	0(0.0)	2(0.3)	2(0.2)
학원 및 보육시설	1(0.2)	26(3.7)	27(2.2)
기타	13(2.5)	31(4.5)	44(3.6)
계	527(100.0)	692(100.0)	1,219(100.0)

다음은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의 발생시간을 범행발생 계절과 범행발생 시간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의 범행발생 계절을 살펴보면, 여름이 422건(35.3%)으로 가장 높았으며, 봄(298건, 24.9%), 가을(295건, 24.7%), 겨울(181건, 15.1%)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모든 계절에 걸쳐 고르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성폭력범죄가 여성들의 노출이 많아지는 여름에 집중적으로 발생한다는 통념이 잘못된 것임을 보여준다.

이를 범죄유형별로 보면, 강간과 강제추행 모두 여름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겨울은 발생비율이 가장 낮았다. 강간범죄는 여름, 봄, 가을, 겨울 순으로 많이 발생하고, 강제추행범죄는 여름, 가을, 봄, 겨울 순으로 발생하였다.

〈표 2-34〉 범죄유형별 범행발생계절

(단위: 건(%))

범행계절	범죄유형		계
	강간	강제추행	
봄	121(23.5)	177(26.0)	298(24.9)
여름	183(35.5)	239(35.1)	422(35.3)
가을	114(22.1)	181(26.6)	295(24.7)
겨울	97(18.8)	84(12.3)	181(15.1)
계	515(100.0)	681(100.0)	1,196(100.0)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여러 번에 걸쳐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범행시간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 발생시간을 살펴본 결과는 <표 2-35>와 같다.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는 저녁 6시~8시 사이(182건, 19.9)에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한낮인 12시~14시 발생건수(46건, 5.0%)가 가장 적었다.

범죄유형별로 살펴보면, 강간의 경우 새벽 3시~5시에(107건, 27.8%)에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그 다음으로 아침 6시~8시(69건, 17.9%), 심야인 0시~2시(54건, 14.0%)의 순이었다. 강간범죄 10건 중 6건 정도가 자정부터 아침 8시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한낮과 오후시간의 발생비율은 가장 낮았다.

강제추행의 경우 저녁 6시~8시(143건, 27.1%)에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그 다음이 오후 3시~5시(15.0%), 밤 9시~11시(14.4%)의 순으로 나타났다. 강제추행 10건 중 6건 정도가 오후 3시에서 밤 11시 사이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약해보면, 강간은 새벽시간의 발생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고, 강제추행은 오후시간대의 발생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강제추행이 강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나이 어린 아동을 범행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나이 어린 아동이 하교하거나 학원가는 시간 등 주된 활동시간인 오후시간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발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성매매알선/강요의 경우에는 모든 범죄가 자정에서 새벽 5시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35〉 범죄유형별 범행발생시간

(단위: 건(%))

범행시간	범죄유형			계
	강간	강제추행	성매매알선/강요	
0~2시	54(14.0)	66(12.5)	1(50.0)	121(13.2)
3~5시	107(27.8)	50(9.5)	1(50.0)	158(17.3)
6~8시	69(17.9)	48(9.1)	0(0.0)	117(12.8)
9~11시	36(9.4)	43(8.1)	0(0.0)	79(8.6)
12~14시	23(6.0)	23(4.4)	0(0.0)	46(5.0)
15~17시	31(8.1)	79(15.0)	0(0.0)	110(12.0)
18~20시	39(10.1)	143(27.1)	0(0.0)	182(19.9)
21~23시	26(6.8)	76(14.4)	0(0.0)	102(11.1)
계	385(100.0)	528(100.0)	2(100.0)	915(100.0)

3) 범행당시 범죄자 및 피해자의 상태

범행당시 범죄자의 상태를 음주여부와 약물복용여부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는 다음의 <표 2-36> 및 <표 2-37>과 같다. 먼저 범죄자의 음주여부를 살펴보면,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자의 23.5%가 범행당시 음주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만취상태에 있었던 범죄자는 3.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유형별로 살펴보면, 강간범죄자의 29.2%가 음주상태였던 반면에, 강제추행범죄자는 19.2%가 범행당시 음주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범행당시 만취상태였던 범죄자의 비율은 강제추행이 5.0%로 강간의 1.5%보다 더 높았다.

〈표 2-36〉 범죄유형별 범행당시 범죄자의 음주상태

(단위: 건(%))

범죄자의 음주상태	범죄유형		계
	강간	강제추행	
비음주 상태	374(70.8)	563(80.8)	937(76.5)
약간의 음주 상태	146(27.7)	99(14.2)	245(20.0)
만취 상태	8(1.5)	35(5.0)	43(3.5)
계	528(100.0)	697(100.0)	1,225(100.0)

범행당시 약물복용상태였던 범죄자는 강간범죄자 3명, 강제추행범죄자 3명 총 6명 (0.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37〉 범죄유형별 범행당시 범죄자의 약물복용여부

(단위: 건(%))

범죄자 약물복용여부	범죄유형		계
	강간	강제추행	
그 령 다	3(0.6)	3(0.4)	6(0.5)
아 니 다	525(99.4)	694(99.6)	1,219(99.5)
계	528(100.0)	697(100.0)	1,225(100.0)

한편, 범행당시 피해자의 음주상태여부를 알아본 결과, 전체 피해자의 10.4%가 피해당시 음주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유형별로 살펴보면, 강제추행의 경우 피해당시 음주상태였던 피해자의 비율은 1.2%인데 비해, 강간의 경우에는 22.3%로 그 비율이 상당히 높았다. 특히, 피해당시 만취상태였던 피해자의 비율은 14.2%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간의 경우 강제추행에 비해 피해자의 음주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은 강간범죄의 약 25%정도가 미성년자인 남자청소년이 친구들과 어울려 한명 혹은 다수의 여자청소년과 유흥을 즐기다가 집단적으로 강간범죄를 저지르는 특수강간범죄의 비율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표 2-38〉 범죄유형별 피해당시 피해자 음주여부

(단위: 건(%))

피해자 음주여부	범죄유형		계
	강간	강제추행	
비음주 상태	410(77.7)	688(98.7)	1,098(89.6)
약간의 음주 상태	43(8.1)	8(1.1)	51(4.2)
만취 상태	75(14.2)	1(0.1)	76(6.2)
계	528(100.0)	697(100.0)	1,225(100.0)

4) 범행방법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 범죄의 공범여부를 살펴보면, 전체 유효사례 수 1,225건 중 공범이 없는 경우가 1,115건(91.0%), 공범이 있는 경우가 110건(9.0%)으로 공범이 없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의 경우 대부분 공범 없이 단독으로 범행이 저질러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범죄유형별로 살펴보면, 약간 다른 양상이 나타난다. 강간의 경우에는 공범이 있는 경우가 19.5%(103건)로 강제추행(1.0%, 7건)에 비해 월등이 높았다. 이는 보통 다수의 남자청소년들이 한명 혹은 다수 여자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유형인 특수강간범죄가 강간범죄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는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공범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공범자의 수를 살펴보면, 강간의 경우 공범자가 1명인 경우가 54.4%, 2명인 경우가 23.3%, 3명이상인 경우가 22.3%로 나타났다.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1명인 경우가 대다수였으며(71.4%), 2명과 3명이상이 각각 14.3%를 차지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공범시 범죄자의 가담정도를 살펴보면, 강간과 강제추행 모두 동등한 역할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을 위해 범죄자가 피해자의 집에 들어왔는지의 여부를 살펴보면, <표 2-40>과 같다. 전체 성폭력범죄의 14.2%가 공동주거의 등의 이유로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였으며, 범행을 위해 범죄자가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온 경우는 14.1%에 불과하였다.

〈표 2-39〉 범죄유형별 공범여부, 공범자수, 가담정도

(단위: 건(%))

구분		범죄유형		계
		강간	강제추행	
공범여부	공범 없음	425(80.5)	690(99.0)	1,115(91.0)
	공범 있음	103(19.5)	7(1.0)	110(9.0)
	계	528(100.0)	697(100.0)	1,225(100.0)
공범자 수	1명	56(54.4)	5(71.4)	61(55.5)
	2명	24(23.3)	1(14.3)	25(22.7)
	3명 이상	23(22.3)	1(14.3)	24(21.8)
	계	103(100.0)	7(100.0)	110(100.0)
공범시 범죄자의 가담정도	보조적인 역할	10(9.7)	2(28.6)	12(10.9)
	동등한 역할	74(71.8)	4(57.1)	78(70.9)
	주도적인 역할	19(18.4)	1(14.3)	20(18.2)
	계	103(100.0)	7(100.0)	110(100.0)

범죄유형별로 살펴보면, 강간이 강제추행에 비해 주거침입비율이 다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주거침입의 비율이 낮은 것은 앞서 범행장소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강간범죄 2건 중 1건은 집에서 발생하기는 하지만, 범죄자의 집이나 피해자와 범죄자의 공동주거지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옥외에서 발생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주거침입인 경우 구체적인 침입방법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직접 문을 열어 준 경우가 45.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문단속을 하지 않은 문을 통해서 들어온 경우(39.7%)였다. 범죄유형별로 살펴보면, 강간의 경우에는 문단속을 하지 않은 문을 통해서 들어온 경우가 41.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피해자가 직접 문을 열어 준 경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강제추행은 피해자가 직접 문을 열어 준 경우가 50.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문단속을 하지 않은 문을 통해서 들어온 경우(38.4%)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40〉 범죄유형별 범죄자의 주거침입여부

(단위: 건(%))

구분		범죄유형		계
		강간	강제추행	
범죄자의 주거침입 여부	해당사항 없음	89(16.8)	85(12.2)	174(14.2)
	그 령 다	87(16.5)	86(12.3)	173(14.1)
	아 니 다	352(66.7)	526(75.6)	878(71.7)
	계	528(100.0)	697(100.0)	1,225(100.0)
주거침입 방법	직접 열어 줌	31(39.7)	37(50.7)	68(45.0)
	문단속하지 않은 문	32(41.0)	28(38.4)	60(39.7)
	잠긴 문 부수고	3(3.8)	2(2.7)	5(3.3)
	유리창 깨고	2(2.6)	0(0.0)	2(1.3)
	방법 모름	10(12.8)	6(8.2)	16(10.6)
	계	78(100.0)	73(100.0)	151(100.0)

다음은 범행당시 범죄자가 흉기를 사용했는지의 여부와 흉기를 사용한 경우 사용한 흉기의 종류를 살펴보기로 하자. 전체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의 90.4%가 흉기를 사용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성폭력범죄에서 흉기사용비율이 현저히 낮은 것은 피해대상이 신체적으로 힘이 미약한 아동과 청소년이라는 특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범죄유형별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흉기사용비율이 낮은 가운데 강간범죄의 흉기사용비율이 18.2%로 강제추행의 3.0%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강간의 경우 강제추행보다 흉기사용비율이 더 높게 나타난 것은 강간피해자가 청소년인 경우가 더 많아 흉기를 사용해 협박하거나 상대방을 제압할 필요성이 더 많고, 반면에 강제추행피해자의 과반수이상인 13세미만 아동이어서 흉기나 폭행보다는 완력이나 위계위력을 통해 피해자를 제압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흉기사용비율이 비교적 높은 강간범죄에 한정하여 사용된 흉기의 종류를 살펴보면, 칼, 가위, 송곳, 도끼, 낫 등을 사용한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와 같은 흉기는 사전에 준비한 경우가 54.9%로 현장에 있는 것을 사용한 경우보다 약간 더 높게 나타났다.

〈표 2-41〉 범죄유형별 범행당시 흉기사용여부 및 종류와 사전준비 여부

(단위: 건(%))

구분		범죄유형		계
		강간	강제추행	
흉기사용여부 및 종류	사용하지 않음	432(81.8)	676(97.0)	1,108(90.4)
	총	1(0.2)	0(0.0)	1(0.1)
	칼·낫 등	63(11.9)	15(2.2)	78(6.4)
	유리·벽돌·몽둥이	10(1.9)	0(0.0)	10(0.8)
	마취제·독극물 등	4(0.8)	0(0.0)	4(0.3)
	기타	18(3.4)	6(0.9)	24(2.0)
	계	528(100.0)	696(100.0)	1,225(100.0)
흉기의 사전준비 여부	사전에 준비	52(55.9)	10(50.0)	62(54.9)
	현장의 것을 사용	41(44.1)	10(50.0)	51(45.1)
	계	93(100.0)	20(100.0)	113(100.0)

성폭력범죄는 범행의 특성 상 사람들이 보지 않는 은밀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은밀한 장소에서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서 범죄자는 피해자가 있는 집을 범행 장소로 선택해서 범행을 저지르거나 수면상태이거나 만취상태인 피해자를 선택해서 특별히 범행 장소로 유인하지 않고도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

범행 장소로 유인한 경우를 대상으로 그 방법을 살펴보기 위해서, 전체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중 범죄자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경우, 피해자가 수면상태이거나 만취상태인 경우, 피해자와 범죄자가 공동거주에서 사는 경우 등과 같이 범행 장소로 유인이 필요 없는 경우가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약 60%정도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에서는 위와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범죄자가 피해자를 범행 장소로 데려간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여 구체적으로 그 방법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전체 성폭력범죄를 대상으로 살펴보면, 피해 아동·청소년을 범행 장소로 데려간 방법으로는 사칭 및 위장을 이용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완력을 사용한 경우, 위협한 경우, 금품을 이용한 경우, 놀이를 이용한 경우 등으로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폭력이나 완력 등과 같은 물리력을 이용해서 범행 장소로 데려가기보다는 사칭 및 위장, 금품, 놀이 등으로 통해서 범행 장소로 유인한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유형별로 살펴보면, 강간의 경우에는 사칭이나 위장을 이용한 경우(33.8%)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위협(19.1%), 완력(17.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강간과 마찬가지로 사칭이나 위장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이 완력(13.5%), 금품(13.5%), 질문(10.3%), 폭력(2.1%), 놀이(7.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강간범죄는 사칭이나 위장, 금품 등을 통해 범행 장소로 유인한 경우와 완력이나 위협, 폭행을 통해 범행 장소로 강제로 끌고 간 경우의 비율 차이가 크지 않으나,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강제로 범행 장소로 끌고 간 경우보다는 유인한 경우가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강제추행피해자가 13세미만의 아동인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표 2-42〉 범죄유형별 피해자를 범행 장소로 데려간 방법

(단위: 건(%))

피해자를 범행 장소로 데려간 방법	범죄유형		계
	강간	강제추행	
금 품	22(7.5)	38(13.5)	60
질 문	9(3.1)	29(10.3)	38
놀 이	28(9.6)	21(7.5)	49
애정칭찬	4(1.4)	11(3.9)	15
사칭위장	99(33.8)	103(36.7)	202
정신장애이용	8(2.7)	2(0.7)	10
위 험	56(19.1)	29(10.3)	85
폭 력	12(4.1)	6(2.1)	18
완 력	52(17.7)	38(13.5)	90
기 타	3(1.0)	4(1.4)	7
계	293(100.0)	281(100.0)	574(100.0)

* 복수응답결과임

** 퍼센트 및 합계는 사례기준

피해자의 수면상태, 만취상태, 지적장애상태 등 강제 및 강압이 필요 없는 항거 불능상태를 이용한 경우를 제외하고, 범죄자가 아동·청소년에 대해 강간이나 강

제추행을 가하기 위해 사용한 강제 및 강압의 방식을 범죄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음의 <표 2-43>과 같다.

아래의 표를 보면, 두 범죄 공히 완력을 사용한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강간의 경우에는 말이나 흥기로 협박(30.2%, 247건)한 경우와 폭행 및 구타(12.1%, 99건)한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강제추행은 완력사용(57.4%, 359건)의 비율이 강간에 비해 훨씬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가운데, 이외에도 위계·위력의 사용(20.3%, 127건)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2-43> 범죄유형별 강제 및 강압방법

(단위: 건(%))

강제 및 강압방법	범죄유형		계
	강간	강제추행	
말로 협박	166(20.3)	64(10.2)	230
흥기로 협박	81(9.9)	18(2.9)	99
구타	91(11.1)	24(3.8)	115
흥기로 폭행	8(1.0)	7(1.1)	15
인신 속박	25(3.1)	6(1.0)	31
완력 사용	327(40.0)	359(57.4)	686
약물 사용	14(1.7)	1(0.2)	15
감금	10(1.2)	5(0.8)	15
위계·위력 사용	82(10.0)	127(20.3)	209
정신박약 및 정신질환	11(1.3)	10(1.6)	21
기타	3(0.4)	4(0.6)	7
계	818(100.0)	625(100.0)	1,443

* 복수응답결과임

** 퍼센트 및 합계는 사례 기준

다음은 강제추행범죄를 당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추행의 방식을 살펴보았다. 하나의 사건에서 여러 가지 유형이 추행이 한 번에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복수응답처리를 하였다. 강제추행 유형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방식은 성기 이외의 성적 접촉으로 493건(44.9%)이 이에 해당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피해자의 성기 접촉(290건, 26.4%), 성적 키스(123건, 11.2%)순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구강성교, 항

문성교, 질 등에 손가락이나 이물질 삽입 등과 같은 유사성교행위의 비율도 9.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44〉 강제추행의 유형

(단위: 건(%))

강제추행의 유형	응답		
	수	백분율	케이스 백분율
성적 키스	123	11.2	18.3
성기 이외의 성적 접촉	493	44.9	73.3
피해자의 성기접촉	290	26.4	43.1
범죄자 성기를 만지도록 강요	66	6.0	9.8
구강 성교	35	3.2	5.2
항문 성교	8	0.7	1.2
이물질 삽입	4	0.4	0.6
손가락 항문 또는 질 삽입	56	5.1	8.3
기 타	22	2.0	3.3
계	1097	100.0	163.0

* 복수응답결과임

다음은 강간범죄를 대상으로 하여 구체적인 강간유형과 기수여부를 살펴본 결과는 <표 2-45>와 같다. 먼저 강간유형을 살펴보면, 전체의 84.5%가 일반적인 강간사건인 반면에, 강도강간이 2.3%, 다수의 범죄자가 한명의 피해자에게 번갈아 가면서 성폭행을 가하는 윤간사건이 12.9%, 강도강간이면서 윤간인 경우가 1건, 강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으나 방조한 사건이 1건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체 사건 중 강간이 미수에 그친 경우가 21.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범행당시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와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를 가했는지를 살펴본 결과는 <표 2-46> 및 <표 2-47>과 같다. 먼저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유형을 살펴보면, 전체 성폭력 범죄 1,225건 중 168건(13.7%)만이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강제추행(47건)보다는 강간범죄(108건)에서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가 더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45〉 강간유형 및 기수여부

(단위: 건(%))

구 분		빈도	%
강간 유형	강 간	446	84.5
	강도강간	12	2.3
	윤 간	68	12.9
	윤간 + 강도	1	0.2
	강간방조	1	0.2
	합 계	528	100.0
기수 여부	미 수	115	21.8
	기 수	413	78.2
	합 계	528	100.0

구체적인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의 내용을 범죄유형별로 살펴보면, 강간의 경우에는 구강성교를 강요한 경우가 68.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항문강간(11.1%), 결박과 기타의 수단으로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경우(각 7.4%), 음부에 이물질 삽입(4.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강간범죄와 마찬가지로 구강성교를 강요한 경우가 68.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항문강간, 음부에의 이물질 삽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2-46〉 범죄유형별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의 내용

(단위: 건(%))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의 내용	범죄유형		계
	강간	강제추행	
음부에 이물질 삽입	5(4.6)	4(8.5)	9
구강성교 강요	74(68.5)	32(68.1)	106
담뱃불·몽둥이 등으로 신체침해	1(0.9)	1(2.1)	2
항문 강간	12(11.1)	8(17.0)	20
피해자를 못 움직이게 함	8(7.4)	0(0.0)	8
기 타	8(7.4)	2(4.3)	10
계	108(100.0)	47(100.0)	155

* 복수응답결과임

** 퍼센트 및 합계는 사례기준

다음은 극도의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에 대해서 살펴보면, 전체 성폭력사건 1,225건 중 5.6%에서 이러한 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범죄유형과 관계없이 범행과정을 촬영한 경우가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47〉 범죄유형별 극도의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단위: 건(%))

성적 수치심 유발 여부	범죄유형		계
	강간	강제추행	
모멸 행위	1(2.9)	0(0.0)	1
범행과정 촬영	28(80.0)	4(80.0)	32
기 타	6(17.1)	1(20.0)	7
계	35(100.0)	5(100.0)	40

* 복수응답결과임

** 퍼센트 및 합계는 사례기준

5) 피해결과

다음은 마지막으로 성폭력범죄로 인한 피해결과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자. 강간과 강제추행 공히 강간이나 강제추행이외의 피해가 없는 경우가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92.3%가 강제추행이외의 다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간의 경우에는 69.5%(378명)가 강간이외의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피해자가 성인이 아니라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대부분 강간범죄로 인해 처녀막파열이라는 신체적인 상해를 입게 된다. 그러나 판결문을 통해서 이러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워서 본 연구에서는 이를 신체적인 피해로 집계하지 못했다.

강간이외의 피해를 입은 경우 그 구체적인 피해내용을 살펴보면, 음부이외의 외상이 13.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음부이외의 상처나 감염 순이었다. 낮은 비율이기는 하지만, 피해자가 임신(2.0%, 11명)을 하거나, 사망한 경우(1.5%, 8명)도 발생하였다.

〈표 2-48〉 범죄유형별 성폭력범죄의 피해결과

(단위: 건(%))

피해의 정도	범죄유형		계
	강간	강제추행	
강간이나 추행이외의 피해없음	378(69.5)	649(92.3)	1,027
음부외의 상처나 감염	51(9.4)	12(1.7)	63
음부이외의 외상	73(13.4)	32(4.6)	105
금전적 피해	18(3.3)	8(1.1)	26
임 신	11(2.0)	0(0.0)	11
사 망	8(1.5)	0(0.0)	8
기 타	5(0.9)	2(0.3)	7
계	544(100.0)	703(100.0)	1,247

* 복수응답결과임

** 퍼센트 및 합계는 사례 기준

나. 아동·청소년대상 성매매알선/강요범죄의 범행특성

1) 범행발생지역

성매매알선/강요범죄가 발생한 업소가 위치한 지역 혹은 발생지역을 살펴보면, 서울이 47.4%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광주광역시(14.5%), 경상남도(13.2%)의 순으로 나타났다. 2009년 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성매매알선/강요범죄가 가장 많이 지역은 경상남도(37.1%)였으나 2010년에는 서울이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범행발생이나 업소의 실질적인 분포정보보다는 수사기관의 단속의 집중도에 따른 차이라고 풀이된다.

한편, 성매매강요범죄와 알선범죄로 구분하여 범행발생지역을 살펴보면, 성매매강요범죄의 과반수 이상은 광주광역시에서 발생한 반면에, 성매매알선범죄의 과반수 이상은 서울특별시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49〉 성매매알선/강요범죄의 범행발생지역

(단위: 건(%))

범행발생지역	범죄유형		계
	성매매강요	성매매알선	
서울특별시	2(11.1)	34(58.6)	36(47.4)
대구광역시	0(0.0)	1(1.7)	1(1.3)
인천광역시	1(5.6)	0(0.0)	1(1.3)
광주광역시	10(55.6)	1(1.7)	11(14.5)
울산광역시	0(0.0)	1(1.7)	1(1.3)
경 기 도	0(0.0)	2(3.4)	2(2.6)
충청북도	0(0.0)	5(8.6)	5(6.6)
전라남도	3(16.7)	4(6.9)	7(9.2)
경상북도	2(11.1)	0(0.0)	2(2.6)
경상남도	0(0.0)	10(17.2)	10(13.2)
계	18(100.0)	58(100.0)	76(100.0)

2) 영업형태 및 성매매 발생 장소

성매매강요 및 알선범죄의 영업형태를 살펴보면, 단란주점(25.0%)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이 티켓다방(22.6%), 인터넷알선(21.4%), 보도방(13.1%)의 순으로 나타났다. 2009년의 자료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알선이 38.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나 2010년 자료에서는 그 비율이 약 15%정도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고, 다시 티켓다방의 비율이 높아졌다.

범죄유형별로 살펴보면, 성매매강요는 티켓다방(52.6%)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그 다음이 인터넷(31.6%)상의 성매매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성매매알선은 단란주점(32.3%)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그 다음이 인터넷(18.5%), 보도방(16.9%), 티켓다방(13.8%)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2-50〉 범죄유형별 성매매 업소 유형

(단위: 건(%))

업소 유형	범죄유형		계
	성매매강요	성매매알선	
단란주점	0(0.0)	21(32.3)	21(25.0)
티켓다방	10(52.6)	9(13.8)	19(22.6)
숙박업소	2(10.5)	3(4.6)	5(6.0)
보 도 방	0(0.0)	11(16.9)	11(13.1)
인터넷알선	6(31.6)	12(18.5)	18(21.4)
마사지업소	1(5.3)	6(9.2)	7(8.3)
기 타	0(0.0)	3(4.6)	3(3.6)
계	19(100.0)	65(100.0)	84(100.0)

한편, 성매매가 발생한 장소를 살펴보면, 숙박업소가 42.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청소년이 고용된 영업소, 기타 등의 순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대상 성매매관련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숙박업소를 중심으로 한 계도와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을 출입시킨 숙박업소에 대한 철저한 제재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범죄유형별로는 성매매 발생장소가 큰 차이를 보여, 성매매강요범죄는 대부분 숙박업소에서 이루어졌고, 성매매알선범죄는 주로 청소년이 고용된 영업소(44.6%)와 숙박업소(32.3%)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51〉 범죄유형별 성매매 발생장소

(단위: 건(%))

성매매 발생장소	범죄유형		계
	성매매강요	성매매알선	
청소년이 고용된 영업소	4(21.1)	29(44.6)	33(39.3)
숙박업소	15(78.9)	21(32.3)	36(42.9)
성매매 남성의 집	0(0.0)	1(1.5)	1(1.2)
기 타	0(0.0)	14(21.5)	14(16.7)
계	19(100.0)	65(100.0)	84(100.0)

3) 범행방법

성매매강요범죄의 구체적인 범행내용을 보면, 영업으로 청소년을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70.6%, 12건). 그 다음은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하여 청소년을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경우가 23.5%(4건)를 차지하고 있으며, 위계나 선불금, 그 밖의 채무를 이용하여 곤경에 빠뜨려 청소년을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경우는 1건이었다.

〈표 2-52〉 성매매강요의 구체적인 내용 및 다른 범죄의 발생여부

(단위: 건(%))

구분		빈도	백분율	케이스 백분율
성매매강요 내용	폭행이나 협박 이용	4	23.5	25.0
	경제적 곤경 이용	1	5.9	6.3
	영업 목적	12	70.6	75.0
	계	17	100.0	106.3
다른 범죄 발생	폭 행	3	75.0	100.0
	성매매 대가 갈취	1	25.0	33.3
	계	4	100.0	133.3

* 복수응답결과임

17건의 성매매강요범죄 중 4건에서 강요이외의 다른 범죄가 발생하였는데, 3건은 폭행을 한 경우였고, 나머지 한건은 성매매 대가를 갈취한 경우였다.

다음은 성매매알선범죄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51건이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 권유 또는 강요한 경우였고, 10건이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한 경우였다. 마지막으로 8건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경우였다.

〈표 2-53〉 성매매알선범죄의 구체적인 내용

(단위: 건(%))

구체적인 내용	응답		
	빈도	백분율	케이스 백분율
장소 제공이 업인 경우	10	14.5	15.4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경우	51	73.9	78.5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알선	8	11.6	12.3
계	69	100.0	106.2

* 복수응답결과임

5.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처분 결과

가. 처분죄명 및 경합범 처리

1) 처분죄명

아래의 <표 2-54>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들의 처분죄명을 정리한 것이다. 여러 개의 죄가 경합되어 있는 경우 가장 중한 죄를 처분죄명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처분죄명은 범행특성 및 피해자특성을 명확히 드러내주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 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13세미만 딸에게 강간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법정형이 더 높은 13세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범죄로 처분죄명이 결정되기 때문에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범죄가 46건이라고 해서 피해자와 범죄자의 관계가 친족관계인 범죄가 46건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먼저 강간범죄를 대상으로 처분죄명을 살펴보면,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이 25.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이 특수강간(24.2%), 강간등상해치상(16.7%), 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14.8%),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10.5%) 등의 순이었다.

강제추행범죄의 처분죄명을 살펴보면, 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이 48.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이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등(27.6%),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10.5%)의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성매매알선/강요범죄의 구체적인 처분죄명은 성매매강요행위 27.3%, 성매매알선영업행위 72.7%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54〉 처분죄명

(단위: 건(%))

범죄유형	처분죄명	빈도(%)
강 간	아동·청소년에 대한강간 등	113(25.8)
	특수강도강간 등	19(4.3)
	특수강간 등	106(24.2)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46(10.5)
	13세미만 미성년자강간 등	66(14.8)
	강간상해치상	73(16.7)
	강간살인치사	(0.2)
	장애인에 대한 간음	11(2.5)
	강도강간	2(0.5)
	기타 준강간미수 등	2(0.5)
	계	439(100.0)
강제추행	아동·청소년에 대한 청소년강제추행 등	142(27.6)
	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252(48.9)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54(10.5)
	특수강도강제추행등	12(2.3)
	특수강제추행 등	11(2.1)
	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 등	3(0.6)
	강제추행상해치상	13(2.5)
	강제추행살인치사	1(0.2)
	업무상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1(0.2)
	유사성교행위	26(5.0)
	강간강제추행 기타	1(0.2)
	계	516(100.0)
성매매알선 /강요	성매매강요행위	12(27.3)
	성매매알선영업행위	32(72.7)
	계	44(100.0)

위에서 살펴본 처분죄명이외에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사건이 다른 범죄와 경합되었는가를 살펴본 결과는 <표 2-55>와 같다. 전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사건의 59.8%가 경합된 범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합범죄가 있는 경우 그 유형을 살펴보면, 성범죄에 동종범죄가 경합된 경우가 16.3%, 이종범죄가 경합된 경우가 16.5%인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유형별로 보면, 성매매알선/강요는 다른 범죄유형에 비해 경합범죄의 비율이 높아 81.8%의 사건이 다른 범죄가 경합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매매알선/강요범죄는 이중범죄의 경합비율이 63.6%로 세 가지 범죄유형 중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경합범죄 비율이 높은 범죄유형은 강간으로 51.3%의 사건이 다른 범죄가 경합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간은 다른 범죄와는 달리 이중범죄보다는 동종범죄의 경합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강제추행은 경합범죄비율이 27.3%로 세 가지 범죄유형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55〉 범죄유형별 경합범 처리여부

(단위: 건(%))

경합여부	범죄유형			계
	강간	강제추행	성매매알선/강요	
경합범죄 없음	214(48.7)	375(72.7)	8(18.2)	597(59.8)
이중범죄 경합	71(15.9)	74(14.3)	21(47.7)	165(16.5)
동종범죄 경합	101(23.0)	54(10.5)	8(18.2)	163(16.3)
이중·동종범죄 경합	54(12.3)	13(2.5)	7(15.9)	74(7.4)
계	439(100.0)	516(100.0)	44(100.0)	999(100.0)

나. 선고형의 종류와 형량

1) 1심 선고형의 종류와 형량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들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형의 종류를 징역형, 집행유예, 치료감호, 벌금형 등 크게 4가지 유형으로 살펴본 결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자가 56.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그 다음이 집행유예 38.5%, 벌금형 3.2%, 치료감호 1.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범죄유형별로 살펴보면, 강간의 경우 징역형의 비율이 71.3%로 세 가지 범죄유형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그 다음이 집행유예로 전체의 27.3%를 차지하였다. 치료감호처분을 선고받은 경우는 5명이었으며, 벌금형을 선고받은 범죄자는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징역형의 비율이 45.7%로 가장 높기는 하였지만, 집행유예 선고비율이 45.5%로 징역형의 비율과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벌금형의 비율이 6.2%로 세 가지 범죄유형 중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성매매알선/강요의 경우에는 집행유예의 비율이 68.2%로 세 가지 범죄유형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이 징역형으로 31.8%를 차지하였고, 치료감호, 벌금형을 선고받은 범죄자는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56〉 범죄유형별 1심 선고형의 종류

(단위: 명(%))

1심 선고형의 종류	범죄유형			계
	강간	강제추행	성매매알선/강요	
징역형	313(71.3)	236(45.7)	14(31.8)	563(56.4)
사형	1(0.2)	0(0.0)	0(0.0)	1(0.1)
무기징역	0(0.0)	2(0.4)	0(0.0)	2(0.2)
유기징역	312(71.1)	233(45.3)	14(31.8)	560(56.1)
집행유예	14(3.2)	60(11.6)	5(11.4)	79(7.9)
집행유예+부가처분	106(24.1)	175(33.9)	25(56.8)	306(30.6)
집행유예+사회봉사	13(3.0)	19(3.7)	6(13.6)	38(3.8)
집행유예+보호관찰	11(2.5)	19(3.7)	0(0.0)	30(3.0)
집행유예+보호관찰+사회봉사	8(1.8)	14(2.7)	9(20.5)	31(3.1)
집행유예+보호관찰+수강명령	19(4.3)	29(5.6)	0(0.0)	48(4.8)
집행유예+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	25(5.7)	13(2.5)	4(9.1)	42(4.2)
집행유예+수강명령+사회봉사	11(2.5)	27(5.2)	4(9.1)	42(4.2)
집행유예+수강명령	19(4.3)	54(10.5)	2(4.5)	75(7.5)
치료감호	5(1.1)	10(1.9)	0(0.0)	15(1.5)
벌금	0(0.0)	32(6.2)	0(0.0)	32(3.2)
기타	1(0.2)	3(0.6)	0(0.0)	4(0.4)
계	439(100.0)	516(100.0)	44(100.0)	999(100.0)

각 범죄유형별로 1심 선고형의 종류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세분하여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먼저 강간의 경우 징역형은 사형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유기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집행유예의 경우 집행유예만을 단독으로 받은 경우는 14명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이 부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강제추행의 경우 징역형은 무기형 2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유기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간범죄와 마찬가지로 집행유예만을 단독으로 선고받은 경우는 전체의 11.6%에 불과하고, 33.9%는 집행유예에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이 부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성매매알선/강요의 경우에도 강간과 강제추행과 마찬가지로 집행유예만을 단독으로 선고받은 경우는 11.4%에 불과하고, 56.8%가 집행유예에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이 부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명 중 사형과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3명을 제외한 560명에 대한 구체적인 선고형량을 살펴보면, <표 2-57>과 같다. 유기징역형을 선고받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3.6%가 1년 미만의 형을 선고받았으며, 35.4%가 1년 이상~3년 미만의 형을 선고받았고, 31.1%가 3년 이상~5년 미만의 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5년 이상~10년 미만 22.1%,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자는 7.9%인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유형별로 보면, 강간의 경우에는 3년 이상~5년 미만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자가 36.2%(113명)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5년 이상~10년 미만 34.3%(107명), 10년 이상이 11.5%(36명)를 차지하였다.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1년 이상~3년 미만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57.7%, 135명), 3년 이상~5년 미만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자들이 23.9%(56명), 1년 미만을 선고받은 범죄자들이 7.7%(18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매매알선/강요의 경우에는 1년 이상~3년 미만이 57.1%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3년 이상~5년 미만(35.7%)의 순으로 나타났다.

징역형이 3년 미만인 경우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강제추행이 가장 높은 65.4%, 그 다음이 성매매알선이 64.2%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강간은 17.9%만이 3년 미만의 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57〉 범죄유형별 1심 유기징역의 형량

(단위: 명(%))

1심 유기징역의 형량	범죄유형			계
	강간	강제추행	성매매알선/강요	
1년 미만	1(0.3)	18(7.7)	1(7.1)	20(3.6)
1년~3년 미만	55(17.6)	135(57.7)	8(57.1)	198(35.4)
3년~5년 미만	113(36.2)	56(23.9)	5(35.7)	174(31.1)
5년~10년 미만	107(34.3)	17(7.3)	0(0.0)	124(22.1)
10년 이상	36(11.5)	8(3.4)	0(0.0)	44(7.9)
계	312(100.0)	234(100.0)	14(100.0)	560(100.0)

범죄유형별로 유기징역 및 집행유예의 평균형량과 평균 벌금액수를 분석한 결과는 <표 2-58>과 같다. 먼저 유기징역의 평균형량을 살펴보면, 강간의 경우에는 평균형량 64.5개월이었으며, 형량이 가장 낮은 경우는 10개월, 가장 높은 경우는 300개월(25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평균형량이 32.3개월이었으며, 형량이 가장 낮은 경우는 6개월, 가장 높은 경우는 180개월(15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매매알선/강요의 경우에는 평균형량이 30개월이었고, 형량이 가장 낮은 경우는 8개월, 가장 높은 경우는 48개월(4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58〉 범죄유형별 1심 유기징역 및 집행유예 평균 형량

구분		평균	최소값	최대값	사례수	표준편차
유기징역 평균형량 (월)	강간	64.47	10	300	312	44.092
	강제추행	32.32	6	180	235	26.896
	성매매알선/강요	29.71	8	48	14	11.337
	계	50.14	6	300	561	40.534
집행유예 평균형량 (월)	강간	42.51	24	60	120	9.326
	강제추행	32.18	12	60	236	9.686
	성매매알선/강요	39.20	24	48	30	8.298
	계	35.94	12	60	386	10.596
강제추행 평균벌금액수(만원)		585.94	100	1,500	32	339.41

강간범죄의 평균형량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은 강제추행, 성매매알선/강요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평균형량이 가장 높은 강간범죄의 경우에는 표준편차가 커 강간범죄자간 형량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집행유예를 받은 범죄자들의 평균기간을 살펴보면, 강간의 경우에는 평균기간은 42.5개월이었으며, 기간이 가장 짧은 경우는 24개월, 가장 높은 경우는 60개월(5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평균기간이 32.2개월이었으며, 기간이 가장 짧은 경우는 12개월, 가장 긴 경우는 60개월(5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매매알선/강요의 경우에는 평균형량이 39.20개월이었고, 기간이 가장 짧은 경우는 24개월, 가장 높은 경우는 48개월(4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간범죄자의 집행유예기간이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은 성매매알선/강요범죄였고, 강제추행범죄자의 집행유예기간이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표준편차가 다른 범죄유형에 비해 커 강제추행범죄자들 간 집행유예기간의 편차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벌금형을 받은 경우 평균 벌금액수를 살펴보기로 하자. 2010년 신상정보등록대상자분석에서 벌금형을 받은 경우는 강제추행범죄자들뿐이었다. 따라서 강제추행범죄자들의 평균벌금액수를 알아본 결과는 평균액수는 5,859,400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벌금액수가 가장 적은 경우는 100만원, 가장 많은 경우는 1,500만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징역형, 집행유예, 벌금형 등과 같은 선고형의 종류이외에 2009년부터 새롭게 도입된 전자발찌부착명령 부과현황을 살펴본 결과는 <표 2-59>와 같다. 1,005명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중 164명이 1심에서 법원으로부터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유형별로 보면, 강간범죄자의 19.4%, 강제추행범죄자의 15.3%가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59〉 범죄유형별 1심 전자발찌 부착명령 여부

(단위: 명(%))

전자발찌 부착명령 여부	범죄유형					계
	강간	강제추행	성매매강요	성매매알선	성매수	
그렇다	85(19.4)	79(15.3)	0(0.0)	0(0.0)	0(0.0)	164(16.3)
아니다	354(80.6)	437(84.7)	12(100.0)	32(100.0)	6(100.0)	841(83.7)
계	439(100.0)	516(100.0)	12(100.0)	32(100.0)	6(100.0)	1,005(100.0)

전자발찌 부착명령이 집행유예와 함께 선고되었는지 아니면, 형집행 후 부착으로 선고되었는지를 살펴본 결과는 아래와 같다.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범죄자 중 87.2%가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7.3%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4.9%가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은 집행유예 후 사회내 처분의 하나로서 범죄자를 감시감독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매우 적고, 대부분이 형기 만료(징역형이나 치료감호) 후 고위험 범죄자에 대한 지역사회내 감시감독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60〉 전자발찌 부착명령여부별 1심 선고형의 종류

(단위: 명(%))

1심 선고형 종류	전자발찌 부착명령 여부		계
	그렇다	아니다	
징역형	143(87.2)	424(50.4)	567(56.4)
집행유예	12(7.3)	375(44.6)	387(38.5)
치료감호	8(4.9)	7(0.8)	15(1.5)
벌금형	0(0.0)	32(3.8)	32(3.2)
기타	1(0.6)	3(0.4)	4(0.4)
계	164(100.0)	841(100.0)	1,005(100.0)

마지막으로 전자발찌 평균부착기간을 살펴보면, 강간의 경우에는 6.25년이었고, 부착기간이 가장 짧은 경우가 2년, 가장 긴 경우가 15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평균기간이 4.70년이었고, 부착기간이 가장 짧은 경우가 1년, 가장 긴 경우가 20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61〉 범죄유형별 평균 전자발찌 부착기간

구분	평균	최소값	최대값	사례수	표준편차
강간	6.25년	2년	15년	85	2.516
강제추행	4.70년	1년	20년	80	3.103
계	5.50년	1년	20년	165	2.913

2) 항소 및 상고여부와 최종심의 선고형

위와 같은 1심에 대한 선고결과에 대해 범죄자의 68.3%가 항소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소한 경우 그 주체를 살펴보면, 피고인이 1심결과에 불복하여 항소한 경우는 전체의 28.4%, 검사가 항소한 경우는 16.6%, 쌍방이 항소한 경우는 23.2%로 나타났다.

범죄유형별로 살펴보면, 강간범죄의 경우 항소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이 강제추행, 성매매알선/강요의 순으로 나타났다. 범죄유형과 관계없이 피고인이 1심 선고결과에 불복하여 항소한 경우가 가장 높았다.

항소결과를 살펴보면, 61.2%가 기각되었으며, 나머지 38.8%만이 2심으로 넘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항소결과를 범죄유형별로 살펴보면, 항소기각율이 가장 높은 범죄유형은 성매매알선/강요였으며(66.7%), 그 다음이 강제추행(63.7%)였고, 강간범죄의 항소기각율이 58.7%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62〉 범죄유형별 항소여부 및 그 결과

(단위: 명(%))

구분		범죄유형			계
		강간	강제추행	성매매알선/강요	
항소 여부	항소하지 않음	81(18.5)	213(41.3)	23(52.3)	317(31.7)
	피고인이 항소	160(36.4)	112(21.7)	12(27.3)	284(28.4)
	검사가 항소	62(14.1)	98(19.0)	6(13.6)	166(16.6)
	쌍방이 항소	136(31.0)	93(18.0)	3(6.8)	232(23.2)
	계	439(100.0)	516(100.0)	44(100.0)	999(100.0)
항소 결과	항소 기각	210(58.7)	195(63.7)	14(66.7)	419(61.2)
	2심 진행	148(41.3)	111(36.3)	7(33.3)	266(38.8)
	계	358(100.0)	306(100.0)	21(100.0)	685(100.0)

2심에서 3심으로 상고한 경우를 살펴보면, 25.2%만이 상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고주체를 살펴보면, 피고인이 2심결과에 불복하여 상고한 경우가 22.9%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검사가 상고한 경우는 0.4%에 불과하였다. 범죄유형별로 살펴보면, 강간의 경우 상고율이 23.8%, 강제추행범죄가 24.3%, 성매매알선/강요범죄가 62.5%로 성매매/

알선범죄의 경우 다른 범죄유형에 비해 상고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상고결과를 살펴보면, 상고한 사건의 모두가 기각되어, 3심으로 진행된 사건은 한건도 없었다.

〈표 2-63〉 범죄유형별 상고여부

(단위: 명(%))

상고여부	범죄유형			계
	강간	강제추행	성매매알선/강요	
상고하지 않음	112(76.2)	81(75.7)	3(37.5)	196(74.8)
피고인이 상고	34(23.1)	21(19.6)	5(62.5)	60(22.9)
검사가 상고	1(0.7)	0(0.0)	0(0.0)	1(0.4)
쌍방이 상고	0(0.0)	5(4.7)	0(0.0)	5(1.9)
계	147(100.0)	107(100.0)	8(100.0)	262(100.0)

이러한 과정을 거쳐 진행된 사건의 최종심 선고형의 종류를 살펴본 결과, 최종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자가 49.2%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그 다음이 집행유예에 사회봉사 등이 부가된 경우가 35.4%, 집행유예 10.3%, 벌금형 3.4%, 치료감호 1.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범죄유형별로 살펴보면, 강간의 경우 징역형의 비율이 62.0%로 세 가지 범죄유형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그 다음이 집행유예에 사회봉사 등이 부가된 경우로 전체의 31.0%를 차지하였다. 치료감호처분을 선고받은 경우는 5명이었으며, 벌금형을 선고받은 범죄자는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집행유예(집행유예단독과 집행유예+부가처분)의 비율이 50.8%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징역형으로 40.5%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벌금형의 비율이 6.6%로 세 가지 범죄유형 중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성매매알선/강요의 경우에는 집행유예(집행유예단독과 집행유예+부가처분)의 비율이 75.0%로 세 가지 범죄유형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64〉 범죄유형별 최종심 선고형의 종류

(단위: 명(%))

최종심 선고형의 종류	범죄유형			계
	강간	강제추행	성매매알선 /강요	
징역형	272(62.0)	209(40.5)	11(25.0)	492(49.2)
사형	1(0.2)	0(0.0)	0(0.0)	1(0.1)
무기	0(0.0)	2(0.4)	0(0.0)	2(0.2)
유기	271(61.7)	207(40.1)	11(25.0)	489(48.9)
집행유예	26(5.9)	71(13.8)	6(13.6)	103(10.3)
집행유예+부가처분	136(31.0)	191(37.0)	27(61.4)	354(35.4)
집행유예+사회봉사	15(3.4)	20(3.9)	8(18.2)	43(4.3)
집행유예+보호관찰	19(4.3)	22(4.3)	0(0.0)	41(4.1)
집행유예+보호관찰+ 사회봉사	11(2.5)	17(3.3)	9(20.5)	37(3.7)
집행유예+보호관찰+ 수강명령	25(5.7)	34(6.6)	0(0.0)	59(5.9)
집행유예+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26(5.9)	16(3.1)	4(9.1)	46(4.6)
집행유예+수강명령+ 사회봉사	16(3.6)	25(4.8)	4(9.1)	45(4.5)
집행유예+수강명령	24(5.5)	57(11.0)	2(4.5)	83(8.3)
치료감호	5(1.1)	11(2.1)	0(0.0)	16(1.6)
벌금	0(0.0)	34(6.6)	0(0.0)	34(3.4)
계	439(100.0)	516(100.0)	44(100.0)	999(100.0)

최종심에서 유기징역형을 받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평균형량을 살펴보면, 전체 범죄자의 경우 50.87개월로 1심에 비해 평균형량이 다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유형별로 살펴보면, 강간의 경우 평균 유기징역형량이 66.17개월, 강제추행 32.08개월, 성매매알선/강요 28.91개월로 나타났다. 강간의 경우 최종심에서 평균형량이 다소 더 높아진 반면에, 강제추행과 성매매알선/강요의 경우 최종심에서 평균형량이 다소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 2-65〉 범죄유형별 최종심 유기징역형 평균형량

범죄유형	1심			최종심		
	평균	사례수	표준편차	평균	사례수	표준편차
강 간	64.47	312	44.09	66.17	271	44.17
강제추행	32.32	235	26.89	32.08	208	26.13
성매매알선/강요	29.71	14	11.34	28.91	11	8.40
계	50.14	561	40.53	50.87	490	40.73

다.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다음은 마지막으로 신상정보등록자 중 공개대상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분석하였다. 2010년 신상정보등록자료의 경우 2010년에 최종심까지 확정된 아동대상성범죄사건이기 때문에 1심이 공개제도가 실시된 2010. 1. 1일 이전에 진행되어 열람명령을 받은 범죄자들이 전체의 26.2%를 차지하고 있다.

열람명령이란 법원이 1) 13세미만의 청소년에 대하여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열람명령을 선고받고 다시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3) 13세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13세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5)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심신장애자로서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¹²⁾에 대해 판결로서 열람정보를 5년간 열람에 제공하도록 하는 명령을 말한다. 이러한 등록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은 등록대상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시·군·구 내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법정대리인과 등록대상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시·군·구 내의 제42조 제1항 각 호의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의 장에 한정되어 있었다.

이와 같은 열람명령제도가 2010. 1. 1부터 공개명령제도로 변화되었다. 법원이 판결로서 명령을 내린다는 점과 명령대상자가 열람명령대상자와 동일하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나 열람명령대상자의 열람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이 매우 한정적인 것에 비

12) 이러한 항목에 해당하더라도, 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피고인이 청소년인 경우에는 열람명령을 내리지 않는다.

해 공개명령제도는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성년자로서 실명인증 절차를 거치면 성인이면 누구든지 등록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2010년 신상정보등록대상자 중 공개명령대상이 된 범죄자는 274명, 27.4%에 해당된다. 범죄유형별로 보면, 강간은 공개명령대상자가 22.1%, 강제추행은 34.3%로 강제추행이 강간에 비해 공개명령대상자 비율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났다.

〈표 2-66〉 범죄유형별 신상공개여부

(단위: 명(%))

신상공개여부		범죄유형			계
		강간	강제추행	성매매알선 /강요	
등 록		240(54.7)	179(34.7)	44(100.0)	463(46.3)
공 개	열람명령	102(23.2)	160(31.0)	0(0.0)	262(26.2)
	공개명령	97(22.1)	177(34.3)	0(0.0)	274(27.4)
계		439(100.0)	516(100.0)	44(100.0)	999(100.0)

제3장 13세미만 아동대상 성폭력범죄의 특성

1. 13세미만 아동대상 성폭력 범죄자의 특성

2010년 전체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자(953명) 중 13세미만을 대상으로 한 범죄자는 389명으로 전체의 40.8%를 차지하여 2009년의 46.7%에 비해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 사회인구학적 특성

1) 성

성폭력범죄자의 성별에 따른 피해자연령별 현황을 <표 3-1>에 제시하였다. 피해자가 13세미만인 경우 성폭력범죄자는 모두 남자였고, 피해자가 13세이상인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자 중에 여자가 2명(0.4%)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 피해자연령별 범죄자 성

(단위: 명(%))

범죄자 성별	피해자 연령		계
	13세미만	13세이상	
남 자	389(100.0)	562(99.6)	951(99.8)
여 자	0(0.0)	2(0.4)	2(0.2)
계	389(100.0)	564(100.0)	953(100.0)

* 결측 2건을 제외한 분석결과임

2) 국적

성폭력범죄자의 국적에 따른 피해자연령별 현황을 살펴 본 결과(<표 3-2> 참조), 피해자가 13세미만인 경우와 13세이상인 경우 거의 대부분은 내국인이었고, 외국인은 각각 3명씩(0.8%와 0.4%)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 피해자연령별 범죄자의 국적

(단위: 명(%))

범죄자 국적	피해자 연령		계
	13세미만	13세이상	
내국인	386(99.2)	561(99.5)	947(99.4)
외국인	3(0.8)	3(0.4)	6(0.6)
계	389(100.0)	564 (100.0)	953(100.0)

* 결측 2건을 제외한 분석결과임

3) 연령

성폭력범죄자의 연령에 따른 피해자연령별 현황을 살펴 본 결과(<표 3-3> 참조), 피해자가 13세미만인 경우에는 40대의 비율이 27.2%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30대(20.1%), 50대(18.8%)의 순이었고 10대와 20대는 각각 6.9%, 1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30대에서 50대가 66.1%를 차지하였다. 피해자가 13세이상인 경우에는 20대의 비율이 26.2%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40대(21.5%), 30대(20.6%), 그리고 10대(18.3%)의 순으로 나타나 20대에서 40대가 68.3%를 차지하였다. 이 결과는 13세미만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피해자와의 나이차가 많은 범죄자들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표 3-3〉 피해자연령별 범죄자의 연령

(단위: 명(%))

범죄자 연령	피해자 연령				계	
	13세미만		13세이상			
10대	27	6.9	103	18.3	130	13.6
20대	46	11.8	148	26.2	194	20.4
30대	78	20.1	116	20.6	194	20.4
40대	106	27.2	121	21.5	227	23.8
50대	73	18.8	61	10.8	134	14.1
60대	47	12.1	9	1.6	56	5.9
70대 이상	12	3.1	6	1.1	18	1.9
계	389	100.0	564	100.0	953	100.0

* 결측 2건을 제외한 분석결과임

4) 직업

성폭력범죄자의 직업에 따른 피해자연령별 현황을 살펴 본 결과(<표 3-4> 참조), 피해자가 13세미만인 경우에는 무직자의 비율이 27.5%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단순노무직(22.4%), 관리자(14.7%), 기능조작직(10.3%)의 순이었다. 피해자가 13세이상인 경우에는 무직자의 비율이 30.1%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단순노무직(15.8%), 서비스직과 학생(각각 11.5%)의 순이었다. 피해자의 연령이 13세이상인 경우에 비해 13세미만인 경우에 관리자와 단순노무직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학생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 피해자연령별 범죄자의 직업

(단위: 명(%))

성폭력범죄자 직업	피해자 연령		계
	13세미만	13세이상	
관리자	57(14.7)	48(8.5)	105(11.0)
사무직	29(7.5)	56(9.9)	85(8.9)
서비스직	29(7.5)	65(11.5)	94(9.9)
농축산업	13(3.3)	12(2.1)	25(2.6)
기능조작직	40(10.3)	45(8.0)	85(8.9)
단순노무직	87(22.4)	89(15.8)	176(18.5)
직업군인	0(0.0)	3(0.5)	3(0.3)
학생	19(4.9)	65(11.5)	84(8.8)
무직	107(27.5)	170(30.1)	277(29.1)
기타	8(2.1)	11(2.0)	19(2.0)
계	389(100.0)	564(100.0)	953(100.0)

* 결측 2건을 제외한 분석결과임

다음은 직업을 청소년보호직종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피해자연령별 현황을 살펴 본 결과(<표 3-5> 참조), 청소년 보호직종 종사자의 비율이 피해자가 13세미만인 경우에는 9.3%, 13세이상인 경우에는 4.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나이가 어린 경우 청소년보호직종 종사자로부터 피해를 당한 비율이 높았다.

〈표 3-5〉 피해자연령별 청소년 보호직종여부

(단위: 명(%))

청소년보호 직종 여부	피해자 연령		계
	13세미만	13세이상	
그렇다	36(9.3)	24(4.3)	60(6.3)
아니다	353(90.7)	540(95.7)	893(93.7)
계	389(100.0)	564(100.0)	953(100.0)

* 결측 2건을 제외한 분석결과임

5) 거주지역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역에 따른 피해자연령별 현황을 살펴 본 결과(<표 3-6> 참조), 피해자가 13세미만인 경우에는 경기지역의 비율이 22.6%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표 3-6〉 피해자연령별 범죄자의 거주 지역

(단위: 명(%))

범죄자 거주지역	피해자 연령		계
	13세미만	13세이상	
서울특별시	50(12.9)	81(14.4)	131(13.7)
부산광역시	28(7.2)	38(6.7)	66(6.9)
대구광역시	18(4.6)	29(5.1)	47(4.9)
인천광역시	26(6.7)	27(4.8)	53(5.6)
광주광역시	18(4.6)	24(4.3)	42(4.4)
대전광역시	12(3.1)	18(3.2)	30(3.1)
울산광역시	13(3.3)	20(3.5)	33(3.5)
경 기 도	88(22.6)	127(22.5)	215(22.6)
강 원 도	12(3.1)	13(2.3)	25(2.6)
충청북도	15(3.9)	16(2.8)	31(3.3)
충청남도	22(5.7)	25(4.4)	47(4.9)
전라북도	27(6.9)	32(5.7)	59(6.2)
전라남도	20(5.1)	38(6.7)	58(6.1)
경상북도	12(3.1)	25(4.4)	37(3.9)
경상남도	18(4.6)	41(7.3)	59(6.2)
제주특별자치도	10(2.6)	10(1.8)	20(2.1)
계	389(100.0)	564(100.0)	953(100.0)

* 결측 2건을 제외한 분석결과임

서울(12.9%), 부산(7.2%), 전북(6.9%)의 순이었다. 피해자가 13세이상인 경우에는 경기 지역이 22.5%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서울(14.4%), 경남(7.3%)의 순이었다. 인구가 많은 경기와 서울지역의 비율이 거의 40% 가까이 되었다.

6) 지적장애 여부

성폭력범죄자의 지적장애여부에 따른 피해자연령별 현황을 살펴 본 결과(<표 3-7> 참조), 성폭력범죄자가 지적장애자인 경우가 피해자의 연령이 13세미만인 경우에는 6.7%, 13세이상인 경우에는 2.5%로 나타나, 지적장애자의 비율은 13세이상보다는 13세미만인 경우에 더 높았다.

〈표 3-7〉 피해자연령별 지적장애여부

(단위: 명(%))

정신지체 여부	피해자 연령		계
	13세미만	13세이상	
그렇다	26(6.7)	14(2.5)	40(4.2)
아니다	363(93.3)	550(97.5)	913(95.8)
계	389(100.0)	564(100.0)	953(100.0)

* 결측 2건을 제외한 분석결과임

7) 정신과 병력여부

성폭력범죄자의 정신감정 및 정신치료여부에 따른 피해자연령별 현황을 살펴 본 결과(<표 3-8> 참조), 과거에 병원에서 정신감정을 받거나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성폭력범죄자가 피해자의 연령이 13세미만인 경우에는 9.0%, 13세이상인 경우에는 4.1%로 나타나, 정신과 병력이 있는 경우는 13세이상보다는 13세미만인 경우에 다소 더 높았다.

〈표 3-8〉 피해자연령별 범죄자 정신과 감정 및 치료여부

(단위: 명(%))

정신과 감정 및 치료여부	피해자 연령		계
	13세미만	13세이상	
그렇다	35(9.0)	23(4.1)	58(6.1)
아니다	354(91.0)	541(95.9)	895(93.9)
계	389(100.0)	564(100.0)	953(100.0)

* 결측 2건을 제외한 분석결과임

나. 범죄경력

1) 범행당시 형사처분 집행 중인지의 여부

피해자의 연령별로 범죄자가 범행당시 이전의 범죄로 인해 처분을 받고 있는 중이 었는지의 여부를 살펴본 결과(<표 3-9> 참조), 피해자의 연령이 13세미만인 경우에는 범죄자의 96.1%가 범죄경력이 없었고, 보호관찰/집행유예 중인 경우가 3.9%, 가석방중 이거나 보석/형집행정지 중인 경우는 한명도 없었다. 피해자의 연령이 13세이상인 경 우에는 94.9%가 범죄경력이 없었고, 보호관찰/집행유예 중인 경우가 4.4%, 가석방 중 이거나 보석/형집행정지 중인 경우가 각각 0.2%(1명)씩 이었다. 즉, 피해자의 연령이 13세미만인 경우에는 범죄자의 3.9%, 13세이상인 경우에는 5.1%가 본 건 이전에 저지 른 범죄로 형사처분 집행 중에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9〉 피해자연령별 범행시 형사처분 집행 중이었던지의 여부

(단위: 건(%))

범행시 형사처분 집행 중이었던지의 여부	피해자 연령		계
	13세미만	13세이상	
해당사항 없음	374(96.1)	535(94.9)	909(95.4)
보호관찰/집행유예 중	15(3.9)	25(4.4)	40(4.2)
가 석 방 중	0(0.0)	1(0.2)	1(0.1)
보석/형집행정지 중	0(0.0)	1(0.2)	1(0.1)
기 타	0(0.0)	2(0.4)	2(0.2)
계	389(100.0)	564(100.0)	953(100.0)

* 결측 2건을 제외한 분석결과임

2) 범죄경력유무 및 유형

피해자연령별 성폭력범죄자의 범죄경력을 동종범죄경력과 이종범죄경력으로 나누 어 살펴본 결과(<표 3-10> 참조), 피해자의 연령이 13세미만인 경우에는 73.3%는 범죄 경력이 없었고 성범죄(동종범죄)경력이 있는 경우가 15.7%, 이종범죄경력이 있는 경우 가 13.4%였다. 피해자의 연령이 13세이상인 경우에 73.2%는 범죄경력이 없었고 이종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가 15.6%, 성범죄(동종범죄)경력이 있는 경우가 12.4%였다.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이중범죄경력에 비해 동종범죄경력자의 비율이, 13세이상인 경우에는 동종범죄경력자에 비해 이중범죄경력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3-10〉 피해자연령별 범죄경력유무 및 유형

(단위: 건(%))

범죄경력 유무 및 유형	피해자 연령		계
	13세미만	13세이상	
범죄경력 없음	285(73.3)	413(73.2)	689(73.2)
동종 범죄경력	52(13.4)	63(11.2)	115(12.1)
이중 범죄경력	43(11.1)	81(14.4)	124(13.0)
동종+이중범죄경력	9(2.3)	7(1.2)	16(1.7)
계	389(100.0)	564(100.0)	953(100.0)

* 결측 2건을 제외한 분석결과임

3) 동종범죄경력 횟수 및 내용

피해자연령별로 성폭력범죄자 중 동종범죄경력자만을 대상으로 범죄경력 횟수를 살펴본 결과(〈표 3-11〉 참조), 피해자의 연령이 13세미만인 경우에는 1회의 동종범죄 경력을 갖고 있는 범죄자가 59.6%, 3회 이상 23.1%, 2회 17.3%인 것으로 나타났고, 13세이상인 경우에는 1회 77.8%, 2회 17.5%, 3회 이상 4.8%로 나타났다. 즉, 피해자의 연령이 13세미만의 경우 2회 이상의 동종범죄경력자의 비율이 13세이상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3-11〉 피해자연령별 동종범죄경력 횟수

(단위: 건(%))

동종범죄경력 횟수	피해자 연령		계
	13세미만	13세이상	
1회	31(59.6)	49(77.8)	80(69.6)
2회	9(17.3)	11(17.5)	20(17.4)
3회 이상	12(23.1)	3(4.8)	15(13.0)
계	52(100.0)	63(100.0)	115(100.0)

4) 이중범죄경력 횟수 및 내용

피해자연령별로 성폭력범죄자 중 이중범죄경력자만을 대상으로 범죄경력 횟수를 살펴본 결과(<표 3-12> 참조), 피해자의 연령이 13세미만인 경우에는 1회의 이중범죄 경력을 갖고 있는 범죄자가 72.1%, 2회 18.6%, 3회 이상 9.3%로 나타났고, 13세이상인 경우에는 1회 66.7%, 2회 18.5%, 3회 이상 14.8%로 나타났다. 즉, 피해자의 연령이 13세 이상의 경우 2회 이상의 이중범죄경력자의 비율이 13세미만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3-12> 피해자연령별 이중범죄경력 횟수

(단위: 건(%))

이중범죄경력 횟수	피해자 연령		계
	13세미만	13세이상	
1회	31(72.1)	54(66.7)	85(68.5)
2회	8(18.6)	15(18.5)	23(18.5)
3회 이상	4(9.3)	12(14.8)	16(12.9)
계	43(100.0)	81(100.0)	124(100.0)

5) 범행시 범죄자의 역할

피해자연령별로 성폭력범죄자 중 범행시 범죄자의 역할을 살펴본 결과(<표 3-13> 참조), 피해자의 연령이 13세미만인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인 99.2%가 단독범이었으며, 13세이상인 경우에는 단독범이 82.3%, 공범 모두 주요하게 관여한 경우가 11.9%, 공범 있을 때 주된 역할을 한 경우가 3.9%였다.

<표 3-13> 피해자연령별 범죄자의 역할

(단위: 건(%))

범죄자 역할	피해자 연령		계
	13세미만	13세이상	
단독범	386(99.2)	464(82.3)	850(89.2)
공범시 주된 역할	1(0.3)	22(3.9)	23(2.4)
공범 모두 주요 관여	2(0.5)	67(11.9)	69(7.2)
단순가담	0(0.0)	9(1.6)	9(0.9)
기타	0(0.0)	2(0.4)	2(0.2)
계	389(100.0)	564(100.0)	953(100.0)

* 결측 2건을 제외한 분석결과임

2. 피해 아동의 특성

가. 사회인구학적 특성

먼저 피해자연령별로 피해 아동·청소년의 성별을 살펴본 결과(<표 3-14> 참조), 피해자의 연령이 13세미만인 경우에는 531명중 남자는 32명(6%)이었고, 13세이상인 경우에는 693명 중 남자가 21명(3.0%)이었다.

〈표 3-14〉 피해자연령별 피해 아동·청소년의 성별

(단위: 명(%))

피해자 성별	피해자 연령		계
	13세미만	13세이상	
남 자	32(6.0)	21(3.0)	53(4.3)
여 자	499(94.0)	672(97.0)	1,171(95.7)
계	531(100.0)	693(100.0)	1,224(100.0)

피해 아동·청소년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표 3-15> 참조), 피해자의 연령이 13세미만인 경우에는 7~12세의 비율이 85.9%, 6세이하는 14.1%였다. 13세이상인 경우에는 13~15세의 비율이 50.6%, 16세이상 49.4%였다.

〈표 3-15〉 피해자연령별 피해 아동·청소년의 연령

(단위: 명(%))

피해자 연령	피해자 연령		계
	13세미만	13세이상	
6세이하	75 (14.1)	-	75(6.1)
7~12세	469(85.9)	-	469(37.3)
13~15세	-	351(50.6)	351(28.7)
16세이상	-	342(49.4)	342(25.5)
계	531(100.0)	693(100.0)	1,224(100.0)

피해자연령별로 피해 아동·청소년의 장애여부 및 유형을 살펴보면(<표 3-16> 참조), 피해자의 연령이 13세미만인 경우에는 531명중 정신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17명(3.2%) 있었고, 13세이상인 경우에는 693명 중 신체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3명(0.4%), 정신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31명(4.5%) 있었다.

〈표 3-16〉 피해자연령별 피해 아동·청소년의 장애여부

(단위: 명(%))

피해자 장애여부	피해자 연령		계
	13세미만	13세이상	
장애 없음	514(96.8)	659(95.1)	1,173(95.8)
신체 장애	0(0.0)	3(0.4)	3(0.2)
정신 장애	17(3.2)	31(4.5)	48(3.9)
계	531(100.0)	693(100.0)	1,224(100.0)

피해자연령별로 피해 당시 아동·청소년이 가출상태였는지를 살펴본 결과(<표 3-17> 참조), 피해자의 연령이 13세미만인 경우에는 531명중 3명(0.6%)이 가출상태였고, 13세이상인 경우에는 693명 중 69명(10%)이 가출상태에 있었다.

〈표 3-17〉 피해자연령별 피해 아동·청소년의 피해당시 가출여부

(단위: 명(%))

피해자의 가출여부	피해자 연령		계
	13세미만	13세이상	
가 출	3(0.6)	69(10.0)	72(5.9)
가출하지 않은 상태	528(99.4)	624(90.0)	1,152(94.1)
계	531(100.0)	693(100.0)	1,224(100.0)

나. 범죄자와의 관계

피해자연령별로 피해 아동·청소년과 범죄자와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표 3-18> 참조), 피해자의 연령이 13세미만인 경우에는 전혀 모르는 사람의 비율이 55.3%로 가장 높았고, 아는 사람 28.9%, 가족 및 친척 15.8%였다. 범죄자와의 관계를 보다 자세히 살

해보면, 낯선 사람의 비율이 52.3%로 가장 높았고, 안면만 있는 사람(6.5%), 이웃이나 잘 알고 지내는 사람(6.3%), 선생님과 친부(각각 5.7%)의 순이었다. 13세이상인 경우에는 낯선 사람의 비율(39.6%)이 가장 높았고, 즉석 만남을 통해 알게 된 사람(13.5%), 안면만 있는 사람(7.2%), 의부(6.2%), 친부(6.1%)의 순이었다. 즉, 13세미만의 경우에는 절반 이상이 낯선 사람에게 피해를 당하였으며 13세이상의 경우보다 낯선 사람에게 당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13세이상인 경우에는 13세미만에 비해 즉석 만남 등을 통해 알게 된 사람에게 당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3-18〉 피해자연령별 피해자와 범죄자 관계

(단위: 명(%))

피해자와 범죄자의 관계	피해자연령		계
	13세미만	13세이상	
전혀 모르는 사람	291(55.3)	375(55.5)	666(55.4)
낯선 사람	275(52.3)	268(39.6)	543(45.2)
여성접객원인 피해자를 범죄자가 상업적 인 목적으로 부른 경우	0(0.0)	1(0.1)	1(0.1)
즉석만남 등을 통해 알게 된 사람	12(2.3)	91(13.5)	103(8.6)
택시기사	1(0.2)	10(1.5)	11(0.9)
배달원·수리원·방문판매원등	0(0.0)	2(0.3)	2(0.2)
숙박업소·목욕탕·음식점·주점·노래방· 비디오방 주인 혹은 종업원	3(0.6)	3(0.4)	6(0.5)
아는 사람	152(28.9)	190(28.1)	342(28.5)
친구	0(0.0)	4(0.6)	4(0.3)
애인·남자친구	1(0.2)	7(1.0)	8(0.7)
학교 선·후배	0(0.0)	9(1.3)	9(0.7)
선생님	30(5.7)	18(2.7)	48(4.0)
이웃·잘 알고 지내는 사람	33(6.3)	36(5.3)	69(5.7)
같은 종교 집단에 소속되어 있는 성직자	4(0.8)	0(0.0)	4(0.3)
직장상사·고용주	0(0.0)	6(0.9)	6(0.5)
직장 동료·아르바이트 동료	0(0.0)	2(0.3)	2(0.2)
업무관계인	0(0.0)	4(0.6)	4(0.3)
친구의 부모	6(1.1)	11(1.6)	17(1.4)

<표 계속>

피해자와 범죄자의 관계	피해자연령		계
	13세미만	13세이상	
부모의 친구	13(2.5)	6(0.9)	19(1.6)
아파트관리인 등	8(1.5)	0(0.0)	8(0.7)
안면만 있는 사람	34(6.5)	49(7.2)	83(6.9)
병원·수용시설직원·관리사·사회복지사	4(0.8)	5(0.7)	9(0.7)
인터넷채팅을 통해 알게 된 사람	6(1.1)	25(3.7)	31(2.6)
아는 사람 기타	13(2.5)	8(1.2)	21(1.7)
가족 및 친척	83(15.8)	111(16.4)	194(16.1)
친부	30(5.7)	41(6.1)	71(5.9)
의부	21(4.0)	42(6.2)	63(5.2)
모의 동거인 내연남	12(2.3)	12(1.8)	24(2.0)
형제·자매	4(0.8)	0(0.0)	4(0.3)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사실혼포함	15(2.9)	13(1.9)	28(2.3)
가족 및 친척 기타	1(0.2)	2(0.3)	3(0.2)
가족 및 친족 기타	0(0.0)	1(0.1)	1(0.1)
계	526(100.0)	676(100.0)	1,202(100.0)

* 피해 아동·청소년과 범죄자와의 관계를 알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 분석결과임

3. 13세미만 아동대상 성폭력범죄의 범행특성

가. 범행의 다중성 및 지속성

피해자연령별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의 범행의 다중성을 살펴본 결과(<표 3-19> 참조), 피해자 연령이 13세미만인 경우 피해자가 한명이 55.6%, 2명 20.0%, 3명 9.8%였고, 4명 이상 14.7%였다. 13세이상인 경우에는 피해자가 한명이 72.7%, 2명 13.9%, 3명 4.2%, 그리고 4명 이상이 9.2%로 나타났다. 즉, 피해자 연령이 13세미만인 경우에는 13세이상인 경우에 비해서 한 범죄자에게 당한 피해자수가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표 3-19〉 피해자연령별 피해 아동·청소년의 수

(단위: 명(%))

아동·청소년피해자수	피해자 연령		계
	13세미만	13세이상	
1명	295(55.6)	504(72.7)	799(65.3)
2명	106(20.0)	96(13.9)	202(16.5)
3명	52(9.8)	29(4.2)	81(6.6)
4명 이상	78(14.7)	64(9.2)	142(11.6)
계	531(100.0)	693(100.0)	1,224(100.0)

다음은 범죄자가 동일한 피해자에게 시간의 간격을 두고 1회 이상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는가의 여부(범죄의 지속성)와 그 지속기간을 살펴본 결과(<표 3-20> 참조), 피해자 연령이 13세미만인 경우에는 1회에 그치는 경우가 68.5%, 1개월 이하가 11.3%, 1개월 이상 5개월 미만이 7.5%, 6개월 이상 1년 미만이 5.5%, 1년 이상은 7.2%를 나타내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는 12.7%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13세이상인 경우에는 1회에 그치는 경우가 76.3%로 대부분이었고, 1개월 이하가 7.4%, 1개월 이상 5개월 미만이 5.2%, 6개월 이상 1년 미만이 3.6%, 1년 이상은 7.5%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연령이 13세이상인 경우가 13세미만인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1회에 그치는 비율이 높았다.

〈표 3-20〉 피해자연령별 범행의 지속성

(단위: 명(%))

동일피해 아동·청소년 범행횟수 및 기간	피해자 연령		계
	13세미만	13세이상	
1회에 그침	364(68.5)	529(76.3)	893(73.0)
1개월 이하	60(11.3)	51(7.4)	111(9.1)
1~5개월	40(7.5)	36(5.2)	76(6.2)
6개월~1년 미만	29(5.5)	25(3.6)	54(4.4)
1년 이상	38(7.2)	52(7.5)	90(7.4)
계	531(100.0)	693(100.0)	1,224(100.0)

나. 범행발생장소 및 시간

피해자연령별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가 발생한 지역을 살펴본 결과(<표 3-21> 참조), 피해자 연령이 13세미만인 경우에는 경기도의 비율이 25.1%로 가장 높았고, 서울 13.8%, 충남 8.1% 순이었다. 13세이상인 경우에는 경기도 21.2%, 서울 13.4%, 부산 8.2%의 순이었다. 13세미만과 13세이상 모두 인구가 많은 경기도와 서울의 발생빈도가 높았다.

〈표 3-21〉 피해자연령별 범행지역

(단위: 건(%))

범행지역	피해자 연령		계
	13세미만	13세이상	
서울특별시	73(13.8)	93(13.4)	166(13.6)
부산광역시	34(6.4)	57(8.2)	91(7.4)
대구광역시	18(3.4)	38(5.5)	56(4.6)
인천광역시	31(5.8)	38(5.5)	69(5.6)
광주광역시	25(4.7)	29(4.2)	54(4.4)
대전광역시	17(3.2)	23(3.3)	40(3.3)
울산광역시	17(3.2)	26(3.8)	43(3.5)
경 기 도	133(25.1)	147(21.2)	280(22.9)
강 원 도	20(3.8)	15(2.2)	35(2.9)
충청북도	18(3.4)	18(2.6)	36(2.9)
충청남도	43(8.1)	38(5.5)	81(6.6)
전라북도	26(4.9)	38(5.5)	64(5.2)
전라남도	26(4.9)	44(6.4)	70(5.7)
경상북도	14(2.6)	34(4.9)	48(3.9)
경상남도	27(5.1)	43(6.2)	70(5.7)
제주특별자치도	8(1.5)	11(1.6)	19(1.6)
계	530(100.0)	692(100.0)	1,222(100.0)

피해자연령별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가 발생한 장소를 크게 옥내와 옥외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표 3-22> 참조), 피해자 연령이 13세미만인 경우 옥내에서 59.3%, 옥외에서 40.7%가 발생하였고, 13세이상인 경우에는 옥내에서 72.9%, 옥외에서 27.1%로 나타났다. 즉, 13세미만의 아동·청소년이 13세이상의 아동·청소년에 비해 옥외에서 피해를 당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2〉 피해자연령별 범행장소1(옥내·외 구분)

(단위: 건(%))

범행장소	피해자 연령		계
	13세미만	13세이상	
옥 내	315(59.3)	505(72.9)	820(67.0)
옥 외	216(40.7)	188(27.1)	404(33.0)
계	531(100.0)	693(100.0)	1,224(100.0)

구체적으로 범죄가 발생한 장소를 집, 범죄자가 근무하는 직장, 공공기관 및 상업지역, 학교, 학원 및 보육시설, 주택가 및 이면도로, 주차장, 야외·거리·산야·대중교통시설 등, 화장실, 자동차안, 기타 등으로 11개 범주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표 3-23> 참조), 피해자 연령이 13세미만인 경우에는 집의 비율이 40.5%로 가장 높았고, 야외 및 대중교통시설 등(12.6%), 주택가(12.2%), 공공기관 및 상업지역(11.1%)의 순으로 나타나 10명 중 4명 정도가 집에서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세이상인 경우에는 집의 비율이 44.3%로 가장 높았고, 공공기관 및 상업지역(25.5%), 야외 및 대중교통시설 등(12.3%), 자동차안(5.2%)의 순으로 나타나 13세이상 역시 10명 중 4명 정도가 집에서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세분하여 살펴본 결과, 피해자 연령이 13세미만인 경우에는 피해자의 집의 비율이 14.4%로 가장 높았고, 피해자와 범죄자의 공동주거지(12.5%), 범죄자의 집(11.8%), 도로상(5.7%)의 순으로 나타났다. 13세이상인 경우에는 호텔, 여관, 펜션 등 숙박업소나 목욕탕, 찜질방 등의 비율이 18.9%로 가장 높았고, 피해자와 범죄자의 공동주거지(13.6%), 범죄자의 집(13.3%), 피해자의 집(11.7%), 도로상에서(7.1%)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23〉 피해자연령별 범행발생장소

(단위: 명(%))

범행장소	피해자 연령		계
	13세미만	13세이상	
집	215(40.5)	307(44.3)	522(42.6)
피해자의 집	76(14.4)	81(11.7)	157(12.9)
범죄자의 집	62(11.8)	92(13.3)	154(12.6)
다른사람의 집	9(1.7)	37(5.3)	46(3.8)
피해자와 범죄자의 공동주거지	66(12.5)	94(13.6)	160(13.1)
폐가	1(0.2)	2(0.3)	3(0.2)
주택가 및 이면도로	65(12.2)	34(4.9)	99(8.1)
주택가 주변 및 이면도로	22(4.2)	17(2.5)	39(3.2)
공동주택, 내부계단, 승강기등	29(5.5)	12(1.7)	41(3.4)
학교	33(6.2)	14(2.0)	47(3.8)
건물내	3(0.6)	3(0.4)	6(0.5)
운동장	19(3.6)	4(0.6)	23(1.9)
학교뒷산, 학교담장주변 등 기타	5(1.0)	1(0.1)	6(0.5)
범죄자가 근무하는 직장	16(3.0)	16(2.3)	32(2.6)
주차장	4(0.8)	8(1.2)	12(1.0)
공공기관 및 상업지역	59(11.1)	177(25.5)	236(19.3)
공공기관 건물 내	7(1.4)	7(0.9)	14(1.1)
백화점, 시장가게 등 상업건물	7(1.3)	6(0.9)	13(1.1)
유흥업소	3(0.6)	20(2.9)	23(1.9)
숙박업소, 목욕탕, 찜질방 등	26(4.9)	131(18.9)	157(12.9)
공장이나 창고, 공사장	2(0.4)	2(0.3)	4(0.3)
공공기관 및 상업시설 기타	13(2.5)	7(1.0)	20(1.6)
야외, 거리, 산야, 대중교통시설 등	67(12.6)	85(12.3)	152(12.4)
유원지, 공원, 산야, 공터, 체육시설, 운동장	22(4.2)	17(2.5)	39(3.2)
도로상에서	30(5.7)	49(7.1)	79(6.5)
버스, 기차, 지하철, 택시, 항공기, 선박 등 교통시설 내부	3(0.6)	8(1.2)	11(0.9)
대중교통 정거장역 또는 대합실	2(0.4)	4(0.6)	6(0.5)
(공중)화장실	18(3.4)	11(1.6)	29(2.4)
유원지, 공원, 체육시설의 화장실	5(1.0)	5(0.7)	10(0.8)
대중교통시설 화장실	2(0.4)	1(0.1)	3(0.2)
공중화장실 기타	11(2.1)	6(0.9)	17(1.4)
자동차 안	27(5.1)	36(5.2)	63(5.1)
범죄자의 차	23(4.4)	31(4.5)	54(4.4)
제3자의 차	0(0.0)	4(0.6)	4(0.3)
학원차	3(0.6)	1(0.1)	4(0.3)
자동차안 기타	1(0.2)	1(0.1)	2(0.2)
학원 및 보육시설	22(4.1)	5(0.7)	27(2.2)
기타	5(0.9)	0(0.0)	5(0.4)
계	531(100.0)	693(100.0)	1,224(100.0)

한편, 범죄자의 피해자 선택경향을 살펴보기 위해서 범행이 발생한 지역과 범죄자가 거주한 지역이 동일지역(동단위까지 일치한 경우)이었는지의 여부를 분석한 결과(<표 3-24> 참조), 피해자 연령이 13세미만인 경우에는 49.5%가 범행발생지역과 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이 동일한 지역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3세이상인 경우에는 45.5%가 범행발생지역과 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이 동일한 지역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4〉 피해자연령별 범행지역과 범죄자거주지역의 동일 여부

(단위: 건(%))

범행지역과 범죄자거주지역의 동일 여부	피해자 연령		계
	13세미만	13세이상	
그 령 다	263(49.5)	315(45.5)	578(47.2)
아 니 다	268(50.5)	378(54.5)	646(52.8)
계	531(100.0)	693(100.0)	1,224(100.0)

다음은 피해자연령별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의 발생시간을 범행발생 계절과 범행발생 시간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먼저 피해자연령별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의 범행발생 계절을 살펴본 결과(<표 3-25> 참조), 피해자 연령이 13세미만인 경우 여름의 비율이 37.3%로 가장 높았으며, 가을(26.2%), 봄(24.9%), 겨울(11.7%)의 순으로 나타났다. 13세이상인 경우에도 여름의 비율이 33.8%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봄(25.0%), 가을(23.4%), 겨울(17.8%)의 순이었다.

〈표 3-25〉 피해자연령별 범행발생계절

(단위: 건(%))

범행계절	피해자 연령		계
	13세미만	13세이상	
봄	128(24.9)	170(25.0)	298(24.9)
여름	192(37.3)	230(33.8)	422(35.3)
가을	135(26.2)	159(23.4)	294(24.6)
겨울	60(11.7)	121(17.8)	181(15.1)
계	515(100.0)	680(100.0)	1,195(100.0)

* 범행발생계절을 알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 분석결과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중 여러 번에 걸쳐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시간을 정확히 알 수 없어 범행시간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 피해자연령별로 성폭력범죄의 발생시간을 살펴본 결과(<표 3-26> 참조), 피해자 연령이 13세미만인 경우에는 18~20시의 비율이 33.1%로 가장 높았고, 15시~17시(20.7%), 21시~23시(14.9%)의 순으로 나타났다. 13세이상인 경우에는 3~5시의 비율이 25.1%로 가장 높았고, 0~2시(17.3%), 6시~8시(17.1%), 18~20시(11.1%), 9~11시(10.7%)의 순이었다.

〈표 3-26〉 피해자연령별 범행발생시간

(단위: 건(%))

범행시간	피해자 연령		계
	13세미만	13세이상	
0~2시	25(6.9)	95(17.3)	120(13.2)
3~5시	19(5.2)	138(25.1)	157(17.2)
6~8시	23(6.3)	94(17.1)	117(12.8)
9~11시	20(5.5)	59(10.7)	79(8.7)
12~14시	27(7.4)	19(3.5)	46(5.0)
15~17시	75(20.7)	35(6.4)	110(12.1)
18~20시	120(33.1)	61(11.1)	181(19.8)
21~23시	54(14.9)	48(8.7)	102(11.2)
계	363(100.0)	549(100.0)	912(100.0)

* 반복발생과 범행시간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는 제외한 분석결과임

다. 범행당시 범죄자 및 피해자의 상태

피해자연령별로 범행당시 범죄자의 상태를 음주여부로 살펴본 결과(<표 3-27> 참조), 피해자 연령이 13세미만인 경우에는 비음주상태에서 발생한 비율이 81.5%였고, 약간의 음주상태는 13.0%였으며, 만취상태는 5.5%에 불과하였다. 13세이상인 경우에는 비음주상태의 비율이 72.6%였으며, 약간의 음주상태인 경우가 25.4%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만취상태는 2.0%였다.

〈표 3-27〉 피해자연령별 범행당시 범죄자의 음주상태

(단위: 명(%))

범죄자의 음주상태	피해자 연령		계
	13세미만	13세이상	
비음주 상태	433(81.5)	503(72.6)	936(76.5)
약간의 음주 상태	69(13.0)	176(25.4)	245(20.0)
만취 상태	29(5.5)	14(2.0)	43(3.5)
계	531(100.0)	693(100.0)	1,224(100.0)

피해자연령별로 범행당시 범죄자의 상태를 약물복용여부로 살펴본 결과(<표 3-28> 참조), 피해자 연령이 13세미만인 경우에는 범행당시 약물복용 상태인 경우는 한명도 없었고, 13세이상인 693명 중 6명(0.9%)이 약물복용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8〉 피해자연령별 범행당시 범죄자의 약물복용여부

(단위: 명(%))

범죄자 약물복용여부	피해자 연령		계
	13세미만	13세이상	
그 령 다	0(0.0)	6(0.9)	6(0.5)
아 니 다	531(100.0)	687(99.1)	1,218(99.5)
계	531(100.0)	693(100.0)	1,224(100.0)

한편, 피해자연령별로 범행당시 피해자의 음주상태여부를 알아본 결과(<표 3-29> 참조), 피해자 연령이 13세미만인 경우에는 피해자가 약간의 음주상태와 만취상태는 각각 0.4%(2명)로, 피해자의 0.8%만이 피해당시 음주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13세이상인 경우에는 피해자가 만취상태였던 비율이 10.7%(74명), 약간의 음주상태가 7.1%(49명)로 나타나 전체의 17.8%는 음주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즉, 13세이상인 경우에는 13세미만인 경우에 비해 범행당시 범죄자와 피해자 모두 음주상태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9〉 피해자연령별 피해당시 피해자 음주여부

(단위: 건(%))

피해자 음주여부	피해자 연령		계
	13세미만	13세이상	
비음주 상태	527(99.2)	570(82.3)	1,097(89.6)
약간의 음주 상태	2(0.4)	49(7.1)	51(4.2)
만취 상태	2(0.4)	74(10.7)	76(6.2)
계	531(100.0)	693(100.0)	1,224(100.0)

라. 범행방법

피해자연령별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의 공범이 있는 경우의 가담정도를 살펴본 결과(<표 3-30> 참조), 피해자 연령이 13세미만인 경우에는 공범이 있는 경우가 2명밖에 없어 거의 대부분이 공범없이 단독으로 범행이 저질러졌으며, 13세이상인 경우에도 84.4%는 공범없이 단독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공범이 있는 비율은 15.6%(108명)였다.

공범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공범자의 수를 살펴보면, 피해자 연령이 13세미만인 경우 2명 모두 공범자는 1명이었고, 13세이상인 경우에는 공범자가 1명인 경우 54.6%, 2명인 경우 23.1%, 3명이상이 22.2%를 차지하였다.

공범있는 때에 범죄자의 가담정도를 살펴본 결과, 13세미만인 경우 그 한명은 주도적인 역할을, 또 한명은 동등한 역할을 하였으며, 13세이상인 경우에는 동등한 역할의 비율이 대다수(71.3%)를 차지하였고, 주도적인 역할(17.6%), 보조적인 역할(11.1%) 순이었다.

〈표 3-30〉 피해자연령별 공범여부, 공범자수, 가담정도

(단위: 건(%))

구분		피해자 연령		계
		13세미만	13세이상	
공범여부	공범 없음	529(99.6)	585(84.4)	1,114(91.0)
	공범 있음	2(0.4)	108(15.6)	110(9.0)
	계	531(100.0)	693(100.0)	1,224(100.0)

<표 계속>

구분		피해자 연령		계
		13세미만	13세이상	
공범자 수	1명	2(100.0)	59(54.6)	61(55.5)
	2명	0(0.0)	25(23.1)	25(22.7)
	3명 이상	0(0.0)	24(22.2)	24(21.8)
	계	2(100.0)	108(100.0)	110(100.0)
공범시 범죄자의 가담정도	보조적인 역할	0(0.0)	12(11.1)	12(10.9)
	동등한 역할	1(50.0)	77(71.3)	78(70.9)
	주도적인 역할	1(50.0)	19(17.6)	20(18.2)
	계	2(100.0)	108(100.0)	110(100.0)

피해자연령별로 범행을 위해 범죄자가 피해자의 집에 들어왔는지의 여부를 살펴본 결과(<표 3-31> 참조), 피해자 연령이 13세미만인 경우에는 공동주거의 등의 이유로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13.2%) 이외에 피해자의 집에 들어 온 경우가 14.5%를 차지하였다. 13세이상인 경우에는 피해자의 집에 들어온 경우는 13.9%를 차지하였고, 71.1%는 들어오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자가 주거침입을 한 경우 구체적인 침입방법을 살펴보았다(<표 3-31> 참조).

〈표 3-31〉 피해자연령별 범죄자의 주거침입여부

(단위: 건(%))

구분		피해자 연령		계
		13세미만	13세이상	
범죄자의 주거침입 여부	해당사항 없음	70(13.2)	104(15.0)	174(14.2)
	그렇다	77(14.5)	96(13.9)	173(14.1)
	아니다	384(72.3)	493(71.1)	877(71.7)
	계	531(100.0)	693(100.0)	1,224(100.0)
주거침입 방법	직접 열어 줌	39(57.4)	29(34.9)	68(45.0)
	문단속하지 않은 문	21(30.9)	39(47.0)	60(39.7)
	잠긴 문 부수고	0(0.0)	5(6.0)	5(3.3)
	유리창 깨고	0(0.0)	2(2.4)	2(1.3)
	방법 모름	8(11.8)	8(9.6)	16(10.6)
	계	68(100.0)	83(100.0)	151(100.0)

피해자 연령이 13세미만인 경우에는 공동주거 등의 이유로 직접 열어준 경우는 57.4%, 문단속하지 않은 문으로 들어 온 경우는 30.9%, 잠긴 문을 부수거나 유리창을 깨고 들어 온 경우는 없었다. 13세이상인 경우에는 문단속하지 않은 문으로 들어온 비율이 47.0%로 가장 높았고, 직접 열어 준 경우가 34.9%, 잠긴 문을 부수고 들어 온 경우가 6.0%였다.

다음은 피해자연령별로 범행당시 범죄자가 흉기를 사용했는지의 여부와 흉기를 사용한 경우 사용한 흉기의 종류를 살펴보았다(<표 3-32> 참조). 피해자 연령이 13세미만인 경우에는 흉기를 사용한 경우는 4.6%였고, 13세이상인 경우에는 흉기를 사용한 경우가 13.5%로 나타났다. 흉기를 사용한 경우에는 13세미만이나 13세이상 모두 칼, 가위, 송곳, 도끼, 낫 등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다. 13세이상인 경우에는 마취제나 독극물을 사용한 경우도 있었다(0.6%, 4명).

범죄자가 사용했던 무기나 위험한 물건이 미리 준비했던 것인가를 살펴본 결과, 피해자 연령이 13세미만인 경우에는 현장의 것을 사용한 경우가 47.8%, 사전에 준비한 경우가 52.2%였으며, 이와는 달리 13세이상인 경우에는 현장의 것을 사용한 경우가 44.4%, 사전에 준비한 경우가 55.6%였다.

〈표 3-32〉 피해자연령별 범행당시 흉기사용여부 및 종류와 사전준비 여부

(단위: 건(%))

구분		피해자 연령		계
		13세미만	13세이상	
흉기사용여부 및 종류	사용하지 않음	507(95.5)	600(86.6)	1107(90.4)
	총	1(0.2)	0(0.0)	1(0.1)
	칼·낫 등	18(3.4)	60(8.7)	78(6.4)
	유리·벽돌·몽둥이	1(0.2)	9(1.3)	10(0.8)
	마취제·독극물 등	0(0.0)	4(0.6)	4(0.3)
	기타	4(0.8)	20(2.9)	24(2.0)
	계	531(100.0)	693(100.0)	1,224(100.0)
흉기의 사전준비 여부	사전에 준비	12(52.2)	50(55.6)	62(54.9)
	현장의 것을 사용	11(47.8)	40(44.4)	51(45.1)
	계	23(100.0)	90(100.0)	113(100.0)

다음은 범죄자가 피해자를 범행 장소로 데려간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여 구체적인 방법을 살펴보았다(<표 3-33> 참조). 먼저 13세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는 사칭

및 위장으로 유인한 경우가 35.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금품(13.2%), 위협과 완력(각각 12.1%), 질문(10.9%) 등의 순이었다. 이에 비해 13세이상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는 사칭 및 위장으로 유인한 경우가 35.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완력(18.8%), 위협(17.2%)을 이용한 경우였다. 즉, 13세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13세이상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비해 금품이나 질문을 이용하여 범행 장소로 데려간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3〉 피해자연령별 피해자를 범행 장소로 데려간 방법

(단위: 건(%))

피해자를 범행 장소로 데려간 방법	피해자 연령		계
	13세미만	13세이상	
금 품	35(13.2)	25(8.1)	60
질 문	29(10.9)	8(2.6)	37
놀 이	26(9.8)	23(7.5)	49
애정칭찬	7(2.6)	8(2.6)	15
사칭위장	93(35.1)	109(35.4)	202
정신장애이용	4(1.5)	6(1.9)	10
위 협	32(12.1)	53(17.2)	85
폭 력	3(1.1)	15(4.9)	18
완 력	32(12.1)	58(18.8)	90
기 타	4(1.5)	3(1.0)	7
계	265(100.0)	308(100.0)	573(100.0)

* 복수응답결과임

** 퍼센트 및 합계는 사례기준

다음은 피해자의 수면상태, 만취상태, 지적장애상태 등 강제 및 강압이 필요 없는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한 경우를 제외하고, 피해자연령별로 범죄자가 아동·청소년을 강간이나 강제추행하기 위해 사용한 강제 및 강압의 방식을 살펴보았다(<표 3-34> 참조). 13세미만이나 13세이상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자는 모두 완력을 사용한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각각 54.5%, 43.6%). 이외에 13세미만의 아동 성폭력범죄는 말로 협박한 경우(11.6%)가 많았고, 13세이상으로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는 말로 협박한 경우(18.4%), 구타(10.6%) 및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10.4%)가 많았다. 즉, 13세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는 13세이상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에 비해 위계나 위력을 사용한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았고, 구타를 이용한 경우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4〉 피해자연령별 강제 및 강압방법

(단위: 건(%))

강제 및 강압방법	피해자 연령		계
	13세미만	13세이상	
말로 협박	61(11.6)	169(18.4)	230
흥기로 협박	21(4.0)	78(8.5)	99
구타	18(3.4)	97(10.6)	115
흥기로 폭행	3(0.6)	12(1.3)	15
인신 숙박	5(1.0)	26(2.8)	31
완력 사용	286(54.5)	399(43.6)	685
약물 사용	1(0.2)	14(1.5)	15
감금	1(0.2)	14(1.5)	15
위계·위력 사용	113(21.5)	95(10.4)	208
정신박약 및 정신질환	12(2.3)	9(1.0)	21
기타	4(0.8)	3(0.3)	7
계	525(100.0)	916(100.0)	1,441

* 복수응답결과임

** 퍼센트 및 합계는 사례 기준

다음은 강제추행범죄를 당한 피해자만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추행의 방식을 살펴본
있다(<표 3-35> 참조). 앞서서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사건에서 여러 가지 유형의 추행
이 한 번에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복수응답처리를 하였다.

〈표 3-35〉 피해자연령별 강제추행의 유형

(단위: 건(%))

강제추행의 유형	13세미만			13세이상		
	수	백분율	케이스 백분율	수	백분율	케이스 백분율
성적 키스	75	10.9	17.4	48	11.8	18.1
성기 이외의 성적 접촉	286	41.4	66.4	206	50.6	77.7
피해자의 성기접촉	201	29.1	46.6	89	21.9	33.6
범죄자 성기를 만지도록 강요	46	6.7	10.7	20	4.9	7.5
구강성교	26	3.8	6.0	9	2.2	3.4
항문성교	2	0.3	0.5	6	1.5	2.3
이물질 삽입	3	0.4	0.7	1	0.2	0.4
손가락 항문 또는 질 삽입	36	5.2	8.4	21	5.2	7.9
기 타	15	2.2	3.5	7	1.7	2.6
계	690	100.0	160.1	407	100.0	153.6

* 복수응답결과임

** 퍼센트 및 합계는 사례 기준

13세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강제추행 유형 중 성기 이외의 성적 접촉(41.4%)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는 피해자의 성기접촉(29.1%), 성적 키스(10.9%)로 나타났다. 13세이상을 대상으로 한 경우 역시 성기 이외의 성적 접촉(50.6%), 피해자의 성기접촉(21.9%), 성적 키스(11.8%)의 순이었다. 13세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경우에 13세이상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비해 피해자의 성기접촉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강간범죄를 대상으로 하여 구체적인 강간유형과 기수여부를 살펴보았다(<표 3-36> 참조).

먼저 13세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강간범죄를 살펴보면, 한 사건을 제외한 모든 사건이 일반적인 강간사건이었고 미수에 그친 경우는 19.0%였다. 이에 비해 13세이상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강간사건은 79.2%였으며, 윤간사건이 17.5%로 나타났다고 미수에 그친 경우는 26.2%였다. 즉, 13세미만아동을 대상으로 한 강간범죄의 경우에는 윤간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수에 그친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표 3-36〉 피해자연령별 강간유형 및 기수여부

(단위: 건(%))

구 분		13세미만		13세이상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강간 유형	강 간	81	98.8	308	79.2
	강도강간	1	1.2	11	2.8
	윤 간	0	0.0	68	17.5
	윤간 + 강도	0	0.0	1	0.3
	강간방조	0	0.0	1	0.3
	합 계	82	100.0	389	100.0
기수 여부	미 수	15	19.0	100	26.2
	기 수	64	81.0	281	73.8
	합 계	79	100.0	381	100.0

다음은 범행당시 가학적 변태행위를 가했는지를 살펴보았다(<표 3-37> 참조). 13세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서는 전체 유효사례 중 9.8%(52건)에서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3세이상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전체

유효사례 중 14.9%(103건)에서 가학적, 변태적 침해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13세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서는 13세이상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비해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를 한 비율은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가학적 변태행위의 내용을 피해자연령별로 살펴보면, 13세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서는 대부분이 구강성교를 강요한 경우(71.2%)로 나타났고, 다음은 음부에 이물질 삽입한 경우(11.5%)였다. 13세이상을 대상으로 한 범죄 역시 구강성교 강요의 비율이 67.0%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항문성교(14.6%) 순이었다. 13세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서는 13세이상으로 대상으로 한 범죄에 비해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의 비율은 낮았으며, 음부에 이물질 삽입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항문강간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표 3-37〉 피해자연령별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의 내용

(단위: 건(%))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의 내용	피해자 연령		계
	13세미만	13세이상	
음부에 이물질 삽입	6(11.5)	3(2.9)	9
구강성교 강요	37(71.2)	69(67.0)	106
담뱃불·몽둥이 등으로 신체침해	0(0.0)	2(1.9)	2
항문 강간	5(9.6)	15(14.6)	20
피해자를 못 움직이게 함	0(0.0)	8(7.8)	8
기 타	4(7.7)	6(5.8)	10
계	52(100.0)	103(100.0)	155

* 복수응답결과임

** 퍼센트 및 합계는 사례기준

다음은 극도의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를 가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표 3-38> 참조), 13세미만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서는 전체 유효사례 중 2.4%(13건), 13세이상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서는 전체 유효사례 중 3.9%(27건)에서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가 발생하였다.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피해자의 연령에 상관없이 범행과정을 촬영한 비율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13세미만을 대상으로 한 범죄(61.5%)에서는 13세이상을 대상으로 한 범죄(77.8%)에 비해 범행과정을 촬영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8〉 피해자연령별 극도의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단위: 건(%))

성적 수치심 유발 여부	피해자 연령		계
	13세미만	13세이상	
모멸 행위	0(0.0)	1(3.7)	1
범행과정 촬영	8(61.5)	24(77.8)	32
기 타	5(38.5)	2(7.4)	7
계	13(100.0)	27(100.0)	40

* 복수응답결과임

** 퍼센트 및 합계는 사례기준

마지막으로 강간이나 강제추행의 성폭력범죄로 인한 피해결과에 대해서 살펴보았다(<표 3-39> 참조). 13세미만의 피해자의 대부분은 강간이나 추행 이외의 피해가 없었고(90.6%), 음부 이외의 상처나 감염이 4.3%, 음부 이외의 외상이 3.4%로 나타났다. 사망한 경우는 한 건도 없었고, 임신이 된 경우는 534건 중 1건이 있었다. 이에 비해 13세이상의 피해자의 대부분은 강간이나 추행 이외의 피해가 없었고(76.1%), 음부 이외의 외상이 12.2%, 음부 이외의 상처나 감염된 경우가 5.6%로 나타났다. 13세미만의 피해자들은 13세이상의 피해자들에 비해 강간이나 추행 이외의 피해를 입은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9〉 피해자연령별 성폭력범죄의 피해결과

(단위: 건(%))

피해의 정도	피해자 연령		계
	13세미만	13세이상	
강간이나 추행이외의 피해없음	484(90.6)	542(76.1)	1,026
음부외의 상처나 감염	23(4.3)	40(5.6)	63
음부이외의 외상	18(3.4)	87(12.2)	105
금전적 피해	6(1.1)	20(2.8)	26
임 신	1(0.2)	10(1.4)	11
사 망	0(0.0)	8(1.1)	8
기 타	2(0.4)	5(0.7)	7
계	534(100.0)	712(100.0)	1,246

* 복수응답결과임

** 퍼센트 및 합계는 사례 기준

4. 13세미만 아동대상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처분 결과

가. 처분죄명 및 경합범 처리

1) 처분죄명

먼저 피해자연령별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자들의 처분죄명을 살펴보았다 (<표 3-40> 참조). 앞서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여러 개의 죄가 경합되어 있는 경우 가장 중한 죄를 처분죄명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처분죄명은 범행특성 및 피해자특성이 명확히 드러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된다.

먼저 강간범죄의 처분죄명을 살펴보면, 피해자 연령이 13세미만인 경우에는 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의 비율이 60.0%로 가장 높았고, 강간상해치사 14.1%,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등 9.4%의 순이었다. 13세이상인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등의 비율이 29.7%로 가장 높았고, 특수강간 등 28.9%, 강간상해치상 17.3%의 순이었다. 강제추행범죄의 처분죄명을 살펴보면, 피해자 연령이 13세미만인 경우에는 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의 비율이 81.2%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9.2%), 유사성교행위(3.3%) 순이었다. 13세이상인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등의 비율이 64.5%로 가장 높았고,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11.8%), 유사성교행위(7.6%), 강제추행상해치상(4.3%) 순이었다.

〈표 3-40〉 피해자연령별 처분죄명

(단위: 건(%))

범죄 유형	처분죄명	13세미만	13세이상	계
강 간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등	8(9.4)	105(29.7)	113(25.8)
	특수강도강간 등	2(2.4)	17(4.8)	19(4.3)
	특수강간 등	4(4.7)	102(28.9)	106(24.2)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5(5.9)	41(11.6)	46(10.5)
	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51(60.0)	14(4.0)	66(14.8)
	강간상해치상	12(14.1)	61(17.3)	73(16.7)
	강간살인치사	0(0.0)	1(0.3)	1(0.2)
	장애인에 대한 간음	2(2.4)	9(2.5)	11(2.5)

<표 계속>

범죄 유형	처분죄명	13세미만	13세이상	계
	강도강간	0(0.0)	2(0.6)	2(0.5)
	기타 준강간미수 등	1(1.2)	1(0.3)	2(0.5)
	계	85(100.0)	353(100.0)	439(100.0)
강제 추행	아동·청소년에 대한 청소년강제추행 등	6(2.0)	136(64.5)	142(27.6)
	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247(81.2)	5(2.4)	252(48.9)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28(9.2)	25(11.8)	53(10.3)
	특수강도강제추행 등	6(2.0)	6(2.8)	12(2.3)
	특수강제추행 등	3(1.0)	8(3.8)	11(2.1)
	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 등	0(0.0)	3(1.4)	3(0.6)
	강제추행상해치상	4(1.3)	9(4.3)	13(2.5)
	강제추행살인치사	0(0.0)	1(0.5)	1(0.2)
	업무상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0(0.0)	1(0.5)	1(0.2)
	유사성교행위	10(3.3)	16(7.6)	26(5.0)
	강간강제추행 기타	0(0.0)	1(0.5)	1(0.2)
	계	304(100.0)	211(100.0)	515(100.0)

위에서 살펴 본 처분죄명 이외에 피해자연령별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사건이 다른 범죄와 경합되었는가를 살펴본 결과(<표 3-41> 참조), 피해자 연령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경합범이 아닌 경우가 67.0%였고, 동종범죄 경합(19.8), 이종범죄경합(9.5%), 이종과 동종범죄 모두 경합한 경우(3.6%)의 순이었다. 13세이상인 경우에는 경합범이 아닌 경우가 57.8%였고, 이종범죄경합(19.0%), 동종범죄경합(13.8%), 이종과 동종범죄 모두 경합된 경우(9.4%) 순이었다. 즉, 13세이상인 경우보다 13세미만인 경우에 경합범의 비율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13세미만인 경우에는 이종범죄와의 경합보다는 동종범죄와의 경합이 더 높았고, 13세이상인 경우에는 동종범죄와의 경합보다는 이종범죄와의 경합이 더 높았다.

〈표 3-41〉 피해자연령별 경합범 처리여부

(단위: 건(%))

경합여부	피해자 연령		계
	13세미만	13세이상	
경합범죄 없음	261(67.0)	326(57.8)	587(61.6)
이중범죄 경합	37(9.5)	107(19.0)	144(15.1)
동종범죄 경합	77(19.8)	78(13.8)	155(16.3)
이중·동종범죄 경합	14(3.6)	53(9.4)	67(7.4)
계	389(100.0)	564(100.0)	953(100.0)

나. 선고형의 종류와 형량

1) 1심 선고형의 종류와 형량

피해자연령별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자들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형의 종류를 징역형, 집행유예, 집행유예에 수강명령 등의 부가처분, 치료감호, 벌금형 등 크게 5가지 유형으로 살펴본 결과(<표 3-42> 참조), 피해자 연령이 13세미만인 경우에는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의 비율이 59.1%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이 집행유예에 수강명령 등의 부가처분 26.7%, 집행유예 7.7%, 치료감호 2.1%, 벌금형 3.9%, 기타 0.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13세이상인 경우에는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의 비율이 54.7%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이 집행유예에 수강명령 등의 부가처분 31.2%, 집행유예 7.8%, 벌금형 3.0%, 치료감호 1.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13세미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13세이상인 경우보다 징역형의 선고율이 다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자 중 사형과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자를 제외하고 구체적인 선고형량을 살펴보았다(<표 3-43> 참조). 피해자 연령이 13세미만인 경우에는 유기징역형을 선고받은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자 중 1년 이상~3년 미만의 형을 선고받은 비율이 43.9%로 가장 높았으며, 3년 이상~5년 미만의 형이 28.3%, 5년 이상~10년 미만이 20.0%, 10년 이상은 6.1%를 차지하였고, 1년 미만의 형을 받은 범죄자는 1.7%에 불과하였다.

〈표 3-42〉 피해자연령별 1심 선고형의 종류

(단위: 명(%))

1심 선고형의 종류	피해자 연령		계
	13세미만	13세이상	
징역형	230(59.1)	318(54.7)	547(58.5)
사형	0(0.0)	1(0.2)	1(0.1)
무기징역	1(0.3)	1(0.2)	1(0.2)
유기징역	229(58.9)	316(56.0)	545(57.2)
집행유예	30(7.7)	44(7.8)	74(7.8)
집행유예+부가처분	104(26.7)	176(31.2)	280(29.4)
집행유예+사회봉사	9(2.3)	23(4.1)	32(3.4)
집행유예+보호관찰	18(4.6)	12(2.1)	30(3.1)
집행유예+보호관찰+사회봉사	8(2.1)	14(2.5)	22(2.3)
집행유예+보호관찰+수강명령	17(4.4)	31(5.5)	48(5.0)
집행유예+보호관찰+사회봉사 +수강명령	7(1.8)	30(5.3)	37(3.9)
집행유예+수강명령+사회봉사	18(4.6)	20(3.5)	38(4.0)
집행유예+수강명령	27(6.9)	46(8.2)	73(7.7)
치료감호	8(2.1)	7(1.2)	15(1.6)
벌금	15(3.9)	17(3.0)	32(3.4)
기타	2(0.5)	2(0.4)	4(0.4)
계	389(100.0)	564(100.0)	953(100.0)

13세이상인 경우에는 유기징역형을 선고받은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자 중 3년 이상~5년 미만의 형을 선고받은 비율이 32.9%로 가장 높았으며, 1년 이상~3년 미만의 형이 28.2%, 5년 이상~10년 미만이 24.4%, 10년 이상 9.5%를 차지하였고, 1년 미만의 형을 받은 범죄자는 5.1%에 불과하였다. 13세미만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13세이상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 비해 1년 이상~3년 미만의 형을 선고받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3-43〉 피해자연령별 1심 유기징역의 형량

(단위: 명(%))

1심 유기징역의 형량	피해자 연령		계
	13세미만	13세이상	
1년 미만	3(1.7)	16(5.1)	19(3.5)
1년~3년 미만	101(43.9)	89(28.2)	190(34.9)
3년~5년 미만	65(28.3)	104(32.9)	169(31.0)
5년~10년 미만	46(20.0)	77(24.4)	123(22.6)
10년 이상	14(6.1)	30(9.5)	44(8.1)
계	229(100.0)	316(100.0)	545(100.0)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자 구체적인 선고형량을 살펴보았다(<표 3-44> 참조). 피해자 연령이 13세미만인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자 중 3년 이상~5년 미만의 형을 선고받은 비율이 51.6%로 가장 높았으며, 1년 이상~3년 미만이 48.4%, 5년 이상~10년 미만은 한명도 없었다.

13세이상인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자 중 1년 이상~3년 미만을 선고받은 비율이 54.5%로 가장 높았으며, 3년 이상~5년 미만의 형이 43.2%, 5년 이상~10년 미만이 2.3%를 차지하였다.

〈표 3-44〉 피해자연령별 1심 집행유예의 형량

(단위: 명(%))

1심 집행유예의 형량	피해자 연령		계
	13세미만	13세이상	
1년~3년 미만	14(48.4)	24(54.5)	38(51.4)
3년~5년 미만	16(51.6)	19(43.2)	35(47.3)
5년~10년 미만	0(0.0)	1(2.3)	1(1.4)
계	30(100.0)	49(100.0)	74(100.0)

피해자연령별로 유기징역 및 집행유예의 평균형량을 분석한 결과는 <표 3-45>에 제시하였다. 먼저 유기징역의 평균형량을 살펴보면, 피해자 연령이 13세미만인 경우에는 평균형량이 46.92개월이었으며, 형량이 가장 낮은 경우는 8개월, 가장 높은 경우는 264개월(22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세이상인 경우에는 평균형량이 53.48개월이었으며, 형량이 가장 낮은 경우는 6개월, 가장 높은 경우는 300개월(25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13

세미만에 비해 13세이상으로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유기징역의 형량이 다소 높았다.

집행유예를 받은 범죄자들의 평균기간을 살펴 본 결과, 피해자 연령이 13세미만인 경우에 평균기간은 32개월이었으며, 기간이 가장 짧은 경우는 24개월, 가장 높은 경우는 48개월(4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세이상인 경우에는 평균기간이 31.09개월이었으며, 기간이 가장 짧은 경우는 12개월, 가장 긴 경우는 60개월(5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연령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은 거의 차이가 없었다.

〈표 3-45〉 피해자연령별 1심 유기징역 및 집행유예 평균형량

구분		평균	사례수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유기징역 평균형량 (월)	13세미만	46.92	229	36.58	8	264
	13세이상	53.48	316	43.63	6	300
	계	50.72	545	40.91	6	300
집행유예 평균형량 (월)	13세미만	32.00	30	8.53	24	48
	13세이상	31.09	44	9.79	12	60
	계	31.46	74	9.25	12	60

징역형, 집행유예, 벌금형 등과 같은 선고형의 종류이외에 2009년부터 새롭게 도입된 전자발찌부착명령 부과현황을 피해자연령별로 살펴본 결과(〈표 3-46〉 및 〈표 3-47〉 참조), 피해자 연령이 13세미만인 경우에는 389명 중 101명(26.0%)이 부착명령을 부과받았으며, 5년의 비율이 29.7%로 가장 높았고, 3년 22.8%였고, 10년 이상은 8.9%였다. 13세이상인 경우에는 63명이 부착명령을 부과받았으며 5년 31.3%로 가장 높았고, 7년 21.9%였고, 10년 이상 20.4%, 3년 14.1%의 순이었다.

〈표 3-46〉 피해자연령별 1심 전자발찌 부착명령 여부

(단위: 명(%))

전자발찌 부착명령 여부	피해자 연령		계
	13세미만	13세이상	
그렇다	101(26.0)	63(11.2)	165(17.2)
아니다	288(74.0)	501(88.8)	789(82.8)
계	389(100.0)	564(100.0)	953(100.0)

〈표 3-47〉 피해자연령별 전자발찌 부착기간

(단위: 명(%))

1심 전자발찌 부착기간	피해자 연령		계
	13세미만	13세이상	
1년	0(0.0)	1(1.6)	1(0.6)
2년	12(11.9)	4(6.3)	16(9.7)
3년	23(22.8)	9(14.1)	32(19.4)
4년	2(2.0)	1(1.6)	3(1.8)
5년	30(29.7)	20(31.3)	50(30.3)
6년	14(13.9)	2(3.1)	16(9.7)
7년	11(10.9)	14(21.9)	25(15.2)
10년 이상	9(8.9)	13(20.4)	22(14.3)
계	101(100.0)	64(100.0)	164(100.0)

전자발찌 부착명령이 집행유예와 함께 선고되었는지 아니면, 형집행 후 부착으로 선고되었는지를 살펴본 결과를 <표 3-48>에 제시하였다. 피해자의 연령이 13세미만인 경우에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범죄자 중 86.1%가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집행유예에 수강명령 등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가 8.9%, 치료감호 5.0%였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는 한명도 없었다. 13세이상의 경우에는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범죄자 중 88.9%가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집행유예에 수강명령 등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가 3.2%, 치료감호 4.8%였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는 한명 있었다.

〈표 3-48〉 피해자연령별 전자발찌 부착명령여부별 1심 선고형의 종류

(단위: 명(%))

1심 선고형 종류	피해자 연령		계
	13세미만	13세이상	
징역형	87(86.1)	56(88.9)	143(87.2)
집행유예	0(0.0)	1(1.6)	1(0.6)
집행유예 + 부과처분	9(8.9)	2(3.2)	11(6.7)
치료감호	5(5.0)	3(4.8)	8(4.9)
기 타	0(0.0)	1(1.6)	1(0.6)
계	101(100.0)	63(100.0)	164(100.0)

마지막으로 전자발찌 평균부착기간을 살펴보면(<표 3-49> 참조), 13세미만의 경우에는 5.17년이었고, 부착기간이 가장 짧은 경우가 2년, 가장 긴 경우가 20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세이상의 경우에는 평균기간이 6.10년이었고, 부착기간이 가장 짧은 경우가 2년, 가장 긴 경우가 15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13세미만을 대상을 한 범죄의 평균 전자발찌 부착기간이 더 짧았다.

〈표 3-49〉 피해자연령별 평균 전자발찌 부착기간

피해자 연령	평균	사례수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13세미만	5.17년	101	2.97	2년	20년
13세이상	6.10년	63	2.71	2년	15년
계	5.54년	164	2.90	2년	20년

2) 항소 및 상고여부와 최종심의 선고형

피해자연령별로 1심에 대한 선고결과에 대한 항소 및 상고여부를 살펴보았다(<표 3-50> 참조). 피해자 연령이 13세미만인 경우에는 29.0%는 항소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항소한 경우가 23.9%, 검사가 항소한 경우가 17.7%, 쌍방이 항소한 경우가 29.3%였다. 13세이상인 경우에는 31.9%는 항소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항소한 경우가 31.7%, 검사가 항소한 경우가 16.0%, 쌍방이 항소한 경우가 20.4%였다. 피해자 연령이 13세미만인 경우에는 13세이상인 경우에 비해 쌍방이 항소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표 3-50〉 피해자연령별 항소여부 및 그 결과

(단위: 명(%))

구분		피해자 연령		계
		13세미만	13세이상	
항소 여부	항소하지 않음	113(29.0)	180(31.9)	293(30.7)
	피고인이 항소	93(23.9)	179(31.7)	272(28.5)
	검사가 항소	69(17.7)	90(16.0)	159(16.7)
	쌍방이 항소	114(29.3)	115(20.4)	229(24.0)
	계	389(100.0)	564(100.0)	953(100.0)
항소 결과	항소 기각	174(63.0)	227(59.1)	401(60.8)
	2심 진행	102(37.0)	157(40.9)	259(39.2)
	계	276(100.0)	384(100.0)	660(100.0)

향소결과를 살펴보면, 피해자 연령이 13세미만인 경우에는 63.0%가 기각되었으며, 나머지 37.0%만이 2심으로 넘어갔다. 13세이상인 경우에는 59.1%는 기각되었고, 나머지 40.9%는 2심으로 넘어갔다. 피해자 연령이 13세미만인 경우 기각율이 다소 높았으나 차이가 크지는 않았다.

2심에서 3심으로 상고한 경우를 살펴보면(<표 3-51> 참조), 피해자 연령이 13세미만인 경우에는 74.0%가 상고하지 않았고, 나머지 26.0%만이 상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51〉 피해자연령별 상고여부

(단위: 명(%))

구분		피해자 연령		계
		13세미만	13세이상	
상고여부	상고하지 않음	74(74.0)	119(77.3)	193(76.0)
	피고인이 상고	22(22.0)	33(21.4)	55(21.7)
	검사가 상고	0(0.0)	1(0.6)	1(0.4)
	쌍방이 상고	4(4.0)	1(0.6)	5(2.0)
	계	100(100.0)	154(100.0)	254(100.0)

상고주체를 살펴보면, 피고인이 상고한 경우가 22.0%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쌍방이 상고한 경우는 4.0%에 불과하였다. 13세이상인 경우에는 77.3%가 상고하지 않았고, 나머지 22.6%만이 상고를 하였다. 상고를 한 주체는 피고인이 21.4%, 검사나 쌍방이 각각 0.6%였다. 13세미만인 경우와 13세이상인 경우간에 상고율의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고결과를 살펴본 결과, 피해자 연령에 상관없이 모두 기각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진행된 사건의 최종심 선고형의 종류를 살펴본 결과(<표 3-52> 참조), 피해자 연령이 13세미만인 경우에는 최종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의 비율이 54.5%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집행유예에 사회봉사 등이 부과된 경우가 (32.4%), 집행유예(9.3%), 벌금형(4.1%), 치료감호(2.3%)의 순이었다. 13세이상인 경우에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비율이 47.5%로 가장 높았고, 집행유예에 사회봉사 등이 부과된 경우(37.2%), 집행유예(10.8%), 벌금형(3.2%)의 순이었으며,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비율은 1.2%에 불과하였다.

〈표 3-52〉 피해자연령별 최종심 선고형의 종류

(단위: 명(%))

최종심 선고형의 종류	피해자 연령		계
	13세미만	13세이상	
징역형	212(54.5)	268(47.5)	480(50.4)
사형	0(0.0)	1(0.0)	1(0.0)
무기	1(0.0)	1(0.0)	2(0.0)
유기	211(54.2)	266(47.2)	477(50.1)
집행유예	36(9.3)	61(10.8)	97(10.2)
집행유예+부가처분	116(32.4)	210(37.2)	326(34.2)
집행유예+사회봉사	9(2.3)	26(4.6)	35(3.7)
집행유예+보호관찰	21(5.4)	20(3.5)	41(4.3)
집행유예+보호관찰+사회봉사	10(2.6)	18(3.2)	28(2.9)
집행유예+보호관찰+수강명령	22(5.7)	37(6.6)	59(6.4)
집행유예+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	10(2.6)	31(5.5)	41(4.3)
집행유예+수강명령+사회봉사	16(4.1)	25(4.4)	41(4.3)
집행유예+수강명령	28(7.2)	53(9.4)	81(8.5)
치료감호	9(2.3)	7(1.2)	16(1.7)
벌금	16(4.1)	18(3.2)	34(3.6)
계	389(100.0)	564(100.0)	953(100.0)

피해자연령별로 최종심에서 유기징역형을 받은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자의 평균형량을 살펴보면(<표 3-53> 참조), 범죄유형별로 살펴보면, 강간범죄는 피해자가 13세미만인 경우 최종심에서 평균형량이 67.45개월로 1심의 66.09개월에 비해 다소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3세이상인 경우에도 최종심이 1심에 비해 다소 높아졌다. 강제추행은 13세미만의 경우 최종심이 36.10개월로 1심의 36.52개월에 비해 다소 낮아졌고, 13세이상 역시 최종심이 24.90개월로 1심의 25.53개월에 비해 다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 3-53〉 피해자연령 및 범죄유형별 최종심 유기징역형 평균형량

범죄유형		1심			최종심		
		평균	사례수	표준편차	평균	사례수	표준편차
강간	13세미만	66.09 월	68	36.72	67.45 월	62	36.55
	13세이상	64.02 월	244	45.99	65.79 월	209	46.27
	계	64.47 월	312	44.09	66.17 월	271	44.18
강제추행	13세미만	36.52 월	147	27.98	36.10 월	135	27.97
	13세이상	25.53 월	87	23.54	24.90 월	72	20.56
	계	32.43 월	234	26.90	32.21 월	207	26.14

다.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다음은 마지막으로 신상정보등록자 중 공개대상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분석한 결과(〈표 3-54〉 참조), 2010년 신상정보등록대상자 중 공개명령대상이 된 범죄자는 피해자 연령이 13세미만인 경우에는 35.0%(136명), 13세이상인 경우에는 24.5%(138명)로 13세미만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13세이상에게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비해 공개명령대상이 된 비율이 보다 높았다.

〈표 3-54〉 피해자연령별 신상공개여부

(단위: 명(%))

신상공개여부	피해자 연령		계
	13세미만	13세이상	
등 록	59(15.2)	359(63.7)	418(43.9)
열람명령	194(49.9)	67(11.9)	261(27.4)
공개명령	136(35.0)	138(24.5)	274(28.8)
계	389(100.0)	564(100.0)	953(100.0)

제4장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범죄의 특성

1.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 범죄자의 특성

2010년 전체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중 친족관계여부를 알 수 없는 사례를 제외한 전체 범죄자 940명 중 친족관계 범죄자는 169명으로 전체의 18.0%를 차지하여 2009년의 13.9%에 비해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 사회인구학적 특성

1) 성별

피해자와 범죄자관계별로 성폭력범죄자들의 성별을 살펴보면(<표 4-1> 참조), 친족관계인 경우 169명 중 여자는 한명도 없었고, 비친족관계인 경우에는 771명 중 여자가 한명 있었다.

〈표 4-1〉 피해자와 범죄자관계별 범죄자의 성

(단위: 명(%))

범죄자 성 별	피해자와 범죄자의 관계		계
	친족	비친족	
남 자	169(100.0)	770(99.9)	939(99.9)
여 자	0(0.0)	1(0.1)	1(0.1)
계	169(100.0)	771(100.0)	940(100.0)

2) 국적

피해자와 범죄자관계별로 성폭력범죄자들의 국적을 살펴보면(<표 4-2> 참조), 친족관계인 경우 169명 중 외국인은 1명 있었고, 비친족관계인 경우에는 771명 중 외국인은 5명(0.6%)있었다.

〈표 4-2〉 피해자와 범죄자관계별 범죄자의 국적

(단위: 명(%))

범죄자 국적	피해자와 범죄자의 관계		계
	친족	비친족	
내국인	168(99.4)	766(99.4)	934(99.4)
외국인	1(0.6)	5(0.6)	6(0.6)
계	169(100.0)	771(100.0)	940(100.0)

3) 연령

피해자와 범죄자관계별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자의 연령별 분포를 살펴본 결과(<표 4-3> 참조), 친족관계인 경우 40대의 비율이 47.9%로 가장 높았고, 30대(27.2%), 50대(15.4%)의 순이었다. 비친족관계인 경우 20대가 23.9%로 가장 높았고, 30대(19.3%), 40대(18.5%), 10대(15.4%)의 순이었다. 비친족관계인 경우 20대의 비율이 다소 높고, 60대 이상의 비율이 낮은 것을 제외하고는 전 연령대에 골고루 퍼져있는 반면, 친족관계인 경우에는 30대에서 50대에 집중(90.5%)되어 있다.

〈표 4-3〉 피해자와 범죄자관계별 범죄자의 연령

(단위: 명(%))

범죄자 연령	피해자와 범죄자의 관계		계
	친족	비친족	
10대	5(3.0)	119(15.4)	124(13.2)
20대	6(3.6)	184(23.9)	190(20.2)
30대	46(27.2)	149(19.3)	195(20.7)
40대	81(47.9)	143(18.5)	224(23.8)
50대	26(15.4)	107(13.9)	133(14.1)
60대	4(2.4)	52(6.7)	56(6.0)
70대 이상	1(0.6)	17(2.2)	18(1.9)
계	169(100.0)	771(100.0)	940(100.0)

다음은 피해자와 범죄자관계별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자의 평균연령을 살펴본 결과(<표 4-4> 참조), 친족관계인 경우 범죄자의 평균연령은 42.3세였고, 가장 나이 어린 범죄자가 15세, 가장 나이가 많은 범죄자가 70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친족관계인 경우 범죄자의 평균연령은 37세였고, 가장 나이 어린 범죄자가 14세, 가장 나이가

많은 범죄자가 81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친족관계인 경우보다 친족관계인 경우 범죄자의 평균연령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 피해자와 범죄자관계별 범죄자의 평균 연령

범죄유형	평균	사례수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친 족	42.3 세	169	9.172	15	70
비 친 족	37.0 세	771	15.280	14	81
계	38.0 세	940	14.514	14	81

4) 직업

피해자와 범죄자관계별 성폭력범죄자의 직업을 살펴보면(<표 4-5> 참조), 친족관계인 경우에는 단순노무직의 비율이 26.0%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무직(24.9%), 기능조작직(19.5%)의 순이었다. 비친족관계인 경우에는 무직자의 비율이 29.7%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단순노무직(16.9%), 관리자(12.2%)의 순이었다.

〈표 4-5〉 피해자와 범죄자관계별 범죄자의 직업

(단위: 명(%))

범죄자 직업	피해자와 범죄자의 관계		계
	친족	비친족	
관리자	11(6.5)	94(12.2)	105(11.2)
사무직	16(9.5)	69(8.9)	85(9.0)
서비스직	12(7.1)	81(10.5)	93(9.9)
농축산업	5(3.0)	19(2.5)	24(2.6)
기능조작직	33(19.5)	52(6.7)	85(9.0)
단순노무직	44(26.0)	130(16.9)	174(18.5)
직업군인	0(0.0)	3(0.4)	3(0.3)
학생	1(0.6)	80(10.4)	81(8.6)
무직	42(24.9)	229(29.7)	271(28.8)
기타	5(3.0)	14(1.8)	19(2.0)
계	169(100.0)	771(100.0)	940(100.0)

범죄자 직업을 청소년보호직종여부(교사, 학원강사, 목회자, 통학버스기사 등)에 따라 분류하여 살펴본 결과(<표 4-6> 참조), 친족관계인 경우에는 169명 중 1명이 청소년 보호직종에 종사하였고, 비친족관계인 경우에는 771명 중 59명(7.7%)이 청소년보호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6〉 피해자와 범죄자관계별 청소년 보호직종여부

(단위: 명(%))

청소년보호직종여부	피해자와 범죄자의 관계		계
	친족	비친족	
그 령 다	1(1.4)	59(7.7)	60(6.4)
아 니 다	168(98.6)	712(89.5)	880(93.6)
계	169(100.0)	771(100.0)	940(100.0)

5) 거주지역

피해자와 범죄자관계별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역을 살펴보면(<표 4-7> 참조), 친족관계인 경우에 성폭력범죄자 경기가 18.9%로 가장 많았고, 서울 14.8%, 광주와 충남이 각각 7.7%의 순이었고, 비친족관계인 경우에는 경기 23.1%, 서울 13.5%, 부산 7.4%의 순이었다.

〈표 4-7〉 피해자와 범죄자관계별 범죄자 거주 지역

(단위: 명(%))

거주지역 시도	피해자와 범죄자의 관계		계
	친족	비친족	
서울특별시	25(14.8)	104(13.5)	129(13.7)
부산광역시	9(5.3)	57(7.4)	66(7.0)
대구광역시	10(5.9)	34(4.4)	44(4.7)
인천광역시	10(5.9)	43(5.6)	53(5.6)
광주광역시	13(7.7)	28(3.6)	41(4.4)
대전광역시	7(4.1)	23(3.0)	30(3.2)
울산광역시	7(4.1)	26(3.4)	33(3.5)
경 기 도	32(18.9)	178(23.1)	210(22.3)

<표 계속>

거주지역 시도	피해자와 범죄자의 관계		계
	친족	비친족	
강 원 도	6(3.6)	18(2.3)	24(2.6)
충청북도	1(0.6)	30(3.9)	31(3.3)
충청남도	13(7.7)	34(4.4)	47(5.0)
전라북도	7(4.1)	52(6.7)	59(6.3)
전라남도	7(4.1)	51(6.6)	58(6.2)
경상북도	8(4.7)	30(3.9)	38(4.0)
경상남도	8(4.7)	49(6.4)	57(6.1)
제주특별자치도	6(3.6)	14(1.8)	20(2.1)
계	169(100.0)	771(100.0)	940(100.0)

6) 지적장애여부

피해자와 범죄자관계별 성폭력범죄자의 지적장애여부를 살펴보면(<표 4-8> 참조), 친족관계인 경우에는 169명 중 1명(0.6%)이 지적장애자였고, 비친족관계인 경우에는 771명 중 38명(4.9%)이 지적장애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8〉 피해자와 범죄자관계별 범죄자 지적장애여부

(단위: 명(%))

범죄자 지적장애여부	피해자와 범죄자의 관계		계
	친족	비친족	
그 령 다	1(0.6)	38(4.9)	39(4.1)
아 니 다	168(99.4)	733(95.1)	901(95.9)
계	169(100.0)	771(100.0)	940(100.0)

7) 정신과 병력여부

피해자와 범죄자관계별 성폭력범죄자의 정신과 감정 및 치료여부를 살펴보면(<표 4-9> 참조), 친족관계인 경우에는 169명 중 6명(3.6%)이 정신감정치료를 받았고, 비친족관계인 경우에는 771명 중 52명(6.7%)이 정신감정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9〉 피해자와 범죄자관계별 범죄자 정신과 감정 및 치료여부

(단위: 명(%))

범죄자정신과 감정 및 치료여부	피해자와 범죄자의 관계		계
	친족	비친족	
있 음	6(3.6)	52(6.7)	58(6.2)
없 음	163(96.4)	719(93.3)	882(93.8)
계	169(100.0)	771(100.0)	940(100.0)

나. 범죄경력

1) 범행당시 형사처분 집행 중인지의 여부

피해자와 범죄자관계별 성폭력범죄자의 범행당시 이전의 범죄로 인해 처분을 받고 있는 중이었던지의 여부를 살펴본 결과(<표 4-10> 참조), 친족관계인 경우에는 95.3%는 처분받고 있지 않았고, 보호관찰/집행유예 중인 자가 7명(4.1%), 보석/형집행정지 중인 자가 1명(0.6%)있었고, 비친족관계인 경우에는 95.6%는 처분받고 있지 않았고, 보호관찰/집행유예 중인 자가 31명(4.0%), 가석방 중인 자가 1명(0.1%), 기타 2명(0.3%) 있었다.

〈표 4-10〉 피해자와 범죄자관계별 범행시 형사처분 집행 중이었던지의 여부

(단위: 명(%))

범행시 형사처분 집행 중이었던지의 여부	피해자와 범죄자의 관계		계
	친족	비친족	
해당사항 없음	161(95.3)	737(95.6)	898(95.5)
보호관찰/집행유예 중	7(4.1)	31(4.0)	38(4.0)
가 석 방 중	0(0.0)	1(0.1)	1(0.1)
보석/형집행정지 중	1(0.6)	0(0.0)	1(0.1)
기 타	0(0.0)	2(0.3)	2(0.2)
계	169(100.0)	771(100.0)	940(100.0)

2) 범죄경력유무 및 유형

피해자와 범죄자관계별 성폭력범죄자의 범죄경력을 동종범죄경력과 이종범죄경력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표 4-11> 참조), 친족관계인 경우에는 81.1%는 범죄경력이 없었고 이종범죄경력이 있는 경우가 14.2%, 동종범죄경력이 있는 경우가 5.3%였고, 비친족관계인 경우에는 71.5%는 범죄경력이 없었고 이종범죄경력이 있는 경우가 14.7%, 동종범죄경력이 있는 경우가 15.6%였다. 비친족관계인 경우에는 동종범죄경력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4-11〉 피해자와 범죄자관계별 범죄경력유무 및 유형

(단위: 명(%))

범죄경력 유무 및 유형	피해자와 범죄자의 관계		계
	친족	비친족	
범죄경력 없음	137(81.1)	551(71.5)	688(73.2)
동종범죄경력	8(4.7)	106(13.7)	114(12.1)
이종범죄경력	23(13.6)	99(12.8)	122(13.0)
동종+이종범죄경력	1(0.6)	15(1.9)	16(1.7)
계	169(100.0)	771(100.0)	940(100.0)

3) 동종범죄경력 횟수 및 내용

피해자와 범죄자관계별 성폭력범죄자 중 동종범죄경력자만을 대상으로 범죄경력 회수를 살펴본 결과(<표 4-12> 참조), 친족관계인 경우 1회의 동종범죄경력을 갖고 있는 범죄자가 87.5%, 2회 12.5%, 3회 이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비친족관계인 경우에는 1회 67.9%, 2회 17.9%, 3회 이상 14.2%로 나타났다. 즉, 친족관계인 경우에 비해 비친족관계인 경우에 2회 이상의 동종범죄경력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표 4-12〉 피해자와 범죄자관계별 동종범죄경력 횟수

(단위: 명(%))

동종범죄경력 횟수	피해자와 범죄자의 관계		계
	친족	비친족	
1회	7(87.5)	72(67.9)	79(69.3)
2회	1(12.5)	19(17.9)	20(17.5)
3회 이상	0(0.0)	15(14.2)	15(13.2)
계	8(100.0)	106(100.0)	114(100.0)

4) 이종범죄경력 횟수 및 내용

피해자와 범죄자관계별 성폭력범죄자 중 이종범죄경력자만을 대상으로 범죄경력회수를 살펴본 결과(<표 4-13> 참조), 친족관계인 경우 1회의 이종범죄경력을 갖고 있는 범죄자가 65.2%, 2회 26.1%, 3회 이상 8.7%로 나타났고, 비친족관계인 경우에는 1회 68.7%, 2회 17.2%, 3회 이상 14.1%로 나타났다. 즉, 친족관계인 경우에 비해 비친족관계의 경우에 3회 이상의 이종범죄경력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표 4-13〉 피해자와 범죄자 관계별 이종범죄경력 횟수

(단위: 명(%))

이종범죄경력 횟수	피해자와 범죄자의 관계		계
	친족	비친족	
1회	15(65.2)	68(68.7)	83(68.0)
2회	6(26.1)	17(17.2)	23(18.9)
3회 이상	2(8.7)	14(14.1)	16(13.1)
계	23(100.0)	99(100.0)	122(100.0)

5) 범행시 범죄자의 역할

피해자와 범죄자관계별 성폭력범죄자 중 범행시 범죄자의 역할을 살펴본 결과(<표 4-14> 참조), 친족관계인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단독범으로 99.4%였으며, 비친족

관계인 경우에는 단독범이 87.5%, 공범 모두 주요하게 관여한 경우가 8.4%, 공범있을 때 주된 역할을 한 경우가 3.0%였다.

〈표 4-14〉 피해자와 범죄자관계별 범죄자의 역할

(단위: 명(%))

범죄자 역할	피해자와 범죄자의 관계		계
	친족	비친족	
단독범	168(99.4)	674(87.5)	842(89.7)
공범시 주된 역할	0(0.0)	23(3.0)	23(2.4)
공범 모두 주요 관여	0(0.0)	65(8.4)	65(6.9)
단순가담	0(0.0)	8(1.0)	8(0.9)
기타	1(0.6)	0(0.0)	1(0.1)
계	169(100.0)	770(100.0)	939(100.0)

2. 피해 아동·청소년의 특성

가. 사회인구학적 특성

먼저 친족관계별로 피해 아동·청소년의 성별을 살펴본 결과(<표 4-15> 참조), 친족 관계인 경우에는 192명중 남자는 4명(2.1%) 이었고, 비친족관계인 경우에는 1,013명 중 남자가 46명(4.5%)이었다.

〈표 4-15〉 피해자와 범죄자관계별 피해 아동·청소년의 성별

(단위: 명(%))

피해자 성별	피해자와 범죄자의 관계		계
	친족	비친족	
남 자	4(2.1)	46(4.5)	50(4.1)
여 자	188(97.9)	967(95.5)	1,155(95.9)
계	192(100.0)	1,013(100.0)	1,205(100.0)

피해 아동·청소년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표 4-16> 참조), 친족관계인 경우에는 7~13세의 비율이 49.5%로 가장 높았고, 16세이상 24.0%, 14~15세 22.4%의 순이었고, 6세이하는 4.2%였다. 비친족관계인 경우에는 7~13세의 비율이 43.7%로 가장 높았고, 16세이상 28.4%, 14~15세 21.3% 순이었고, 6세이하는 6.6%를 차지하였다.

〈표 4-16〉 피해자와 범죄자관계별 피해 아동·청소년의 연령

(단위: 명(%))

피해자 연령	피해자와 범죄자의 관계		계
	친족	비친족	
6세이하	8(4.2)	67(6.6)	75(6.2)
7~13세	95(49.5)	442(43.7)	537(44.6)
14~15세	43(22.4)	216(21.3)	259(21.5)
16세이상	46(24.0)	287(28.4)	333(27.7)
계	192(100.0)	1,012(100.0)	1,204(100.0)

친족관계별 피해 아동·청소년의 평균연령을 비교해 보면(<표 4-17> 참조), 친족관계인 경우 피해 아동·청소년의 평균연령은 12.9세이며, 최소 연령은 3세, 최대 연령은 18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친족관계인 경우 피해 아동·청소년의 평균연령은 12.8세이며, 최소 연령은 2세, 최대 연령은 19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친족관계별 피해 아동·청소년의 연령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7〉 피해자와 범죄자관계별 피해 아동·청소년의 평균 연령

피해자 성별	평균	사례수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친 족	12.9 세	192	3.169	3	18
비친족	12.8 세	1,012	3.661	2	19
계	12.8 세	1,204	3.568	2	19

피해자와 범죄자관계별로 피해 아동·청소년의 장애여부 및 유형을 살펴보면(<표 4-18> 참조), 친족관계인 경우에는 192명중 정신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9명(4.7%) 있었고, 비친족관계인 경우에는 1,013명 중 신체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3명(0.3%), 정신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37명(3.7%) 있었다.

〈표 4-18〉 피해자와 범죄자관계별 피해 아동·청소년의 장애여부

(단위: 명(%))

피해자 장애여부	피해자와 범죄자의 관계		계
	친족	비친족	
장애 없음	183(95.3)	973(96.1)	1,156(95.9)
신체 장애	0(0.0)	3(0.3)	3(0.2)
정신 장애	9(4.7)	37(3.7)	46(3.8)
계	192(100.0)	1,013(100.0)	1,205(100.0)

피해자와 범죄자관계별로 피해 당시 아동·청소년이 가출상태였는지를 살펴본 결과(<표 4-19> 참조), 친족관계인 경우에는 192명중 5명(2.6%)이 가출상태였고, 비친족관계인 경우에는 1,013명 중 67명(6.6%)이 가출상태에 있었다.

〈표 4-19〉 피해자와 범죄자관계별 피해 아동·청소년의 피해당시 가출여부

(단위: 명(%))

피해자의 가출여부	피해자와 범죄자의 관계		계
	친족	비친족	
가 출	5(2.6)	67(6.6)	72(6.0)
가출하지 않은 상태	187(97.4)	946(93.4)	1,133(94.0)
계	192(100.0)	1,013(100.0)	1,205(100.0)

나. 범죄자와의 관계

피해자와 범죄자관계별로 피해 아동·청소년과 범죄자와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표 4-20> 참조), 친족관계인 경우에는 친부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의부,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사실혼 포함)의 순이었다. 비친족관계인 경우에는 낯선 사람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즉석 만남을 통해 알게 된 사람, 이웃이나 잘 알고 지내는 사람, 선생님의 순이었다.

〈표 4-20〉 피해자와 범죄자관계별 피해자와 범죄자의 관계

(단위: 명(%))

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와 범죄자의 관계		계
	친족	비친족	
전혀 모르는 사람	0(0.0)	667(65.8)	667(55.4)
낯선사람	0(0.0)	543(53.8)	544(45.3)
여성접객원, 다방종사자, 노래방 도우미 등인 피해자를 범죄자가 상업적인 목적으로 부른 경우	0(0.0)	1(0.1)	1(0.1)
즉석만남 등을 통해 알게 된 사람	0(0.0)	103(10.2)	103(8.6)
택시기사	0(0.0)	11(1.1)	11(0.9)
배달원, 수리원, 방문판매원 등	0(0.0)	2(0.2)	2(0.2)
숙박업소, 목욕탕, 음식점, 주점, 노래방, 비디오방 등의 주인 혹은 종업원	0(0.0)	6(0.6)	6(0.5)
아는 사람	0(0.0)	342(33.8)	342(28.4)
친구	0(0.0)	4(0.4)	4(0.3)
애인, 남자친구	0(0.0)	8(0.8)	8(0.7)
학교선후배	0(0.0)	9(0.9)	9(0.7)
선생님	0(0.0)	48(4.8)	48(4.0)
이웃, 잘 알고 지내는 사람	0(0.0)	68(6.7)	68(5.7)
같은 종교집단에 소속되어 있는 성직자	0(0.0)	4(0.4)	4(0.3)
직장상사, 고용주	0(0.0)	6(0.6)	6(0.5)
직장동료(아르바이트 동료)	0(0.0)	2(0.2)	2(0.2)
업무 관계인	0(0.0)	4(0.4)	4(0.3)
친구의 부모	1(0.5)	16(1.6)	17(1.4)
부모의 친구	0(0.0)	19(1.9)	19(1.6)
아파트 관리인 등	0(0.0)	8(0.8)	8(0.7)
안면만 있는 사람	0(0.0)	83(8.2)	83(6.9)
병원, 수용시설직원, 관리자, 사회복지사	0(0.0)	9(0.9)	9(0.7)
인터넷채팅 등을 통해 알게 된 사람	0(0.0)	31(3.1)	31(2.6)
아는 사람 기타	0(0.0)	21(2.1)	21(1.7)
가족 및 친척	190(100.0)	4(0.4)	194(16.1)
친부	71(37.0)	0(0.0)	71(5.9)
의부	63(32.8)	0(0.0)	63(5.2)
모의 동거인(내연남)	23(12.0)	1(0.1)	24(2.0)
형제자매	4(2.1)	0(0.0)	4(0.3)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사실혼 포함)	28(14.6)	0(0.0)	28(2.3)
5촌 이상의 혈족 및 친척(사실혼 포함)	1(0.5)	2(0.2)	3(0.2)
미상	0(0.0)	1(0.1)	1(0.1)
계	190(100.0)	1,013(100.0)	1,203(100.0)

3.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범죄의 범행특성

가. 범행의 다중성 및 지속성

피해자와 범죄자관계별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의 범행의 다중성을 살펴본 결과(<표 4-21> 참조), 친족관계인 경우 피해자가 한명이 77.6%, 2명 16.7%, 3명 5.7%였고, 4명 이상은 없었다. 비친족관계인 경우에는 피해자가 한명이 63.0%, 2명 16.6%, 3명 6.9%, 그리고 4명 이상이 13.5%로 상당히 높았다.

〈표 4-21〉 피해자와 범죄자관계별 피해 아동·청소년의 수

(단위: 명(%))

아동·청소년피해자수	피해자와 범죄자의 관계		계
	친족	비친족	
1명	149(77.6)	63(63.0)	787(65.3)
2명	32(16.7)	168(16.6)	200(16.6)
3명	11(5.7)	70(6.9)	81(6.7)
4명 이상	0(0.0)	137(13.5)	137(11.4)
계	192(100.0)	1,013(100.0)	1,205(100.0)

다음은 범죄자가 동일한 피해자에게 시간의 간격을 두고 1회 이상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는가의 여부(범죄의 지속성)와 그 지속기간을 살펴본 결과(<표 4-22> 참조), 친족관계인 경우에는 1회에 그치는 경우가 21.4%, 1개월 이하가 15.1%, 1개월 이상 5개월 미만이 13.5%, 6개월 이상 1년 미만이 14.1%, 1년 이상은 35.9%를 나타내 전체의 50% 이상이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비친족관계인 경우에는 1회에 그치는 경우가 82.5%로 대부분이었고, 1개월 이하가 7.9%, 1개월 이상 5개월 미만이 4.9%, 6개월 이상 1년 미만이 2.6%, 1년 이상은 2.1%로 1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는 많지 않았다.

〈표 4-22〉 피해자와 범죄자관계별 범행의 지속성

(단위: 명(%))

동일피해 아동·청소년 범행횟수 및 기간	피해자와 범죄자의 관계		계
	친족	비친족	
1회에 그침	41(21.4)	836(82.5)	877(72.8)
1개월 이하	29(15.1)	80(7.9)	109(9.0)
1~5개월	26(13.5)	50(4.9)	76(6.3)
6개월~1년 미만	27(14.1)	26(2.6)	53(4.4)
1년 이상	69(35.9)	21(2.1)	90(7.5)
계	192(100.0)	1,013(100.0)	1,205(100.0)

나. 범행발생장소 및 시간

피해자와 범죄자관계별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가 발생한 지역을 살펴본 결과(〈표 4-23〉 참조), 친족관계인 경우에는 경기도의 비율이 19.3%로 가장 높았고, 서울 14.6%, 충남 10.4% 순이었다. 비친족관계인 경우에는 경기도 23.4%, 서울 13.5%, 부산 8%의 순이었다. 인구가 많은 경기도와 서울의 발생빈도가 높았다.

〈표 4-23〉 피해자와 범죄자관계별 범행지역

(단위: 건(%))

범행지역	피해자와 범죄자의 관계		계
	친족	비친족	
서울특별시	28(14.6)	136(13.5)	164(13.6)
부산광역시	10(5.2)	81(8.0)	91(7.6)
대구광역시	10(5.2)	41(4.1)	51(4.2)
인천광역시	9(4.7)	60(5.9)	69(5.7)
광주광역시	13(6.8)	39(3.9)	52(4.3)
대전광역시	9(4.7)	31(3.1)	40(3.3)
울산광역시	7(3.6)	37(3.7)	44(3.7)
경기도	37(19.3)	237(23.4)	274(22.8)
강원도	6(3.1)	28(2.8)	34(2.8)
충청북도	2(1.0)	34(3.4)	36(3.0)

<표 계속>

범행지역	피해자와 범죄자의 관계		계
	친족	비친족	
충청남도	20(10.4)	59(5.8)	79(6.6)
전라북도	9(4.7)	55(5.4)	64(5.3)
전라남도	11(5.7)	59(5.8)	70(5.8)
경상북도	8(4.2)	40(4.0)	48(4.0)
경상남도	8(4.2)	60(5.9)	68(5.7)
제주특별자치도	5(2.6)	14(1.4)	19(1.6)
계	192(100.0)	1,011(100.0)	1,203(100.0)

피해자와 범죄자관계별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가 발생한 장소를 크게 옥내와 옥외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표 4-24> 참조), 친족관계인 경우 옥외에서 발생한 경우는 2.6%에 그쳐 거의 대부분이 옥내에서 발생한 반면, 비친족관계인 경우에는 옥외에서의 비율이 39.2%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4-24〉 피해자와 범죄자관계별 범행장소1(옥내·외 구분)

(단위: 건(%))

범행장소	피해자와 범죄자의 관계		계
	친족	비친족	
옥 내	187(97.4)	616(60.8)	803(66.6)
옥 외	5(2.6)	397(39.2)	402(33.4)
계	192(100.0)	1,013(100.0)	1,205(100.0)

구체적으로 범죄가 발생한 장소를 집, 범죄자가 근무하는 직장, 공공기관 및 상업지역, 학교, 학원 및 보육시설, 주택가 및 이면도로, 주차장, 야외·거리·산야·대중교통시설 등, 화장실, 자동차안, 기타 등으로 11개 범주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표 4-25> 참조), 친족관계인 경우에는 피해자와 범죄자의 공동주거지의 비율이 74.0%로 가장 높았고, 범죄자의 집(8.3%), 피해자의 집(7.8%)의 순으로 나타나 거의 대부분(92.2%)이 집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고, 집 이외에는 호텔, 여관, 펜션 등 숙박업소나 목욕탕 또는 찜질방에서 발생한 경우가 4.2%였다. 비친족관계인 경우에는 호텔, 여관, 펜션 등 숙박업소나 목욕탕 또는 찜질방에서 발생한 비율이 14.1%로 가장 높았고, 피해자의 집(13.8%), 범죄자의 집(13.4%), 도로상(7.8%)의 순이었다.

〈표 4-25〉 피해자와 범죄자관계별 범행발생장소

(단위: 명(%))

범행장소	피해자와 범죄자의 관계		계
	친족	비친족	
집	177(92.2)	330(33.5)	514(42.8)
피해자의 집	15(7.8)	139(13.8)	154(12.8)
범죄자의 집	16(8.3)	135(13.4)	151(12.6)
다른사람의 집	3(1.6)	43(4.3)	46(3.8)
피해자와 범죄자의 공동주거지	142(74.0)	18(1.8)	160(13.3)
폐가	1(0.5)	2(0.2)	3(0.3)
주택가 및 이면도로	1 (0.5)	80(8.0)	81(6.8)
아파트단지주변	0(0.0)	25(2.5)	25(2.1)
다세대연립주택가주변	0(0.0)	9(0.9)	9(0.8)
단독주택마을주변	0(0.0)	5(0.5)	5(0.4)
공동주택 내부 계단, 승강기 등	1(0.5)	41(4.1)	42(3.5)
학교	0(0.0)	45(4.5)	45(1.9)
교실	0(0.0)	1(0.1)	1(0.1)
복도,계단, 옥상	0(0.0)	1(0.1)	1(0.1)
도서관, 체육관, 강당, 매점 등 학교내부시설	0(0.0)	4(0.4)	4(0.3)
운동장	0(0.0)	22(2.2)	22(1.8)
학교뒷산학교담장주변	0(0.0)	6(0.6)	6(0.5)
기숙사	0(0.0)	1(0.1)	1(0.1)
학교기타	0(0.0)	10(1.0)	10(0.8)
범죄자가 근무하는 직장	1(0.5)	31(3.1)	32(2.8)
사무실 또는 영업장소	1(0.5)	25(2.5)	26(2.2)
화장실,창고, 옥상,복도 등	0(0.0)	3(0.3)	3(0.3)
범죄자가 근무하는 장소 기타	0(0.0)	3(0.3)	3(0.3)
주차장	0(0.0)	11(1.1)	11(1.0)
상업시설주차장	0(0.0)	5(0.5)	5(0.4)
공공기관주차장	0(0.0)	1(0.1)	1(0.1)
아파트, 연립주택단지 내주차장	0(0.0)	3(0.3)	3(0.3)
도로변유료주차장이나 주차전용건물	0(0.0)	1(0.1)	1(0.1)
주차장 기타	0(0.0)	1(0.1)	1(0.1)

<표 계속>

범행장소	피해자와 범직자의 관계		계
	친족	비친족	
공공기관 및 상업지역	9(4.7)	211(20.7)	220(18.5)
동사무소, 세무서 등 관공서	0(0.0)	2(0.2)	2(0.2)
의료기관	0(0.0)	3(0.3)	3(0.3)
종교기관	0(0.0)	6(0.6)	6(0.5)
기업회사 사무실	0(0.0)	3(0.3)	3(0.3)
백화점, 시장, 가게 등 상업건물	0(0.0)	13(1.3)	13(1.1)
식당, 술집, 나이트클럽, 게임장 등 유흥업소	1(0.5)	18(1.8)	19(1.6)
호텔, 여관, 펜션 등 숙박업소, 목욕탕	8(4.2)	142(14.1)	150(12.5)
공장이나 창고 공사장	0(0.0)	4(0.4)	4(0.3)
공공기관 및 상업시설 기타	0(0.0)	20(2.0)	20(1.7)
야외, 거리, 산야, 대중교통시설 등	0(0.0)	135(13.4)	135(11.3)
유원지, 공원 산야 공터 체육시설 운동장	0(0.0)	39(3.9)	39(3.3)
도로상에서	0(0.0)	79(7.8)	79(6.6)
버스, 기차, 지하철, 택시, 항공기, 선박 등 교통시설 내부	0(0.0)	11(1.1)	11(0.9)
대중교통정거장 역 또는 대합실	0(0.0)	6(0.6)	6(0.5)
(공중)화장실	0(0.0)	30(3.0)	30(2.5)
유원지, 공원체육시설의 화장실	0(0.0)	10(1.0)	10(0.8)
대중교통 정거장역 또는 화장실	0(0.0)	3(0.3)	3(0.3)
공중화장실기타	0(0.0)	17(1.7)	17(1.4)
자동차 안	3(1.6)	59(5.9)	62(5.1)
범죄자의 차	3(1.6)	49(4.9)	52(4.3)
제3자의 차	0(0.0)	4(0.4)	4(0.3)
학원차	0(0.0)	4(0.4)	4(0.3)
자동차안 기타	0(0.0)	2(0.2)	2(0.2)
학원 및 보육시설	1(0.5)	68(6.8)	69(6.0)
어린이집, 보육원, 유치원 등	0(0.0)	2(0.2)	2(0.2)
학원교실	0(0.0)	15(1.5)	15(1.3)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옥상	0(0.0)	3(0.3)	3(0.3)
화장실	0(0.0)	3(0.3)	3(0.3)
학원 및 보육시설 기타	0(0.0)	2(0.2)	2(0.2)
기타	1(0.5)	43(4.3)	44(3.7)
계	192(100.0)	1,007(100.0)	1,199(100.0)

다음은 피해자와 범죄자관계별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의 발생시간을 범행 발생 계절과 범행발생 시간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먼저 친족관계별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의 범행발생 계절을 살펴본 결과(<표 4-26> 참조), 친족관계인 경우 여름의 비율이 31.2%로 가장 높았으며, 가을(29.5%), 봄(23.1%), 겨울(16.2%)의 순으로 나타났다. 비친족관계인 경우에도 여름의 비율이 36.4%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친족관계와 달리 봄(25.1%), 가을(23.6%), 겨울(14.9%)의 순이었다.

〈표 4-26〉 피해자와 범죄자관계별 범행발생계절

(단위: 건(%))

범행계절	피해자와 범죄자의 관계		계
	친족	비친족	
봄	40(23.1)	252(25.1)	292(24.8)
여름	54(31.2)	365(36.4)	419(35.6)
가을	51(29.5)	237(23.6)	288(24.5)
겨울	28(16.2)	149(14.9)	177(15.1)
계	173(100.0)	1,003(100.0)	1,176(100.0)

* 범행발생계절을 알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 분석결과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여러 번에 걸쳐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범행시간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 피해자와 범죄자의 관계별로 성폭력범죄의 발생시간을 살펴보았다(<표 4-27> 참조).

〈표 4-27〉 피해자와 범죄자관계별 범행발생시간

(단위: 건(%))

범행시간	친족관계		계
	친족	비친족	
0~2시	11(20.4)	109(12.9)	120(13.4)
3~5시	20(37.0)	130(15.4)	150(16.7)
6~8시	8(14.8)	104(12.4)	112(12.5)
9~11시	2(3.7)	77(9.1)	79(8.8)
12~14시	2(3.7)	44(5.2)	46(5.1)
15~17시	3(5.6)	106(12.6)	109(12.2)
18~20시	2(3.7)	180(21.4)	182(20.3)
21~23시	6(11.1)	92(10.9)	98(10.9)
계	54(100.0)	842(100.0)	896(100.0)

* 반복발생과 범행시간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는 제외한 분석결과임

친족관계인 경우에는 3~5시의 비율이 37.0%로 가장 높았고, 0시~2시(20.4%), 6시~8시(14.8%)의 순으로써 0시에서 아침 8시까지의 비율이 72.2%로, 대부분의 범죄가 이 시간대에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친족관계인 경우에는 18~20시의 비율이 21.4%로 가장 높았고, 3~5시(15.4%), 0시~2시(12.9%), 15~17시(12.6%), 6~8시(12.4%)의 순으로 나타나 18~20시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12~14시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이 외의 시간대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었다.

다. 범행당시 범죄자 및 피해자의 상태

피해자와 범죄자관계별로 범행당시 범죄자의 상태를 음주여부로 살펴본 결과(<표 4-28> 참조), 친족관계인 경우에는 비음주상태에서 발생한 비율이 87.5%였고, 약간의 음주상태는 12.0%였으며, 만취상태는 0.5%에 불과하였다. 비친족관계인 경우에는 비음주상태의 비율이 74.9%였으며, 약간의 음주상태인 경우가 20.9%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만취상태는 4.1%에 불과하였다. 즉, 비친족관계인 경우가 친족관계인 경우보다 음주상태의 비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8〉 피해자와 범죄자관계별 범행당시 범죄자의 음주상태

(단위: 명(%))

범죄자의 음주상태	피해자와 범죄자의 관계		계
	친족	비친족	
비음주 상태	168(87.5)	759(74.9)	927(76.9)
약간의 음주 상태	23(12.0)	212(20.9)	235(19.5)
만취 상태	1(0.5)	42(4.1)	43(3.6)
계	192(100.0)	1,013(100.0)	1,205(100.0)

피해자와 범죄자관계별로 범행당시 범죄자의 상태를 약물복용여부로 살펴본 결과(<표 4-29> 참조), 친족관계인 경우에는 범행당시 약물복용 상태인 경우는 한 명도 없었고, 비친족관계인 1,013명 중 6명(0.6%)이 약물복용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9〉 피해자와 범죄자관계별 범행당시 범죄자의 약물복용여부

(단위: 명(%))

범죄자 약물복용여부	피해자와 범죄자의 관계		계
	친족	비친족	
그 령 다	0(0.0)	6(0.6)	6(0.5)
아 니 다	192(100.0)	1007(99.4)	1199(99.5)
계	192(100.0)	1,013(100.0)	1,205(100.0)

한편, 피해자와 범죄자관계별로 범행당시 피해자의 음주상태여부를 알아본 결과(<표 4-30> 참조), 친족관계인 경우에는 피해자가 약간의 음주상태였던 비율이 2.1%(4명), 만취상태는 1.0%(2명)로, 피해자의 3.1%가 피해당시 음주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비친족관계인 경우에는 피해자가 만취상태였던 비율이 6.8%(69명), 약간의 음주상태가 4.1%(42명)로 나타나 전체의 10.9%는 음주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즉, 비친족관계에서는 친족관계에 비해 범행당시 범죄자와 피해자 모두 음주상태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0〉 피해자와 범죄자관계별 피해당시 피해자 음주여부

(단위: 건(%))

피해자 음주여부	피해자와 범죄자의 관계		계
	친족	비친족	
비음주 상태	186(96.9)	902(89.0)	1088(90.3)
약간의 음주 상태	4(2.1)	42(4.1)	46(3.8)
만취 상태	2(1.0)	69(6.8)	71(5.9)
계	192(100.0)	1,013(100.0)	1,205(100.0)

라. 범행방법

피해자와 범죄자관계별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 범죄의 공범이 있는 경우 가담 정도의 여부를 살펴본 결과(<표 4-31> 참조), 친족관계인 경우에는 공범이 있는 경우가 1명밖에 없어 거의 대부분이 공범없이 단독으로 범행이 저질러졌으며, 비친족관계인 경우에도 90% 가까이는 공범없이 단독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공범이 있는 비율은 10.3%(104명)였다.

공범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공범자의 수를 살펴보면, 친족관계인 경우 유일하게 공범자가 있었던 경우에 공범자는 1명이었고, 비친족관계인 경우에는 공범자가 1명인 경우 53.8%, 2명인 경우와 3명 이상인 경우 각각 23.1%를 차지하였다.

공범있는 때에 범죄자의 가담정도를 살펴본 결과, 친족관계의 경우 그 한명은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비친족관계의 경우에는 동등한 역할의 비율이 72.1%로 대다수를 차지하였고, 주도적인 역할이 18.3%, 보조적인 역할이 9.6%였다.

〈표 4-31〉 피해자와 범죄자관계별 공범여부, 공범자수, 가담정도

(단위: 건(%))

구분		피해자와 범죄자의 관계		계
		친족	비친족	
공범여부	공범 없음	191(99.5)	909(89.7)	1,100(91.3)
	공범 있음	1(0.5)	104(10.3)	110(8.7)
	계	192(100.0)	1,013(100.0)	1,205(100.0)
공범자 수	1명	1(100.0)	56(53.8)	57(54.3)
	2명	0(0.0)	24(23.1)	24(22.9)
	3명 이상	0(0.0)	24(23.1)	24(22.9)
	계	1(100.0)	104(100.0)	105(100.0)
공범시 범죄자의 가담정도	보조적인 역할	0(0.0)	10(9.6)	10(9.5)
	동등한 역할	0(0.0)	75(72.1)	75(71.4)
	주도적인 역할	1(100.0)	19(18.3)	20(19.0)
	계	1(100.0)	104(100.0)	105(100.0)

피해자와 범죄자관계별로 범행을 위해 범죄자가 피해자의 집에 들어왔는지의 여부를 살펴본 결과(<표 4-32> 참조), 친족관계인 경우에는 공동주거의 등의 이유로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77.1%) 이외에 피해자의 집에 들어 온 경우가 10.4%를 차지하였다. 비친족관계인 경우에는 피해자의 집에 들어온 경우는 14.4%를 차지하였고, 83.1%는 들어오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2〉 피해자와 범죄자관계별 범죄자의 주거침입여부

(단위: 건(%))

구분		피해자와 범죄자의 관계		계
		친족	비친족	
범죄자의 주거침입 여부	해당사항 없음	148(77.1)	25(2.5)	173(14.4)
	그 령 다	20(10.4)	146(14.4)	166(13.8)
	아 니 다	24(12.5)	842(83.1)	866(71.9)
	계	192(100.0)	1,013(100.0)	1,205(100.0)
주거침입 방법	직접 열어 줌	10(62.5)	57(42.9)	67(45.0)
	문단속하지 않은 문	1(6.2)	59(44.4)	60(40.3)
	잠긴 문 부수고	0(0.0)	5(3.8)	5(3.4)
	유리창 깨고	0(0.0)	2(1.5)	2(1.3)
	방법 모름	5(31.2)	10(7.5)	15(10.1)
	계	16(100.0)	133(100.0)	149(100.0)

범죄자가 주거침입을 한 경우 구체적인 침입방법을 살펴본 결과(<표 4-32> 참조), 친족관계인 경우에는 공동주거 등의 이유로 직접 열어준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문단속하지 않은 문으로 들어 온 경우는 1명에 불과하였다. 비친족관계인 경우에는 문단속하지 않은 문으로 들어온 비율이 44.4%로 가장 높았고, 직접 열어 준 경우가 42.9%, 잠긴 문을 부수고 들어 온 경우가 3.8%였다.

다음은 피해자와 범죄자관계별로 범행당시 범죄자가 흉기를 사용했는지의 여부와 흉기를 사용한 경우 사용한 흉기의 종류를 살펴보았다(<표 4-33> 참조). 친족관계에서는 흉기를 사용한 경우는 9.8%였고, 비친족관계에서는 흉기를 사용한 경우가 9.6%로 나타나 친족관계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흉기를 사용한 경우에는 친족관계나 비친족관계 모두 칼, 가위, 송곳, 도끼, 낫 등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다. 비친족관계에서는 마취제나 독극물을 사용한 경우도 있었다(0.4%, 4명).

범죄자가 사용했던 무기나 위험한 물건이 미리 준비했던 것인가를 살펴본 결과, 친족관계에서는 현장의 것을 사용한 경우가 76.5%, 사전에 준비한 경우가 23.5%였으며, 이와는 달리 비친족관계에서는 사전에 준비한 경우가 61.1%로 더 많았고, 현장의 것을 사용한 경우는 38.9%였다.

〈표 4-33〉 피해자와 범죄자관계별 범행당시 흉기사용여부 및 종류와 사전준비 여부
(단위: 건(%))

구분		피해자와 범죄자의 관계		계
		친족	비친족	
흉기사용여부 및 종류	사용하지 않음	173(90.1)	916(90.4)	1,089(90.4)
	총	0(0.0)	1(0.1)	1(0.1)
	칼·낫 등	10(5.2)	67(6.6)	77(6.4)
	유리·벽돌·몽둥이	2(1.0)	8(0.8)	10(0.8)
	마취제·독극물 등	0(0.0)	4(0.4)	4(0.3)
	기타	7(3.6)	17(1.7)	24(2.0)
	계	192(100.0)	1,013(100.0)	1,205(100.0)
흉기의 사전준비 여부	사전에 준비	4(23.5)	58(61.1)	62(55.4)
	현장의 것을 사용	13(76.5)	37(38.9)	50(44.6)
	계	17(100.0)	95(100.0)	112(100.0)

다음은 피해자와 범죄자관계별로 범죄자가 피해자를 범행 장소로 데려간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여 구체적인 방법을 살펴보았다(<표 4-34> 참조). 먼저 친족관계에서는 완력으로 유인한 경우가 27.3%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사칭 및 위장(25.0%), 위협(22.7%), 폭력(11.4%) 등의 순이었다. 비친족관계에서는 사칭 및 위장의 비율이 35.9%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완력(14.7%), 위협(14.3%), 금품(10.9%) 등의 순이었다. 친족관계에서는 비친족관계에 비해 완력이나 위협으로 유인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4-34〉 피해자와 범죄자관계별 피해자를 범행 장소로 데려간 방법

(단위: 건(%))

피해자를 범행 장소로 데려간 방법	피해자와 범죄자의 관계		계
	친족	비친족	
금 품	3(6.8)	57(10.9)	60
질 문	0(0.0)	37(7.1)	38
놀 이	0(0.0)	47(9.0)	49
애정칭찬	0(0.0)	15(2.9)	15
사칭위장	11(25.0)	188(35.9)	202
정신장애이용	3(6.8)	7(1.3)	10

<표 계속>

피해자를 범행 장소로 데려간 방법	피해자와 범죄자의 관계		계
	친족	비친족	
위 협	10(22.7)	75(14.3)	85
폭 력	5(11.4)	13(2.5)	18
완 력	12(27.3)	77(14.7)	90
기 타	0(0.0)	7(1.3)	7
계	44(100.0)	523(100.0)	574(100.0)

* 복수응답결과임

** 퍼센트 및 합계는 사례기준

다음은 피해자의 수면상태, 만취상태, 지적장애상태 등 강제 및 강압이 필요 없는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한 경우를 제외하고, 피해자와 범죄자의 관계별로 범죄자가 아동·청소년을 강간이나 강제추행하기 위해 사용한 강제 및 강압의 방식을 살펴보았다(<표 4-35> 참조). 친족관계에서나 비친족관계에서나 모두 완력을 사용한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각각 41.0%, 48.8%). 이외에 친족관계에서는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21.0%), 말로 협박한 경우(14.5%)와 구타한 경우(8.3%)의 순으로 많았고, 비친족관계에서는 말로 협박한 경우(16.4%)와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13.0%), 구타(7.9%)의 순으로 많았다. 즉, 친족관계에서는 비친족관계에 비해 위계·위력을 사용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4-35> 피해자와 범죄자관계별 강제 및 강압방법

(단위: 건(%))

강제 및 강압방법	피해자와 범죄자의 관계		계
	친족	비친족	
말로 협박	42(14.5)	186(16.4)	228
흥기로 협박	17(5.9)	81(7.1)	98
구타	24(8.3)	90(7.9)	114
흥기로 폭행	8(2.8)	7(0.6)	15
인신 속박	6(2.1)	25(2.2)	31
완력 사용	119(41.0)	555(48.8)	674
약물 사용	5(1.7)	10(0.9)	15

<표 계속>

강제 및 강압방법	피해자와 범죄자의 관계		계
	친족	비친족	
감금	2(0.7)	13(1.1)	15
위계·위력 사용	61(21.0)	148(13.0)	209
정신박약 및 정신질환	5(1.7)	16(1.4)	21
기타	1(0.3)	6(0.5)	7
계	290(100.0)	1,013(100.0)	1,443

* 복수응답결과임

** 퍼센트 및 합계는 사례기준

다음은 강제추행범죄를 당한 피해자만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추행의 방식을 살펴본 것이다(<표 4-36> 참조). 앞서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사건에서 여러 가지 유형이 추행이 한 번에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복수응답처리를 하였다. 친족관계에서는 강제추행 유형 중 성기이외의 성적 접촉(34.3%)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는 피해자의 성기접촉(33.1%), 손가락의 항문 또는 질 삽입(11.0%), 범죄자의 성기를 만지도록 강요(8.8%)의 순으로 나타났다. 비친족관계에서는 성기 이외의 성적 접촉(47.1%), 피해자의 성기접촉(25.2%), 성적 키스(11.5%)의 순이었다. 친족관계에서는 비친족관계에 비해 강제추행 중 피해자의 성기접촉과 손가락의 항문 또는 질 삽입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케이스 백분율을 고려할 때, 친족관계인 경우에 비친족관계에 비해 한 사건에서 여러 가지 유형의 추행을 당한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6〉 피해자와 범죄자관계별 강제추행의 유형

(단위: 건(%))

강제추행의 유형	친족			비친족		
	수	백분율	케이스 백분율	수	백분율	케이스 백분율
성적 키스	15	8.3	17.9	104	11.5	17.3
성기 이외의 성적 접촉	62	34.3	73.8	424	47.1	70.4
피해자의 성기접촉	60	33.1	71.4	227	25.2	37.7
범죄자 성기를 만지도록 강요	16	8.8	19.0	49	5.4	8.1

<표 계속>

강제추행의 유형	친족			비친족		
	수	백분율	케이스 백분율	수	백분율	케이스 백분율
구강 성교	3	1.7	3.6	32	3.6	5.3
항문 성교	1	0.6	1.2	7	0.8	1.2
이물질 삽입	3	1.7	3.6	1	0.1	0.2
손가락 항문 또는 질 삽입	20	11.0	23.8	36	4.0	6.0
기 타	1	0.6	1.2	21	2.3	3.5
계	181	100.0	215.5	1,261	100.0	149.7

* 복수응답결과임

다음은 강간범죄를 대상으로 하여 구체적인 강간유형과 기수여부를 살펴보았다(<표 4-37> 참조). 먼저 친족관계에서는 모두가 일반적인 강간사건이었고, 미수는 9.8%였다. 비친족관계에서는 78.6%가 일반적인 강간사건이었고, 윤간사건이 17.9%, 강도강간이 3.3%였다. 친족관계에서는 윤간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7〉 피해자와 범죄자관계별 강간유형 및 기수여부

(단위: 건(%))

구 분		친족		비친족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강간 유형	강 간	96	100.0	286	78.6
	강도강간	0	0.0	12	3.3
	윤 간	0	0.0	65	17.9
	강간방조	0	0.0	1	0.3
	합 계	96	100.0	364	100.0
기수 여부	미 수	9	9.8	101	28.2
	기 수	83	90.2	257	71.8
	합 계	92	100.0	358	100.0

다음은 범행당시 가학적 변태행위를 가했는지를 살펴보았다(<표 4-38> 참조). 친족관계에서는 전체 유효사례 중 15.1%(29건)에서 가학적, 변태적 침해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친족관계에서는 전체 유효사례 중 12.2%(124건)에서 발생한 것으

로 나타나, 비친족관계에 비해 친족관계에서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를 한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가학적 변태행위의 내용을 범죄유형별로 살펴보면, 친족관계에서는 대부분이 구강성교를 강요한 경우가 62.1%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음부에 이물질 삽입(13.8%), 항문강간(10.3%)의 순이었다. 비친족관계에서 구강성교 강요의 비율이 70.2%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항문강간(13.7%)이었다. 친족관계에서는 비친족관계에 비해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의 비율이 다소 높았으며, 음부에 이물질 삽입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4-38〉 피해자와 범죄자관계별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의 내용

(단위: 건(%))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의 내용	피해자와 범죄자의 관계		계
	친족	비친족	
음부에 이물질 삽입	4(13.8)	4(3.2)	8
구강성교 강요	18(62.1)	87(70.2)	105
담뱃불·몽둥이 등으로 신체침해	0(0.0)	2(1.6)	2
항문강간	3(10.3)	17(13.7)	20
피해자를 못 움직이게 함	2(6.9)	6(4.8)	8
기 타	2(6.9)	8(6.5)	10
계	29(100.0)	124(100.0)	153

* 복수응답결과임

** 퍼센트 및 합계는 사례기준

다음은 극도의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에 대해서 살펴보면(<표 4-39> 참조), 친족관계에서는 전체 유효사례 중 3.4%(10건), 비친족관계에서는 전체 유효사례 중 3.0%(30건)에서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가 발생하여 피해자와 범죄자의 관계에 따른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친족관계에서는 10건 중에 6건(60.0%), 비친족관계에서는 30건 중에 26건(86.7%)이 범행과정을 촬영한 경우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9〉 피해자와 범죄자관계별 극도의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단위: 건(%))

성적 수치심 유발 여부	피해자와 범죄자의 관계		계
	친족	비친족	
모멸 행위	1(10.0)	1(3.3)	2
범행과정 촬영	6(60.0)	26(86.7)	32
기 타	3(30.0)	3(10.0)	6
계	10(100.0)	30(100.0)	40

* 복수응답결과임

** 퍼센트 및 합계는 사례기준

마지막으로 성폭력범죄로 인한 피해결과에 대해서 살펴보았다(<표 4-40> 참조). 친족관계에서는 대부분 강간이나 추행 이외의 피해가 없었고(80.6%), 음부 이외의 상처나 감염이 7.9%, 음부 이외의 외상이 6.8%로 나타났고, 사망한 경우가 191건 중 1건(0.5%)이 있었고, 임신이 된 경우는 191건 중 8건(4.2%)이 있었다. 이에 비해 비친족관계에서도 대부분은 강간이나 추행 이외의 피해가 없었고(82.9%), 음부 이외의 외상이 8.5%, 음부 이외의 상처나 감염된 경우가 4.5%로 나타났다. 사망한 경우는 1,033건 중 7건(0.7%)이 있었고, 임신이 된 경우는 3건(0.3%)이 있었다.

〈표 4-40〉 피해자와 범죄자관계별 성폭력범죄의 피해결과

(단위: 건(%))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 범죄자의 관계		계
	친족	비친족	
강간이나 추행이외의 피해없음	154(80.6)	856(82.9)	1,010
음부외의 상처나 감염	15(7.9)	47(4.5)	62
음부이외의 외상	13(6.8)	88(8.5)	101
금전적 피해	0(0.0)	25(2.4)	25
임 신	8(4.2)	3(0.3)	11
사 망	1(0.5)	7(0.7)	8
기 타	0(0.0)	7(0.7)	7
계	191(100.0)	1,033(100.0)	1,224

* 복수응답결과임

** 퍼센트 및 합계는 사례 기준

4. 친족관계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처분 결과

가. 처분죄명 및 경합범 처리

1) 처분죄명

먼저 피해자와 범죄자관계별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자들의 처분죄명을 살펴보았다(<표 4-41> 참조). 앞서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여러 개의 죄가 경합되어 있는 경우 가장 중한 죄를 처분죄명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처분죄명은 범행특성 및 피해자 특성을 명확히 드러내주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된다.

먼저 강간범죄의 처분죄명을 살펴보면, 친족관계에서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비율이 47.4%로 가장 높았고, 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28.9%), 강간상해치상(10.3%),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등(6.2%)의 순이었다. 비친족관계에서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등의 비율이 31.8%로 가장 높았고, 특수강간 등(29.1%), 강간상해치상(18.0%), 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11.4%)의 순이었다. 강제추행범죄의 처분죄명을 살펴보면, 친족관계에서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의 비율이 73.6%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15.3%),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등(6.9%) 순이었다. 비친족관계에서는 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의 비율이 54.5%로 가장 높았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등(30.9%), 유사성교행위(5.5%) 순이었다.

<표 4-41> 피해자와 범죄자관계별 처분죄명

(단위: 건(%))

범죄 유형	처분죄명	친족	비친족	계
강 간	아동·청소년에 대한강간 등	6(6.2)	106(31.8)	112(26.0)
	특수강도강간 등	0(0.0)	19(5.7)	19(4.4)
	특수강간 등	4(4.1)	97(29.1)	101(23.5)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46(47.4)	0(0.0)	46(10.7)
	13세미만 미성년자강간 등	28(28.9)	38(11.4)	66(15.3)
	강간상해치상	10(10.3)	60(18.0)	70(16.3)
	강간살인치사	1(0.0)	0(0.0)	1(0.2)
	장애인에 대한 간음	2(2.4)	9(2.7)	11(2.6)

<표 계속>

범죄 유형	처분죄명	친족	비친족	계
	강도강간	0(0.0)	2(0.6)	2(0.5)
	기타 준강간미수 등	0(0.0)	2(0.6)	2(0.5)
	계	97(100.0)	333(100.0)	430(100.0)
강제 추행	아동·청소년에 대한 청소년강제추행 등	5(6.9)	135(30.9)	140(27.5)
	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11(15.3)	238(54.5)	249(48.9)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53(73.6)	0(0.0)	53(10.4)
	특수강도강제추행 등	0(0.0)	12(2.7)	12(2.4)
	특수강제추행 등	2(2.8)	9(2.1)	11(2.2)
	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 등	0(0.0)	3(0.7)	3(0.6)
	강제추행상해치상	0(0.0)	13(3.0)	13(2.6)
	강제추행살인치사	0(0.0)	1(0.2)	1(0.2)
	업무상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0(0.0)	1(0.2)	1(0.2)
	유사성교행위	1(1.4)	24(5.5)	25(4.9)
	강간강제추행 기타	0(0.0)	1(0.2)	1(0.2)
	계	72(100.0)	437(100.0)	509(100.0)

위에서 살펴본 처분죄명 이 외에 피해자와 범죄자관계별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사건이 다른 범죄와 경합되었는가를 살펴본 결과(<표 4-42> 참조), 친족관계에서는 경합범죄가 없는 경우가 43.2%였고, 동종범죄 경합(38.5%), 이종범죄경합(10.1%), 이종과 동종범죄 모두 경합된 경우(8.3%)의 순이었다. 비친족관계에서는 경합범죄가 없는 경우가 65.6%였고, 이종범죄경합(16.0%), 동종범죄경합(11.5%), 이종과 동종범죄 모두 경합된 경우(6.9%) 순이었다. 즉, 비친족관계에서보다 친족관계의 경우에 경합범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종범죄와의 경합보다는 동종범죄와의 경합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2〉 피해자와 범죄자관계별 경합범 처리여부

(단위: 건(%))

경합여부	피해자와 범죄자의 관계		계
	친족	비친족	
경합범죄 없음	73(43.2)	506(65.6)	579(61.6)
이종범죄 경합	17(10.1)	123(16.0)	140(14.9)
동종범죄 경합	65(38.5)	89(11.5)	154(16.4)
이종·동종범죄 경합	14(8.3)	53(6.9)	67(7.1)
계	169(100.0)	771(100.0)	940(100.0)

나. 선고형의 종류와 형량

1) 1심 선고형의 종류와 형량

먼저 피해자와 범죄자관계별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자들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형의 종류를 징역형, 집행유예, 집행유예 + 부가처분, 치료감호, 벌금형 등 크게 5가지 유형으로 살펴보았다(<표 4-43> 참조).

〈표 4-43〉 피해자와 범죄자관계별 1심 선고형의 종류

(단위: 명(%))

1심 선고형의 종류	피해자와 범죄자의 관계		계
	친족	비친족	
징역형	133(78.7)	414(53.7)	547(58.2)
사형	1(0.6)	0(0.0)	1(0.1)
무기징역	0(0.0)	0(0.2)	2(0.2)
유기징역	132(78.1)	412(53.4)	544(57.9)
집행유예	6(3.6)	65(8.4)	71(7.6)
집행유예+부가처분	27(16.0)	246(31.9)	273(29.0)
집행유예+사회봉사	0(0.0)	31(4.0)	31(3.3)
집행유예+보호관찰	6(3.6)	22(2.9)	28(3.0)
집행유예+보호관찰+사회봉사	2(1.2)	19(2.5)	21(2.2)
집행유예+보호관찰+수강명령	6(3.6)	41(5.3)	47(5.0)
집행유예+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	2(1.2)	35(4.5)	37(3.9)
집행유예+수강명령+사회봉사	4(2.4)	34(4.4)	38(4.0)
집행유예+수강명령	7(4.1)	64(8.3)	71(7.6)
치료감호	2(1.2)	13(1.7)	15(1.6)
벌금	1(0.6)	29(3.8)	30(3.2)
기타	0(0.0)	4(0.5)	4(0.4)
계	169(100.0)	771(100.0)	940(100.0)

친족관계에서는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의 비율이 78.7%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이 집행유예+부가처분 16.0%, 집행유예 3.6%, 치료감호 1.2%, 벌금형 0.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비친족관계에서는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의 비율이 53.7%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이 집행유예+부가처분 31.9%, 집행유예 8.4%, 벌금형 3.8%, 치료감호 1.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비친족관계에서보다 친족관계에서 징역형의 선고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자 명 중 사형과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자를 제외하고 구체적인 선고형량을 살펴보았다(<표 4-44> 참조). 친족관계에서는 유기징역형을 선고받은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자 중 5년 이상~10년 미만의 형을 선고받은 비율이 46.2%로 가장 높았으며, 3년 이상~5년 미만의 형이 29.5%, 1년 이상~3년 미만과 10년 이상이 각각 13.6%, 10.6%를 차지하였고, 1년 미만의 형을 받은 범죄자는 한명도 없었다.

비친족관계에서는 유기징역형을 선고받은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자 중 1년 이상~3년 미만의 형을 선고받은 비율이 41.7%로 가장 높았으며, 3년 이상~5년 미만의 형이 31.1%, 5년 이상~10년 미만이 15.3%, 10년 이상 7.3%를 차지하였고, 1년 미만의 형을 받은 범죄자는 4.6%에 불과하였다. 친족관계에서는 5년 이상 유기징역 비율이 56.8%나 되어 비친족관계의 22.6%에 비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집행유예 역시 친족관계의 경우에 비친족관계에 비해 형량이 더 높았다.

〈표 4-44〉 피해자와 범죄자관계별 1심 유기징역의 형량

(단위: 명(%))

1심 유기징역의 형량	피해자와 범죄자의 관계		계
	친족	비친족	
1년 미만	0(0.0)	19(4.6)	19(3.5)
1년~3년 미만	18(13.6)	179(41.7)	190(34.9)
3년~5년 미만	39(29.5)	128(31.1)	167(30.7)
5년~10년 미만	61(46.2)	63(15.3)	124(22.8)
10년 이상	14(10.6)	30(7.3)	44(8.1)
계	132(100.0)	412(100.0)	544(100.0)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자 구체적인 선고형량을 살펴보았다(<표 4-45> 참조). 친족관계에서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자 중 3년 이상~5년 미만의 형을 선고받은 비율이 83.3%로 가장 높았으며, 1년 이상~3년 미만이 16.7%, 5년 이상~10년 미만은 없었다.

비친족관계에서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자 중 1년 이상~3년 미만을 선고받은 비율이 55.4%로 가장 높았으며, 3년 이상~5년 미만의 형이 43.1%, 5년 이상~10년 미만이 1.5%를 차지하였다.

<표 4-45> 피해자와 범죄자관계별 1심 집행유예의 형량

(단위: 명(%))

1심 집행유예의 형량	피해자와 범죄자의 관계		계
	친족	비친족	
1년~3년 미만	1(16.7)	36(55.4)	37(52.1)
3년~5년 미만	5(83.3)	28(43.1)	33(46.5)
5년~10년 미만	0(0.0)	1(1.5)	1(1.4)
계	6(100.0)	65(100.0)	71(100.0)

피해자와 범죄자관계별로 유기징역 및 집행유예의 평균형량을 분석한 결과는 <표 4-46>에 제시하였다. 먼저 유기징역의 평균형량을 살펴보면, 친족관계인 경우에는 평균형량이 65.5개월이었으며, 형량이 가장 낮은 경우는 12개월, 가장 높은 경우는 192개월(16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친족관계인 경우에는 평균형량이 46.1개월이었으며, 형량이 가장 낮은 경우는 6개월, 가장 높은 경우는 300개월(25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친족관계에 비해 친족관계인 경우 유기징역의 형량이 더 높았다.

집행유예를 받은 범죄자들의 평균기간을 살펴 본 결과, 친족관계인 경우에는 평균기간은 36.0개월이었으며, 기간이 가장 짧은 경우는 24개월, 가장 높은 경우는 48개월(4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친족관계인 경우에는 평균기간이 31.2개월이었으며, 기간이 가장 짧은 경우는 12개월, 가장 긴 경우는 60개월(5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친족관계인 경우에 비해 친족관계인 경우 집행유예 형량이 더 높았다.

〈표 4-46〉 피해자와 범죄자관계별 1심 유기징역 및 집행유예 형량

(단위: 명(%))

구분		평균	사례수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유기징역 평균형량 (월)	친 족	65.5 월	132	32.669	12	192
	비 친 족	46.1 월	412	40.477	6	300
	계	50.8 월	544	39.560	12	300
집행유예 평균형량 (월)	친 족	36.0 월	6	7.589	24	48
	비 친 족	31.2 월	65	9.461	12	60
	계	31.4 월	71	9.376	12	60

징역형, 집행유예, 벌금형 등과 같은 선고형의 종류이외에 2009년부터 새롭게 도입된 전자발찌부착명령 부과현황을 피해자와 범죄자의 관계별로 살펴본 결과(<표 4-47> 참조), 친족관계인 경우에는 169명 중 41명(24.3%)이 부착명령을 부과받았으며, 비친족관계인 경우에는 771명 중 123명(16%)이 부착명령을 부과받았다.

〈표 4-47〉 피해자와 범죄자관계별 1심 전자발찌 부착명령 여부

(단위: 명(%))

전자발찌 부착명령 여부	피해자와 범죄자의 관계		계
	친족	비친족	
그렇다	41(24.3)	123(16.0)	164(17.4)
아니다	128(75.7)	648(84.0)	776(82.6)
계	169(100.0)	771(100.0)	940(100.0)

전자발찌 부착명령이 집행유예와 함께 선고되었는지 아니면, 형집행 후 부착으로 선고되었는지를 살펴본 결과를 <표 4-48>에 제시하였다.

친족관계인 경우에는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범죄자 모두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고, 비친족관계인 경우에는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범죄자 중 82.9%가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집행유예에 수감명령 등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가 8.9%, 치료감호 6.5%였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는 한명 있었다.

〈표 4-48〉 피해자와 범죄자관계별 전자발찌 부착명령여부별 1심 선고형의 종류

(단위: 명(%))

1심 선고형 종류	피해자와 범죄자의 관계		계
	친족	비친족	
징역형	41(100.0)	102(82.9)	143(87.2)
집행유예	-	1(0.8)	1(0.6)
집행유예 + 부과처분	-	11(8.9)	11(6.7)
치료감호	-	8(6.5)	8(4.9)
기 타	-	1(0.8)	1(0.6)
계	41(100.0)	123(100.0)	164(100.0)

마지막으로 전자발찌 평균부착기간을 살펴보면(<표 4-49> 참조), 친족관계인 경우에는 5.73년이었고, 부착기간이 가장 짧은 경우가 2년, 가장 긴 경우가 10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친족관계인 경우에는 평균기간이 5.42년이었고, 부착기간이 가장 짧은 경우가 1년, 가장 긴 경우가 20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9〉 피해자와 범죄자관계별 평균 전자발찌 부착기간

구분	평균	사례수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친족	5.73 년	41	2.203	2	10
비친족	5.42 년	124	3.118	1	20
계	5.50 년	160	2.913	1	20

2) 항소 및 상고여부와 최종심의 선고형

피해자와 범죄자관계별로 1심에 대한 선고결과에 대한 항소 및 상고여부를 살펴본다(<표 4-50> 참조). 친족관계에서는 20.7%는 항소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항소한 경우가 33.7%, 검사가 항소한 경우가 12.4%, 쌍방이 항소한 경우가 33.1%였다. 비친족관계에서는 32.7%는 항소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항소한 경우가 27.6%, 검사가 항소한 경우가 17.4%, 쌍방이 항소한 경우가 22.3%였다.

항소결과를 살펴보면, 친족관계에서는 58.2%가 기각되었으며, 나머지 41.8%만이 2심으로 넘어갔다. 비친족관계에서는 61.3%는 기각되었고, 나머지 38.7%만이 2심으로 넘어갔다. 친족관계별 기각율의 차이는 별로 없었다.

〈표 4-50〉 피해자와 범죄자관계별 항소여부 및 그 결과

(단위: 명(%))

구분		피해자와 범죄자의 관계		계
		친족	비친족	
항소 여부	항소하지 않음	35(20.7)	252(32.7)	287(30.5)
	피고인이 항소	57(33.7)	213(27.6)	270(28.7)
	검사가 항소	21(12.4)	134(17.4)	155(16.5)
	쌍방이 항소	56(33.1)	172(22.3)	228(24.3)
	계	169(100.0)	771(100.0)	940(100.0)
항소 결과	항소 기각	78(58.2)	318(61.3)	396(60.6)
	2심 진행	56(41.8)	201(38.7)	257(39.4)
	계	134(100.0)	519(100.0)	653(100.0)

2심에서 3심으로 상고한 경우를 살펴보면(<표 4-51> 참조), 친족관계에서는 63.5%가 상고하지 않았고, 나머지 36.5%만이 상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고주체를 살펴보면, 피고인이 상고한 경우가 32.7%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검사가 상고하거나 쌍방이 상고한 경우는 각각 1.9%(1건)에 불과하였다. 비친족관계에서는 80.1%가 상고하지 않았고, 나머지 19.9%만이 상고를 하였다. 상고주체는 피고인이 17.9%, 쌍방이 2.0%였고, 검사가 상고한 경우는 없었다. 비친족관계에 비해 친족관계의 경우에 상고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1〉 피해자와 범죄자의관계별 상고여부

(단위: 명(%))

상고여부	피해자와 범죄자의 관계		계
	친족	비친족	
상고하지 않음	33(63.5)	157(80.1)	190(76.6)
피고인이 상고	17(32.7)	35(17.9)	52(21.0)
검사가 상고	1(1.9)	0(0.0)	1(0.4)
쌍방이 상고	1(1.9)	4(2.0)	5(2.0)
계	52(100.0)	196(100.0)	248(100.0)

이러한 과정을 거쳐 진행된 사건의 최종심 선고형의 종류를 살펴본 결과(<표 4-52> 참조), 친족관계에서는 최종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의 비율이 76.3%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집행유예에 사회봉사 등이 부과된 경우가 18.3%, 집행유예 3.6%였다. 비친족관계에서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비율이 45.4%로 가장 높았고, 집행유예에 사회봉사 등이 부과된 경우(37.4%), 집행유예(11.4%), 벌금형(4.0%)의 순이었으며,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비율은 1.8%에 불과하였다.

〈표 4-52〉 피해자와 범죄자관계별 최종심 선고형의 종류

(단위: 명(%))

최종심 선고형의 종류	피해자와 범죄자의 관계		계
	친족	비친족	
징역형	129(76.3)	350(45.4)	479(51.0)
사형	1(1.9)	0(0.0)	1(0.1)
무기	0(0.0)	2(0.3)	2(0.2)
유기	128(90.7)	348(49.5)	476(58.0)
집행유예	6(3.6)	88(11.4)	94(10.0)
집행유예+부가처분	31(18.3)	288(37.4)	319(33.9)
집행유예+사회봉사	1(0.6)	33(4.3)	34(3.6)
집행유예+보호관찰	6(3.6)	33(4.3)	39(4.1)
집행유예+보호관찰+사회봉사	3(1.8)	24(3.1)	27(2.9)
집행유예+보호관찰+수강명령	8(4.7)	50(6.5)	58(6.2)
집행유예+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	3(1.8)	38(4.9)	41(4.4)
집행유예+수강명령+사회봉사	3(1.8)	38(4.9)	41(4.4)
집행유예+수강명령	7(4.1)	72(9.3)	79(8.4)
치료감호	2(1.2)	14(1.8)	16(1.7)
벌금	1(0.6)	31(4.0)	32(3.4)
계	169(100.0)	771(100.0)	940(100.0)

피해자와 범죄자관계별로 최종심에서 유기징역형을 받은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 범죄자의 평균형량을 살펴보면(<표 4-53> 참조), 범죄유형별로 살펴보면, 강간범죄의 경우 최종심의 유기징역 평균형량은 75.07개월로 1심의 78.7개월에 비해 낮아졌다. 이에 비해 비친족관계에서는 1심의 58.96개월에 비해 최종심이 62.25개월로 다소 높아졌

다. 강제추행의 경우, 친족관계는 1심의 38.21개월에서 최종심 39.58개월로 다소 높아졌으며, 비친족관계는 1심의 31.13개월에서 최종심 30.44개월로 다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3〉 피해자와 범죄자관계별 최종심 유기징역형 평균형량

범죄유형		1심			최종심		
		평균	사례수	표준편차	평균	사례수	표준편차
강간	친족	78.70 월	89	29.01	75.07 월	88	29.58
	비친족	58.96 월	221	47.90	62.25 월	181	49.34
	계	64.62 월	310	44.19	66.44 월	269	44.22
강제추행	친족	38.21 월	43	23.52	39.58 월	40	24.18
	비친족	31.13 월	191	27.49	30.44 월	167	26.35
	계	32.43 월	234	26.90	32.21 월	207	26.14

다.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다음은 마지막으로 신상정보등록자 중 공개대상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분석한 결과(<표 4-54> 참조), 2010년 신상정보등록대상자 중 공개명령대상이 된 범죄자는 친족관계인 경우에는 19.5%(33명), 비친족관계인 경우에는 31.1%(240명)로 친족관계인 경우에 비해 비친족관계인 경우에 공개명령대상이 된 비율이 보다 높았다.

〈표 4-54〉 피해자와 범죄자관계별 신상공개여부

(단위: 명(%))

신상공개여부	피해자와 범죄자의 관계		계
	친족	비친족	
등 록	69(40.8)	338(43.8)	407(43.3)
열람명령	67(39.6)	193(25.0)	260(27.7)
공개명령	33(19.5)	240(31.1)	273(29.0)
계	169(100.0)	771(100.0)	940(100.0)

제5장 미성년범죄자에 의한 성폭력범죄의 특성

1. 미성년범죄자의 특성

2010년 전체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자 중 미성년여부를 알 수 없는 사례를 제외한 955명 중 미성년범죄자는 113명으로 전체의 11.8%를 차지하여 2009년의 8.5%에 비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 사회인구학적 특성

1) 성별

미성년범죄자여부에 의한 성폭력범죄자들의 성별을 살펴보면(<표 5-1> 참조), 미성년범죄자인 경우와 성인범죄자인 경우 각각 여자 한명씩만을 제외하고는 모두 남자였다.

〈표 5-1〉 범죄자연령별 범죄자의 성

(단위: 명(%))

범죄자 성 별	범죄자 연령		계
	미성년	성인	
남 자	112(99.1)	841(99.9)	953(99.8)
여 자	1(0.9)	1(0.1)	2(0.2)
계	113(100.0)	842(100.0)	955(100.0)

2) 국적

미성년범죄자여부에 의한 성폭력범죄자들의 국적을 살펴보면(<표 5-2> 참조), 미성년범죄자인 경우 113명 중 외국인인 1명도 없었고, 성인범죄자인 경우에는 842명 중 외국인인 6명(0.7%)있었다.

〈표 5-2〉 범죄자연령별 범죄자의 국적

(단위: 명(%))

범죄자 국적	범죄자 연령		계
	미성년	성인	
내국인	113(100.0)	836(99.3)	949(99.4)
외국인	0(0.0)	6(0.7)	6(0.6)
계	113(100.0)	842(100.0)	955(100.0)

3) 직업

미성년범죄자여부에 의한 성폭력범죄자의 직업을 살펴보면(<표 5-3> 참조), 미성년 범죄자인 경우에는 학생의 비율이 54.9%로 가장 높았고, 무직 34.5%, 서비스직 8.0%, 단순노무직 1.8% 순이었다. 성인범죄자인 경우에는 무직자의 비율이 28.4%로 가장 높았고, 단순노무직 20.8%, 관리자 12.5%, 사무직과 서비스직이 각각 10.1%, 기능조작직 10.0%의 순이었다.

〈표 5-3〉 범죄자연령별 범죄자의 직업

(단위: 명(%))

범죄자 직업	범죄자 연령		계
	미성년	성인	
관리자	0(0.0)	105(12.5)	105(11.0)
사무직	0(0.0)	85(10.1)	85(8.9)
서비스직	9(8.0)	85(10.1)	94(9.8)
농축산업	0(0.0)	25(3.0)	25(2.6)
기능조작직	1(0.9)	84(10.0)	85(8.9)
단순노무직	2(1.8)	175(20.8)	177(18.5)
직업군인	0(0.0)	3(0.4)	3(0.3)
학생	62(54.9)	22(2.6)	84(8.8)
무직	39(34.5)	239(28.4)	278(29.1)
기타	0(0.0)	19(2.3)	19(2.0)
계	113(100.0)	842(100.0)	955(100.0)

범죄자 직업을 청소년보호직종여부(교사, 학원강사, 목회자, 통학버스기사 등)에 따라 분류하여 살펴본 결과(<표 5-4> 참조), 미성년범죄자인 경우에는 113명 중 한명도 청소년보호직종에 종사하지 않았고, 성인범죄자인 경우에는 842명 중 60명(7.1%)이 청소년보호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4〉 범죄자연령별 청소년 보호직종여부

(단위: 명(%))

청소년보호직종여부	범죄자 연령		계
	미성년	성인	
그 령 다	0(0.0)	60(7.1)	60(6.3)
아 니 다	113(100.0)	782(92.9)	895(93.7)
계	113(100.0)	842(100.0)	955(100.0)

4) 거주지역

미성년범죄자여부에 의한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역을 살펴보면(<표 5-5> 참조), 미성년범죄자인 경우에 성폭력범죄자 경기가 33.6%로 가장 많았고, 서울과 전북이 각각 8.0%, 울산 7.1%의 순이었고, 성인범죄자인 경우에는 경기 21.0%, 서울 14.5%, 부산 7.1%, 경남 6.4%, 전남 6.3%의 순이었다. 미성년범죄자의 경우 전북과 울산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다소 높았다.

〈표 5-5〉 범죄자연령별 범죄자 거주 지역

(단위: 명(%))

범죄자 거주지역	범죄자 연령		계
	미성년	성인	
서울특별시	9(8.0)	122(14.5)	131(13.7)
부산광역시	6(5.3)	60(7.1)	66(6.9)
대구광역시	5(4.4)	42(5.0)	47(4.9)
인천광역시	5(4.4)	48(5.7)	53(5.5)
광주광역시	3(2.7)	39(4.6)	42(4.4)
대전광역시	2(1.8)	28(3.3)	30(3.1)

<표 계속>

범죄자 거주지역	범죄자 연령		계
	미성년	성인	
울산광역시	8(7.1)	25(3.0)	33(3.5)
경 기 도	38(33.6)	177(21.0)	215(22.5)
강 원 도	6(5.3)	19(2.3)	25(2.6)
충청북도	6(5.3)	25(3.0)	31(3.2)
충청남도	1(0.9)	47(5.6)	48(5.0)
전라북도	9(8.0)	50(5.9)	59(6.2)
전라남도	5(4.4)	53(6.3)	58(6.1)
경상북도	5(4.4)	33(3.9)	38(4.0)
경상남도	5(4.4)	54(6.4)	59(6.2)
제주특별자치도	0(0.0)	20(2.4)	20(2.1)
계	113(100.0)	842(100.0)	955(100.0)

5) 지적장애여부

미성년범죄자여부에 의한 성폭력범죄자의 지적장애여부를 살펴보면(<표 5-6> 참조), 미성년범죄자인 경우에는 113명 중 6명(5.3%)이 지적장애자였고, 성인범죄자인 경우에는 842명 중 34명(4.0%)이 지적장애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5-6〉 범죄자연령별 범죄자 지적장애여부

(단위: 명(%))

범죄자 지적장애여부	범죄자 연령		계
	미성년	성인	
그 령 다	6(5.3)	34(4.0)	40(4.2)
아 니 다	107(94.7)	808(96.0)	915(95.8)
계	113(100.0)	842(100.0)	955(100.0)

6) 정신과 병력여부

미성년범죄자여부에 의한 성폭력범죄자의 정신과 감정 및 치료여부를 살펴보면(<표 5-7> 참조), 미성년범죄자인 경우에는 113명 중 8명(7.1%)이 정신감정치료를 받았고, 성인범죄자인 경우에는 842명 중 50명(5.9%)이 정신감정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7〉 범죄자연령별 범죄자 정신과 감정 및 치료여부

(단위: 명(%))

범죄자정신과 감정 및 치료여부	범죄자 연령		계
	미성년	성인	
있 음	8(7.1)	50(5.9)	58(6.1)
없 음	105(92.9)	792(94.1)	897(93.9)
계	113(100.0)	842(100.0)	955(100.0)

나. 범죄경력

1) 범행당시 형사처분 집행 중인지의 여부

미성년범죄자여부에 의한 성폭력범죄자의 범행당시 이전의 범죄로 인해 처분을 받고 있는 중이었던지의 여부를 살펴본 결과(<표 5-8> 참조), 미성년범죄자인 경우에는 95.6%는 이전 범죄로 처분받고 있지 않았고, 보호관찰/집행유예 중인 자가 5명(4.4%)

〈표 5-8〉 범죄자연령별 범행시 형사처분 집행 중이었던지의 여부

(단위: 명(%))

범행시 형사처분 집행 중이었던지의 여부	범죄자 연령		계
	미성년	성인	
해당사항 없음	108(95.6)	803(95.4)	911(95.4)
보호관찰/집행유예 중	5(4.4)	35(4.2)	40(4.2)
가 석 방 중	0(0.0)	1(0.1)	1(0.1)
보석/형집행정지 중	0(0.0)	1(0.1)	1(0.1)
기 타	0(0.0)	2(0.2)	2(0.2)
계	113(100.0)	842(100.0)	955(100.0)

였고, 나머지 가석방 중이거나 보석/형집행정지 중인 경우는 한명도 없었다. 성인범죄자인 경우에는 95.4%는 이전 범죄로 처분받고 있지 않았고, 보호관찰/집행유예 중인 자가 35명(4.2%), 가석방 중이거나 보석/형집행정지 중인 자가 각각 1명(0.1%)이었다.

2) 범죄경력유무 및 유형

미성년범죄자여부에 의한 성폭력범죄자의 범죄경력을 동종범죄경력과 이종범죄경력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표 5-9> 참조), 미성년범죄자인 경우에는 91.2%는 범죄경력이 없었고 동종범죄경력이 있는 경우와 이종범죄경력이 있는 경우가 각각 4.4%씩 있었다. 성인범죄자인 경우에는 70.9%는 범죄경력이 없었고 이종범죄경력이 있는 경우가 16.0%, 동종범죄경력이 있는 경우가 15.0%였다. 성인범죄자에 비해 미성년범죄자인 경우에는 범죄경력이 없는 경우가 다소 높았다.

〈표 5-9〉 범죄자연령별 범죄경력유무 및 유형

(단위: 명(%))

범죄경력 유무 및 유형	범죄자 연령		계
	미성년	성인	
범죄경력 없음	103(91.2)	597(70.9)	700(73.3)
동종 범죄경력	5(4.4)	110(13.1)	115(12.0)
이종 범죄경력	5(4.4)	119(14.1)	124(13.0)
동종+이종범죄경력	0(0.0)	16(1.9)	16(1.7)
계	113(100.0)	842(100.0)	955(100.0)

3) 동종범죄경력 횟수 및 내용

미성년범죄자여부에 의한 성폭력범죄자 중 동종범죄경력자를 대상으로 범죄경력횟수를 살펴본 결과(<표 5-10> 참조), 미성년범죄자는 1회의 동종범죄경력을 갖고 있는 범죄자가 60.0%, 2회 20.0%, 3회 이상 20.0%로 나타났고, 성인범죄자는 1회 70.0%, 2회 17.3%, 3회 이상 12.7%로 나타났다.

〈표 5-10〉 범죄자연령별 동종범죄경력 횟수

(단위: 명(%))

동종범죄경력 횟수	범죄자 연령		계
	미성년	성인	
1회	3(60.0)	77(70.0)	80(69.6)
2회	1(20.0)	19(17.3)	20(17.4)
3회 이상	1(20.0)	14(12.7)	15(13.0)
계	5(100.0)	110(100.0)	115(100.0)

4) 이중범죄경력 횟수 및 내용

미성년범죄자여부에 의한 성폭력범죄자 중 이중범죄경력자만을 대상으로 범죄경력 횟수를 살펴본 결과(<표 5-11> 참조), 미성년범죄자는 1회의 이중범죄경력을 갖고 있는 범죄자가 80.0%, 2회 20.0%, 3회 이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성인범죄자는 1회 68.1%, 2회 18.5%, 3회 이상 13.4%로 나타났다.

〈표 5-11〉 범죄자연령별 이중범죄경력 횟수

(단위: 명(%))

이중범죄경력 횟수	범죄자 연령		계
	미성년	성인	
1회	4(80.0)	81(68.1)	85(68.5)
2회	1(20.0)	22(18.5)	23(18.5)
3회 이상	0(0.0)	16(13.4)	16(12.9)
계	5(100.0)	119(100.0)	124(100.0)

5) 범행시 범죄자의 역할

미성년범죄자여부에 의한 성폭력범죄자 중 범행시 범죄자의 역할을 살펴본 결과(<표 5-12> 참조), 미성년범죄자인 경우에는 단독범이 48.7%, 공범 모두 주요하게 관여한 경우가 39.8%, 공범있을 때 주된 역할을 한 경우가 10.6%였으며, 성인범죄자인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단독범으로 94.8%였으며, 공범 모두 주요하게 관여한 경우가 2.9%, 공범있을 때 주된 역할을 한 경우가 1.3%였다.

〈표 5-12〉 범죄자연령별 범죄자의 역할

(단위: 명(%))

범죄자 역할	범죄자 연령		계
	미성년	성인	
단독범	55(48.7)	797(94.8)	852(89.3)
공범시 주된 역할	12(10.6)	11(1.3)	23(2.4)
공범 모두 주요 관여	45(39.8)	24(2.9)	69(7.2)
단순가담	1(0.9)	8(1.0)	9(0.9)
기타	0(0.0)	1(0.1)	1(0.1)
계	113(100.0)	841(100.0)	954(100.0)

2. 피해 아동·청소년의 특성

가. 사회인구학적 특성

먼저 미성년범죄자여부에 의한 피해 아동·청소년의 성별을 살펴본 결과(<표 5-13> 참조), 미성년범죄자인 경우에는 131명중 남자는 3명(2.3%) 이었고, 성인범죄자인 경우에는 1,094명 중 남자가 50명(4.6%)이었다.

〈표 5-13〉 범죄자연령별 피해 아동·청소년의 성별

(단위: 명(%))

피해자 성별	범죄자 연령		계
	미성년	성인	
남 자	3(2.3)	50(4.6)	53(4.3)
여 자	128(97.7)	1,044(95.4)	1,172(95.7)
계	131(100.0)	1,094(100.0)	1,225(100.0)

피해 아동·청소년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표 5-14> 참조), 미성년범죄자인 경우에는 16세이상의 비율이 41.2%로 가장 높았고, 7~13세 30.5%, 14~15세 26.0%의 순이었고, 6세이하의 2.3%였다. 성인범죄자인 경우에는 7~13세의 비율이 46.2%로 가장 높았고, 16세이상 26.3%, 14~15세 20.9% 순이었고, 6세이하의 6.6%를 차지하였다.

〈표 5-14〉 범죄자연령별 피해 아동·청소년의 연령

(단위: 명(%))

피해자 연령	범죄자 연령		계
	미성년	성인	
6세이하	3(2.3) 세	72(6.6) 세	75(6.1)
7~13세	40(30.5) 세	505(46.2) 세	545(44.5)
14~15세	34(26.0) 세	228(20.9) 세	262(21.4)
16세이상	54(41.2) 세	288(26.3) 세	342(27.9)
계	131(100.0) 세	1,093(100.0) 세	1,224(100.0)

미성년범죄자여부에 의한 피해 아동·청소년의 평균연령을 비교해 보면(<표 5-15> 참조), 미성년범죄자인 경우 피해 아동·청소년의 평균연령은 14.1세이며, 최소 연령은 3세, 최대 연령은 18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범죄자인 경우 피해 아동·청소년의 평균연령은 12.7세이며, 최소 연령은 2세, 최대 연령은 19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범죄자에 비해 미성년범죄자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평균연령이 더 높았다.

〈표 5-15〉 범죄자연령별 피해 아동·청소년의 평균연령

피해자 성별	평균	사례수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미 성 년	14.1	131	2.919	3	18
성 년	12.7	1,093	3.622	2	19
계	12.8	1,224	3.581	2	19

미성년범죄자여부에 의한 피해 아동·청소년의 장애여부 및 유형을 살펴보면(<표 5-16> 참조), 미성년범죄자인 경우에는 131명중 정신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4명(3.1%), 신체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2명(1.5%) 있었고, 성인범죄자인 경우에는 1,094명중 정신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44명(4.0%), 신체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1명(0.1%) 있었다.

〈표 5-16〉 범죄자연령별 피해 아동·청소년의 장애여부

(단위: 명(%))

피해자 장애여부	범죄자 연령		계
	미성년	성인	
장애 없음	125(95.4)	1,049(95.9)	1,174(95.8)
신체 장애	2(1.5)	1(0.1)	3(0.2)
정신 장애	4(3.1)	44(4.0)	48(3.9)
계	131(100.0)	1,094(100.0)	1,225(100.0)

미성년범죄자여부에 의한 피해 당시 아동·청소년이 가출상태였는지를 살펴본 결과(<표 5-17> 참조), 미성년범죄자인 경우에는 피해 아동·청소년 131명중 9명(6.9%)이 가출상태였고, 성인범죄자인 경우에는 1,094명 중 63명(5.8%)이 가출상태에 있었다.

〈표 5-17〉 범죄자연령별 피해 아동·청소년의 피해당시 가출여부

(단위: 명(%))

피해자의 가출여부	범죄자 연령		계
	미성년	성인	
가 출	9(6.9)	63(5.8)	72(5.9)
가출하지 않은 상태	122(93.1)	1,031(94.2)	1,153(94.1)
계	131(100.0)	1,094(100.0)	1,225(100.0)

나. 범죄자와의 관계

미성년범죄자여부에 의한 피해 아동·청소년과 범죄자와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표 5-18> 참조), 미성년범죄자인 경우에는 낯선 사람의 비율이 35.2%로 가장 높았고, 즉석 만남을 통해 알게 된 사람(25.6%), 안면만 있는 사람(9.6%)의 순이었다. 성인범죄자인 경우에는 낯선 사람의 비율이 46.4%로 가장 높았고, 즉석 만남을 통해 알게 된 사람, 안면만 있는 사람, 친부가 각각 6.6%씩 이었다.

〈표 5-18〉 범죄자연령별 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

(단위: 명(%))

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	범죄자 연령		계
	미성년	성인	
전혀 모르는 사람			
낯선사람	44(35.2)	500(46.4)	544(45.2)
여성접객원, 다방종사자, 노래방 도우미 등인 피해자를 범죄자가 상업적인 목적으로 부른 경우	0(0.0)	1(0.1)	1(0.1)
즉석만남 등을 통해 알게 된 사람	32(25.6)	71(6.6)	103(8.6)
택시기사	0(0.0)	11(1.0)	11(0.9)
배달원, 수리원, 방문판매원 등	0(0.0)	2(0.2)	2(0.2)
숙박업소, 목욕탕, 음식점, 주점, 노래방, 비디오방 등의 주인 혹은 종업원	0(0.0)	6(0.6)	6(0.5)
아는 사람			
친구	4(3.2)	0(0.0)	4(0.3)
애인, 남자친구	3(2.4)	5(0.5)	8(0.7)
학교선후배	9(7.2)	0(0.0)	9(0.7)
선생님	0(0.0)	48(4.5)	48(4.0)
이웃, 잘 알고 지내는 사람	9(7.2)	60(5.6)	69(5.7)
같은 종교집단에 소속되어 있는 성직자	0(0.0)	4(0.4)	4(0.3)
직장상사, 고용주	1(0.8)	5(0.5)	6(0.5)
직장동료(아르바이트 동료)	0(0.0)	2(0.2)	2(0.2)
업무 관계인	0(0.0)	4(0.4)	4(0.3)
친구의 부모	0(0.0)	17(1.6)	17(1.4)
부모의 친구	0(0.0)	19(1.8)	19(1.6)
아파트 관리인 등	0(0.0)	8(0.7)	8(0.7)
안면만 있는 사람	12(9.6)	71(6.6)	83(6.9)
병원, 수용시설직원, 관리자, 사회복지사	0(0.0)	9(0.8)	9(0.7)
인터넷채팅 등을 통해 알게 된 사람	6(4.8)	25(2.3)	31(2.6)
아는 사람 기타	2(1.6)	19(1.8)	21(1.7)
가족 및 친척			
친부	0(0.0)	71(6.6)	71(5.9)
외부	0(0.0)	63(5.8)	63(5.2)
모의 동거인(내연남)	0(0.0)	24(2.2)	24(2.0)
형제자매	2(1.6)	2(0.2)	4(0.3)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사실혼 포함)	1(0.8)	27(2.5)	28(2.3)
5촌 이상의 혈족 및 친척(사실혼 포함)	0(0.0)	3(0.3)	3(0.2)
미상	0(0.0)	1(0.1)	1(0.1)
계	125(100.0)	1,078(100.0)	1,203(100.0)

3. 미성년범죄자에 의한 성폭력범죄의 범행특성

가. 범행의 다중성 및 지속성

미성년범죄자여부에 의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의 범행의 다중성을 살펴본 결과(<표 5-19> 참조), 미성년범죄자인 경우 피해자가 한명이 74.8%, 2명 13.0%, 3명 9.2%였고, 4명 이상은 3.1%였다. 성인범죄자인 경우에는 피해자가 한명이 64.2%, 2명 16.9%, 3명 6.3%, 그리고 4명 이상이 12.6%로 상당히 높았다.

〈표 5-19〉 범죄자연령별 피해 아동·청소년의 수

(단위: 명(%))

아동·청소년피해자수	범죄자 연령		계
	미성년	성인	
1명	98(74.8)	702(64.2)	800(65.3)
2명	17(13.0)	185(16.9)	202(16.5)
3명	12(9.2)	69(6.3)	81(6.6)
4명 이상	4(3.1)	138(12.6)	142(11.6)
계	131(100.0)	1,094(100.0)	1,225(100.0)

다음은 범죄자가 동일한 피해자에게 시간의 간격을 두고 1회 이상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는가의 여부(범죄의 지속성)와 그 지속기간을 살펴본 결과(<표 5-20> 참조), 미성년범죄자인 경우에는 1회에 그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으로 90.1%를 차지하였고, 1개월 이하가 4.6%, 1개월 이상 5개월 미만이 3.1%, 6개월 이상 1년 미만이 1.5%, 1년 이상은 0.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성인범죄자인 경우에는 1회에 그치는 경우가 70.8%, 1개월 이하가 9.6%, 1개월 이상 5개월 미만이 6.7%, 6개월 이상 1년 미만이 4.8%, 1년 이상은 8.1%로 나타났다. 성인범죄자에 비해 미성년범죄자는 1회에 그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5-20〉 범죄자연령별 범행의 지속성

(단위: 명(%))

동일피해 아동·청소년 범행횟수 및 기간	범죄자 연령		계
	미성년	성인	
1회에 그침	118(90.1)	775(70.8)	893(72.9)
1개월 이하	6(4.6)	105(9.6)	111(9.1)
1~5개월	4(3.1)	73(6.7)	77(6.3)
6개월~1년 미만	2(1.5)	52(4.8)	54(4.4)
1년 이상	1(0.8)	89(8.1)	90(7.3)
계	131(100.0)	1,094(100.0)	1,225(100.0)

나. 범행발생장소 및 시간

미성년범죄자여부에 의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가 발생한 지역을 살펴본 결과(〈표 5-21〉 참조), 미성년범죄자인 경우에는 경기도의 비율이 32.8%로 가장 높았고, 대구 9.2%, 서울 8.4%, 울산 7.6% 순이었다. 성인범죄자인 경우에는 경기도 21.7%, 서울 14.2%, 부산 7.6%, 충남 7.1%의 순이었다. 미성년범죄자의 경우 대구와 울산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5-21〉 범죄자연령별 범행지역

(단위: 건(%))

범행지역	범죄자 연령		계
	미성년	성인	
서울특별시	11(8.4)	155(14.2)	166(13.6)
부산광역시	8(6.1)	83(7.6)	91(7.4)
대구광역시	12(9.2)	44(4.0)	56(4.6)
인천광역시	6(4.6)	63(5.8)	69(5.6)
광주광역시	5(3.8)	49(4.5)	54(4.4)
대전광역시	4(3.1)	36(3.3)	40(3.3)
울산광역시	10(7.6)	34(3.1)	44(3.6)
경 기 도	43(32.8)	237(21.7)	280(22.9)
강 원 도	7(5.3)	28(2.6)	35(2.9)

<표 계속>

범행지역	범죄자 연령		계
	미성년	성인	
충청북도	5(3.8)	31(2.8)	36(2.9)
충청남도	3(2.3)	78(7.1)	81(6.6)
전라북도	9(6.9)	55(5.0)	64(5.2)
전라남도	4(3.1)	66(6.0)	70(5.7)
경상북도	1(0.8)	47(4.3)	48(3.9)
경상남도	3(2.3)	67(6.1)	70(5.7)
제주특별자치도	0(0.0)	19(1.7)	19(1.6)
계	131(100.0)	1,092(100.0)	1,223(100.0)

미성년범죄자여부에 의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가 발생한 장소를 크게 옥내와 옥외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표 5-22> 참조), 미성년범죄자인 경우 옥외에서 발생한 경우는 26.0%였고 나머지는 옥내에서 발생한 반면, 성인범죄자인 경우에는 옥외에서의 비율이 33.9%로 미성년범죄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5-22〉 범죄자연령별 범행장소1(옥내·외 구분)

(단위: 건(%))

범행장소	범죄자 연령		계
	미성년	성인	
옥 내	97(74.0)	723(66.1)	820(66.9)
옥 외	34(26.0)	371(33.9)	405(33.1)
계	131(100.0)	1,094(100.0)	1,225(100.0)

구체적으로 범죄가 발생한 장소를 집, 범죄자가 근무하는 직장, 공공기관 및 상업지역, 학교, 학원 및 보육시설, 주택가 및 이면도로, 주차장, 야외·거리·산야·대중교통시설 등, 화장실, 자동차안, 기타 등으로 11개 범주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표 5-23> 참조), 미성년범죄자인 경우에는 공공기관 및 상업지역의 비율이 38.2%로 가장 높았고, 집(34.4%), 주택가(5.3%)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인범죄자인 경우에는 집의 비율이 43.7%로 가장 높았고, 공공기관 및 상업지역(16.6%), 야외, 거리, 산야 및 대중교통시설 등(11.9%)의 순이었다.

이를 세분하여 살펴본 결과, 미성년범죄자인 경우에는 호텔, 여관, 펜션 등 숙박업소나 목욕탕, 찜질방 등의 비율이 27.5%로 가장 높았고, 다른 사람의 집(16.0%), 범죄자의 집(10.7%), 피해자의 집(4.6%)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인범죄자인 경우에는 피해자와 범죄자의 공동주거지의 비율이 14.3%로 가장 높았고, 피해자의 집(13.9%), 범죄자의 집(12.9%), 호텔, 여관, 펜션 등 숙박업소나 목욕탕, 찜질방 등(11.1%)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5-23〉 범죄자연령별 범행발생장소

(단위: 명(%))

범행장소	범죄자 연령		계
	미성년	성인	
집	45(34.4)	475(43.7)	520(42.7)
피해자의 집	6(4.6)	151(13.9)	157(12.9)
범죄자의 집	14(10.7)	140(12.9)	154(12.6)
다른 사람의 집	21(16.0)	25(2.3)	46(3.8)
피해자와 범죄자의 공동주거지	4(3.1)	156(14.3)	160(13.1)
폐가	0(0.0)	3(0.3)	3(0.2)
주택가 및 이면도로	7(5.3)	74(6.8)	81(6.6)
아파트단지 주변	2(1.5)	23(2.1)	25(2.1)
다세대연립주택가 주변	0(0.0)	9(0.8)	9(0.7)
단독주택마을 주변	0(0.0)	5(0.5)	5(0.4)
공동주택 내부 계단, 승강기 등	5(3.8)	37(3.4)	42(3.4)
학교	4(3.1)	42(3.9)	46(3.8)
교실	0(0.0)	1(0.1)	1(0.1)
복도, 계단, 옥상	0(0.0)	1(0.1)	1(0.1)
도서관, 체육관, 강당, 매점 등 학교 내부 시설	0(0.0)	4(0.4)	4(0.3)
운동장	2(1.5)	21(1.9)	23(1.9)
학교 뒷산 학교 담장 주변	1(0.8)	5(0.5)	6(0.5)
기숙사	0(0.0)	1(0.1)	1(0.1)
학교 기타	1(0.8)	9(0.8)	10(0.8)
범죄자가 근무하는 직장	0(0.0)	32(2.9)	32(2.6)
사무실 또는 영업장소	0(0.0)	26(2.4)	26(2.1)
화장실, 창고, 옥상, 복도 등	0(0.0)	3(0.3)	3(0.2)
범죄자가 근무하는 장소 기타	0(0.0)	3(0.3)	3(0.2)
주차장	3(2.3)	8(0.7)	11(0.9)
상업시설 주차장	1(0.8)	4(0.4)	5(0.4)
공공기관 주차장	0(0.0)	1(0.1)	1(0.1)
아파트, 연립주택단지 내 주차장	1(0.8)	2(0.2)	3(0.2)

<표 계속>

범행장소	범죄자 연령		계
	미성년	성인	
도로변유료주차장이나 주차전용건물	1(0.8)	0(0.0)	1(0.1)
주차장 기타	0(0.0)	1(0.1)	1(0.1)
공공기관 및 상업지역	50(38.2)	181(16.6)	231(18.9)
동사무소, 세무서 등 관공서	0(0.0)	2(0.2)	2(0.2)
의료기관	0(0.0)	3(0.3)	3(0.2)
종교기관	2(1.5)	4(0.4)	6(0.5)
기업회사 사무실	2(1.5)	1(0.1)	3(0.2)
백화점, 시장, 가게 등 상업건물	2(1.5)	11(1.0)	13(1.1)
식당, 술집, 나이트클럽, 게임장 등 유흥업소	4(3.1)	19(1.7)	23(1.9)
호텔, 여관, 펜션 등 숙박업소, 목욕탕	36(27.5)	121(11.1)	157(12.9)
공장이나 창고 공사장	1(0.8)	3(0.3)	4(0.3)
공공기관 및 상업시설 기타	3(2.3)	17(1.6)	20(1.6)
야외, 거리, 산야, 대중교통시설 등	6(4.6)	129(11.9)	135(11.1)
유원지, 공원 산야 공터 체육시설 운동장	5(3.8)	34(3.1)	39(3.2)
도로상에서	1(0.8)	78(7.2)	79(6.5)
버스,기차,지하철,택시,항공기,선박 등 교통시설 내부	0(0.0)	11(1.0)	11(0.9)
대중교통정거장 역 또는 대합실	0(0.0)	6(0.6)	6(0.5)
(공중)화장실	4(3.1)	26(2.4)	30(2.5)
유원지, 공원체육시설의 화장실	2(1.5)	8(0.7)	10(0.8)
대중교통 정거장역 또는 화장실	0(0.0)	3(0.3)	3(0.2)
공중화장실기타	2(1.5)	15(1.4)	17(1.4)
자동차 안	0(0.0)	64(5.9)	64(5.3)
범죄자의 차	0(0.0)	54(5.0)	54(4.4)
제3자의 차	0(0.0)	4(0.4)	4(0.3)
학원차	0(0.0)	4(0.4)	4(0.3)
자동차안 기타	0(0.0)	2(0.2)	2(0.2)
학원 및 보육시설	1(0.8)	24(2.2)	25(2.1)
어린이집, 보육원, 유치원 등	0(0.0)	2(0.2)	2(0.2)
학원교실	0(0.0)	15(1.4)	15(1.2)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옥상	0(0.0)	3(0.3)	3(0.2)
화장실	1(0.8)	2(0.2)	3(0.2)
학원 및 보육시설 기타	0(0.0)	2(0.2)	2(0.2)
기타	11(8.4)	33(3.0)	44(3.6)
계	131(100.0)	1,088(100.0)	1,219(100.0)

한편, 범죄자의 피해자 선택경향을 살펴보기 위해서 범행이 발생한 지역과 범죄자가 거주한 지역이 동일지역(동단위까지 일치한 경우)이었는지의 여부를 분석한 결과(<표 5-24> 참조), 미성년범죄자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42.7%가 범행발생지역과 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이 동일한 지역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인범죄자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47.8%가 범행발생지역과 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이 동일한 지역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범죄자와 성인범죄자간에 별 차이가 없었다.

〈표 5-24〉 범죄자연령별 범행지역과 범죄자거주지역의 동일 여부

(단위: 건(%))

범행지역과 범죄자거주지역의 동일 여부	범죄자 연령		계
	미성년	성인	
그 령 다	56(42.7)	523(47.8)	579(47.3)
아 니 다	75(57.3)	571(52.2)	646(52.7)
계	131(100.0)	1,094(100.0)	1,225(100.0)

다음은 미성년범죄자여부에 의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의 발생시간을 범행 발생 계절과 범행발생 시간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먼저 미성년범죄자여부에 의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의 범행발생 계절을 살펴본 결과(<표 5-25> 참조), 미성년범죄자인 경우 여름의 비율이 38.0%로 가장 높았으며, 봄(28.7%), 가을(23.3%), 겨울(10.1%)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인범죄자인 경우에도 여름의 비율이 35.0%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미성년범죄자와 달리 가을(24.8%), 봄(24.5%), 겨울(15.7%)의 순이었다.

〈표 5-25〉 범죄자연령별 범행발생계절

(단위: 건(%))

범행계절	범죄자 연령		계
	미성년	성인	
봄	37(28.7)	261(24.5)	298(24.9)
여름	49(38.0)	373(35.0)	422(35.3)
가을	30(23.3)	265(24.8)	295(24.7)
겨울	13(10.1)	168(15.7)	181(15.1)
계	129(100.0)	1,067(100.0)	1,196(100.0)

* 범행발생계절을 알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 분석결과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여러 번에 걸쳐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범행시간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 미성년범죄자여부에 의한 성폭력범죄의 발생시간을 살펴본 결과(<표 5-26> 참조), 미성년범죄자인 경우에는 3시~5시의 비율이 18.5%로 가장 높았고, 0시~2시(17.6%), 6시~8시와 18시~20시(각각 15.1%), 9시~11시(12.6%)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미성년범죄자는 18~20시를 제외하면 0시에서 아침 11시까지 범죄를 많이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범죄자인 경우에는 18~20시의 비율이 20.7%로 가장 높았고, 3시~5시(17.0%), 15시~17시(12.8%), 6시~8시와 0시~2시(각각 12.5%)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5-26〉 범죄자연령별 범행발생시간

(단위: 건(%))

범행시간	범죄자 연령		계
	미성년	성인	
0~2시	21(17.6)	99(12.5)	120(13.1)
3~5시	22(18.5)	135(17.0)	157(17.2)
6~8시	18(15.1)	99(12.5)	117(12.8)
9~11시	15(12.6)	64(8.1)	79(8.7)
12~14시	8(6.7)	38(4.8)	46(5.0)
15~17시	8(6.7)	102(12.8)	110(12.0)
18~20시	18(15.1)	164(20.7)	182(19.9)
21~23시	9(7.6)	93(11.7)	102(11.2)
계	119(100.0)	794(100.0)	913(100.0)

* 반복발생과 범행시간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는 제외한 분석결과임

다. 범행당시 범죄자 및 피해자의 상태

미성년범죄자여부에 의한 범행당시 범죄자의 상태를 음주여부로 살펴본 결과(<표 5-27> 참조), 미성년범죄자인 경우에는 비음주상태에서 발생한 비율이 61.1%였고, 약간의 음주상태는 38.2%였으며, 만취상태는 0.8%에 불과하였다. 성인범죄자인 경우에는 비음주상태의 비율이 78.3%였으며, 약간의 음주상태인 경우가 17.8%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만취상태는 3.8%에 불과하였다. 즉, 미성년범죄자인 경우가 성인범죄자인 경우보다 음주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비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27〉 범죄자연령별 범행당시 범죄자의 음주상태

(단위: 명(%))

범죄자의 음주상태	범죄자 연령		계
	미성년	성인	
비음주 상태	80(61.1)	857(78.3)	937(76.5)
약간의 음주 상태	50(38.2)	195(17.8)	245(20.0)
만취 상태	1(0.8)	42(3.8)	43(3.5)
계	131(100.0)	1,094(100.0)	1,225(100.0)

미성년범죄자여부에 의한 범행당시 범죄자의 상태를 약물복용여부로 살펴본 결과(<표 5-28> 참조), 미성년범죄자인 경우에는 131명 중 범행당시 약물복용 상태인 경우는 한명 있었고, 성인범죄자인 경우에는 1,094명 중 5명(0.5%)이 약물복용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표 5-28〉 범죄자연령별 범행당시 범죄자의 약물복용여부

(단위: 명(%))

범죄자 약물복용여부	범죄자 연령		계
	미성년	성인	
그 령 다	1(0.8)	5(0.5)	6(0.5)
아 니 다	130(99.2)	1,089(99.5)	1,219(99.5)
계	131(100.0)	1,094(100.0)	1,225(100.0)

한편, 미성년범죄자여부에 의한 범행당시 피해자의 음주상태여부를 알아본 결과(<표 5-29> 참조), 미성년범죄자인 경우에는 피해자가 음주상태이지 않은 경우가 55.7%였으며, 약간의 음주상태였던 비율이 6.9%(9명), 만취상태는 37.4%(49명)로, 피해자의 44.3%가 피해당시 음주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범죄자인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피해자가 비음주상태였으며(93.7%), 약간의 음주상태 3.8%(42명), 만취상태 2.5%(27명)로 나타나 전체의 6.3%만이 음주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즉, 미성년범죄자의 경우에는 성인에 비해 피해자가 음주상태일 때 범행을 저지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29〉 범죄자연령별 피해당시 피해자 음주여부

(단위: 건(%))

피해자 음주여부	범죄자 연령		계
	미성년	성인	
비음주 상태	73(55.7)	1,025(93.7)	1,098(89.6)
약간의 음주 상태	9(6.9)	42(3.8)	51(4.2)
만취 상태	49(37.4)	27(2.5)	76(6.2)
계	131(100.0)	1,094(100.0)	1,225(100.0)

라. 범행방법

미성년범죄자여부에 의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 범죄의 공범이 있는 경우 가담 정도의 여부를 살펴본 결과(<표 5-30> 참조), 미성년범죄자인 경우에는 공범이 있는 경우가 49.6%로 절반정도는 공범과 같이 범행을 저질렀으며, 성인범죄자인 경우에는 95.9%가 공범없이 단독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공범이 있는 비율은 4.1%에 불과하였다.

공범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공범자의 수를 살펴보면, 미성년범죄자의 경우 공범자가 1명인 경우가 46.2%, 2명인 경우가 20.0%, 3명 이상인 경우가 33.8%로 나타났다. 성인범죄자의 경우에는 공범자가 1명인 경우 68.9%, 2명인 경우가 26.7%, 3명 이상인 경우가 4.4%를 차지하였다.

공범이 있는 경우에 범죄자의 가담정도를 살펴본 결과, 미성년범죄자의 경우 동등한 역할의 비율이 78.5%로 대다수를 차지하였고, 주도적인 역할이 15.4%, 보조적인 역할이 6.2%였다. 성인범죄자의 경우에는 동등한 역할의 비율이 60.0%로 대다수를 차지하였고, 주도적인 역할이 22.2%, 보조적인 역할이 17.8%였다.

〈표 5-30〉 범죄자연령별 공범여부, 공범자수, 가담정도

(단위: 건(%))

구분		범죄자 연령		계
		미성년	성인	
공범여부	공범 없음	66(50.4)	1,049(95.9)	1,115(91.0)
	공범 있음	65(49.6)	45(4.1)	110(9.0)
	계	131(100.0)	1,094(100.0)	1,225(100.0)

<표 계속>

구분		범죄자 연령		계
		미성년	성인	
공범자 수	1명	30(46.2)	31(68.9)	61(55.5)
	2명	13(20.0)	12(26.7)	25(22.7)
	3명 이상	22(33.8)	2(4.4)	24(21.8)
	계	65(100.0)	45(100.0)	110(100.0)
공범시 범죄자의 가담정도	보조적인 역할	4(6.2)	8(17.8)	12(10.9)
	동등한 역할	51(78.5)	27(60.0)	78(70.9)
	주도적인 역할	10(15.4)	10(22.2)	20(18.2)
	계	65(100.0)	45(100.0)	110(100.0)

미성년범죄자여부에 의한 범행을 위해 범죄자가 피해자의 집에 들어왔는지의 여부를 살펴본 결과(<표 5-31> 참조), 미성년범죄자인 경우에는 공동주거의 등의 이유로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3.8%) 이외에 피해자의 집에 들어 온 경우가 9.2%를 차지하였다. 성인범죄자인 경우에는 피해자의 집에 들어온 경우는 14.7%를 차지하였고, 69.8%는 들어오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표 5-31〉 범죄자연령별 범죄자의 주거침입여부

(단위: 건(%))

구분		범죄자 연령		계
		미성년	성인	
범죄자의 주거침입 여부	해당사항 없음	5(3.8)	169(15.4)	174(14.2)
	그 령 다	12(9.2)	161(14.7)	173(14.1)
	아 니 다	114(87.0)	764(69.8)	878(71.7)
	계	131(100.0)	1,094(100.0)	1,225(100.0)
주거침입 방법	직접 열어 줌	6(75.0)	62(43.4)	68(45.0)
	문단속하지 않은 문	2(25.0)	58(40.6)	60(39.7)
	잠긴 문 부수고	0(0.0)	5(3.5)	5(3.3)
	유리창 깨고	0(0.0)	2(1.4)	2(1.3)
	방법 모름	0(0.0)	16(11.2)	16(10.6)
	계	8(100.0)	143(100.0)	151(100.0)

범죄자가 주거침입을 한 경우 구체적인 침입방법을 살펴본 결과(<표 5-31> 참조), 미성년범죄자인 경우에는 공동주거 등의 이유로 직접 열어준 경우(75.0%)가 대부분이었고, 문단속하지 않은 문으로 들어 온 경우가 나머지 25.0%였다. 성인범죄자인 경우에는 직접 열어 준 경우가 43.4%로 가장 높았고, 문단속하지 않은 문으로 들어온 비율이 40.6%였고, 잠긴 문을 부수거나 유리창을 깨고 들어 온 경우가 4.9%였다.

다음은 미성년범죄자여부에 의한 범행당시 범죄자가 흉기를 사용했는지의 여부와 흉기를 사용한 경우 사용한 흉기의 종류를 살펴보았다(<표 5-32> 참조). 미성년범죄자는 흉기를 사용한 경우는 10.7%였고, 성인범죄자는 흉기를 사용한 경우가 9.4%로 나타나 범죄자의 미성년 여부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흉기를 사용한 경우에는 미성년범죄자나 성인범죄자 모두 칼, 가위, 송곳, 도끼, 낫 등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다. 성인범죄자의 경우 마취제나 독극물을 사용한 경우도 있었다(0.4%, 4명).

범죄자가 사용했던 무기나 위험한 물건이 미리 준비했던 것인가를 살펴본 결과, 미성년범죄자는 사전에 준비한 경우가 57.1%로 더 많았고, 현장의 것을 사용한 경우는 42.9%였으며, 성인범죄자 역시 사전에 준비한 경우가 54.5%로 더 많았고, 현장의 것을 사용한 경우는 45.5%였다.

〈표 5-32〉 범죄자연령별 범행당시 흉기사용여부 및 종류와 사전준비 여부

(단위: 건(%))

구분		범죄자 연령		계
		미성년	성인	
흉기사용여부 및 종류	사용하지 않음	117(89.3)	991(90.6)	1,108(90.4)
	총	0(0.0)	1(0.1)	1(0.1)
	칼·낫 등	12(9.2)	66(6.0)	78(6.4)
	유리·벽돌·몽둥이	0(0.0)	10(0.9)	10(0.8)
	마취제·독극물 등	0(0.0)	4(0.4)	4(0.3)
	기타	2(1.5)	22(2.0)	24(2.0)
	계	131(100.0)	1,094(100.0)	1,225(100.0)
흉기의 사전준비 여부	사전에 준비	8(57.1)	54(54.5)	62(54.9)
	현장의 것을 사용	6(42.9)	45(45.5)	51(45.1)
	계	14(100.0)	99(100.0)	113(100.0)

다음은 범죄자가 피해자를 범행 장소로 데려간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여 구체적인 방법을 살펴보았다(<표 5-33> 참조).

〈표 5-33〉 범죄자연령별 피해자를 범행 장소로 데려간 방법

(단위: 건(%))

피해자를 범행 장소로 데려간 방법	범죄자 연령		계
	미성년	성인	
금 품	1(1.3)	59(11.9)	60
질 문	6(7.7)	32(6.5)	38
놀 이	18(23.1)	31(6.3)	49
애정칭찬	3(3.8)	12(2.4)	15
사칭위장	18(23.1)	184(37.1)	202
정신장애이용	0(0.0)	10(2.0)	10
위 협	17(21.8)	68(13.7)	85
폭 력	3(3.8)	15(3.0)	18
완 력	11(14.0)	79(15.9)	90
기 타	1(1.3)	6(1.2)	7
계	78(100.0)	496(100.0)	574(100.0)

* 복수응답결과임

** 퍼센트 및 합계는 사례기준

먼저 미성년범죄자는 사칭 및 위장이나 놀이(각각 23.1%)로 유인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위협(21.8%), 완력(14.0%) 등의 순이었다. 성년범죄자는 사칭 및 위장이 37.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이 완력(15.9%), 위협(13.7%), 금품(11.9%) 등의 순이었다. 미성년범죄자는 성년범죄자에 비해 놀이로 유인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금품으로 유인한 경우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다음은 피해자의 수면상태, 만취상태, 지적장애상태 등 강제 및 강압이 필요 없는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한 경우를 제외하고, 범죄자연령별로 범죄자가 아동·청소년을 강간이나 강제추행하기 위해 사용한 강제 및 강압의 방식을 살펴보았다(<표 5-34> 참조). 미성년이나 성년범죄자 모두 완력을 사용한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 48.5%, 47.4%). 이외에 미성년범죄자는 말로 협박한 경우(21.5%)와 구타한 경우(11.5%)가 많았고, 성년범죄자는 말로 협박한 경우(15.4%)와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15.3%)가 많았다.

〈표 5-34〉 범죄자연령별 강제 및 강압방법

(단위: 건(%))

강제 및 강압방법	범죄자 연령		계
	미성년	성인	
말로 협박	28(21.5)	202(15.4)	230
흥기로 협박	12(9.2)	87(6.6)	99
구타	15(11.5)	100(7.6)	115
흥기로 폭행	1(0.8)	14(1.1)	15
인신 속박	0(0.0)	31(2.4)	31
완력 사용	63(48.5)	623(47.4)	686
약물 사용	0(0.0)	15(1.1)	15
감금	0(0.0)	15(1.1)	15
위계위력 사용	8(6.2)	201(15.3)	209
정신박약 및 정신질환	2(1.5)	19(1.4)	21
기타	1(0.8)	6(0.5)	7
계	130(100.0)	1,313(100.0)	1,443

* 복수응답결과임

** 퍼센트 및 합계는 사례 기준

다음은 강제추행범죄를 당한 피해자만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추행의 방식을 살펴보았다(<표 5-35> 참조). 앞서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사건에서 여러 가지 유형이 추행이 한 번에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복수응답처리를 하였다. 미성년범죄자의 경우에는 강제추행 유형 중 성기 이외의 성적 접촉(34.4%)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는 피해자의 성기접촉과 손가락의 항문 또는 질 삽입(각각 15.6%), 구강성교(12.5%)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년의 경우에는 성기 이외의 성적 접촉(45.2%), 피해자의 성기접촉(26.7%), 성적 키스(11.3%)의 순이었다. 미성년범죄자의 경우에는 강제추행 중 성기 이외의 성적 접촉, 피해자의 성기 접촉 및 손가락의 항문 또는 질

삽입의 세가지 유형이 차지하는 비율이 65.6%로 나타났고, 성인에 비해 손가락의 항문 또는 질 삽입이나 구강성교 등의 강제추행을 저지르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35〉 범죄자연령별 강제추행의 유형

(단위: 건(%))

강제추행의 유형	미성년			성인		
	수	백분율	케이스 백분율	수	백분율	케이스 백분율
성적 키스	3	9.4	14.3	120	11.3	17.8
성기 이외의 성적 접촉	11	34.4	52.4	482	45.2	71.3
피해자의 성기접촉	5	15.6	23.8	285	26.7	42.2
범죄자 성기를 만지도록 강요	1	3.1	4.8	65	6.1	9.6
구강 성교	4	12.5	19.0	31	2.9	4.6
항문 성교	0	0.0	0.0	8	0.8	1.2
이물질 삽입	1	3.1	4.8	3	0.3	0.4
손가락 항문 또는 질 삽입	5	15.6	23.8	52	4.9	7.7
기 타	2	6.3	9.5	20	1.9	3.0
계	32	100.0	152.4	1,066	100.0	157.7

* 복수응답결과임

** 퍼센트 및 합계는 사례 기준

다음은 강간범죄를 대상으로 하여 구체적인 강간유형과 기수여부를 살펴보았다(<표 5-36> 참조). 먼저 미성년범죄자를 살펴보면, 전체의 58.3%가 일반적인 강간사건이었고, 다수의 범죄자가 한명의 피해자에게 번갈아 가면서 성폭행을 가하는 윤간사건이 39.8%나 되었다. 성년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인 89.9%가 일반적인 강간사건이었고, 윤간사건이 7.0%, 강도강간이 2.8%였다. 미성년범죄자는 성년범죄자에 비해 윤간사건의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36〉 범죄자연령별 강간유형 및 기수여부

(단위: 건(%))

구 분		미성년		성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강간 유형	강 간	60	58.3	348	89.9
	강도강간	1	1.0	11	2.8
	윤 간	41	39.8	27	7.0
	윤간+강도	1	2.0	0	0.0
	강간방조	0	0.0	1	0.3
	합 계	103	100.0	387	100.0
기수 여부	미 수	24	23.5	94	25.7
	기 수	78	76.5	272	74.3
	합 계	102	100.0	366	100.0

다음은 범행당시 가학적 변태행위와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를 가했는지를 살펴보았다(<표 5-37>과 <표 5-38> 참조). 먼저 가학적·변태행위유형을 살펴보면, 미성년범죄자는 전체 유효사례 중 19.8%(26건)에서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년의 경우에는 전체 유효사례 중 11.8%(129건)에서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가 더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미성년이 성인에 비해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를 한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가학적 변태행위의 내용을 범죄유형별로 살펴보면, 미성년은 대부분이 구강성교를 강요한 경우(76.9%)로 나타났다. 성년 역시 구강성교 강요의 비율(66.7%)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항문성교(14.7%), 음부에 이물질 삽입과 결박과 기타의 수단으로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경우(각각 5.4%) 등의 순이었다. 미성년범죄자는 성인범죄자에 비해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의 비율은 높았으나 성인과 달리 대부분은 구강성교를 강요한 경우였다.

〈표 5-37〉 범죄자연령별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의 내용

(단위: 건(%))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의 내용	범죄자연령별		계
	미성년	성인	
음부에 이물질 삽입	2(7.7)	7(5.4)	9
구강성교 강요	20(76.9)	86(66.7)	106
담뱃불·몽둥이 등으로 신체침해	2(7.7)	0(0.0)	2
항문 강간	1(3.8)	19(14.7)	20
피해자를 못 움직이게 함	1(3.8)	7(5.4)	8
기 타	0(0.0)	10(7.8)	10
계	26(100.0)	129(100.0)	155

* 복수응답결과임

** 퍼센트 및 합계는 사례기준

다음은 극도의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에 대해서 살펴보면(<표 5-37> 참조), 미성년범죄자는 전체 유효사례 중 3%(4건), 성년의 경우에는 전체 유효사례 중 3.3%(36건)에서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가 발생하여 범죄자연령별에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미성년범죄자 전체와 성인범죄자 거의 대부분이 범행과정을 촬영한 경우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5-38〉 범죄자연령별 극도의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단위: 건(%))

성적 수치심 유발 여부	범죄자연령별		계
	미성년	성인	
모멸 행위	0(0.0)	1(2.8)	1
범행과정 촬영	4(100.0)	28(77.8)	32
기 타	0(0.0)	7(19.4)	7
계	4(100.0)	36(100.0)	40

* 복수응답결과임

** 퍼센트 및 합계는 사례기준

마지막으로 성폭력범죄로 인한 피해결과에 대해서 살펴보았다(<표 5-39> 참조). 미성년범죄자의 경우 대부분은 강간이나 추행 이외의 피해가 없었고(71.9%), 음부 이외의 상처나 감염 및 음부 이외의 외상이 각각 9.4%로 나타났고, 사망한 경우가 139건 중 7건(5.0%)이 있었고, 임신이 된 경우는 139건 중 1건이 있었다. 이에 비해 성년범죄자의 경우에도 대부분은 강간이나 추행 이외의 피해가 없었고(83.7%), 음부 이외의 외상이 8.3%, 음부 이외의 상처나 감염된 경우가 4.5%로 나타났다. 성년범죄자에 비해 미성년범죄자의 경우에 강간이나 추행이외에 피해가 있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표 5-39〉 범죄자연령별 성폭력범죄의 피해결과

(단위: 건(%))

피해의 정도	범죄자연령별		계
	미성년	성인	
강간이나 추행이외의 피해없음	100(71.9)	927(83.7)	1,027
음부외의 상처나 감염	13(9.4)	50(4.5)	63
음부이외의 외상	13(9.4)	92(8.3)	105
금전적 피해	5(3.6)	21(1.9)	26
임 신	1(0.7)	10(0.9)	11
사 망	7(5.0)	1(0.1)	8
기 타	0(0.0)	7(0.6)	7
계	139(100.0)	1,108(100.0)	1,247

* 복수응답결과임

** 퍼센트 및 합계는 사례 기준

4. 미성년범죄자에 대한 처분 결과

가. 처분죄명 및 경합범 처리

1) 처분죄명

먼저 미성년범죄자여부에 의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자들의 처분죄명을 살펴보았다(<표 5-40> 참조). 앞서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여러 개의 죄가 경합되어 있는 경우 가장 중한 죄를 처분죄명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처분죄명은 범행특성 및 피해자 특성을 명확히 드러내주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된다. 예를 들어, 13세미만 딸에게 강간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법정형이 더 높은 13세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범죄로 처분죄명이 결정되기 때문에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범죄가 46건이라고 해서 피해자와 범죄자의 관계 및 미성년범죄자인 범죄가 46건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먼저 강간범죄의 처분죄명을 살펴보면, 미성년범죄자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등의 비율이 23.3%로 가장 높았고, 강간상해치상(11.0%), 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8.0%)의 순이었다. 성인범죄자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등의 비율이 26.5%로 가장 높았고, 강간상해치상(18.3%), 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17.1%), 특수강간 등(16.2%)의 순이었다. 강제추행범죄의 처분죄명을 살펴보면, 강제추행 처분을 받은 미성년범죄자는 13명에 불과하였으며, 처분죄명은 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의 비율이 38.5%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특수강제추행(30.8%), 특수강도강제추행(15.4%) 순이었다. 성인범죄자는 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의 비율이 49.1%로 가장 높았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등(28.0%),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10.7%), 유사성교행위(5.0%) 순이었다.

〈표 5-40〉 범죄자연령별 처분죄명

(단위: 건(%))

범죄 유형	처분죄명	미성년	성인	계
강간	아동·청소년에 대한강간 등	23(23.0)	90(26.5)	113(25.8)
	특수강도강간 등	3(3.0)	16(4.7)	19(4.3)
	특수강간 등	51(51.0)	55(16.2)	106(24.2)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3(3.0)	43(12.7)	46(10.5)

<표 계속>

범죄 유형	처분죄명	미성년	성인	계
	13세미만 미성년자강간 등	8(8.0)	58(17.1)	66(14.8)
	강간상해치상	11(11.0)	62(18.3)	73(16.7)
	강간살인치사	0(0.0)	1(0.3)	(0.2)
	장애인에 대한 간음	0(0.0)	11(3.2)	11(2.5)
	강도강간	0(0.0)	2(0.6)	2(0.5)
	기타 준강간미수 등	1(1.0)	1(0.3)	2(0.5)
	계	100(100.0)	339(100.0)	439(100.0)
강제 추행	아동·청소년에 대한 청소년강제추행 등	1(7.7)	141(28.0)	142(27.6)
	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5(38.5)	247(49.1)	252(48.9)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0(0.0)	54(10.7)	54(10.5)
	특수강도강제추행 등	2(15.4)	10(2.0)	12(2.3)
	특수강제추행 등	4(30.8)	7(1.4)	11(2.1)
	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 등	0(0.0)	3(0.6)	3(0.6)
	강제추행상해치상	0(0.0)	13(2.6)	13(2.5)
	강제추행살인치사	0(0.0)	1(0.2)	1(0.2)
	업무상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0(0.0)	1(0.2)	1(0.2)
	유사성교행위	1(7.7)	25(5.0)	26(5.0)
	강간강제추행 기타	0(0.0)	1(0.2)	1(0.2)
	계	13(100.0)	503(100.0)	516(100.0)

위에서 살펴본 처분죄명이외에 미성년범죄자여부에 의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 범죄사건이 다른 범죄와 경합되었는가를 살펴본 결과(<표 5-41> 참조), 미성년범죄자의 경우에는 경합범죄가 없는 경우가 54.2%였고, 이중범죄 경합(26.3%), 동종범죄경합(11.9%), 이중과 동종범죄 모두 경합된 경우(7.6%)의 순이었다. 성인범죄자의 경우에는 경합범죄가 없는 경우가 60.3%였고, 동종범죄경합(16.9%), 이중범죄경합(15.4%), 이중과 동종범죄 모두 경합된 경우(7.3%) 순이었다. 즉, 미성년범죄자는 성인범죄자에 비해 경합범죄의 비율이 다소 높았고, 동종범죄와의 경합보다는 이중경합범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41〉 범죄자연령별 경합범 처리여부

(단위: 건(%))

경합여부	범죄자 연령		계
	미성년	성인	
경합범죄 없음	64(54.2)	535(60.3)	599(59.6)
이중범죄 경합	31(26.3)	137(15.4)	168(16.7)
동종범죄 경합	14(11.9)	150(16.9)	164(16.3)
이중·동종범죄 경합	9(7.6)	65(7.3)	74(7.4)
계	118(100.0)	887(100.0)	1,005(100.0)

나. 선고형의 종류와 형량

1) 1심 선고형의 종류와 형량

미성년범죄자여부에 의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자들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형의 종류를 징역형, 집행유예, 집행유예 + 부가처분, 치료감호, 벌금형 등 크게 5가지 유형으로 살펴본 결과(<표 5-42> 참조), 미성년범죄자의 경우에는 1심에서 징역형과 집행유예에 사회봉사 등의 부가처분을 선고받은 범죄자의 비율이 각각 46.9%씩으로 가장 높았으며, 집행유예는 5.3%에 그쳤다. 성인범죄자의 경우에는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의 비율이 58.9%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이 집행유예에 사회봉사 등의 부가처분 선고가 27.1%, 집행유예 8.1%, 벌금형 3.7%, 치료감호 1.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미성년범죄자보다 성인범죄자의 징역형 선고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42〉 범죄자연령별 1심 선고형의 종류

(단위: 명(%))

1심 선고형의 종류	범죄자 연령		계
	미성년	성인	
징역형	53(46.9)	496(58.9)	549(57.5)
사형	0(0.0)	1(0.1)	1(0.1)
무기징역	0(0.0)	2(0.1)	2(0.2)
유기징역	53(46.9)	493(58.6)	546(57.2)

<표 계속>

1심 선고형의 종류	범죄자 연령		계
	미성년	성인	
집행유예	6(5.3)	68(8.1)	74(7.7)
집행유예+부가처분	53(46.9)	228(27.1)	281(29.4)
집행유예+사회봉사	4(3.5)	28(3.3)	32(3.4)
집행유예+보호관찰	6(5.3)	24(2.9)	30(3.0)
집행유예+보호관찰+사회봉사	6(5.3)	16(1.9)	22(2.3)
집행유예+보호관찰+수강명령	12(10.6)	36(4.3)	48(5.0)
집행유예+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	16(14.2)	22(2.6)	38(4.0)
집행유예+수강명령+사회봉사	2(1.8)	36(4.3)	38(4.0)
집행유예+수강명령	7(6.2)	66(7.8)	73(7.6)
치료감호	0(0.0)	15(1.8)	15(1.6)
벌금	1(0.9)	31(3.7)	32(3.4)
기타	0(0.0)	4(0.5)	4(0.4)
계	113(100.0)	842(100.0)	955(100.0)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자 명 중 사형과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자를 제외하고 구체적인 선고형량을 살펴보았다(<표 5-43> 참조). 미성년범죄자의 경우에는 유기징역형을 선고받은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자 중 3년 이상~5년 미만의 형을 선고받은 비율이 54.7%로 가장 높았으며, 1년 이상~3년 미만의 형이 35.8%, 5년 이상~10년 미만은 9.4%, 1년 미만과 10년 이상의 형을 받은 범죄자는 한명도 없었다.

성인범죄자의 경우에는 유기징역형을 선고받은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자 중 1년 이상~3년 미만의 형을 선고받은 비율이 34.7%로 가장 높았으며, 3년 이상~5년 미만의 형이 28.4%, 5년 이상~10년 미만이 24.1%, 10년 이상 8.9%를 차지하였고, 1년 미만의 형을 받은 범죄자는 3.9%에 불과하였다.

〈표 5-43〉 범죄자연령별 1심 유기징역의 형량

(단위: 명(%))

1심 유기징역의 형량	범죄자 연령		계
	미성년	성인	
1년 미만	0(0.0)	19(3.9)	19(3.5)
1년~3년 미만	19(35.8)	171(34.7)	190(34.8)
3년~5년 미만	29(54.7)	140(28.4)	169(31.0)
5년~10년 미만	5(9.4)	119(24.1)	124(22.7)
10년 이상	0(0.0)	44(8.9)	44(8.1)
계	53(100.0)	493(100.0)	546(100.0)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자 구체적인 선고형량을 살펴보았다(<표 5-44> 참조). 미성년범죄자의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자 중 3년 이상~5년 미만의 형을 선고받은 비율이 66.7%로 가장 높았으며, 1년 이상~3년 미만이 33.3%, 5년 이상~10년 미만은 한명도 없었다.

성인범죄자의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자 중 1년 이상~3년 미만을 선고받은 비율이 52.9%로 가장 높았으며, 3년 이상~5년 미만의 형이 45.6%, 5년 이상~10년 미만이 1.5%에 불과하였다.

〈표 5-44〉 범죄자연령별 1심 집행유예의 형량

(단위: 명(%))

1심 집행유예의 형량	범죄자 연령		계
	미성년	성인	
1년~3년 미만	2(33.3)	36(52.9)	38(51.4)
3년~5년 미만	4(66.7)	31(45.6)	35(47.3)
5년~10년 미만	0(0.0)	1(1.5)	1(1.4)
계	6(100.0)	68(100.0)	74(100.0)

범죄유형별로 유기징역 및 집행유예의 평균형량을 분석한 결과는 <표 5-45>에 제시하였다. 먼저 유기징역의 평균형량을 살펴보면, 미성년범죄자의 경우에는 평균형량이 38.04개월이었으며, 형량이 가장 낮은 경우는 18개월, 가장 높은 경우는 108개월(9년)

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범죄자의 경우에는 평균형량이 52.11개월이었으며, 형량이 가장 낮은 경우는 6개월, 가장 높은 경우는 300개월(25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 범죄자에 비해 성인범죄자의 유기징역 형량이 더 높았다.

집행유예를 받은 범죄자들의 평균기간을 살펴 본 결과, 미성년범죄자의 경우에는 평균기간은 34.00개월이었으며, 기간이 가장 짧은 경우는 24개월, 가장 높은 경우는 48개월(4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범죄자의 경우에는 평균기간이 31.24개월이었으며, 기간이 가장 짧은 경우는 12개월, 가장 긴 경우는 60개월(5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 범죄자의 집행유예 형량이 성인범죄자에 비해 다소 높았으나 크게 차이는 나지 않았다.

〈표 5-45〉 범죄자연령별 1심 유기징역 및 집행유예 평균 형량

구분		평균	사례수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유기징역평균형량 (월)	미 성 년	38.04 월	53	16.00	18	108
	성 인	52.11 월	493	42.48	6	300
	계	50.74 월	546	40.87	6	300
집행유예평균형량 (월)	미 성 년	34.00 월	6	9.03	24	48
	성 인	31.24 월	68	9.30	12	60
	계	31.46 월	74	9.25	12	60

징역형, 집행유예, 벌금형 등과 같은 선고형의 종류이외에 2009년부터 새롭게 도입된 전자발찌부착명령 부과현황을 미성년범죄자여부에 의한 살펴본 결과(〈표 5-46〉 참조), 미성년범죄자의 경우에는 113명 중 7명(6.2%)이 부착명령을 부과받았으며, 성인범죄자의 경우에는 842명 중 157명(18.6%)이 부착명령을 부과받았다. 미성년범죄자에 비해 성인범죄자의 부착명령을 부과받은 비율이 3배나 높았다.

〈표 5-46〉 범죄자연령별 1심 전자발찌 부착명령 여부

(단위: 명(%))

전자발찌 부착명령 여부	범죄자 연령		계
	미성년	성인	
그렇다	7(6.2)	157(18.6)	164(17.2)
아니다	106(93.8)	685(81.4)	791(82.8)
계	113(100.0)	842(100.0)	955(100.0)

전자발찌 부착명령이 집행유예와 함께 선고되었는지 아니면, 형집행 후 부착으로 선고되었는지를 살펴본 결과를 <표 5-47>에 제시하였다. 미성년범죄자의 경우에는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범죄자의 71.4%는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집행유예에 수감명령 등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가 28.6%였다. 성인범죄자의 경우에는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범죄자 중 87.9%가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집행유예에 수감명령 등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가 5.7%, 치료감호 5.1%였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는 한명 있었다.

<표 5-47> 범죄자연령별 전자발찌 부착명령여부별 1심 선고형의 종류

(단위: 명(%))

1심 선고형 종류	범죄자 연령		계
	미성년	성인	
징역형	5(71.4)	138(87.9)	143(87.2)
집행유예	0(0.0)	1(0.6)	1(0.6)
집행유예 + 부과처분	2(28.6)	9(5.7)	11(6.7)
치료감호	0(0.0)	8(5.1)	8(4.9)
기 타	0(0.0)	1(0.6)	1(0.6)
계	7(100.0)	157(100.0)	164(100.0)

마지막으로 전자발찌 평균부착기간을 살펴보면(<표 5-48> 참조), 미성년범죄자의 경우에는 6.29년이었고, 부착기간이 가장 짧은 경우가 2년, 가장 긴 경우가 20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범죄자의 경우에는 평균기간이 5.49년이었고, 부착기간이 가장 짧은 경우가 2년, 가장 긴 경우가 20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범죄자에 비해 미성년범죄자의 평균부착기간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표 5-48> 범죄자연령별 평균 전자발찌 부착기간

구분	평균	사례수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미 성 년	6.29 년	7	6.317	2	20
성 인	5.49 년	157	2.688	2	20
계	5.52 년	164	2.900	2	20

2) 항소 및 상고여부와 최종심의 선고형

미성년범죄자여부에 의한 1심에 대한 선고결과에 대한 항소 및 상고여부를 살펴보았다(<표 5-49> 참조). 미성년범죄자의 경우에는 26.5%는 항소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항소한 경우가 27.4%, 검사가 항소한 경우가 23.9%, 쌍방이 항소한 경우가 22.1%였다. 성인범죄자의 경우에는 31.4%는 항소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항소한 경우가 28.6%, 검사가 항소한 경우가 15.8%, 쌍방이 항소한 경우가 24.2%였다.

〈표 5-49〉 범죄자연령별 항소여부 및 그 결과

(단위: 명(%))

구분		범죄자 연령		계
		미성년	성인	
항소 여부	항소하지 않음	30(26.5)	264(31.4)	294(30.8)
	피고인이 항소	31(27.4)	241(28.6)	272(28.5)
	검사가 항소	27(23.9)	133(15.8)	160(16.8)
	쌍방이 항소	25(22.1)	204(24.2)	229(24.0)
	계	113(100.0)	842(100.0)	955(100.0)
항소 결과	항소 기각	45(54.2)	360(62.0)	405(61.0)
	2심 진행	38(46.8)	221(38.0)	259(39.0)
	계	83(100.0)	604(100.0)	664(100.0)

항소결과를 살펴보면, 미성년범죄자의 경우에는 54.2%가 기각되었으며, 나머지 46.8%만이 2심으로 넘어갔다. 성인범죄자의 경우에는 62.0%는 기각되었고, 나머지 38.0%만이 2심으로 넘어갔다. 미성년범죄자에 비해 성인범죄자의 기각율이 다소 높았다.

2심에서 3심으로 상고한 경우를 살펴보면(<표 5-50> 참조), 미성년범죄자의 경우에는 86.1%가 상고하지 않았고, 나머지 13.9%만이 상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고주체를 살펴보면, 모두 피고인이 상고하였다. 성인범죄자의 경우에는 74.8%가 상고하지 않았고, 나머지 25.2%만이 상고를 하였다. 상고주체는 피고인이 22.4%, 쌍방이 2.3%였고, 검사가 상고한 경우 0.5%였다. 미성년범죄자의 상고율이 성인범죄자의 상고율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고결과를 살펴본 결과 모두 기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50〉 범죄자연령별 상고여부

(단위: 명(%))

상고여부	범죄자 연령		계
	미성년	성인	
상고하지 않음	31(86.1)	160(74.8)	191(76.4)
피고인이 상고	5(13.9)	48(22.4)	53(21.2)
검사가 상고	0(0.0)	1(0.5)	1(0.4)
쌍방이 상고	0(0.0)	5(2.3)	5(2.0)
계	36(100.0)	214(100.0)	250(100.0)

이러한 과정을 거쳐 진행된 사건의 최종심 선고형의 종류를 살펴본 결과(<표 5-51> 참조), 미성년범죄자의 경우에는 집행유예에 사회봉사 등이 부과된 경우가 59.3%로 가장 높았고, 징역형(유기징역)을 선고받은 경우가 33.6%였으며 집행유예 6.2%였다. 성인범죄자의 경우에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비율이 59.9%로 가장 높았고, 집행유예에 사회봉사 등이 부과된 경우(30.9%), 집행유예(10.7%), 벌금형(3.9%)의 순이었으며,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비율은 1.9%에 불과하였다.

〈표 5-51〉 범죄자연령별 최종심 선고형의 종류

(단위: 명(%))

최종심 선고형의 종류	범죄자 연령		계
	미성년	성인	
징역형	38(33.6)	136(59.9)	481(50.4)
사형	0(0.0)	1(0.1)	1(0.1)
무기	0(0.0)	2(0.2)	2(0.2)
유기	38(33.6)	440(52.3)	478(50.1)
집행유예	7(6.2)	90(10.7)	97(10.2)
집행유예+부가처분	67(59.3)	260(30.9)	327(34.2)
집행유예+사회봉사	5(4.4)	30(3.6)	35(3.7)
집행유예+보호관찰	11(9.7)	30(3.6)	41(4.3)
집행유예+보호관찰+사회봉사	7(6.2)	21(2.5)	28(2.9)
집행유예+보호관찰+수강명령	17(15.0)	42(5.0)	59(6.2)
집행유예+보호관찰+사회봉사+ 수강명령	18(15.9)	24(2.9)	42(4.4)
집행유예+수강명령+사회봉사	2(1.8)	39(4.6)	41(4.3)
집행유예+수강명령	7(6.2)	74(8.8)	81(8.5)
치료감호	0(0.0)	16(1.9)	16(1.7)
벌금	1(0.9)	33(3.9)	34(3.6)
계	113(100.0)	842(100.0)	955(100.0)

범죄자연령별로 최종심에서 유기징역형을 받은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자의 평균형량을 살펴보면(<표 5-52> 참조), 범죄유형별로 살펴보면, 강간범죄의 경우 미성년범죄자는 최종심의 유기징역 평균형량은 38.81개월로 1심의 38.53개월에 비해 높아졌으나 거의 차이는 없었다. 성인범죄자는 1심의 68.84개월에 비해 최종심이 69.83개월로 다소 높아졌다. 강제추행의 경우, 미성년범죄자는 1심의 35.25개월에서 최종심 38.00개월로 다소 높아졌으며, 성인범죄자는 1심의 32.33개월에서 최종심 32.03개월로 다소 낮아졌으나 거의 차이가 없었다.

〈표 5-52〉 범죄자연령별 최종심 유기징역형 평균형량

범죄유형		1심			최종심		
		평균	사례수	표준편차	평균	사례수	표준편차
강간	미성년	38.53 월	45	15.80	38.81	32	17.84
	성인	68.84 월	267	45.81	69.83	239	45.37
	계	67.47 월	312	44.09	66.17	271	44.18
강제추행	미성년	35.25 월	8	17.89	38.00	6	19.60
	성인	32.33 월	226	27.18	32.03	201	26.32
	계	32.43 월	234	26.90	32.21	207	26.14

다.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다음은 마지막으로 신상정보등록자 중 공개대상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분석한 결과(<표 5-53> 참조), 2010년 신상정보등록대상자 중 공개명령대상이 된 범죄자는 미성년범죄자인 경우에는 15.9%(18명), 성인범죄자인 경우에는 30.4%(256명)로 미성년범죄자에 비해 성인범죄자가 공개명령대상이 된 비율이 보다 높았다.

〈표 5-53〉 범죄자연령별 신상공개여부

(단위: 명(%))

신상공개여부	범죄자 연령		계
	미성년	성인	
등 록	86(76.1)	333(39.5)	419(43.9)
열람명령	9(8.0)	253(30.0)	262(27.4)
공개명령	18(15.9)	256(30.4)	274(28.7)
계	113(100.0)	842(100.0)	955(100.0)

제6장 요약 및 결론

1. 주요결과의 요약

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특성

1) 2010년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의 개요

◎ 범죄자 및 피해자 수

2010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로 신상정보등록대상이 된 범죄자는 1,005명이며, 피해 아동·청소년은 범죄자보다 다소 더 많은 1,316명이다. 범죄자를 기준으로 범죄유형별 분포를 보면, 강제추행이 51.3%(516건)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이 강간 43.7%(439건), 성매매알선 3.2%(32건), 성매매강요 1.2%(12건), 성매수 0.6%(6건)의 순이었다.

◎ 피해자연령, 범죄자연령, 피해자와 범죄자관계별 분포

- 전체의 39.0%(391건)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였으며, 40.8%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강간과 강제추행)였다. 2009년의 46.7%에 비해 감소하였다.
-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중 17.2%가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였으며, 18.0%가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범죄였다. 이는 2009년의 13.9%에 비해 증가한 수치이다.
- 미성년자(19세미만)에 의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전체 성폭력범죄의 11.8%가 미성년자에 의한 성폭력범죄로 2009년의 8.5%에 비해 다소 증가한 수치이다.

2)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특성

◎ 사회인구학적 특성

- 성: 전체 성범죄자의 99.1%(990명)가 남성이었으며, 여성 범죄자는 0.9%(9명)에 불과하였고, 이 중에 2명은 강제추행범죄자이며, 나머지 7명은 성매매알선/강요 범죄자였다.
- 연령분포 및 평균연령: 강간은 20대의 비율이 26.7%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10대(25.7%) 순으로 20대 이하의 비율이 전체의 과반수이상(52.4%)을 차지하였다. 이에 비해 강제추행은 40대의 비율이 25.8%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이 30대(22.1%), 50대(20.9%)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60대 이상의 비율이 13%나 되어 다른 범죄유형에 비해 고연령층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성매매알선/강요의 경우 20대(45.5%, 20명)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이 10대(20.5%, 9명) 순이었다. 전체 범죄자의 평균연령은 37.44세였으며, 범죄유형별로 보면, 강제추행범죄자의 평균연령이 43.59세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강간범죄자 31.16세였으며, 성매매알선/강요범죄자는 28.23세로 평균연령이 가장 낮았다.
- 직업: 모든 범죄유형에서 무직자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강간은 무직자 이외에 학생과 단순노무직이 높은 비율을 차지한 반면에, 강제추행은 무직자 이외에 단순노무직과 관리직, 사무직의 비율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전체 성범죄자의 6.3%가 청소년보호직종 종사자로 2009년의 3.8%에 비해 약 2.5% 포인트 증가하였으며, 강제추행범죄자 중 청소년보호직종 종사자는 54명(10.5%)로 강간범죄에 비해 약 9배 정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지적장애 및 정신과 병력: 전체 성범죄자의 4.2%(40명)가 지적장애자이며, 6.1%(58명)가 과거에 병원에서 정신감정을 받거나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적장애자 및 정신과 병력자의 비율은 강간보다는 강제추행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 범죄경력

- 범행당시 형사처분 집행 중인지의 여부: 강간범죄자의 6.1%, 강제추행범죄자의 3.3%, 성매매알선/강요범죄자의 4.5%가 본 건 이전에 저지른 범죄로 형사처분 집행 중에 본건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간범죄자의 경우 다

른 범죄유형에 비해 형사처분 집행 중(보호관찰이나 집행유예 중)에 본 범죄를 저지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범죄경력유무: 전체 성범죄자의 25.5%가 1회 이상의 범죄경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데, 이는 2008년의 44.1%, 2009년의 46.1%에 비해 약 20% 포인트 정도 감소한 수치이다. 1회 이상의 범죄경력이 있는 범죄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범죄는 강간이었고(28.2%), 그 다음이 강제추행(25.4%)이었다.
- 동종범죄경력 및 회수: 전체 범죄자의 13.1%가 성범죄경력(동종범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종범죄경력자 중 상당수가(65.6%) 1회의 동종범죄경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3회 이상의 동종범죄경력을 갖고 있는 범죄자가 13.7%였고, 이는 2009년에 비해 약 2배 정도 증가한 수치이다.
- 동종범죄경력내용: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경력(79명)보다는 성인대상 성범죄 경력(106명)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고,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강간에 비해 과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경력자 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 피해 아동·청소년의 특성

◎ 사회인구학적 특성

- 성별: 여자 아동·청소년이 96.0%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남자 아동·청소년은 52명(4.0%)이었다.
- 연령분포 및 평균연령: 강간범죄는 16세이상 집단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보다 어린 연령층인 7세이상~12세이하의 비율이 57.8%(402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전체 피해자의 평균연령은 13.0세였고, 강간 피해자 14.6세, 강제추행 피해자 11.5세, 성매매알선/강요범죄 16.0세로 강제추행 피해자의 평균연령이 가장 낮고, 성매매알선/강요 피해자의 평균연령이 가장 높았다. 남자 피해 아동·청소년의 평균연령은 11.5세, 여자 피해 아동·청소년의 평균연령은 13.1세로 남자 피해 아동·청소년의 평균연령이 더 낮았다.
- 장애여부 및 유형: 전체 피해 아동·청소년의 4.0%(52명)가 장애인이었으며, 대부분 지적장애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제추행에 비해 강간 피해 아동·청소년의 장애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 가출여부: 전체 피해 아동·청소년의 7.2%에 해당되는 94명이 가출상태에서 성범죄 피해를 당하였으며, 범죄유형별로는 성매매알선/강요 피해 아동·청소년의 26.2%, 강간 피해 아동·청소년 10.2%가 가출상태에서 피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 범죄자와의 관계

- 강간의 경우 낯선 사람보다 면식범에게 범죄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면식범 중 친부나 의부,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되어 몇 번 만난 적이 있는 사람에게서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혀 모르는 사람 중 인터넷 등을 통한 즉석만남이 이루어져 범행당일 처음 만난 사람의 비율도 17.2%로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강제추행은 전혀 모르는 낯선 사람에게 범죄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강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았고, 면식범 중에서는 선생님, 안면만 있는 사람, 이웃이나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의 범행 특성

◎ 범행의 다중성 및 지속성

- 범행의 다중성: 전체범죄 중 34.7%, 강간의 27.5%, 강제추행의 40.2%가 범죄자가 여러 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동종범죄의 피해를 입힌 것으로 나타났다. 2명 이상의 다수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45.9%는 아동피해자로만 구성되어 있었고, 32.7%가 청소년피해자로만 구성되어 있었으며, 21.4%가 아동과 청소년 피해자가 모두 포함되어 있었다. 강간범죄는 피해자가 모두 청소년로만 구성된 경우가 66.9%로 가장 많은 반면에, 강제추행은 피해자가 모두 아동(13세미만)으로만 구성된 경우가 62.5%로 가장 많았다.
- 범행의 반복성: 동일한 피해자에 대해 범행을 1회 이상 저지른 경우가 총 27.1%(332건)이고, 그 지속기간을 살펴보면, 1개월 미만이 9.1%(111건), 1개월 이상~5개월 미만이 6.3%(77건), 6개월 이상~1년 미만이 4.4%(54건), 1년 이상이 7.3%(90건)이었다. 2회이상 범행을 반복한 비율은 범죄유형별로 큰 차이를 보이

지 않으나, 강간은 6개월 이상 지속되는 비율이 강제추행에 비해 더 높았다. 범죄자와 피해자가 전혀 모르는 관계의 83.5%가 범행이 1회로 끝났으나, 범죄자와 피해자가 아는 관계의 45.5%, 가족 및 친척관계인 경우에는 80.0%가 범행이 1회 이상 지속된 것으로 나타나, 면식범이고 친밀도가 높아질수록 범행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범행발생장소 및 시간

- 범행발생지역과 범죄자 거주지역과의 동일성 여부: 전체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의 47.3%가 범행발생지역과 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 범행발생장소: 강간의 경우 81.2%가 옥내에서 발생한 반면에,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56.1%만이 옥내에서 발생하였다. 구체적인 장소를 보면, 강간은 집에서 발생하는 비율이 54.3%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공공기관 및 상업지역(25.9%), 야외·거리·산야·대중교통시설(6.0%) 등의 순이었다. 강제추행은 강간과 마찬가지로 집에서 발생하는 비율이 가장 높기는 하였으나 그 수치는 상대적으로 낮아 33.8%였으며, 그 다음이 야외·거리·산야·대중교통시설 등(17.2%), 공공기관 및 상업지역(14.2%), 주택가 및 이면도로(10.6%), 자동차안(6.0%) 등의 순이었다.
- 범행발생시간: 강간 10건 중 6건 정도가 자정부터 아침 8시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강제추행 10건 중 6건 정도가 오후 3시에서 밤 11시 사이에 발생하였다.

◎ 범행당시 범죄자 및 피해자의 상태

- 범죄자의 음주 및 약물복용상태: 강간범죄자의 29.2%, 강제추행범죄자의 19.2%가 범행당시 음주상태였고, 범행당시 만취상태였던 범죄자의 비율은 강제추행이 5.0%로 강간의 1.5%보다 더 높았다. 한편, 범행당시 약물복용상태였던 경우는 강간범죄자 3명, 강제추행범죄자 3명 총 6명(0.5%)에 불과하였다.
- 피해자의 음주상태: 강제추행의 1.2%, 강간의 22.3%가 피해당시 피해자가 음주상태고, 만취상태였던 피해자의 비율은 14.2%였다.

◎ 범행방법

- 주거침입 및 흥기사용여부: 전체 성폭력범죄의 14.1%가 범죄자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으며, 9.6%가 범행당시 흥기를 소지하거나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 범행장소로 데려간 방법: 주거침입, 피해자가 수면상태이거나 만취상태, 피해자와 범죄자가 공동거주지에 사는 경우 등 범행을 위해서 피해자를 은밀한 장소로 데려갈 필요가 없는 경우가 전체의 약 60%정도를 차지하였다. 나머지 40%에서 피해 아동·청소년을 범행 장소로 데려간 방법을 살펴보면, 폭력이나 완력 등과 같은 물리력을 이용해서 범행 장소로 데려가기보다는 사칭 및 위장, 금품, 놀이 등으로 통해서 범행 장소로 유인한 경우가 훨씬 더 많았다.
- 강제추행방식: 성기 이외의 성적접촉 493건(44.9%), 피해자의 성기접촉(290건, 26.4%), 성적 키스(123건, 11.2%)순. 이외에도 구강성교, 항문성교, 질 등에 손가락이나 이물질 삽입 등과 같은 유사성교행위의 비율도 9.4%를 차지하였다.
- 강간유형과 기수여부: 전체의 84.5%가 일반적인 강간사건인 반면에, 강도강간이 2.3%, 윤간사건이 12.9%, 강도강간이면서 윤간인 경우가 1건, 강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으나 방조한 사건이 1건이 있었다. 전체 사건 중 강간이 미수에 그친 경우가 21.8%를 차지하였다.
- 가학적 변태적 침해행위 및 극도의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 13.7% 사건에서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가 발생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구강성교강요가 가장 빈번히 발생하였으며, 그 다음이 항문강간, 피해자결박, 음부이물질 삽입 등의 순이었다. 극도의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는 이보다 작은 5.6%의 사건에서 발생하였고, 범행과정을 촬영한 경우가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였다.

◎ 피해결과

- 강간과 강제추행 공히 강간이나 강제추행이외의 피해가 없는 경우가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며, 특히 강제추행은 92.3%가 강제추행이외의 다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강간은 69.5%가 강간이외의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청소년대상 강간의 경우 피해자가 성인이 아니라 아동·청소년

이어서 대부분 강간범죄로 인해 처녀막파열이라는 신체적인 상해를 입게 되나 판결문을 통해서 이러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워서 본 연구에서는 이를 신체적인 피해로 집계하지 못하였다. 강간이외의 피해를 입은 경우 그 구체적인 피해 내용을 살펴보면, 음부 이외의 외상이 13.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음부 이외의 상처나 감염 순이었다. 낮은 비율이기는 하지만, 피해자가 임신(11명)을 하거나, 사망한 경우(9명)도 발생하였다.

5) 아동·청소년대상 성매매알선/강요범죄의 범행 특성

◎ 범행발생지역 및 영업형태

- 성매매강요범죄의 과반수 이상(55.6%, 10/18)은 광주광역시에서 발생한 반면에, 성매매알선범죄의 과반수 이상(58.6%, 34/58)은 서울특별시에서 발생하였다. 영업형태로는 단란주점(25.0%)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이 티켓다방(22.6%), 인터넷알선(21.4%), 보도방(13.1%)의 순이었다. 2009년의 자료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알선이 38.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나 2010년 자료에서는 그 비율이 약 15%정도 낮아졌고, 다시 티켓다방의 비율이 증가하였다.

◎ 범행방법

- 성매매강요범죄의 구체적인 범행내용: 영업으로 청소년을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70.6%, 12건), 그 다음은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하여 청소년을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경우가 23.5%(4건)를 차지하고 있으며, 위계나 선불금, 그 밖의 채무를 이용하여 곤경에 빠뜨려 청소년을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경우는 1건이었다.
- 성매매알선범죄의 구체적인 범행내용: 73.9%(51건)가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 권유 또는 강요한 경우였고, 14.5%(10건)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한 경우이다. 마지막으로 11.6%(8건)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경우였다.

6)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처분 결과

◎ 1심 선고형의 종류와 형량

- 1심 선고형의 종류: 강간의 경우 징역형의 비율이 71.3%로 세 가지 범죄유형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이 집행유예로 전체의 27.3%를 차지하였다. 치료감호처분을 선고받은 경우는 5명이었으며, 벌금형을 선고받은 범죄자는 한명도 없었다. 강제추행의 경우 징역형의 비율이 45.7%로 가장 높기는 하였지만, 집행유예 선고비율이 45.5%로 징역형의 비율과 거의 차이가 없고, 벌금형의 비율이 6.2%로 세 가지 범죄유형 중 상대적으로 높았다. 성매매알선/강요의 경우에는 집행유예의 비율이 68.2%로 세 가지 범죄유형 중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징역형으로 31.8%를 차지하였고, 치료감호, 벌금형을 선고받은 범죄자는 한명도 없었다.
- 1심 유기징역형 선고형량: 강간의 경우에는 3년 이상~5년 미만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자가 36.2%(113명)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5년 이상~10년 미만(34.3%, 107명), 10년 이상이 11.5%(36명)를 차지하였다.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1년 이상~3년 미만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57.7%, 135명), 3년 이상~5년 미만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자들이 23.9%(56명), 1년 미만을 선고받은 범죄자들이 7.7%(18명) 등의 순이었다. 성매매알선/강요의 경우에는 1년 이상~3년 미만이 57.1%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3년 이상~5년 미만(35.7%)의 순이었다.
- 1심 유기징역형 평균 선고형량: 강간범죄 평균형량은 64.47개월, 강제추행범죄 32.32개월, 성매매알선/강요범죄 29.71개월로, 강간범죄의 평균형량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은 강제추행, 성매매알선/강요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평균형량이 가장 높은 강간범죄의 경우에는 표준편차가 커 강간범죄 내에서도 형량이 큰 차이를 보인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전자발찌부착명령: 강간범죄자의 19.4%, 강제추행범죄자의 15.3%가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선고받았다.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범죄자 중 87.2%가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7.3%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4.9%가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은 집행유예 후 지역사회내 감시감독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매우 적고, 대부분이 형기 만료

(징역형이나 치료감호) 후 고위험범죄자에 대한 지역사회내 감시감독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항소 및 상고여부

- 항소여부 및 그 결과: 최종심의 선고형 68.3%가 항소하였고, 항소사건 중 38.8%만이 2심으로 진행되었다. 2심이 진행된 사건 중 25.2%가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나. 13세미만 아동대상 성폭력범죄의 특성

1) 13세미만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자의 특성

◎ 사회인구학적 특성

- 연령: 피해자가 13세미만의 아동인 경우에는 40대의 비율이 27.2%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30대(20.1%), 50대(18.8%) 등의 순이었고, 피해자가 13세이상의 청소년인 경우에는 20대의 비율이 26.2%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40대(21.5%), 30대(20.6%) 등의 순으로 나타나 13세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피해자와의 나이차가 많은 범죄자들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 직업: 피해자가 아동인가 청소년인가에 관계없이 무직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13세미만 아동인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관리자와 단순노무직의 비율이 높았고, 학생의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보호직종 종사자의 비율은 13세미만 9.3%, 13세이상 4.3%로 청소년보다는 아동이 청소년보호직종 종사자로부터 피해를 당한 비율이 높았다.
- 지적장애 및 정신감정여부: 피해자가 13세미만의 아동인 경우에 피해자가 청소년인 경우에 비해 지적장애자의 비율(6.7% 대 2.5%)과 정신과 감정 및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는 비율(9.0% 대 4.1%)이 더 높았다.
- 범행당시 이전의 범죄로 인해 처분을 받고 있는 중이였는지의 여부: 피해자가 13세미만인 경우에는 범죄자의 3.9%, 13세이상인 경우에는 범죄자의 5.1%가 범행당시 이전의 범죄로 인해 처분을 받고 있는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 범죄경력: 피해자가 13세미만인 경우에는 73.3%는 범죄경력이 없었고 동종범죄 경력이 있는 경우가 15.7%, 이종범죄경력이 있는 경우가 13.4%였다. 피해자의 연령별로 범죄경력유무 및 유형에는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종범죄경력자만을 대상으로 범죄경력회수를 살펴본 결과, 피해자가 13세미만의 경우 2회 이상의 동종범죄경력자의 비율이 13세이상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2) 피해 아동·청소년의 특성

- ◎ 피해자가 13세미만의 아동인 경우에는 절반 이상이 낯선 사람(52.3%)에게 피해를 당하였으며 13세이상의 청소년인 경우(39.6%)보다 낯선 사람에게 당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3) 13세미만 아동대상 성폭력범죄의 범행 특성

- ◎ 범행의 다중성과 중복성: 13세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13세 이상 청소년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비해서 피해자수가 상대적으로 더 많았고, 1회 이상 범행이 지속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 범행발생장소 및 시간

- 범행발생장소: 13세미만의 아동이 청소년에 비해 옥외에서 피해를 당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장소별로 보면, 피해자 연령에 관계없이 집에서 피해를 당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13세미만 아동은 13세이상 청소년에 비해 주택가 및 이면도로, 학교, 학원 및 보육시설 등에서 피해를 당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에, 13세이상의 청소년은 아동에 비해 공공기관 및 상업지역 특히 숙박업소, 목욕탕, 찜질방 등에서 피해를 당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 범행발생시간: 13세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는 오후와 저녁시간대 발생비율이 높았고, 13세이상의 청소년을 대상으로는 새벽시간대의 발생비율이 높았다.

- ◎ 범행장소로 데려간 방법: 13세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는 사칭 및 위장으로 유인한 경우가 35.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금품(13.2%), 위협과 완력(각각 12.1%), 질문(10.9%) 등의 순이었다. 13세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13세이상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비해 금품이나 질문을 이용하여 범행 장소로 데려간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 강제추행방식: 13세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강제추행 유형 중 성기 이외의 성적 접촉(41.4%)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는 피해자의 성기접촉(29.1%), 성적 키스(10.9%)로 나타났다. 13세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경우에 13세이상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비해 피해자의 성기접촉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 강간유형과 기수여부: 13세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강간범죄를 살펴보면, 한 사건을 제외한 모든 사건이 일반적인 강간사건으로 윤간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수에 그친 경우는 19.0%로써 청소년을 대상으로 했을 때(26.2%)에 비해 미수에 그친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 ◎ 가학적 변태적 침해행위 및 극도의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 13세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서는 전체 유효사례 중 9.8%(52건)에서 가학적, 변태적 침해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13세이상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비해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를 한 비율은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13세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서는 전체 유효사례 중 2.4%(13건), 13세이상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서는 전체 유효사례 중 3.9%(27건)에서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가 발생하였다.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피해자의 연령에 상관없이 범행과정을 촬영한 비율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13세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61.5%)에서는 13세이상을 대상으로 한 범죄(77.8%)에 비해 범행과정을 촬영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피해결과

- 13세미만 아동피해자의 대부분은 강간이나 추행 이외의 피해가 없었고(90.6%), 음부 이외의 상처나 감염이 4.3%, 음부 이외의 외상이 3.4%로 나타났다. 사망한 경우는 한 건도 없었고, 임신이 된 경우는 534건 중 1건이 있었다. 13세미만의 아동피해자들은 13세이상의 청소년피해자들에 비해 강간이나 추행 이외의 피해를 입은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4) 13세미만 아동대상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처분 결과

◎ 1심 선고형의 종류와 형량

- 피해자가 13세미만 아동인 경우에는 13세이상인 경우보다 징역형의 선고율이 다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유기징역의 평균형량이 피해자가 13세미만인 경우에는 46.92개월이었으며, 13세이상인 경우에는 53.48개월이었으며, 13세미만에 비해 13세이상으로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유기징역의 형량이 다소 높았다. 이는 13세미만 아동대상 범죄의 상당수가 강제추행범죄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 전자발찌 부착 여부

- 전자발찌 부착명령여부를 보면, 피해자가 13세미만 아동인 경우 26.0%, 13세이상인 경우 11.2%로, 청소년대상에 비해 아동대상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명령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 항소 및 상고여부

- 항소여부 및 그 결과: 피해자가 13세미만 아동인 경우 71.0%가 항소하였고, 항소사건 중 37.0%만이 2심으로 진행되었고, 13세이상은 68.1%가 항소하였고 항소사건 중 40.9%만이 2심으로 진행되었다. 2심으로 진행된 사건 중 13세미만은 26.0%, 13세이상은 22.6%가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다.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범죄의 특성

1)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범죄자의 특성

◎ 사회인구학적 특성

- 피해자와 범죄자가 친족관계인 경우 범죄자의 평균연령은 42.3세였고, 비친족관계인 경우 범죄자의 평균연령은 37.0세로 친족관계인 경우 범죄자의 평균연령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범죄경력

- 친족관계인 경우 범죄경력자의 비율이 18.9%로 비친족관계 28.5%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동종범죄경력자의 비율도 더 낮았다.

2) 피해 아동·청소년의 특성

◎ 사회인구학적 특성

- 친족관계인 경우에는 피해 아동·청소년의 평균연령은 12.9세이며, 비친족관계인 경우 12.8세로 친족관계별 피해 아동·청소년의 연령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범죄자와의 관계

- 구체적인 친족관계 유형을 살펴보면, 친부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의부, 4촌이내의 혈족 및 인척, 모의 동거인(내연남)의 순이었다.

3)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범죄의 범행특성

◎ 범행의 다중성 및 반복성

- 친족관계인 경우 피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22.4%로 비친족관계의 37.0%에 비

해 범행의 다중성 비율은 낮았으나, 친족관계인 경우 범행이 1회 이상 지속된 비율이 78.6%로 범행의 반복성 비율은 매우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범행지속기간을 살펴보면, 1개월 이하가 15.1%, 1개월 이상~5개월 미만인 13.5%, 6개월 이상~1년 미만인 14.1%, 1년 이상은 35.9%를 나타내 전체의 50% 이상이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 범죄자의 음주여부

- 친족관계인 경우에는 음주상태에서 발생한 비율이 12.5%였으나 비친족관계인 경우에는 음주상태의 비율이 25.1%로 친족관계인 경우에는 비친족관계에 비해 음주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비율이 훨씬 더 낮게 나타났다.

◎ 범행장소로 데려간 방법: 친족관계에서는 완력으로 유인한 경우가 27.3%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사칭 및 위장(25.0%), 위협(22.7%), 폭력(11.4%) 등의 순이었다. 친족관계에서는 비친족관계에 비해 완력이나 위협으로 유인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 강제추행방식: 친족관계에서는 강제추행 유형 중 성기 이외의 성적 접촉(34.3%)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는 피해자의 성기접촉(33.1%), 손가락의 항문 또는 질 삽입 (11.0%), 성적 키스(8.3%)의 순으로 나타났다. 친족관계인 경우에 비친족관계에 비해 한 사건에서 여러 가지 유형의 추행을 당한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강간유형과 기수여부: 친족관계에서는 모두가 일반적인 강간사건이었고, 미수는 9.8%였다.

◎ 가학적 변태적 침해행위 및 극도의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 친족관계에서는 대부분이 구강성교를 강요한 경우가 62.1%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음부에 이물질 삽입(13.8%), 항문강간(10.3%)의 순이었다. 친족관계에서는 비친족관계에 비해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의 비율이 다소 높았으며, 음부에 이물질 삽입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 피해결과

- 친족관계에 의한 피해자의 대부분은 강간이나 추행 이외의 피해가 없었고(80.6%), 음부 이외의 상처나 감염이 7.9%, 음부 이외의 외상이 6.8%로 나타났다. 사망한 경우는 한 건 있었고, 임신이 된 경우는 191건 중 8건이 있었다.

4) 친족관계별 성범죄자에 대한 처분 결과

◎ 1심 선고형의 종류 및 형량

- 친족관계에서는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의 비율이 78.7%, 비친족관계에서는 53.7%로 비친족관계에서보다 친족관계에서 징역형의 선고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기징역의 평균형량을 살펴보면, 친족관계인 경우에는 65.5개월, 비친족관계인 경우에는 46.1개월로 비친족관계에 비해 친족관계인 경우 유기징역의 형량이 더 높았다.

◎ 전자발찌 부착 여부

- 전자발찌 부착명령여부를 보면, 친족관계인 경우에는 24.3%, 비친족관계인 경우 16.0%로 성폭력범죄자가 피해자와 친족관계인 경우 전자발찌 부착명령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 항소 및 상고여부

- 항소여부 및 그 결과: 친족관계인 경우 79.3%가 항소하였고, 항소사건 중 41.8%만이 2심으로 진행되었고, 비친족관계인 경우는 67.3%가 항소하였고 항소사건 중 38.7%만이 2심으로 진행되었다. 2심이 진행된 사건 중 친족관계는 36.5%, 비친족관계는 19.9%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라. 미성년범죄자에 의한 성폭력범죄의 특성

1) 미성년 성폭력 범죄자의 특성

◎ 사회인구학적 특성

- 미성년범죄자인 경우에는 학생의 비율이 54.9%로 가장 높았고, 무직 34.5%, 서비스직 8.0%, 단순노무직 1.8% 순이었다.
- 미성년범죄자인 경우에는 113명 중 6명(5.3%)이 지적장애자였고, 8명(7.1%)이 정신과 병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성인범죄자에 비해 지적장애자 비율과 정신과 병력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범죄경력

- 미성년범죄자인 경우에는 91.2%는 범죄경력이 없었고, 동종범죄경력이 있는 경우와 이종범죄경력이 있는 경우가 각각 4.4%씩이었다. 성인범죄자에 비해 미성년범죄자인 경우에는 범죄경력이 없는 경우가 다소 높았다.

2) 피해 아동·청소년의 특성

- ◎ 미성년범죄자인 경우 피해 아동·청소년의 평균연령은 14.1세이고, 성인범죄자인 경우 피해 아동·청소년의 평균연령은 12.7세로 성인범죄자에 비해 미성년범죄자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평균연령이 더 높았다.

- ◎ 피해 아동·청소년과 범죄자와의 관계는 미성년범죄자인 경우에는 낯선 사람의 비율이 35.2%로 가장 높았고, 즉석 만남을 통해 알게 된 사람(25.6%), 안면만 있는 사람(9.6%)의 순이었다. 성인범죄자인 경우에는 낯선 사람의 비율이 46.4%로 가장 높았고, 즉석 만남을 통해 알게 된 사람, 안면만 있는 사람, 친부가 각각 6.6%씩이었다.

3) 미성년범죄자에 의한 성폭력범죄의 범행특성

- ◎ 미성년범죄자인 경우 피해자가 두 명이상인 경우가 25.2%, 범행이 지속된 경우가 9.9%로 성인범죄자에 비해 범행의 다중성과 지속성 비율이 훨씬 더 낮았다.
- ◎ 미성년범죄자는 옥외에서 범행을 저지른 비율이 26.0%로 성인의 33.9%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낮았다. 구체적인 장소별로 보면, 호텔, 여관, 펜션 등 숙박업소나 목욕탕, 찜질방 등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범죄자의 집이나 친구집 등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 ◎ 미성년범죄자에 의한 성폭력범죄의 약 과반수 정도가 자정에서 아침 8시 사이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 미성년범죄자인 경우에는 음주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비율이 39.0%로 성인 범죄자(21.6%)인 경우보다 음주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비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피해자가 음주상태였던 비율도 44.3%나 되어 범죄자뿐 아니라 피해자도 음주상태였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 ◎ 범행장소로 데려간 방법: 범죄자가 피해자를 범행 장소로 데려간 경우만을 대상으로 미성년범죄자는 사칭 및 위장이나 놀이(각각 23.1%)로 유인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위협(21.8%), 완력(14.0%) 등의 순이었다.
- ◎ 강제추행방식: 미성년범죄자의 경우에는 강제추행 유형 중 성기 이외의 성적 접촉(34.3%)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는 피해자의 성기 접촉과 손가락의 항문 또는 질 삽입(각각 15.6%), 구강성교(12.5%), 성적 키스(9.4%)의 순으로 나타났다. 미성년범죄자의 경우에는 강제추행 중 성기 이외의 성적 접촉, 피해자의 성기접촉 및 손가락의 항문 또는 질 삽입의 세가지 유형이 차지하는 비율이 65.6%로 나타났다.
- ◎ 강간유형과 기수여부: 미성년범죄자의 경우 일반적인 강간사건이 58.3%, 윤간이 39.8%로 나타나 윤간이 비율이 성인범죄자(7.0%)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고, 미수는 23.5%였다.

- ◎ 가학적 변태적 침해행위 및 극도의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 미성년범죄자는 전체 유효사례 중 19.8%(26건)에서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이 구강성교를 강요한 경우(76.9%)로 나타났다.
- ◎ 피해결과: 미성년범죄자의 경우 대부분은 강간이나 추행 이외의 피해가 없었고(71.9%), 음부 이외의 상처나 감염 및 음부 이외의 외상이 각각 9.4%로 나타났다, 사망한 경우가 139건 중 7건(5.0%)이 있었고, 임신이 된 경우는 139건 중 1건이 있었다.

4) 미성년범죄자에 대한 처분 결과

- ◎ 미성년범죄자의 51.0%가 특수강간 등의 죄로 처분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 미성년범죄자의 경우에는 1심에서 징역형과 집행유예에 사회봉사 등이 부과된 경우가 각각 46.9%로 가장 높았으며, 집행유예는 5.3%로 나타났다. 미성년범죄자의 유기징역 평균형량이 38.04개월이었고, 성인범죄자의 경우에는 평균형량이 52.11개월로 성인범죄자에 비해 미성년범죄자의 유기징역 형량이 더 낮았다.
- ◎ 전자발찌 부착 여부
 - 전자발찌 부착명령여부를 보면, 미성년범죄자는 6.2%, 성인범죄자는 18.6%로, 미성년성폭력범죄자가 성인에 비해 부착명령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낮았다.
- ◎ 항소 여부 및 결과
 - 미성년범죄자는 73.5%가 항소하였고, 성인범죄자는 68.6%가 항소하였으며, 성인범죄자에 비해 미성년범죄자의 항소 기각율이 다소 낮았다.

2. 시사점 및 정책제언

가. 아동대상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치료프로그램의 강화

2010년 자료분석결과 전체 성폭력범죄자 중 범죄경력자의 비율과 동종범죄경력자의 비율은 2009년에 비해 감소하였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3회 이상의 동종범죄경력을 갖고 있는 성폭력 범죄자의 비율이 증가하였고, 이러한 경향은 13세미만 아동대상 성폭력범죄자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아동대상 성폭력범죄자는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자에 비해 3회 이상의 동종범죄경력자의 비율이 더 높고, 이전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력자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13세미만 아동대상 성범죄자가 아동에 대한 성적 지향이 다른 유형의 범죄자보다 더 높으며, 소아성기호증의 증세를 보이는 범죄자가 다른 범죄유형에 비해 많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경향은 13세미만 아동대상 성폭력범죄자가 10명 중 4명 정도는 2명 이상의 아동·청소년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사실에서도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가 의미하는 것은 아동에 대한 성적인 지향이 분명한 성폭력 범죄자에게 교도소 구금형이나 보호관찰 등의 일상적이고 전형적인 처분을 통해서 이들의 재범가능성을 통제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들은 처벌보다는 아동지향적인 일탈적인 성적 관심을 효과적으로 중재하는 다양한 ‘치료’를 필요로 하는 대상이라 할 수 있다. 현재와 같은 처벌이나 사후통제 위주의 성폭력범죄자 재범억제정책에서 벗어나 대상자의 욕구와 특성에 적합한 다양한 치료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나.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관리

1) 주민고지제도의 철저한 시행

가출청소년이 피해를 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피해 아동·청소년들은 집을 중심으로 하여 그들의 생활반경 내에서 범죄피해를 당하게 된다. 즉, 범죄피해지역과 일상생활공간이 거의 일치한다. 본 연구에서도 범행지역과 범죄자의 거주지역과의 동일성 여부를 분석한 결과, 성폭력범죄 10건 중 5건은 범죄자가 거주하는 동과 범죄가 발생하는 동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자들이

자신들이 거주하는 지역(동)내에서 피해자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2010년 4월 15일 법개정으로 2011년 1월부터 시행되는 주민고지제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주민고지제도는 법원이 공개대상자 중 1)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의 지역주민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다.

이 제도는 지역주민들에게 같은 동네에 성폭력범죄자가 살고 있다는 점을 알려줌으로써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성폭력범죄자의 잦은 이사 등으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관리상의 복잡한 업무로 인해 제때에 고지가 안 되는 경우 자칫 제도의 효과를 낮출 수 있으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2) 취업제한제도의 철저한 시행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자 중 청소년보호직종 종사자의 비율이 6.3%로 2009년에 비해 2.5% 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제추행범죄자이거나 13세 미만 아동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일수록 청소년보호직종 종사자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는 청소년보호직종 종사자 중 4명은 이미 동종범죄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06년부터 시행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자의 취업제한제도가 청소년관련기관이 직원채용 시 성범죄자에 대한 조회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운영상의 허점이 많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 시설이 학교 학원이나 아동복지시설 뿐만 아니라 관리사무소, 개인과외교습자까지 확대된 상황에서 자율적으로 기관장으로 하여금 직원채용 시 성범죄자에 대한 조회를 하도록 요구하는 것보다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대상으로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성범죄 범죄경력자 취업사실 확인을 정례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다.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점점 강화

청소년 성매수의 수단으로 인터넷이 활용되고 있다는 점은 공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인터넷을 통한 성인 남성과 여자, 아동·청소년과의 만남은 단지 청소년의 자발성을 기초로 하는 성매수 범죄에 그치지 않고, 강간범죄 혹은 성매매알선 및 강요범죄로 나아가기도 한다. 본 보고서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아동·청소년대상 강간범죄의 17.2%가 인터넷을 통한 즉석만남을 통해 범행당시 처음 만난 사람에 의해서, 그리고 5.0%가 인터넷 채팅을 통해 한 두 번 만난 사람에 의해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매매알선 및 강요범죄의 경우에도 13.2%가 즉석만남을 통해 범행당시 처음 만난 사람에 의해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불건전한 만남 유도, 성매매 알선 등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화상채팅 및 애인 대행 사이트에 대해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결정해 고시함으로써 초기화면에서 정보제공 이전에 청소년유해표시, 성인인증에 대한 법적인 의무를 사업자에게 부과하고는 있지만 이들 사이트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청소년 유해매체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더불어 숙박업소에 대한 좀 더 철저한 계도와 단속이 필요하다. 아동·청소년대상 강간범죄의 21.2%가 숙박업소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로 가출한 남녀청소년들이 어울려 음주를 한 후 숙박업소 등에서 한명이나 다수의 여자청소년을 집단강간하는 성폭력사건의 상당수가 숙박업소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끼리 숙박업소에 들어가는 경우에도 별 제재 없이 숙박이 가능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남녀 청소년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특수강간죄의 경우 기본적으로 이들 청소년의 학교부적응의 문제와 같은 요인이나 가출 청소년에 대한 적절한 대책의 부재와 같은 좀 더 구조적인 요인이 자리 잡고 있으나 단기적으로는 숙박업소에서 미성년자여부를 확인하는 출입자에 대한 신분증 확인 제도를 더욱 강력히 집행하고, 이를 어겼을 경우 벌금 혹은 강력한 법적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도 상당한 예방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라. 아동 생활주변에 대한 인적·물리적 감시체계의 강화

13세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범죄유형은 강제추행이며, 범죄가 주로 일어나는 시간은 초등학교 4~6학년 아동들이 가장 많이 활동하는 오후 3시에서 8시 사이이다(전체의 약 54%). 또한 13세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

죄의 발생장소를 보면, 아동들이 주로 활동하는 아파트 내 계단, 엘리베이터나 놀이터, 골목이나 대로, 혹은 학교 및 학교주변, 공원, 운동장 등에서 많이 발생한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아동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장소를 중심으로 인적, 물리적 감시체계를 작동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인적인 감시체계의 측면을 살펴보면, 초등학교령기의 자녀에 대해 보호자가 계속 동행하여 보호 감시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기존에 이미 제도화되어 있는 “아동지킴이집”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통해 운영을 현실화·효율화시켜 지역사회 내 인적 감시능력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

“아동지킴이집”을 지정한 후 지구대의 정기적인 방문과 관리를 통해 활동이 제대로 되지 않는 곳은 등록을 취소하고, 새로운 곳을 등록해야 하며, 지킴이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체계적인 교육사업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현재 학교 교문을 중심으로 등록되어 있는 아동지킴이 집을 아동대상 성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동네주변, 학원가주변, 골목, 상가 등으로 지킴이집을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주택단지 및 학교주변에 자연감시, 접근통제, 영역성 강화, 환경정비 및 유지 등과 같은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Crime Prevention Thorough Environment Design)’의 기본원리를 적용하여 설계하고 운영함으로써 이들 장소가 아동에 대한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곳이 될수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CPTED란 적정한 환경설계와 기존 환경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 범죄와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줄임으로써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하는 범죄예방전략 중의 하나이다. 기존의 범죄예방전략과는 달리 CPTED는 범죄발생가능성이 많은 공간적·지역적 특성을 가진 장소에 대한 적절한 개선과 관리를 통해 범죄예방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CPTED는 자연적 감시, 접근통제, 영역성, 유지 및 관리 등을 기본원리로 하고 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연적 감시란 일반인들에 대한 가시권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건물이나 시설물을 배치하는 것을 말하며, 자연적 접근통제란 사람들을 도로, 보행로, 조경, 출입문 등을 통해 일정한 공간으로 유도함과 동시에 허가받지 않은 사람들의 진출입을 차단하여 범죄목표물에 대한 접근을 어렵게 만들하고 범죄행위예의 노출위험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영역성이란 지역주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함으로써 그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가상의 영역을 만드는 것을 말하며, 유지 및 관리는 시설이나 공공장소를 처음 설계된 대로 지속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초기에 CPTED는 주거지역설계에 활용되었으나 요즘에는 활용범위가 넓어져, 도로, 상가, 공원, 주차장, 놀이터, 학교 및 학원 등에도 적용되고 있다(박형민 외, 2009).

그런데 이와 같은 CPTED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범죄를 야기하는 공간적·환경적 요인들이 어떻게 그리고 어떤 조건하에서 상호작용하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아동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을 위한 CPTED의 적용을 위해서는 사고 및 연구방법의 전환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이전의 아동대상 성폭력범죄에 관련된 대책들은 범죄자 특성과 범행동기를 분석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범죄자의 치료나 사후관리대책을 마련하는데 집중되어 있었다.

그러나 범죄의 발생은 잠재적인 범죄자의 존재뿐만 아니라 범죄의 목표물이 되는 피해자 그리고 감시의 부족과 같은 세 가지 요인이 특정 시간과 공간에서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다. 따라서 범죄자에 대한 연구와 이를 토대로 한 대책제시뿐 아니라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가 발생했던 공간들에 대한 현장연구를 통해 그러한 범죄발생에 취약한 공간(공동주택 건축물의 구조, 도로, 공원, 엘리베이터, 공중화장실, 놀이터, 학원 및 학교)의 미시적 특성들을 찾아내고, 이러한 생활공간들에 대한 안전기준과 표준을 개발하고, 새로운 건축물이나 도로 설계시 이를 반영하거나 기존의 건축물이나 도로에 대한 추가적인 설치나 관리방식에 관한 공간중심적 범죄예방전략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예로는 학교라는 공간에 CPTED의 기본원리를 적용하여 안전성을 평가하고, 취약한 부분에 대한 대처전략을 마련하는 것이다. 범죄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한 곳으로 인식되었던 공간인 학교에 대해 안전진단을 내린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교는 CPTED의 기본적인 원리 중 접근통제가 가장 미약하고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강은영 외, 2010). 이는 우리나라의 학교개방정책시행의 결과에 따른 것이기는 하지만, 범죄예방전략의 측면에서 보면 이는 다시 재고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학교는 외부인들이 학교운동장, 교실, 체육관 등 시설에 들어갈 때 아무런 제약이 없어 학교 내에서 외부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해 매우 취약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외부방문자의 등록, 방문자의 행동지침안내, 방문증 제도 등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마. 지적장애 아동·청소년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최근 피해 아동·청소년 중 지적장애자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신체장애가 있는 경우보다는 지적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이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특히, 강간범죄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지적장애자의 경우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 보호자의 보호감독없이 혼자 행동하는 경우가 많으나 적절한 상황인지능력이 떨어져 성폭력범죄의 목표가 되는 경우가 신체장애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적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는 성폭력이 발생하는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주위에 알리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아 숨겨진 범죄가 많고, 장기간 지속되며, 임신 등을 통해 너무 늦게 주위에 알려져 피해결과가 심각해지는 경우가 많다.

특히, 지적장애자의 경우에는 13세미만 아동보다 13세이상의 청소년 피해자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데, 이는 지적장애를 가진 청소년의 경우 지각이나 상황판단능력은 아동 수준이어서 범죄자가 유인하거나 제압하기 쉽고, 신체적인 발달상황은 청소년이나 성인에 가까워 성폭력범죄의 피해대상으로 선택되는 경향이 더 높다. 이와 같이 지적장애를 가진 아동·청소년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피해대상이 되기 쉬운 특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인 및 연구자 그리고 정책입안자의 관심대상으로부터 벗어나 있었던 것이 현실이다. 앞으로 이들 피해자에게 관심을 갖고, 지적장애를 가진 아동·청소년이 성폭력에 노출되지 않도록 이들뿐만 아니라 보호자에 대한 성폭력예방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크다.

바. 성폭력범죄자 연구를 위한 연구지원강화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처우프로그램의 성패를 가로 짓는 중요한 열쇠는 재범위험성에 대한 평가라고 할 수 있다. 재범위험성의 평가를 위해서는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인구통계학적인 특성뿐 아니라 심리적 및 사회적 특성, 그리고 성폭력 범죄유형별 범죄적 특성 등 다면적인 분석을 요구한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기초연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관련 자료에 대한 연구자들의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한 분석연구는 제1차 신상공개대상자로부터 시작해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본 연구는 2010년 신상정보등록대상자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였다. 그러나 13차 신상공개대상자에 대한 분석부터는 수사기록에

대한 자료접근이 허용되지 않아 수사 및 재판기록에 대한 조사에서 판결문에 대한 조사로 조사범위가 축소되었으며, 2008년부터는 범죄경력조회표가 제공되지 않아 판결문만으로 범죄경력을 가늠할 수밖에 없어 범죄경력, 구체적 내용, 범죄경력 횟수, 처분결과, 초범시 연령 등 중요정보를 얻을 수 없었다. 이러한 현실에서는 정확한 재범위험성 평가를 위한 다면적인 기초분석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경찰청 등 관련부처들의 협의를 통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들의 특성을 분석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연구자들에게 풍부하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연구보고 2011-16

2011년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동향분석
- 신상정보등록대상자를 중심으로 -

2011년 8월 일 인쇄

2011년 8월 일 발행

발행인 : 김 금 래

발행처 : 여성가족부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 플레이스

전화 / 02-2075-4500(代)

인쇄처 : 범 신 사

전화 / 02-503-8737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복제를 금함.

행정간행물등록번호 11-1383000-000150-01